



2019  
**속초민속예술**  
 이야기마당

장정룡(강릉원주대학교 교수)





# 속초 민속예술 이야기마당

장정룡(강릉원주대학교 교수)



발간사 .....	03
<b>I. 민요이야기 마당 .....</b>	<b>04</b>
1. 속초도문농요(강원도 무형문화재 제20호) .....	04
2. 속초아리랑 .....	42
3. 돈돌라리 .....	62
<b>II. 민속극이야기 마당 .....</b>	<b>94</b>
1. 속초사자놀이(강원도 무형문화재 제31호) .....	94
<b>III. 농악이야기 마당 .....</b>	<b>138</b>
1. 속초도리원농악 .....	138
<b>IV. 민속놀이이야기 마당 .....</b>	<b>231</b>
1. 논뫼호 불꽃놀이 .....	232
2. 외옹치 고평이 .....	234
3. 만천동 나룻배싸움놀이 .....	237
4. 산대소리와 뱃소리 .....	241
5. 사진리 든대질놀이 .....	248
6. 밧독재 용왕수살굿, 군웅장군굿놀이 .....	252
7. 설악산신맞이놀이굿, 물치용왕굿 용떡놀이 .....	255
8. 짱치기 놀이 .....	258
9. 도문 붓물싸움놀이 .....	260
10. 영랑동 지정다지기 .....	263



## 발간사

속초문화원 향토사안내서 「속초 민속예술의 이야기마당」이 발간되었습니다. 우리 지역 출신인 장정룡 강릉원주대학교 교수가 집필한 저서 「속초 민속예술 이야기마당」에는 민요이야기, 민속극이야기, 농악이야기, 민속놀이이야기 등 총 4가지의 마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러 가지의 속초향토문화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강원도무형문화재인 ‘속초도문농요’와 몇 번의 실패 끝에 올해 초 강원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속초사자놀이’를 비롯하여 ‘도리원농악’ ‘논피호 불꽃놀이’ ‘만천동 나룻배싸움놀이’ 등 여러 편의 민속예술들에 대한 연구자료들입니다.

오랫동안 속초지역 향토민속을 조사·연구하고 이를 토대로 왕성한 집필 활동을 이어온 장정룡 교수님은 전문분야에서의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우리 지역의 향토문화 발전에 많은 공헌을 해 오셨습니다.

몇 해에 걸친 신청 끝에 올해 결국 ‘강원도무형문화재 지정’이라는 값진 결실을 가져온 ‘속초사자놀이’ 역시 학문적 연구와 조연을 아끼지 않으셨던 노고가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의 향토문화발굴과 이를 선양하고 계승하는 일련의 작업들은 많은 학자 분들과 전문가들의 열정과 땀들로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많은 분들이 값진 향토문화유산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발간된 「속초 민속예술 이야기마당」을 통해 우리 지역의 귀중한 향토문화유산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고, 이를 통해 보존·전승·발전의 노력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기를 하는 바람을 발간사에 함께 담아봅니다.

감사합니다.

2019. 12.

속초문화원장 김 계 남

## I. 민요이야기 마당

### 1. 속초도문농요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20호)



속초도문농요는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20호(2007년 2월 23일)로 지정되었다. 현재 보유자는 오순석·오명현·최도수 3명이며, 전수교육조교는 김환기·박원규·허영희, 전수장학생은 오준석·김용학·오진석·박용필·박용성·김영애 등이 지정되었다.<sup>1)</sup>

도문농요가 전승되는 도문동은 속초지역 3대 하천 중 가장 남쪽에 위치한 쌍천을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되어있다. 현재 이곳은 생활권역이 크게 3권역으로

1)속초도문농요 제20호(2007.2.23.) 보유단체:속초도문농요보존회(2008.3.21.), 보유자:오순석(남.40.1.12, 2007년 2월 23일 선정), 오명현(남.43.3.16, 2016년 11월 11일 선정), 최도수(남.43.2.8, 2016년 11월 11일 선정), 전수교육조교:김환기, 박원규, 허영희(2016년 11월 11일 선정), 전수장학생:오준석, 김용학, 오진석, 박용필, 박용성, 김영애(2015년 6월 17일 선정)



나뉘어 바다와 근접하여 어업문화가 주류를 이룬 대포동과 설악산에서 발원한 쌍천을 따라 마을이 형성되고 농경문화가 주류를 이룬 도문동, 설악산 산간문화가 주류를 이룬 설악동으로 나눌 수 있다.

이 가운데 도문동은 과거 일제강점기까지 도천면에 속하여 도천메나리 농요가 전승되었다. 이곳의 농요는 논삶는소리, 모찌는소리, 김매는소리(메나리), 벼베기와 한단소리, 마댕이와 벗가리지우는소리로 구분되며, 대표적인 소리는 김매는소리로서 메나리라고도 부른다. 이 소리는 다소 정적이며 구성진 가락을 지니는데 주로 오전에 부르며, 시조창법과 유사하지만, 다른 농요와는 구별된다.

김매기 메나리사설은 김을 매는 하루의 일과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구성되는데, 처음에는 김매기 시작을 알리고, 이후 점심때에는 점심참을 먹자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 소리는 메나리와 동강소리로 구성되는데 나른한 오후에는 좀 더 호흡이 짧은 동강소리를 낸다. 점심참에 휴식을 취한 바, 김을 세 개 매기 위해서 메나리보다 빠른 동강소리를 부른다. 질먹기 과정이 들어가기도 하는데, 이것은 일꾼들을 위한 위로잔치로 강릉, 고성지역에서도 질먹기를 하였다. 이처럼 도문농요는 이곳 농민들의 삶과 애환이 담겨진 일노래로서 오랫동안 소중한 문화자원으로 전승되어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우리나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무형문화재(無形文化財, intangible cultural asset)는 전형(典型)유지를 기본원칙으로 민족정체성 함양, 전통문화의 계승 및 발전, 무형문화재의 가치구현과 향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전형이란 해당 무형문화재의 가치를 구성하는 본질적인 특징이라고 정의하였다.

무형문화재법의 목적은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유형문화재는 건조물, 전적(典籍), 서적(書跡),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考古資料)를 말한다. 무형문화재는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적 유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전통적 공연·예술

나)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다) 한의약,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라) 구전 전통 및 표현

마)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바)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儀式) 사) 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

기념물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것이다.

가)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史蹟地)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

나) 경치 좋은 곳으로서 예술적 가치가 크고 경관이 뛰어난 것

다) 동물(그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를 포함한다), 식물(그 자생지를 포함한다), 지형, 지질, 광물, 동굴,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역사적·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민속문화재는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 등이다.

무형법 시행 이전의 무형문화재는 기능·예능의 원형(原型)유지에 치중하였으나, 무형법에서는 이를 7가지로 확대하고 전형(典型)을 강조하였다. 2016년 3월 3일 유네스코 무형유산 기준에 부합하는 ‘무형문화재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무형문화재법)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무형문화

재법이 1962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에서 53년 만에 독립하였다. 이 법안에 의하면 무형문화재의 범위가 대폭 넓어졌다.



문화재보호법상 기·예능 중심으로 한정했던 무형문화재 범위에 한의학·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구전전통 및 표현,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儀式), 전통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가 추가되었다. 그러므로 기존의 전통적 공연·예술과 공예·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등으로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사투리, 침술·경락 등 한의술, 구전설화, 명절관습, 온돌 등 문화재가 될 수 있게 되었다.

2016년 5월 1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 무형문화재의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무형문화재위원회가 독립되어 발족되었다.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주요기능은 무형법 법률 제10

## 조에 의거하여

- (1)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 (2)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 (3)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의 인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 (4)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 (5)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선정에 관한 사항
- (6) 그밖에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 등에 관하여 문화재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등이다.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강원도 문화재 보호 조례를 전부개정 공포(2016.6.17.)하고, 같은 조례 제4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원도 문화재위원 및 전문위원이 위촉되었다. 강원도에서도 무형문화재위원회가 독립되어 무형문화재분과와 민속분과로 나누어 설립되었다. 현재 강원도 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회는 1분과 무형문화재, 2분과 민속문화재로 나누어졌다.

우리나라 무형문화재는 국가·시도무형문화재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나눌 수 있다. 국가무형문화재는 국가에서 지정한 무형문화재로 시도에서 지정한 무형문화재와 구별된다. 무형문화재란 유형문화재와 대를 이루는 인류의 정신적인 창조와 음악·무용·연극·공예기술 및 놀이 등 물질적으로 정지시켜 보존할 수 없는 문화재 전반을 말한다. 문화재보호법에서는 문화재청장이 무형문화재 가운데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그 대상은 기·예능을 보유한 자연인이며, 이들을 인간문화재(人間文化財)라고 한다.

무형문화재의 지정은 1961년 12월 정부에서 일제가 만든 조선고적천연기념물보호령을 폐지하고, 문화재보호법을 새로 제정하여 1962년 1

월부터 시행되었다. 1964년 제1호로 종묘제례악이 지정된 이후 해녀(132호)와 김치담그기(133호), 2018년 제염, 온돌문화 등 55년 동안 지정된 무형문화재는 130여개를 상회하고 있다. 우리나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은 총 20개로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2001), 판소리(2003), 강릉단오제(2005), 남사당놀이·강강술래·영산재·제주칠머리당 영등굿·처용무(2009), 가곡·대목장·매사냥(2010), 줄타기·택견·한산모시 짜기(2011), 아리랑(2012), 김장문화(2013), 농악(2014), 줄다리기(2015), 제주해녀문화(2016), 씨름(2018, 남북한 공동) 등이 지정되었다.

강원도 무형문화재는

- 1호 정선아리랑
- 2호 삼척기줄다리기
- 4호 횡성회다지소리
- 5호 학산오독떼기
- 6호 전통자기도공
- 7호 양구돌산령지계놀이
- 9호 철원상노지경다지기
- 10호 강릉사천하평답교놀이
- 11-1.2.3.4호 원주웃칠공예(칠정제장, 칠장, 나전칠기장, 생칠장)
- 14호 방짜수저장
- 15-1.2.3호 강원도 농악(평창둔전평농악, 원주매지농악, 동해망상농악)
- 16호 각자장
- 19호 평창황병산사냥민속
- 20호 속초도문농요
- 21호 대목장
- 22호 영월단종제례
- 23호 강릉갈골과줄
- 24호 춘천필장
- 25호 양양수동골상여소리

- 26호 양양상복골농요
- 27호 고성어로요
- 28호 월정사탑돌이
- 29호 불교목조각장
- 30호 전통자수장
- 31호 속초사자놀이
- 32호 원주 한지장이 있다.

강원도 무형문화재는 2019년 현재 32호까지 지정되었으며 개인 120명(명예보유자 4, 보유자 35, 조교 38, 장학생 45명), 단체 17개가 등록되었다. 속초시의 무형문화재는 2007년 도문농요, 2019년 속초사자놀이 등 2종목이 지정되었다.

속초시 도문동은 일찍이 농토가 형성되어 소리의 자생적 기반이 이루어진 곳이며, 학무정을 건립한 매곡(梅谷) 오윤환(吳潤煥, 1872~1946) 선생의 학풍이 전하는 전통한옥마을이다.

도문농요는 2003년 제20회 강원도민속축제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동해시에서 개최된 제44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 강원도대표로 출연하여 문화관광부장관상을 받으면서 소리의 원형과 전통성을 인정받았다. 당시에 도문메나리 농요로 출연을 했는데, 모두 여섯마당이였다.

첫째마당은 서낭굿  
둘째마당 논삶는소리  
셋째마당 모심는소리  
넷째마당 김매는소리  
다섯째마당 질떡기  
여섯째마당 벼베는소리 등이였다.

민요(民謠)는 민간가요이며 민속의 노래이다. 《시경》에서 ‘도가왈요(徒歌曰謠)’라 하였듯이 민간대중의 노래가 민요라고 할 수 있다. 민요는 민간에서 생성되어 전승되는 무형문화재로서 무형의 자원

(Intangible Asset)이며, 가창(歌唱) 연행(演行)된 구비전승문학(口碑傳承文學)이다. 따라서 “민요는 원시생활에서부터 생산노동과 결합되어 노동의 피로를 경감하며 집단적 노동을 통괄하여 온 그 생산적 기능으로 하여, 그리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억제할 길 없이 가슴 속에서 샘과도 같이 북 바쳐 흘러나오는 그 창조적 의욕의 단적 표현”<sup>2)</sup>이라고 하겠다.

조선 세조대왕은 강원도 농가(農歌)를 매우 중시했다. 세조는 1466년(세조12년) 윤3월 10일 동해 바다신에게 제사하게 하고, 11일 간성 명파리에 머물렀다. 13일에 세조대왕은 정희왕후(貞憲王后), 세자와 같이 낙산사 법당에 향폐(香幣)를 드리는 불사를 행하고, 세조는 동년 윤 3월 14일 연곡 사거리 장막(帳幕)안 어전(御前)에서 농가경창대회를 개최하였다. 양양관노 동구리(同仇里)가 가장 잘 부르자, 악공(樂工)의 예(例)로 어가를 따르게 하고 유의(襦衣)를 한 벌 내려주니 동구리는 일약 나라의 소리꾼으로 등용되었다.<sup>3)</sup> 지금부터 550년 전에 임금이 주재한 가운데 농가경창대회가 개최되었다.

“14일, 임금의 가마가 강릉 연곡리에 행차했을 때, 명하여 농인으로 농가를 잘 부르는 자를 모아서 장막 안에서 노래를 부르게 했다. 양양의 관노 동구리가 가장 잘 불렀으니 명하여 아침과 저녁식사를 먹게 하고 악공의 예로 가마를 따르게 하였다. 또한 저고리 한 벌을 하사하였다.”고 하여 농사짓는 사람 가운데 농가를 잘 부르는 사람을 뽑았으니, 동구리를 농가를 잘 부른다는 뜻으로 ‘선농가자(善農歌者)’라고 하였다.<sup>4)</sup>

노동요에는 과거 고려나 조선시대 지주나 양반에 저항한 가난한 농민들의 사회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기도 한다. 1799년(정조 23년) 강원도 고성에 살던 노재황(盧再煌)은 고관이나 부호들이 토지를 겸병하여 궁민의 살길을 막으니 토지 소유를 제한하자고 주장하기도 했으며,

2) 고정옥, 《조선구전문학연구》 과학원출판사, 1962, 178쪽

3) 《조선왕조실록》 세조실록 권38, 세조 12년(1466) 윤3월 14일조

4) 《世祖實錄》卷三十八, 丙戌潤三月, “乙酉…駕次江陵連谷里, ○命聚農人善農歌者, 圍帳內歌之, 襄陽官奴同仇里者, 最善歌, 命饋朝夕, 以樂工例隨駕, 又賜襦衣一領”

윤재석(尹在錫)은 소작지를 균등하게 배분하자는 차선책을 내놓았는데, 궁핍한 농민을 구제할 방법은 균전법 이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다는 것이었다.<sup>5)</sup>

고려시대 학자이자 정치가인 이인로(李仁老, 1152~1220)는 《과한집(破閑集)》에는 당시 임금이 명하여 민간에 떠돌아다니는 풍요(風謠)를 모아서 책을 냈는데 농민들의 안타까움을 적은 시 두 수가 전한다.<sup>6)</sup> 이렇듯이 농민들의 최대 근심은 지주나 양반 등 권세가들의 농지 독점으로 인하여 한 해 농사를 지어도 굶주림을 면할 길이 없었던 시대가 있었다. 당시 농민들 스스로 자각의 소리가 노동요를 통해서 구전심수(口傳心授) 되기도 하였다.

민요는 노래로 된 구전물이다. 민요는 노래며 동시에 음악이고 문학이다. 구전되지 않는 것은 민요가 될 수 없다. 그것은 모두가 함께 부르는 공동작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민요는 노래이면서도 다양한 소리를 담고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소리’라고 말한다.

민요는 기능상 노동노래, 의식노래, 유희노래가 있고, 가창방식에 따라 선후창, 교환창, 독창, 제창으로 나뉘고, 율격에 의해 1음보에서 4음보까지, 분연체와 연속체로 나뉜다. 또한 장르에 따라 서정, 서사, 희곡, 교술민요로 분류하고, 창자에 의해 남자노래, 여자노래, 어린이노래가 있고 시대에 따라 옛날 노래, 근대노래로 나눌 수 있다. 지역별로 경기민요, 남도민요, 서도민요, 강원민요, 영남민요, 제주민요로 나누듯이 지역성이 잘 드러나는 민중가요이다.

5) 《日省錄》正祖 二十三年 三月 二十二日, “國朝本無畝定制 自京華巨室以至鄉曲富豪 良田美土 率自歸於其圈 以致窮民無產業之境 願自今定爲田制 勿使濫占 則人共陶化 地有餘波”

6) 李仁老, 《破閑集》卷下 “의왕이 5도와 동서양계에 조서를 내려 관리를 파견하여 모든 원우와 우치에 씌어 있는 시를 다 기록하게 하여 모두 궁중에 거둬들여 그 풍요를 민간의 이익과 병폐를 살펴보고 이름난 문장과 뛰어난 말을 가려 엮어 올려 시선을 만들게 하니, 어떤 선비가 역사벽에 써 붙인 시는 ‘종일토록 뜨거운 별을 등지고 밭 갈았으나. 나에게도 좁쌀 한 되도 차례 아니오네. 만약에 내 신세 바뀌어져서 벼슬아치 된다면, 맥을 곡식이 만곡이나 되리’라고 한 것과 김상서(金尙書) 신윤(莘尹)이 용만(龍灣)의 임소에 부임하여 또한 시를 지었는데, ‘민생을 착취하여 웃사람에게 아첨하는 것이 오랜 풍습이 되어서, 온 나라가 도도히 모두 다 글러가네. 봉록 많은 고관이 비록 탐나지만, 청천백일이야 진실로 못 속이지!’라고 한 것이 있는데 그때 관리들이 이 시 두 편도 기록하여 바치니 왕은 시를 열람하다가 여기에 이르자 서글프게 읽더니 오랫동안 말이 없어서 좌우 모두 불측의 화가 생길까 두려워하였더니 가을에 공(김신윤)을 명하여 동변으로 옮기고 또 그 다음해에는 용만으로 부임하게 하여 세 번이나 용모의 명령을 받으니 조신으로 유래가 드문 것이다.” 李仁老 著, 柳在泳 譯註, 《破閑集》—志社, 1978, 245~246쪽



민요는 고대국가시대 주야음주가무하던 제천의식에서부터 기원하고, 신라 때는 향가로, 고려 때는 속악가요로, 조선조에는 민속악으로, 일제하에는 저항가로 바뀌고 독재시대는 민중가요로 그 생명력을 유지하였다. 일본에서 이식된 상업주의 산물인 유행가와 정체불명의 대중가요가 광포되고 농촌사회의 전통생활방식이 해체되면서 노동의 현상이 바뀌고 민요는 위축되었고, 소리는 소리처럼 사라지고 있다.



노동요는 무엇보다 힘들지만 수확을 기대하는 즐거운 노동요다. 즐거움은 곧 노동의 효율성과 연결된다. 농토가 아닌 일자리는 사실상 어디든 있다. 노동요를 세부적으로 분류하면 농업노동노래 뿐 아니라 토목노동노래, 제분노동노래, 어업노동노래, 채취노동노래, 수공업노동노래, 운반노동노래, 길쌈노동노래, 가내노동노래 등 다양하다.

속초시 상도문리 주민들은 도문메나리 보존회를 2005년 4월에 결성하고 60명의 회원들이 전수회관에서 지속적인 계승 활동을 하고 있으며 설악문화제와 도내 각종 행사에 속초시 대표로 참가하여 속초전통 문화를 널리 알리고 있다.

도문농요는 농업노동요로 구전되는데, 이 가운데 메나리는 김매는 소리로써 민요 메나리에 관한 선구적인 의견들이 일찍이 나왔다. 개념상 산유화(山有花)와 연관 지은 것이 많으며, 최영년(崔永年)은 산유화(山有花)가 메나리 곡조라는 설을 주장한 바 있다.

숙종 24년(1698) 선산녀인 향량은 남편을 여의고 수절하고 있었는데 부모들은 딴 데로 시집을 보내려고 못 견디게 굴었다. 향량은 자기의 슬픔을 노래 지어 부르면서 낙동강에 빠져 죽었다. 세상에 지금도 전하고 있는데 ‘메너리’가 바로 그것이다. ‘낙동강 검푸른 물 깊보다도 푸르고, 애끓는 봄노래가 물결 모래 밟는다. 정렬한 아가씨의 붉은 눈물 방울 보는 듯, 산 가득한 바람과 이슬에 핏빛으로 아롱진 꽃’<sup>7)</sup>

이능화(李能和)는 ‘산유가(山遊歌)’를 언급하면서 “경상도에서는 미나리 노래를 잘 부른다. 생각건대 미나리노래는 산유가가 바뀐 것으로 의심된다. 대개 우리말에서 산은 미, 유는 노리라고 한 것에서 연유한 것이다.”<sup>8)</sup>라고 하여, 메나리는 산을 뜻하는 고대어 ‘메’ 나리는 ‘놀이’로 보아 산놀이노래 즉 ‘산유가(山遊歌)’라는 견해를 밝혔다. 메나리와 산유화(山有花), 산유가(山遊歌)는 명칭상 다르게 부르나 서로 연관된 것으로 보는 견해가 대부분이다. 이병기(李秉岐)도 ‘산유화’를 남도잡가의 창조명(唱調名)인 ‘메나리’의 한역(漢譯)으로 보았고, 이탁(李鐸)은 시가군을 범칭하는 구시대의 뜻인 메나리의 이두식 표기로, 양주동은 시가군의 범칭인 사뇌격(詞腦格)·사내조(思內調)로 보았다.

또한 18세기 낙하(洛下) 이학규(李學逵)의 《영남악부(嶺南樂府)》에도 수록되어 전한다. 이 책은 《김해악부》라고도 하는데 이학규가 18년 동안 김해에 귀양 가서 지은 것이다. 내용은 영남에 전해오는 전설이나 역사적 사실들이 노래한 전부 68편으로 형식은 다양하고 상

7) 崔永年, 《海東竹枝》中編, 獎學社, 1925, 4쪽 “肅宗二十四年 善山民婦香娘 夫死守節 父母欲奪志 乃作此曲 而哀之 投洛東江而死 世傳其曲 今之메너리 洛東烟水碧於紗 斷腸春歌踏浪沙 如見貞娥紅淚滴 滿山風露血斑花”

8) 李能和, 《朝鮮女俗考》翰南書林, 1927, 129쪽 “慶尙道는 善美那里歌 訶니 按美那里는 疑是山遊歌之轉이라 盖我語에 山曰美오遊曰奴里故也라”

세한 주석이 붙어 있다.

강언덕에 메나리꽃/물가에는 총렬비 하나/일손도 시름겹게 나무하던  
여인네

가슴속 설음을 하소연 할 길 없어/집이라 돌아와 삼촌에게 말했더니  
아픔 속도 모르고 꾸짖기만 하누나/사내들은 여편네를 함부로 버리기  
두

여자야 다시금 누구에게 몸 맡기랴/눈물 가득 머금고 집을 나와서

강가에 다다른 안타까운 마음/맘도는 물결 앞에 멈칫 섰다가/절구공  
이 내던지듯 몸을 던졌네

고운 처녀 메나리 한 곡조 부르자/설음이 솟구치는 듯 떠오른 치마폭  
떠도는 혼을 달래 제를 지낸 들/착하고 슬픔 맘 갈 곳 없으리  
짜을 찾지 못한 원앙새랄가/뿌리를 박아 못 본 강풀이랄가  
슬픈 혼아 호젓한 낙동강 기슭/메나리꽃 속에나 머물러 있느냐<sup>9)</sup>

《풍요선집》에서는 산유화를 ‘메나리꽃’으로 번역하였는데 산유화에  
깃든 사연은 18세기 초 선산군수 조구상(趙龜祥)이 기록한 것이다.  
조구상은 1702년 일선군(지금의 경상북도 선산군)의 군수로 있었는데  
향량이라는 여자가 물에 빠져 죽은 사건이 생겨 그 사건의 목격자인  
나무꾼 여자를 불러서 심문하는 과정에 향량이 죽기 전 나무꾼 여자  
에게 들려주었다는 노래를 전해 듣고, 그것을 한자시로 번역하였다.  
그는 《일선의열단(一善義烈圖)》(일선 고을 의롭게 절개 있는 사람  
에 대한 이야기를 적은 도서)라는 책을 만들면서 메나리의 노래와 향  
량에 대한 이야기를 그 속에 기록하고 산유화라는 제목을 달아놓았다.  
‘산유화’란 ‘메나리’의 한자식 표현이라고 한다.<sup>10)</sup> 조구상이 나무꾼 여

9) 리용악·김상훈, 《풍요선집》 조선문학예술총동맹출판사, 1963, 376~377쪽

10) 최옥희, 《고전문예작품사화집》 예술교육출판사, 1991, 167쪽

자를 데려다가 심문하여 기록한 이야기를 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나무꾼 여자가 음력 구월 초엿새날 나무를 하다가 울면서 지나가는 한 여인을 만났다. 여인은 나무꾼 여자에게 자기는 박자신이라는 사람의 딸로서 임칠봉의 아내가 되었던니, 남편이 박대를 하고 내어 쫓아서 친정에 왔는데 계모가 야단을 하기에 거기에도 있지 못하고 삼촌네 집에 갔던 바, 삼촌이 다른 곳에 시집가라고 강요하기 때문에 차라리 죽으려고 한다고 말하였다. 임칠봉의 처는 길재의 비석 있는 곳에 이르자 치마와 짚신을 벗어 나무꾼 여자에게 맡기면서 이것을 부모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는 한참 동안 통곡을 하고 나서 노래 한 곡조를 부른 다음 다시 부탁하였다. “무서워 말아라. 내가 네게 노래 한 곡조를 가르쳐줄 것이니 외워 두었다가 여기로 나무하러 와서 이 노래를 메나리곡조로 부르면 내 영혼이 네가 온 줄로 알겠다. 그리고 너도 물결이 빙빙 도는 것을 보거든 내 영혼이 거기에 노는 줄 알아라.” 이윽고 임칠봉의 아내는 적삼을 벗어서 얼굴을 가리 우고 물속에 몸을 던졌다. 나무꾼 여자는 미처 말릴 사이도 없었다. 그는 어쩔 수 없어 죽은 여인의 부모를 찾아가서 치마와 짚신을 전하고 사실대로 다 말하였다. 죽은 여인의 아버지는 물가에 가서 아무리 애썼으나 딸의 주검을 찾지 못하였는데 그 뒤에 적삼으로 얼굴을 가린 시체가 나왔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보면 메나리는 오래전부터 전해오던 민요인데 그 가사는 세월의 흐름에 따라 변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향량이 부른 노래가 메나리 곡조에 새 가사를 붙인 것이라는 말이 그 사실을 보여준다.

최옥희는 메나리에 대하여 낙동강 기슭에 사는 사람들이 부르던 일종의 노동가요이며 주로 여인들이 부르던 노래라 하였다. 아울러 여인들의 불행한 처지가 반영되어 노래곡조가 쓸쓸하게 울린 것이라든가 향량이(또는 임철봉의 아내)가 죽음을 앞두고 새로운 가사를 메나리 곡조에 맞추어 붙렸다는 이야기가 그것을 알려준다고 했다.<sup>11)</sup>

노작 홍사용은 <조선은 메나리 나라> 라는 글을 《별건곤(別乾坤)》(1928.5)에 발표하였는데, ‘메나리’는 민요를 지칭한다고 했으며 ‘한국의 보물’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메나리는 글이 아니다. 말도 아

11) 최옥희 위의 책 170쪽

니다. 또 시도 아니다. 이 백성이 생기고 이 나라가 이룩될 때에 메나리도 저절로 딸아 생긴 것이니 그저 백성이 저절로 그럭저럭 속 깊이 간직해 가진 거룩한 녀일 뿐”이라고 말하여 이른 관심을 표현하였다.

이재욱(李在郁)은 메나리를 이론적으로 접근하였는데, 〈所謂 ‘山有花歌’와 ‘산유해’ ‘미나리’의 交涉〉을 《신흥(新興)》(1931.12)에 발표하였다. 그는 백제 말엽에 불렸던 ‘산유화’가 신라 군인들에 의해 영남지방에 전래했다고 추정하였고, 상주와 선산지방에서 불려지는 ‘미나리’와 ‘산유화’를 관련지어 ‘山有’는 ‘山遊’로 바뀌면서 이를 혼동하여 ‘되노리’ ‘되나리’로 통칭되었다고 보았다. 이재욱의 견해는 메나리의 지침과도 같은 역할을 하였으며 이후 연구자들이 따르고 있다.

이러한 관심은 우리나라 민요가 지닌 정신적인 측면과 환경적인 측면을 염두에 두고 논의를 전개한 것으로서 고정옥(高晶玉)은 ‘미나리’의 일종으로 부여지방에서 불린 산유화가 메나리로 된 예를 인용하였다.<sup>12)</sup> 임동권(任東權) 역시 같은 견해를 견지하여 부여지방에 전하는 산유화와 영남지방에서 성장되는 ‘미나리’와 유관한 것으로 보았다.<sup>13)</sup> 그러나 이종출은 산유화가를 메나리와 별개의 백제가요명칭으로 보았고<sup>14)</sup> 김선풍도 산유화를 산유가(山遊歌)와 다르게 파악했다.<sup>15)</sup> 근래 음악연구자들은 한국민요를 대표하는 메나리토리에 대하여 다양한 견해가 나오고 있다.

다음 둘째는 메나리가 ‘며느리’에서 나왔을 것으로 보는 견해다. 이는 산유화의 유래와 연관된 것으로 향랑고사에서 연유된 것이다. “산유화는 산(山) 나리(花) 즉 산나리꽃이라는 뜻으로 메나리와 며느리의 음이 서로 비슷한 데로부터 며느리의 슬픔을 노래하는 곡조 이름으로 되었다.”<sup>16)</sup>고 하였다.

세 번째는 한자어인 산유화나 산유가와 달리 메나리는 고유한 우리 말로서 전래민요 명칭인 ‘아라리’에서 ‘메나리’가 나왔을 것으로 추정해 본다. 민요 메나리에 대한 음악적 관심은 일찍이 고조되었으며, 지역적

12) 高晶玉, 《朝鮮民謠研究》首善社, 1949, 183쪽.

13) 任東權, 《韓國民謠史》집문당, 1964, 32쪽.

14) 李鍾出, 〈山有花歌 小攷〉《無涯 梁柱東博士華誕紀念論文集》, 1963, 431~446쪽

15) 金善豐, 〈山有花歌考〉(其1), 《中央民俗學》第3號, 중앙대학교 한국민속학연구소, 1991, 7~24쪽

16) 리용악·김상훈, 위의 책, 359쪽

차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흔히 ‘정선아리랑, 삼척메나리, 강릉오독떼기’라 하듯이 강원도 지역의 민요는 나름대로 개성을 갖고 있다.

김연갑은 메나리의 정착과정을 추적하여 아리랑과의 연관성을 살피면서 다양한 전거를 동원하여 관심을 다시 일으켰다.<sup>17)</sup> 김영운은 삼척 메나리에 대한 음악적 연구에 이어서 오독떼기와 메나리의 비교 연구했으며, 근래 메나리를 별개의 장르로 보고 있다.<sup>18)</sup> 이소라는 한국의 농요를 정리하면서 삼척군 지역 농요 메나리를 채보하여 <민아리와 어산영(산유해), 이른바 산유화가의 비교> 라는 글을 발표하여 지역별로 현지조사를 통하여 민요권·용도·가창방법·이재옥의 가정에 대한 견해 등을 발표하면서 종래의 견해를 수정한 결과를 발표하였다.<sup>19)</sup> 메나리의 어원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메나리는 강원도와 경상도, 그리고 충청도 일부 지방에 전승되는 민요의 하나. 일명 미나리라고도 한다. 농부들이 김매며 부르는 노동요의 하나이다. 풍각쟁이들도 불렀으며 통소나 젓대 혹은 풀피리로 불 때는 메나리 가락이나 니나리 가락으로 불리기도 한다. 곡명의 유래는 분명하지 않으나 山有花를 풀어서 ‘되놀이’라 한 것이 메나리로 되었다는 설과 옛 민요 ‘미나리꽃은 한 철’이라 하는 데에서 나왔다는 설이 있다.<sup>20)</sup>

되놀이와 미나리꽃의 어원설은 앞서 언급한 이재옥에 의해 제안된 것이다. 이재옥은 이능화의 견해를 인용하여 “山有에서 山遊로, 山遊에서 되노리로, 되노리에서 미나리로 와전(訛傳)하지는 아니하였슬가”라고 의심하였다.<sup>21)</sup> 이 견해를 수용한 고정옥은 산유화가와 메나리를 같은 노래로 보았다.

17) 김연갑, <아리랑 先行 연구검토와 메아리 원형가능성 고찰>, 《民學會報》15, 1987, 16~30쪽.

18) 金英云, <嶺東地方 메나리의 音樂的 研究> 《국악원논문집》 제4집, 국립국악원, 1992. <嶺東農謠 메나리와 오독떼기의 比較研究> 《韓國音樂研究》 제20집, 한국국악학회, 1992

19) 李素羅, 《韓國의 農謠》 제4집, 현암사, 1990.

20)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7권 메나리, 1991, 790쪽.

21) 李在郁, <所謂 山有花歌와 산유해, 미나리의 交涉> 《新興》 1931.12. 최철·설성경 엮음, 《민요의 연구》 정음사, 1984, 126~132쪽.

메나리꽃아/메나리꽃아/저꽃이 피어/ 농사일 시작하여  
저꽃이 저서/ 농사일 필역하세/얼럴럴상사뒤여/어뒤여상사뒤(중략)

이 노래는 扶餘古蹟保存會發行 <百濟事蹟> <夫餘名勝舊跡>에 실린 山有花曲과 같되, 初句가 <山有花兮 山有花兮> 代身 여기에는 <메나리꽃아 메나리꽃아>로 되어 있다. 이는 산유화가와 미나리의 교섭에 착목한 이재욱 씨의 탁견의 한 유력한 증거가 되리라고 생각한다. 즉 氏는 山有-山遊-되놀이-미나리로 推斷하였는데 이 노래는 現行 山有花歌가 바로 메나리로 되어 있는 例다.<sup>22)</sup>

이처럼 메나리에 관한 이론은 이재욱 이후 산유화가에서 파생된 견해에 동조하는 의견들이 많았다. 최근 들어 음악적인 측면에서 재론되고 있으며 필자 역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오래전에 ‘조선은 메나리 나라’라고 언급한 것을 보더라도 ‘메나리’라는 용어는 우리 민요가락을 지칭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메나리’의 어원을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메나리라 하는 보물! 한자로 쓰면 조선의 민요 그것이란다”<sup>23)</sup>고 말하여 우리 민요를 범칭했다.

그러하므로 메나리와 미나리, 산유화(山有花)의 동일민요여부를 먼저 파악하면 이소라는 ‘산유화를 백제가곡으로 보는 것을 의심하고 산유해(어산영)과 산유화곡이 유관하리라는 가능성은 실제 음악을 들어 보면 다른 것이 자명하다고 하였다. 또한 선산지방 부녀자들 간에 성장되는 미나리는 현재 나물을 심거나 벨 때 부르고 있으므로 미나리를 가사 내용으로 담은 교창식 모노래가 아닐까 의심하였다.

미나리요는 조선시대 구전문요의 하나로 숙종의 계비 민비가 자녀를 낳지 못하던 중 장희빈이 원자를 낳아서 왕비가 된 것을 풍자한 것으로, 장희빈은 장다리처럼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궁극적인 승리는 미나리가 사철 푸르듯이 민비에 있다는 것을 예언한 참요(讖謠)라고

22) 高晶玉, 앞의 책, 183쪽.

23) 露雀, <朝鮮은 메나리 나라>, 《別乾坤》(1928.5). 최철·설성경 편저, 《민요의 연구》 정음사, 1984, 104~109쪽.



한다. 가사는 “미나리는 사철이고 장다리는 한 철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sup>24)</sup> 보아도 민요 메나리와는 무관하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함남 북청군에서 전승되는 미나리 노래는 가사에서 “미나리아 하 미나리아하 너홀로 피라”라는 것을 보아도 실증된다.<sup>25)</sup>

아울러 미나리는 메나리라고도 불렀는데 참메나리요를 보면 “이아이 들아 저아이들아 참메나리 캐러가자”<sup>26)</sup> 라는 가사에서 메나리는 미나리를 뜻하기도 한다. 따라서 미나리와 메나리는 같은 나물을 뜻하기도 하지만 민요를 구분하는 명칭으로는 다르게 나타난다. 이는 《민요집성》에도 메나리와 미나리를 구분하여 실고 있음에서도 손쉽게 알 수 있다.<sup>27)</sup>

메나리는 뽕노리(산놀이)나 미나리나물이 아니라 생각하는 곤힐 수 있는 것은 밭이나 논김매는 소리인 ‘메나리’가 산을 뜻하는 ‘뽕’과 ‘놀이’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따라서 단순하게 어원적인 측면만을 중시하여 메나리가 산노래 또는 산간지방의 전래소리라는 선입견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일설로 메나리는 뽕노리 즉 산놀이로서 산신에게 바치는 ‘제사의식요’라는 견해를 표시하기도 한다. ‘메’는 산을 뜻하기도 하지만 신에게 바치는 제물로서 ‘밥’을 의미하기도 하므로 밥을 만드는 일 즉 농사일과 관련된 노래라는 생각도 일면 가질 수 있다. 밭이나 논은 산에도 있지만 오히려 평지가 많고 ‘나리’가 ‘놀이’를 뜻했다고 일방적으로 보기도 어렵다.

그것은 평안도의 ‘기나리’라는 민요 역시 ‘나리’가 ‘놀이’나 ‘나리꽃’을 지칭하지 않고 있음에서 비견된다. 이 노래는 ‘긴아리’라는 제목으로 소개되어 있으며 “平安南道 龍岡 江西지방의 남녀가 西海바다 갯가에 조개를 잡으러 다니다가 얻은 그런 노래라고 일러 온다”는 해설에서도<sup>28)</sup> 간취 된다. 한정동은 평안도 민요를 소개한 〈내 故鄉의 民謠 情調〉라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부기하였다.

24) 《민속예술사전》 한국문예진흥원, 1979, 123쪽 참조.

25) 李素羅, 《韓國의 農謠》 4집, 현암사, 1990, 742쪽.

26) 林和 編, 李在郁 解題, 《朝鮮民謠選》 學藝社, 1929, 175쪽.

27) 김태갑·조성일 편저, 《민요집성》 변인민출판사, 1981, 22~25쪽.

28) 成慶麟·張師勛 共編, 《朝鮮의 民謠》 國際音樂文化社, 1949, 151쪽.

이 지방의 민요는 打鈴, 기나리, 메나리(外 略함) 三種이 일반 農謠인 同時에 그 主가 되어 있다. 타령과 기나리는 대략 歌詞도 같고 曲調는 꼭 다르나 다같이 盛行하는 것으로 어린 牧童들까지라도 잘 노래하고 있으며 메나리는 農謠이면서도 歌詞가 길고 曲調가 힘든 까닭인지 모르거니와 지금에 와서는 間或 불리워지나 衰退하는 감이 없지 않다.<sup>29)</sup>

이러한 견해들을 살펴보면 ‘메나리’는 ‘민아리’ 또는 ‘미나리’의 연계된 용어로 의심케 된다. 즉 ‘민’과 ‘아라리’ ‘아리’의 합성어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민아리’의 ‘민’은 봉산탈춤 춤사위에서 ‘민사위’라는 춤사위가 소무나 노장이 뛰지 않고 채지 않으면 곱게 넘어가는 사위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접두사로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메나리, 산유화(山有花, 山遊花)는 사실상 민요를 표기한 명칭으로 그것의 내용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다름을 알 수 있다. 박민일 교수는 메나리를 메(山)+나(川)+리(人)으로 풀어서 설명한 바 있다.<sup>30)</sup>

김연갑은 아리랑의 ‘아리’를 ‘메아리’ 원형에서 기원한 것으로 보고 이와 연관된 메나리는 그 의미가 산노래·산악인의 노래이며 독특한 가락의 특징과 ‘아리’ 인자를 현재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말하였다.<sup>31)</sup> 이소라 역시 삼척지방 민요를 수집 채보하면서 ‘민아리’라는 용어를 사용한 바 있다.

필자의 관점으로 ‘민아리’의 ‘아리’는 ‘아리랑’ 또는 ‘아라리’의 ‘아리’와 같은 기능을 하는 용어로 파악된다. 이러한 판단은 정선 아라리나 강릉 오독떼기 명칭이 음악적 용어로 보는 견해가 적지 않음에 힘입어 ‘메나리’는 ‘산노래’가 아니라 ‘민아리’를 뜻하는 용어가 아닐까 한다. 그러므로 ‘민아리’는 곧 ‘메나리’로서 이는 ‘산유가(山遊歌)’가 아니라 ‘아라리’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즉 민아리는 ‘민

29) 韓晶東, 〈내 故鄉의 民謠 情調〉, 《朝光》 1939.10. 최철·설성경, 《민요연구》 정음사, 1984, 213~214쪽.

30) 朴敏一, 〈강원도 아리랑의 고장·고향론〉 《평창아라리의 민속문화적 특질》 자료집, 2006. 2. 10, 11~19쪽

31) 김연갑, 위의 글, 30쪽.

아라리'의 축약형으로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최영년은 '아라리(哦囉哩)'에 대해 언급했는데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에, 이 곡조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전국에 퍼져서 부르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그 소리는 슬프고 원망하는 듯하고 뜻이 음란하며 가락은 여운이 없고 단축하니, 대개 말세의 소리이다. 지금도 전하는데 ‘아라리타령’이라한다.”고 ‘아라리’의 구한말까지 존재여부를 기록하였다.<sup>32)</sup> 강릉 오독떼기도 메나리조라고 하지만 오독떼기와 메나리, 아라리가 같은 소리면서도 다르다는 변별성은 분명히 존재하고 그것은 주로 곡조에 의해 창자나 청자들이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속초 도문메나리는 삼척메나리와 같은 계통이나 전파적 영향으로 다른 모습을 띤 것으로 보인다.<sup>33)</sup> 따라서 메나리는 ‘맨아리’ 또는 ‘민아리’, ‘민아라리’라는 음악적 용어로서 아라리의 분파로 추정된다.

도문메나리는 속초의 전래 농업노동요로서 그 명칭은 도문면과 소천면이 합쳐진 명칭에서 나왔다. 오늘날 속초라는 지명은 조선 영조 36년(1760)에 편찬된 《여지도서(輿地圖書)》에 처음 나오는데 당시는 86호가 살았으며 남자 90명, 여자 182명이었다. 조선시대 속초는 양양도호부 소천면 속초리였으며 1759년 행정구역이 정해지면서 도문면과 소천면으로 나뉘었다.

이러한 지명이 유지되다가 일제 무렵 속초의 청초호가 개발됨에 따라 속초리가 커졌으며,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도천면(道川面)이 되었다. 1937년 도천면 사무소는 대포리에서 속초리로 옮겨졌고 면이름도 도천면에서 속초면으로 바뀌어, 속초는 작은 동리이름에서 면 전체를 지칭하게 되었다. 이어 1942년 속초면이 속초읍으로 승격되면서 속초리는 1구에서 4구까지로 확대되면서 모두 14개 리로 재편되었다.

따라서 ‘도천메나리’라는 명칭에 사용된 ‘도천’(道川)은 도천면에서 따온 것으로 도천면은 도문면과 소천면(所川面)이 합쳐진 명칭임을 알 수 있다. 현재 ‘도천메나리’의 주요 전승지인 상도문리는 일제 초기 도

32) 최영년, 위의 책, 5쪽

33) 장정룡·이한길, 《속초의 민요》 속초문화원, 2003, 48쪽

문면에 속했으며, 당시 20여 호가 살았으며 남녀 합하여 66명이 거주하였다. 이 마을에는 50여 년 전에 물레방아가 돌아가고 있었다.



강원도 민요 가운데 농업노동요로서 김매기소리인 메나리는 춘천·삼척·양양·속초 일대에 전승되는데, 속초 도문동에 전승되는 도천메나리는 양양메나리조와 유사하고 삼척메나리와는 다르다. 도천메나리는 농민들이 3~4명씩 짝을 지어 ‘질’을 짜서 김매기를 하면서 노동의 고달픔을 소리로 달래던 농요로서 고유한 가락과 멋스러움을 간직하고 있다. 아울러 소리의 유장함과 곡조 등으로 미루어 불교적 색채가 배어있는 범패소리의 유형도 간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도문메나리는 신라불교의 본산지인 설악산 신흥사와 인접한 지역으로 소리의 유장함으로 미루어 불교의 영향도 엿볼 수 있다. 속초시 도문동에서 전래되는 농사과정을 메나리를 중심으로 구성한 도문농요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첫째마당 : 서낭굿

정초가 되면 한해의 풍년을 빌기 위해서 도문마을 사람들은 성황당에 모여 제사를 올린다. 이때 풍물패가 성황당에 모여서 서낭굿을 친다. 신목과 서낭대를 농악대원들이 둥그렇게 원형을 그리며 감싼 후 주민들이 풍년과 안녕을 기원하고 상쇠가 쇠를 치면서 고사반을 한다.

모십시다 모십시다 서낭님을 모십시다  
 서낭서낭 서낭님 강원도라 속초시에  
 설악산의 정기받은 도문동에 모십시다  
 서낭님 모셔놓고 금년농사 잘되라고 비읍니다  
 물 없는 논에 물을 주시고 오곡 가득 점지해주시고  
 마을에 만복이 가득하기를 서낭님께 비읍니다

2) 둘째마당 : 논삶는소리

논삶는소리는 ‘소모는소리’로 도문동에서는 주로 한스레 즉 겨리소로 농사를 짓는다. 한스레는 소 두 마리가 끄는 스투로서 보통은 일 잘하는 소를 바른쪽에 세운다. 소 뒤에는 번지를 매달고 논을 가는데 소를 모는 성군은 소 한 마리 즉 호리소 인 쪽스레로 논을 갈기도 한다. 논을 갈 때 유장한 가락에 느긋한 심성을 표출하는 이 소리는 소를 다 몰고 끝이 날 때는 통칭 ‘~와’로 끝마무리를 한다. 논삶는소리는 가창자나 소를 모는 상황에 따라 다양한 소리가 나오기도 한다.



이러이러  
어디야 이~이~  
이 큰암소야 어정거리지말고야~ 이이  
제곶으로만 찾아들어라  
이러이러 헤이 이~  
어뒤 어디야~ 이 오르내리지말구야 어디 얼릉 얼릉가자  
이러이러 이이  
설악산 화채봉에 해는야 올라섰는데 한눈팔지 말고 가자  
이러이러 이이~ 어뒤 어디야 이이~  
점심참이야 늦어가니 우리도 얼릉하고 말세  
이러이러 이이~ 어뒤  
쇠머리에 모춤 올라앉겠구나 얼릉얼릉 짹짜게 가자  
이러이러 어~ 어뒤  
일락서산에 해는 떨어지고 어서 가자  
이러이러 이~ 어뒤 와와



### 3) 셋째마당 : 모찌고 심는 소리

논을 갈고 한편에서는 모를 찢다. 모를 찢 때도 또한 소리를 하는데 흔히 ‘한춤소리’라 부른다. ‘한춤’이라는 것은 모를 묶어 놓은 것을 말한다. 한 사람이 ‘얼른 하더니 한 춤’이라고 소리를 하면서 모를 집어 던지면 다른 사람이 받아서 또 소리를 하면서 모를 한 춤 집어던진다. 이때 흥겹고 신나게 부르는 소리가 바로 ‘모찌는소리’이다. 마을에는 좌상이 있어서 농사가 시작되면 모든 것을 감독했다. 질(질레)을 짜면서 농사가 시작되면 혹 늦게 오거나 안 온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할 분량을 남겨놓기도 한다. 대체로 좌상은 나이 드신 분이 맡아서 하고 일도 같이 하였다. 당시 농기를 든 패들은 남들보다 항상 먼저 나가 농토에다가 꽂아놓고 모를 찢으며 모를 다 찢고 들어올 때도 농기를 앞세우고 농악을 울리면서 들어온다.

논을 다 삶으면 곧바로 모를 심는다. 이때 ‘심어주게~’로 시작되는 ‘모심는소리’를 흥겨운 가락에 맞춰 부르는데, 이 소리 외에도 아리랑, 어랑타령 등 다양한 소리가 모심을 때 불린다. 대체로 모심는소리는 강릉·양양·평창 등지에서 불려지는 소리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 가락도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데, 신이 날 때에는 빠르게도 부르다가 또 오후 들어 힘이 들 때에는 천천히 부르기도 한다.



심어주게 심어주게 심어를주게  
바다같은 요논배미 심어를주게  
심어주게 심어주게 심어를주게  
오종종 줄모를야 심어를주게  
아리아리 스리스리 아라리오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심어주게 심어주게 심어를주게  
점심참이 늦기전에 심어를주게  
심어주게 심어주게 심어를주게  
초생달이 지기전에 심어를주게  
아리아리 스리스리 아라리오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심어주게 심어주게 심어를주게  
동자같은 어린모를 심어를주게  
심어주게 심어주게 심어를주게  
열지구 부지런히 심어를 주게  
아리아리 스리스리 아라리오



##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 5) 넷째마당 : 김매는소리

도문동 농요의 대표적인 소리인 메나리는 ‘김매는소리’를 말한다. 보통 두벌김을 맬 때부터 날씨가 더워지면서 일이 힘에 부치게 되므로 메나리가 불리는데, 소리를 잘하는 농부가 앞 소절을 선창을 하면 나머지 농부들이 뒷소절을 화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농부가 소리를 못하면 일꾼이 아니라 풀꾼이라는 말처럼 메나리소리는 참 일꾼만이 부른다고 한다. 이 메나리는 삼척권과는 달리 영북지방의 특성을 잘 드러내는 소리로서 시간의 흐름에 맞추어 가사가 변화하는 특징을 보인다. 농촌에서는 세 벌 김을 매고 나면 마을주민들이 하루 날짜를 정하여 잔치를 연다. 이것을 이 마을에서는 ‘질을 먹는다’라고 한다.



매어나주게 매어나주게 요논배미 매여아어주오  
동해동창 솟은해가 반공중에 높이아어뻗다  
아침해가 높이떠서 점심때가 되었다네  
산들산들 부는바람 모시적삼 입고아어지고  
시원한 벽중에 적삼입고 일을하세  
지어나가네 지어나가네 점심참이 지여아어가네  
지여간다 말만말고 요논배미 매여아어주게  
잘도나하네 잘도나하네 총각대방 잘도아어하네  
명사십리 해당화야 꽃이진다고 설위마라  
꽃이지면 아주나지나 명년삼월 다시피지

##### 5) 다섯째마당 : 파대치기와 새쫓기

파대치기는 파대를 치면서 그 소리로 새를 쫓는다. 또한 주민들은 참새들이 볍씨를 파먹으므로 ‘위이위이’하면서 소리를 지른다. 도문동 마을에서는 정월대보름날 새쫓기풍속도 전한다.

6) 여섯째마당 : 벼베기와 한단소리

농부들이 논에 나가 벼를 베고 나서 소리를 하는데 이것이 ‘한단소리’이다. 이것은 벼를 베어 넘기며 ‘~한단’이란 구절이 들어가는 것에서 그 이름이 유래한다. 실제로 낮으로 벼를 벨 때는 위험하다고 소리를 하지 않고 베 놓은 벼단을 묶을 때 한단소리를 하게 된다.

얼른하더니 한단 나간다  
 너두 한단이면은 나두 또 한단 나간다  
 그 소리 끝나기전에 나도 또한단 나간다  
 얼른 흙칭흙칭 하더니 또한단 나간다  
 올해도 풍년 내년에도 풍년  
 얼른 흙칭흙칭 하더니 나도 또한단 나간다  
 초승달 뜨기전에 너도 한단이야 나도 또한단 나간다  
 한단 한단 하지말고 부지런히 하거나  
 얼른 하더니 나도 또 한단 나간다  
 너만 한단이야 나두 또 한단 나간다

벼를 베어 놓으면 한편에서는 벼단을 가지고 벼를 세운다. 여기서는 벼 스무 단을 한 타래라고 하는데, 이때도 소리를 한다. 벼를 베고 한편에서는 벼단을 세운다.

한단이로구나 두단이로구나  
 석단하니 또 녀단이로구나  
 다섯여섯단하고 일곱  
 여덟단에 아홉단 열단이로구나  
 열한단 열둘 열석단 열녀단이로구나  
 열다섯단 열여섯단  
 열일곱단 열여덟단

열 아홉단에 스무단  
한 타래 세웠습니다  
한 타래 더 세울까요  
더 세우라면 더 세웁니다

한단이로구나 두단이로구나  
석단 녀단 다섯여섯단하니 일곱단이로구나  
여덟단 아홉 열 열한단에 열둘  
열석단에 열녀단이요  
열다섯 열여섯단 열일곱단에  
열여덟단 열아홉단 스무단  
두 타래 세웠습니다.

7) 일곱째마당 : 마뎡이와 벗가리지우는소리



벧단을 세우면 농촌은 한 해를 마무리하기 시작한다. 벼를 털어 쌀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 과정을 ‘마댕이’라고 한다. 태돌(태상)에 쳐서 떨어진 벼 낱알을 다시 도리깨로 치면서 탈곡을 하는데 태돌이란 널찍한 돌맹이를 구해 놓고 사용을 했다. 도리깨는 보통 기능에 따라 상도리깨와 하도리깨로 구분하는데, 이때 상도리깨는 세로로 서서 먼저 치는 도리깨이고, 상도리깨가 치면 가로로 서 있는 여러 명의 하도리깨가 뒤를 받아친다. 상도리깨소리는 다음과 같다.



에호 에호 타작 한번 해보소  
 에호 에호 에호 에호오  
 상도리깨가 난다  
 사람들은 많다만은 도리깨소리는 적구나  
 천석이오 만석이오 금년농사가 대풍이오  
 그럭저럭 하다보니 금년농사가 다끝났네

도리깨는 15세기 한자로 쓰인 최초의 농서 『농사직설(農事直說)』에서 도리편(都里鞭)이라는 한자를 사용하였다. 즉 돌리는 채찍이라는 뜻인데, “만약 습지가 깊어서 사람이나 소가 빠질 지경이면 도리편으로 풀을 죽이고 씨를 뿌린다”고 하였다. 이 도리편은 도리깨를 이르는 말로 곡식 알갱이를 떨어내는 일 이외에 습지대의 풀을 죽일 때도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1789년 나온 연암 박지원의 《과농소초(課農小抄)》에 의하면 고려시대 이색이 중국 원나라에 가서 도리깨를 연상하며 시를 지었다고 한다. 이를 보면 도리깨는 14세기 이전부터 존재했음을 보여준다. 앞서 소개했듯이 고려 때 우리나라 왔던 송나라 사신 서공이 쓴 『고려도경』과 『고려사』에도 메밀국수에 대한 기록이 있으므로 그 이전부터 메밀음식은 존재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도리깨는 곡식의 낱알을 떠는 농구의 하나로 장대 끝에 서너 개의 휘추리를 달아 휘둘러가며 치는 농기구다.

도리깨의 중세국어 형태는 ‘도리채’이며, 근대국어 시기에는 ‘도리개, 도리새, 도로개’ 등의 다양한 형태가 나타난다. ‘도리채’는 ‘돌[回]+이(접사)+채[鞭]’로 분석되며, ‘도리개/도로개’는 ‘돌[回]+이/오(접사)+개(접사)’로 분석된다. 문제는 현대국어 ‘도리깨’의 직접적인 소급형이라고 할 수 있는 ‘도리새’에 대한 분석의 어려움이다. ‘도리새’는 ‘도릿개’로 적을 수 있으므로, 사이 ‘ㅅ’이 올 수 있는 것은 ‘개’가 접미사가 아니라 실질적인 뜻을 갖는 명사일 경우이다. 중세국어 형태 ‘도리채’는 ‘채’가 격음으로 시작하는 단어이므로 ‘도릿채’로 표기한다고 해도 발음에 차이가 없다. 따라서 ‘도리채’는 사이 ‘ㅅ’이 생략되었다고 할 수 있다. 아마도 ‘도리새’는 명사형 ‘채[편]’가 붙은 ‘도리채’와 접미사 ‘-개’가 붙은 ‘도리개’의 상호 영향을 받아서 형성된 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도리채/도릿채[도린채]’의 구조에서 ‘채’를 제외한 ‘도릿[도린]’에 접미사 ‘-개’를 연결시킨 형태가 ‘도리새’인 것이기 때문이다. (원)돌[回]+이[접사]+채[鞭] (변) 도리채 > 도리새 > 도리개 (예) 도리채(連枷, 사성통해 하-30) 도리채 가(枷, 훈

몽자회 중-17) 도리깨(물보), 도리새로 치다(한청문감 4037)<sup>34)</sup>

조선후기 풍속화에도 등장하듯이 보편적인 조선시대 탈곡용구로 도리깨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1900년대 초부터 기계식 탈곡기가 사용되면서 사라지고 있다. 그러나 도리깨 한 사람이 하루 동안 콩 8두, 보리 14두 정도를 타작할 수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 산간마을이나 일부 농가에서는 도리깨가 지금도 유용하다고 하겠다.

탈곡을 하여 벧가리가 모이면 한 편에 짚으로 동그랗게 또바리를 만들어 놓고 부채질을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하면서 벧가래를 지운다. 이때도 ‘벧가리지우는소리’를 하는데 선창을 하면 나머지 사람들이 후렴을 받는다. 벧가리를 지운다는 것은 먼지를 날린다는 것이다. 온종일 탈곡을 하여 모아 놓은 것을 다시 한번 더 까불면서 먼지를 털어 내는 작업이다. 가래를 들고 퍼 올리면 키를 가지고 털어 내는 작업이다. 가래를 든 사람과 키를 든 사람이 서로 호흡이 잘 맞아야 한다.

이렇게 털어낸 벧 낱알을 삼태기로 퍼서 곳간으로 보내는데, 여럿이 모여 작업을 할 때는 일렬로 서서 삼태기를 건네주면서 운반하기도 한다. 온종일 탈곡을 하고 나면 벧 꺼풀이 여기저기 달라붙는다. 이를 ‘꺼끄랭이’라고 하는데, 이를 없애기 위해 황덕불을 해놓고 불에다가 옷을 벗어 흔든다. 그러면 불에 꺼끄랭이가 타버리면서 옷에서 잘 떨어진다. 벧가리지우는소리는 다음과 같다.

자 베를 지우러 시작합시다.  
 술 한잔씩 먹었으니까  
 자 여기다 또바리 해 놓았어요.  
 자 한 번 넘어가  
 또 가듬에 이쪽으로 넘어가  
 십오는 넘겨야 하는데  
 부채질을 세게 아이 하면은  
 세 번에도 또 잘 아니 됩니다.

34) 김무림, 《한국어 어원사전》 지식과 교양, 2012, 283쪽

또 지워야 되요.  
부채질을 손 맞춰 잘해야 합니다.

넘어간다 넘어간다 뱃가리가 넘어간다  
에호에호 에에이 에호  
손 맞춰서 부쳐주오 잘못하며 부채질쌈 나요  
에호에호 에에이 에호  
또바리가 나왔어요.  
한 번 넘어갔습니다.  
또바리 일장 받아 또 넣으니까  
한번 더 넘게야 되요.  
이번엔 잘 좀 부쳐줘요.  
췌게 안부치면 또 부쳐야하니깐  
괜히 여러 번 헛수고합니다  
자 넘어갑니다

도문메나리 농요는 김을 맬 때 부르는 소리로서 다소 정적이며 구성진 가락을 지니고 있다. 주로 오전에 부르는데 시조 창법과 유사하지만, 다른 농요와는 확연히 구별된다. 설악산 신흥사의 불교문화권역에 속한 도문동의 지리적 위치에 따라 자연적으로 염불이나 범패소리의 영향을 아닐까 의심된다.

메나리 사설은 김을 맬 때 하루의 일과를 시간의 흐름에 따르게 되는데 처음에는 김매기가 시작되었음을 알린다. 이후 점심때가 되니 점심참을 먹자 하는 내용이 이어지고, 그 외 삶의 여러 모습들도 그 가사 속에 담는다. ‘질먹기’는 농약의 흥겨움에 맞추어 일꾼이 하루 동안 주인이 되는 이 반전의 민속놀이 이른바 ‘질먹는날’이다. 이것은 매우 흥미로운 것으로 ‘이날 하루는 머슴이 주인이 된다’고 한다. ‘2월 농부가 8월 신선’이 되는 이 행사는 한자로 쓰면 차례 ‘질(秩)’이라고 하듯이, 일과 휴식의 차례 질서에 속한 일이라는 뜻이다. 특히 모를 심을 때 구성되는 ‘들계’라고 하는데 표준어로 ‘두레’라 할 수 있다.



표준어 ‘두레’엔 여기 ‘질’과 같은 구체적인 사항들이 없다. 그 ‘질’을 언제 짜며, 가령 스무 집이 한 팀이라면 모를 심는 순번을 어떻게 정하며, 그때 그 순번을 벗어나 심는 일을 따로 정하는 등 매우 구체적이고 또 세세하다. 김매기까지 마치고 온 동네가 모여 점심을 먹는 행사도 ‘질’을 먹는다고 한다.

팔레(판레)는 대개 이 ‘질’과 관련되는 행사다. ‘질꾼’의 일원으로 함께 다니기는 하나 나이가 어려 일이 서투면 온전한 품값을 받지 못한다. 그러다가 이제 이만하면 대등한 한 몫을 한다고 인정될 때쯤엔 술이랑 음식을 장만하여 한턱을 낸다. 이것을 ‘팔레’라 한다. 말하자면 성인식(成人式)인 셈이다. ‘질먹기는 평등적 사고에서 비롯된 농가의 미풍양속이라 하겠다.

이것은 농가의 세서연(洗鋤宴, 호미씻이) 풍속으로 농번기가 끝난 후 농가의 일꾼을 위한 축제로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는 농촌민속놀이이다. ‘질’을 짜서 농사일을 하고 나서 한마당 농악놀이와 음식잔치를 펼치는 농군들의 명절이다.



본래 ‘질’은 ‘질레짬다’고 하여 마치 ‘두레’와 같은 용어로서 사용하는데, 모심기나 김매 때 농악을 치고, 이들이 두레패를 짬다. 보통 25명

내외로 짚을 짜는데 일종의 농군성인식인 판례는 대체로 15세 무렵에 하였다. 영좌는 농악대의 우두머리로서 좌상이라고도 부르는 바, “아무개는 이제 판례를 했으니, 어울려 짚을 짜서 일을 하시오”라고 성인일꾼이 되었음을 명하면 품회계(품앗이)의 일원이 된다.

논에서 김을 매는 아이짐(초벌김매기), 두벌짐, 세벌짐(짐은 김매기의 방언)을 매는 농번기가 끝나는 7월 보름경에 ‘질먹는다’고 하룻날을 받아서 푸짐한 음식을 차려놓고 하루종일 휴식하면 논다. 이후에는 ‘질혜친다’고 하여 ‘질’을 해산한다.

김매기 소리는 메나리와 동강소리로 구성된다. 나쁜한 오후에는 좀더 호흡이 짧은 동강소리를 한다. 점심참에 충분한 휴식을 취했으므로 김을 세계 매주기 위해 메나리보다는 빠르고 경쾌한 가락으로 동강소리를 부른다. 창법은 메나리와 비슷하다.

동해동창 솟는해는 반공중에 떠서있네  
연줄가네 연줄가네 저산너머 연줄가네  
그게어찌 연줄이나 우리부모 명줄이지  
해가져서 그늘졌나 산이높아서 그늘졌지  
질꾸질삼 잘하는여자 울렁바리 실어주소  
질꾸질삼 못하는여자 매어나아어 떼어주소  
이슬아침 낙랑동무 헤어질곳 몇해일새  
우겨라 우겨

양양메나리를 보면 4·4조의 음수율이 가능한 한 지켜지면서 특히 동강소리는 거의 철저하게 지켜지면서 불리진다. 이에 반해 도문메나리는 4음보의 음수율을 내재적으로 지키려고 하나 표면적으로 가사에서 약간의 일탈이 엿보인다.

또한 후렴도 비교된다. 도문 메나리 농요는 후렴이 없으나 양양 메나리는 ‘이-히-’라는 후렴이 있고, 동강소리도 물론 후렴구와 더불어 소리를 끝맺을 때는 ‘우겨라 우겨’라는 추임새로 끝을 맺는다. 이때 ‘우겨라 우겨라’ 하는 것은 논김을 다 매자는 뜻이다. 여름철 한창 퇴약벌 아래에서 일을 하면서 마지막 고비를 넘기자는 뜻으로 하는 추임새다.

김을 땔 때는 처음에는 일렬 형태로 김을 매다 마지막 논에서 김을 땔 때에는 양쪽 끝에서는 ‘우겨라’ 하며 오르리면서 원형 형태로 김을 매면서 소리를 한다. 이때 ‘우겨라’라고 추임새를 넣는다.

김을 땔 때 강릉에는 오독떼기를 부르는데 속초와 양양에서는 메나리를 부른다. 그러나 가창방법, 음역, 리듬, 형식, 선율형, 음조직, 종지형, 가사 등은 상당히 다른 것으로 파악된다. 강릉 이남 지역인 삼척은 속초와 양양처럼 ‘메나리’ 보다는 ‘미노리’ ‘미너리’ ‘미놀이’라는 방언을 쓴다.

삼척메나리는 가사나 부르는 창법이 속초보다는 양양지역과 유사하다. 가능하면 지키려고 한 4음보나, 또 ‘이-후-’라는 후렴구를 붙이는 것 등은 양양하고 비슷한 점이 있다. 삼척메나리 주요 음이 ‘라’와 ‘도’로 선율은 이 주요 음을 바탕으로 오르고 내리는 양상을 보이는데 메나리의 4마디가 각각 2마디씩 묶여 ‘라’로 시작하여, ‘도’로 올라가서 ‘미’나 ‘솔’로 내리는 흐름으로 이는 도문메나리도 동일하다.

가사를 비교해보면 ‘동해동창 솟는 해’라든지 ‘명사십리 해당화’라든지 동일한 가사도 엿보이고 또한 농촌임을 짐작케 주는 가사들이 많이 있고, 가창 방법은 속초나 양양이나 비슷하다. 앞 소절은 선창자가 부르고, 나머지 3개의 소절은 모두 함께 부른다. ‘매어나주게’를 선창자가 ‘매기는소리’를 부르면 나머지 3소절은 ‘받는소리’를 부른다.

도문메나리는 농민의 삶의 애환이 담겨 있다. 노동의 힘듦, 지루함을 이겨내기 위한 그들만의 방법으로 일이 더디면 소리를 빠르게 함으로써 일의 진행 속도를 높이고, 또 일이 지루하면 경쾌하게 소리를 함으로써 분위기를 밝게 전환한다.

메나리 소리는 대체로 오전에는 느리면서 차분하게 소리를 하나 오후에는 빠르고 쾌활하게 소리를 한다. 점심참을 먹고 나서 새로 시작하자면 아무래도 오전만큼 싱싱하지가 않기에 기분의 전환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밤에는 반찬이 날개요, 일에는 소리가 날개’라고 하듯이 소리꾼의 역할이 그만큼 강조된다. 소리를 못하면 진짜 일꾼이 아니라 풀꾼이라는 말도 그것을 반증한다.

영동지방에서 전해오는 메나리 소리는 제각기 고유한 특징이 있는데 삼척메나리는 가사나 부르는 창법이 속초보다는 양양하고 상당히 유사하다. 4음보를 고수하는 것이나, 또 ‘이-후-’라는 후렴구를 붙이는 것 등은 양양하고 비슷한 점이 있다. 그러나 소리의 톤(tone)을 보면 유장함이 오히려 도문메나리와 통하는 점이 있다.



양양메나리는 4·4조의 음수율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특히 동강소리는 거의 철저히 지켜진다. 또 ‘이-히-’라는 후렴이 있고, ‘우겨라 우겨’라는 추임새로 끝을 맺는다. 이에 반해 속초의 도문동 메나리는 4음보의 음수율이 표면적으로는 잘 지켜지지 않지만 그 곡조를 들어보면 내재적으로 4음보를 지키려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각 소절이 끝날 때에 “~아어~”란 여음이 들어가는데, 이 여음으로 곡조의 높낮이를 조절하는 기능을 하고 있어서 양양지역과 비슷하다. 가창방법에서도 선창과 후창으로 구별되는 것도 두 지방에 비슷하다. 그러나 후렴이 없는 것이 양양이나 삼척과는 다른 속초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속초 도문메나리는 도문동이라는 특수한 불교문화권역의 농촌에서 불려졌으며, 일제강점기 도천면 시절에도 불려서 ‘도천메나리’라는 이름으로도 전승된다. 도문메나리가 삶의 소리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은 농경문화가 차츰 사라져가는 오늘날에 민속문화의 전승과 보존이라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할 수 있다.

## 2. 속초아리랑

한국인에게 ‘쌀’과 같은 아리랑은 그 전승이 다양하고 지역성으로 반영하여 다채로운데, 속초지역에서도 당연히 아리랑이 전승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주지하듯이 속초 도문메나리농요는 2007년에 강원도무형문화재 20호로 지정되었다. 이것은 속초 도문동 지역의 전승농업노동요인 메나리의 특징이 다른 지역과 다르다는 점에서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받은 것이다. 전형적인 노동요인 메나리 농요와 함께 유희요인 아리랑은 속초지역에도 그 전승이 확인되고 있으며,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마당에 아리랑의 속초전승에 대한 본격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

지금부터 80년 전인 1935년 일제강점기에 채록된 민요집에는 ‘설악산’ ‘의상대’ 등의 가사가 등장하고 있으며, 괴나리봇짐을 지고 중국 북간도로 떠났던 설악권 주민들의 한스런 노래에서도 아리랑이 불렸다. 그동안 조사에서 속초에서 불린 아리랑 자료가 수집된 바 있으나 그 양은 많은 편이 아니다. 현재까지 구전하는 정선아리랑은 4,993수이고 음반에 수록된 가사도 510수에 달한다.<sup>35)</sup> 속초지역에서 전승되는 아리랑은 ‘동해안아리랑’ 또는 ‘설악권아리랑’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본고는 필자가 수집·채록한 아리랑의 속초지역 전승 현황과 가사의 향토적 토착성과 문예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동해바다와 산촌을 끼고 있는 속초지역의 어로요나 도문메나리 농요 등과 함께 속초아리랑의 전승이 확인된다.<sup>36)</sup> 김지연은 일찍이 아리랑의 기원과 종류 21종에 대하여 언급했는데, 그 가운데 강원도아리랑, 정선아리랑, 양양아리랑이 포함되어 있다.<sup>37)</sup> 따라서 당시 양양에 속했던 고성과 속초지역 아리랑의 존재가 확인된 셈이다. 또한 29종으로 분류한 아리랑에도 강원도아리랑, 고성아리랑, 정선아리랑, 춘천아리랑,

35) 진용선 편, 《정선아리랑 가사사전》 정선군, 정선아리랑문화재단, 2014

36) 장정룡, 〈속초시 도문메나리농요의 전승〉 《속초문화》 제22호, 속초문화원, 2006. 72~133쪽

37) 金志淵, 〈朝鮮民謠아리랑〉 《朝鮮》 152호, 1930년 6월호 40쪽 참조, 任東權, 《韓國民謠研究》 宣明文化社, 1974, 378쪽 재인용

정선아리랑 등 강원지역 아리랑 4종이 소개되어 있다. 이렇게 강원도 아리랑 또는 동해안아리랑 민요군으로서 고성아리랑의 전승양상과 향토적 위상은 일찍부터 확고했음이 증명된다.

우리 민족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민요 아리랑은 오래전부터 방방곡곡에 전파되는 행적에서 그 시대, 그곳 인민들의 기질과 애호, 민요적 전통, 생활풍속 등의 차별에 따라 지방적 특색을 띠어 많은 변종을 가지게 되었다. 지금까지 수집되고 정리된 주요한 전통적 아리랑의 변종들을 헤아려보면 아래와 같다. 강원도아리랑, 원산아리랑, 밀양아리랑, 영일아리랑, 하동아리랑, 정읍아리랑, 공주아리랑, 안주아리랑, 배양아리랑, 남원아리랑, 청주아리랑, 량강도아리랑, 고성아리랑, 평안아리랑, 긴아리랑, 정선아리랑, 세산아리랑, 서울아리랑, 구례아리랑, 진도아리랑, 경상도아리랑, 곡산아리랑, 순창아리랑, 창녕아리랑, 춘천아리랑, 서도아리랑, 단천아리랑, 영천아리랑, 삼아리랑<sup>38)</sup>

민요 아리랑은 오랜 세월 우리 인민들의 사랑 속에서 널리 불리워지는 과정에 지방에 따르는 여러 가지 변종들이 생겨났으며 전국적으로 하나의 민요군을 이루었다. 아리랑은 평안도의 <서도아리랑>, 강원도의 <강원도아리랑> <고성아리랑>, 함경도의 <함경도아리랑> <단천아리랑>, 경상도의 <밀양아리랑>, 경기도의 <긴아리랑>, 전라도의 <진도아리랑> 그밖에 <영천아리랑> <정선아리랑> <삼아리랑> 등 적지 않은 변종들을 가지고 있으나 그 바탕에 흐르고 있는 내용에는 거의 모두가 사랑의 감정을 기본으로 하면서 버리고 간 님에 대한 애정과 원망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과 결부되어 있는 것이 공통적이다.<sup>39)</sup>

강원도 북쪽은 함경도민요가 불리워졌고 서쪽으로는 황해도와 평안도의 민요들이 불리워졌으며 남쪽으로는 경기도와 경상도의 민요들이 불리워졌다. 바로 이러한 지대적 특성으로 하여 이 고장의 민

38) 조성일, 《민요연구》 연변인민출판사, 1983, 166~167쪽

39) 엄하진, 《조선민요의 유래》 예술교육출판사, 1992, 191쪽

요들은 다양하다고 볼 수 있는데, 대체로 시원스럽고 흥취나는 민요들이 많다. 그런가하면 <강원도아리랑> <정선아리랑> <통천아리랑> <고성아리랑> 등을 비롯하여 아리랑이 가장 많은 지대의 하나이다. 그리고 <회양닐니리>와 같은 춤곡에 가사를 달아 부르기도 한다. 더욱이 강원도는 금강산과 관동팔경을 안고 있는 지대이므로 예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관광객들이 그칠 새 없이 찾아오는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강원도는 각 지방의 각이한 민요들이 불리워졌던 탓으로 노래의 빈곤을 모르던 곳이다....<강원도아리랑> 과 <고성아리랑>, <정선아리랑>과 <통천아리랑>을 비롯하여 아리랑이 많은 강원도는 민요가 많은 지방이다.<sup>40)</sup>

조선민요를 지역과 지방별로 대별해보면 크게 다섯 개 지역 즉 서도민요, 동해안민요, 중부민요, 남도민요, 북방민요로 나누어 보게 되는데 이것은 지방적 특색이 민요의 음조, 양상, 선률적 색깔에 확연히 반영되어 있는 것과 관련된다. 민요아리랑도 전국적으로 매도 마다에서 창조되고 지역적으로 크게 서도아리랑, 중부아리랑, 남도아리랑, 함경도와 강원도아리랑, 영남아리랑으로 나누어지며 그것은 다름 아닌 그 지역 민요의 음조와 양상, 향토서정민요로서의 특색을 가지게 된다....아리랑은 지방, 지역별로 창조 전승되면서 제각기 자기 고장의 이름을 달아 명명되어 온 것만큼 생활내용과 풍토. 문물. 인정 등에서 향토적 색채가 농후하고 이채롭다. 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평안도 안주.송림.곡산 등 <서도아리랑>이 특색 있는가 하면 단천. 온천. 어랑을 위시로 하는 <함경도아리랑>, 원산. 고성. 양양을 포괄하는 <강원도아리랑>, 중부지방의 <서울아리랑>을 비롯한 <경기도아리랑>, 영남지방의 넓은 영역을 포괄하는 밀양. 창녕. 문경아리랑과 남도지방을 포괄하는 영일. 진도. 남원. 순창. 영천 등 수많은 아리랑이 향토정서적 색채가 뚜렷하다.<sup>41)</sup>

40) 최창호, 《민요따라 삼천리》 1995, 288~293쪽

41) 최창호, 《조선민요의 세계(하)》 2002, 16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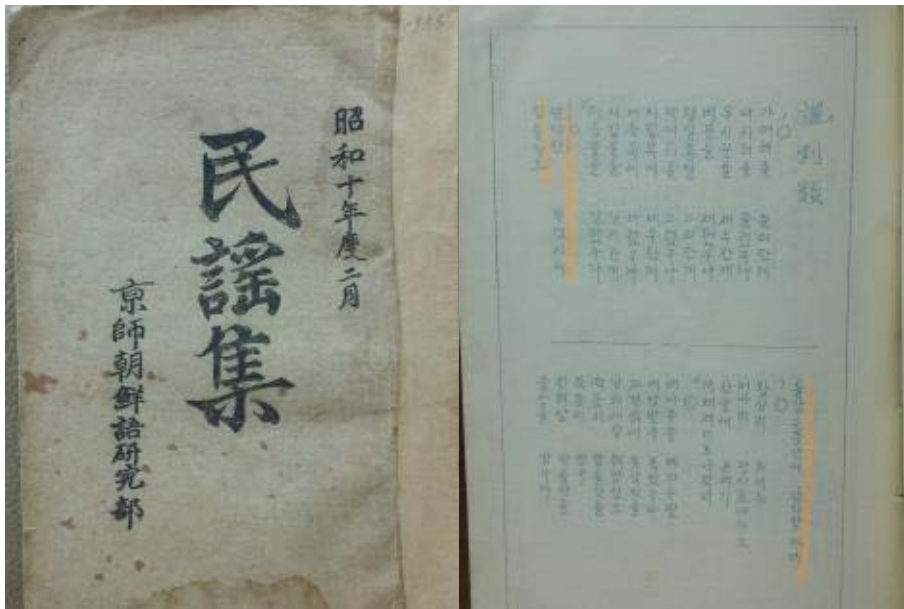
속초지역에서는 긴아리랑, 자진아리랑, 엮음아리랑이 전승되는 것으로 확증하고 있으며 또한 속초지역 아리랑에는 후렴이 강조되고 있다. 예컨대 후렴은 “아후, 넘겨주게, 넘어간다. 언제 또 넘어보나” 등으로 27~32%를 차지한다고 하였다.<sup>42)</sup>

현재 조사된 아리랑 가사 중에는 설악산이 가사에 들어간 아리랑이 소화 10년(1935) 민요집에 등장하고 있다.<sup>43)</sup> “설악산 꼭대기에 집을 짓고, 올 같은 풍년에 감자밥 먹네”라는 이 아리랑 민요는 경성사범학교 학생들에 의해 수집된 것으로 설악산이 그만큼 알려졌다라는 의미도 있고 1,708m의 험하고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일제강점기 이 아리랑 민요가 풍자하고 있는 양상은 설악산 정상에 집을 짓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렇게 힘든 일을 하고, 농사는 풍년이 되었지만 서민들은 소위 ‘이밥’이 아닌 여전히 ‘감자밥’을 먹을 정도로 수탈로 인하여 살림살이가 나아지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자 한 것이다. 이 민요의 분류를 ‘풍자류(諷刺類)’라고 한 것도 당시 식민지 생활의 풍자적 의미를 추정할 수 있다.

42) 유명희, <아라리연구>한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논문, 2004, 56쪽

43) 趙潤濟 編, 《民謠集》京城師範學校 朝鮮語研究部, 1935, 59쪽 ‘풍자류’ (장정룡 소장 가리방필사본), 이 경사본 민요집은 1922년부터 1946년까지 일제강점기 중등학교 교육기관이었던 경성사범학교 조선어연구부 학생들이 수집 등사한 민요집이다. 이 책 서문을 도남 조운제 선생이 썼는데 우리나라 국문학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학자로서, 1924년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문학과에 입학하여 조선어 문학 전공 최초학생이 되었으며 1929년 졸업하자 동 학부에서 촉탁, 조수를 거쳐 1932년 3월 경성사범학교 교유(敎諭)로 중등학교 교원이 되었다. 이후 7년간 근무하고 1939년 3월에 이 학교를 사임하였다. 이 민요집은 도남 선생이 경성사범학교 재직 당시인 을해년(1935년:소화10년) 2월에 간행한 것으로 몇 부를 발행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 등사본의 성격상 많은 수는 아닐 것으로 보이며 졸업생들에게 기념으로 만들어 주었다는 것을 보면 수집권 정도가 아닐까 추정된다. 이 ‘경사본 민요집’에 수록된 민요분류는 전체 12가지다. 부요류(婦謠類)-66수, 상사류(相思類)-15수, 풍자류(諷刺類)-33수, 자장가류(自長歌類)-23수, 어희류(語戲類)-19수, 동요류(童謠類)-112수, 속요류(俗謠類)-12수, 취락류(醉樂類)-4수, 수요류(數謠類)-10수, 노동류(勞動類)-4수, 잡류(雜類)-93수, 제주도의 민요-11수이다. 전체 민요는 402수인데 동요류가 112수로 가장 많고, 노동류, 취락류는 각각 4수에 지나지 않는다. 이 경사본 민요집에서 흥미로운 것으로 강원도 강릉경포, 설악산, 양양 낙산 지명과 수집장소로 원주가 있다.



고진감래(苦盡甘來)와 같이 누구나 고생 끝에 낙이 와야 하는 법이다. 그런데 힘들게 오른 산의 정상에 집을 지었고, 농사는 풍년이 되었건만 감자밥을 면하지 못하는 민중들의 삶이 지난함을 풍자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아리랑의 풍자적 양상은 경관 좋은 ‘설악산’을 가사로 인용한 점이 독특하다. 또한 강원도의 상징인 ‘감자밥’이 등장한 것도 이 민요가 강원도와 속초지역을 배경으로 했음을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민요를 속초아리랑의 전승적 범주에 넣어도 무방하다.

설악산은 세계적으로 이름난 명산으로서 전설이나 기행문, 회화, 사진 등 여러 측면에서 자원화가 가능하다.<sup>44)</sup> 설악산아리랑 가사도 실향민 문화와 함께 속초지역 전통문화자원화가 가능할 것이다.<sup>45)</sup> 속초지역에서는 속초아리랑보존회(회장 김부영)가 결성되었으며, (사)민예총 속초지부를 중심으로 설악산아리랑 음반이 제작되어 배포되고 각종 행사에서 설악산아리랑이 불리고 있다.<sup>46)</sup>

44) 장정룡, <설악산 울산바위 전설고찰> 《속초문화》 제24호, 속초문화원, 2008. 72~91쪽  
 장정룡, <조선시대 설악산 기행문고찰> 《속초문화》 제25호, 속초문화원, 2009. 57~76쪽  
 장정룡, <설악산 영문 기행일기와 설악동인계 고찰> 《속초문화》 29호, 속초문화원, 2013. 60~81쪽  
 45) 장정룡, <속초전통문화의 관광자원 방향과 전략> 《속초문화》 제21호, 속초문화원, 2005. 58~83쪽  
 장정룡, <실향민문화의 콘텐츠화> 《속초문화》 제23호, 속초문화원, 2007. 57~76쪽  
 장정룡, <속초실향민문화의 전승과 창조적발전방안> 《속초문화》 26호, 속초문화원, 2010. 94~125쪽  
 46) 장정룡, <속초아리랑의 전승적 특징과 이해> 속초아리랑 음반자료집, (사)민예총 속초지부, 2015

1. 설악산 꼭대기에 집을 짓고 올같은 풍년에 감자밥먹네
2. 공수레공수거라 빈손빈몸 왔다가 천만년을 살줄알고 고생고생 살았더니  
아리랑 아리랑 아리랴오 아리랑 고개고개로 나를 냉겨주게(후렴 이하 생략)
3. 등잔불 밑에다 술한상 놓구서 단들이 앉아서 합반주 합시다
4. 한잔먹고 두잔먹고 또 한잔먹고 목마르고 갈증나는데 또한잔 먹세
5. 노르래 놀아라 젊어만 놀아라 늙어야지면은 아이구야 못놀겠구나
6. 간데여 쪽쪽이 정들여나놓고 이별이야 잣아서 나는 못살겠구나
7. 물결은 출러렁 뱃머리 울러렁 그대당신은 어디루갈려고 이배에 올랐나
8. 줄듯말듯 안주는저처녀 총각심정을 아느냐 삼오십오 열다섯에 모발이 덜컹쉬거라
9. 늘민령 서둘기 헤루하 돈만같다면 우리네 친구를 못살꿔주나
10. 우리나라여 부모가야 나를야 곱게길러서 어드메다가 줄때가 없어서 이곳에 왔나
11. 백발보고 웃지마소 덧없이 가는세월 년들아니 늙을소냐 난들아니 늙을소냐
12. 만반지수를 차려놓고 빌어보면 아니올까 초로같은 우리인생 일장춘몽 꿈이로구나
13. 설악산 산매미가 금전이라면 삼천만 우리동포가 먹구씨구 남네
14. 노랑저고리 자진고름에 눈물이 달달골고요 니탓이냐내탓이냐 중신애비탓이라
15. 물안골 고개다 좁씨를 뿌렸더니 소쩍새가 다파먹고 조잇대만 간들간들
16. 삼팔령 이남은 왜 갈라놓고 보고싶은 부모자식을 못보고사나

[빠른박]

1. 아리랑여 고개는야 열두나고개지 우리님야 만나는 고개는 한고개도 없네
2. 아들딸여 날나고야 산제불공을 말고 날같은야 여자를야 팔세를 마라
3. 여기오신 여러분들 만수무강하시고 집집마다 하시는 일이 소원 성취하소서  
후렴 아리랑 아리랑 아리랑요 아리랑 고개고개로 나를 냉겨주게



속초아리랑의 실존은 속초지역에 거주하는 차종용, 박계량, 김순녀, 최월선 씨 등이며 모두 70세 이상 고령의 여성들이 2002년에 가창한 60수의 자료들에서 확인된다. 이를 보면 속초아리랑이 민간가창자들에 의해서 불려진 것은 최소 80년 이상으로 비교적 오래되었음을 간취할 수 있다. 사실상 속초아리랑은 강원도 아리랑자료집에도 누락되어 있는 실정이다.<sup>47)</sup>

47) 朴敏一, 《江原道 아리랑》 춘천문화원, 1993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에는 고성촌, 조양촌(조선양양촌), 강원촌 등이 상존하고 있으며 고성아리랑, 양양팔경가 등이 전승되고 있다. 또한 앞서 언급했듯이 1935년 발간한 경성사범학교 민요집에 설악산과 양양의 상대가 나타나고, 양양과 고성아리랑은 1980년대 조사자료와 중국 조선족 민요집에 수록되어 있는데, 이 지역은 1950년대까지 양양군에 일부가 속했다.<sup>48)</sup>

[자료1] 설악산 꼭대기에 집을 짓고  
 올같은 풍년에 감자밥 먹네  
 (1930년, 경성사범학교 조선어연구부, 민요집)

[자료2]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가 났구나  
 아리아리랑 고개자축을 날넘게주게(후렴)  
 당사실로 맏힌거는 바늘로나 풀지요  
 요내속 맏힌 거는 뭐로 푸나요

[자료3] 남포야 등잔아 불밝히라 버렸던 낭군님 다시보자  
 일구야 월심에 환하던 얼굴이 본 것이 화근이요

[자료4] 등잔불 밑에다 술한상 놓구서  
 단들이 앉아서 합환주 합시다

[자료5] 산천초목이여 불붙은거는 만인간이나 꺼주지  
 요내 속에야 불붙은거는 어느 누가 꺼주나

[자료6] 삼팔령 이남은 왜갈라나 놓구  
 보고싶은야 부모자식은 못보고 사나

[자료7] 무정한 산천초목아 말 물어보세

진용선, 《강원도의 아리랑》 정선아리랑연구소, 2002

48) 김태갑·조성일 편주, 《민요집성》 연변인민출판사, 1981, 146쪽

임이 그리워 죽은 무덤이 몇무덤이나 되나

[자료8] 아들딸을 못낳고야 산제불공을야 말고  
날같은야 여자를야 괄세를 마라

[자료9] 아리랑 고개는야 열두나 고개지  
우리님야 만내는 고개는 한고개도 없네

[자료10] 산이나여 높어야지 골골이나 짚지  
조꼬만야 여자속이나 얼마나 깊너

[자료11] 우리나라여 부모가야 나를야 곱게 길러서  
어디메다가 줄데가 없어서 이곳에 쫓나

[자료12] 참나물여 즈내기여 쓰러진 곳에  
우리집야 삼동세가나 나물캐러가세

[자료13] 갈철인지 봄철인지야 나는야 몰랐더니  
뒷동산에야 진달래꽃이나 나를 알귀주네

[자료14] 시집살이여 못하면 고리짜질만 하였지  
줄담배 아니먹고 나는 못살겠네

[자료15] 우리나라여 부모가 와다시를야 기를제  
업어둥둥 안어둥둥 나를길러 쫓다네

[자료16] 간데여 쪽쪽에 정들어나 놓고  
이별이야 찾아서 나는 못살겠구나

[자료17] 고향은야 정꿍어 타향이나야 되고야  
타향은야 정들어 내고향이 되는구나

[자료18] 이십살여 안쪽에 본가장을 잃고서  
십오야 지등을 나가야안고 도느냐

[자료19] 산두여 높어야 골이나야 깊지  
죄꼬만 열다섯 니가야 얼마나 깊느냐

[자료20] 우리어머니여 울아버지가 내나를 기를제  
진자리 마른자리 다골러 키웠네

[자료21] 하던내여 살림살이를 어느내 누게다 믿고서  
소방산 대틀에 누워서 가느냐

[자료22] 철러덩철러덩철러덩닭 몸보신할려고 먹었더니  
시어머니야 잔소리 사대나 절골이 녹는구나

[자료23] 산천이여 파룻파룻야 가신던님이  
백설이야 휘날려도 왜아니야 오느냐  
(차종용, 여.85, 속초시 노학동 노리, 2002.7.20., 장정룡 조  
사)

[자료24]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고개로 날만 넘게주게(후렴)  
갈철인지 봄철인지 나는 몰랐더니  
앞동산야 행화춘절이 나를 알려준다

[자료25] 강물은 돌고돌아 바다로 가련만  
요내몸은 돌고돌어 어디로가나

[자료26] 억수장마할라는가 저산밑 검은구름이 다모여든다  
아리랑 고개고개로 또넘어간다

[자료27] 산천여 초목은 봄마중 젊어만지는데  
우리야 인생은 한번 젊어지질 못하네

[자료28] 산천이 고와서 뒤돌아보았나  
우리님이 가시던 곳이라 뒤돌아보았네

[자료29] 노르래 놀아러 젊어만 놀어라  
늙어야지면은 아이구야 못놀겠구나

[자료30] 산에는 산신령 까마귀는야 깍깍짓고  
우리님 병세는 아구야 짚어가는구나

[자료31] 청천하늘에 아구야 잔별도 많고  
요내야 가삼에는 왜요리 수심도 많느냐

[자료32] 청천강수 흐르는물은 범사정으로 돌고  
평양에 기생은 한양으로만 돈다

[자료33] 석탄백탄 타는거는 삼천만 동포가 알건만  
요내가슴 타는건 한푼의 님도 모른다

[자료34] 산간에 초목은야 구시월 단풍에만 늙고  
우리같은 여자몸은 살림살이에 늙노라

[자료35] 스스로 북망이 아구야 뭐그래좋아  
꽃같은 날버리구 아구야 돈벌러갔느냐

[자료36] 돈그리워 죽은것은 은행소 복판에 묻고요  
임그리워 죽은것은 신작로 복판에 묻어라



[자료37] 산이나 고와서 아구야 뒤돌아보았너  
임같은 골싱에 뒤돌아보았네

[자료38] 치매폭에 싸인거는 양골년이고  
치매꼬리 싸인거는 먹구야놀자는 경매주다

[자료39] 천길에 만길에 똑떨어져 살어도  
병든님 떨어져 아구야 못살겠구나

[자료40] 늘민령 서둘기가 어루화 돈같으면  
어느네 친구를 내가나 못살귀주겠나

[자료41] 물각은 유주는 임자가 있건만  
요내몸은 어찌하여 임자가 없나

[자료42] 눈이올라나 비가 올라나  
저산밑에 검은구름이 다모여드네

[자료43] 산이야 높구야 골이나 깊지  
여자야 속이야 얼마나 깊으겠너

[자료44] 산이나 고와서 뒤돌아보았나  
임과 싶어 혹시래 뒤돌아보았네

[자료45] 잡으시오 잡으시오 이술한잔 잡으시오  
이술은 술이아니라 먹고노자는 경매주라

[자료46] 뒷산은 푸를청자요 앞산은 봄춘자라  
굽이굽이 내천자요 가지가지는 봄빛이라  
(박계량, 여.80, 속초시 도문동, 2002.5.26., 장정룡 조사)

[자료47] 물안골 고개다 좁씨를 뿌렸더니  
쏘쩍새가 다파먹고 조릿대만 간들간들

[자료48] 늘민령 큰서둘기 돈만 같으면은  
술한 건달들 다 잘사귈터인데

[자료49] 노랑저고리 앞섶에 기화자도장 찍구여  
니탓이나 내탓이나 중매재이 탓이로다

[자료50] 간다온다 간다더니 왜왔나  
이왕지사 왔거든 발치잠이나 자고가게

[자료51] 산이나 높아야 골이야 깊지요  
조끄만 여자속이야 뭐그리 깊은소냐

[자료52] 갈길이 멀어서 택시를 탔더니  
되지못한 운전수가 연애만 하잔다

[자료53] 일본동경이 뭐그리 좋아서  
꽃같은 날버리고 연락서 타느냐

[자료54] 난물이 들었네 난물이 들었네  
이산저산 도라지꽃에 난물이 들었네

[자료55] 기사머리 가려거든 혼자나 가지요  
아까운 청춘을 왜데려가느냐

[자료56] 와다시나 실가라 타래가 났구야  
울어야만 마수노키대 샘이야 났구요

[자료57] 간다고 못간다고 얼마나 울었던지  
정거장 대합실이 한강소가 되었네

[자료58] 울넘어 담너머 꿀베는 총각아  
눈치가 있거들랑 외밭어 먹어라

[자료59] 나는야 언제나 남가가 되어서  
진세로 양복에다 네꾸다이 매보나  
(김순녀, 여.70, 속초시 도문동, 2002.7.13., 장정룡 조사)

[자료60]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고개로 날 땀게주소(후렴)  
만첩산중에 호랑나비는 말그물이 원수요  
우리야 시체청년은 보복대가 원수라

[자료61] 임자당신은 어데로 갈라고 신발단장하오  
첩의집은 꽃밭이요 나의집은 연못이라  
(최월선, 여.77, 속초시 영랑동, 2002.7.4. 장정룡 조사)

속초 설악산과 양양 의상대를 배경으로 불린 1935년에 채록된 아리랑은 우리나라의 전체 아리랑이 1920년대 나운규의 편곡으로 널리 알려지게 된 것에 비해서 그 존재조차도 세상에 드러내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번 연구결과로 속초 설악산, 양양 의상대를 노랫말로 사용한 아리랑과 함께 일제강점기인 1930~40년대 중국 북간도로 이주한 강원도 고성출신들이 부른 고성아리랑과 강원도아리랑은 중국 조선족 사회에서 지금도 불리고 있음을 밝혀냈다.<sup>49)</sup> 또한 신민요로 불린 양양팔경가도 중국 조선족 사회와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지에서 전승되고 있음은 매우 중요한 사실로 볼 수 있다.<sup>50)</sup> 지금도 중국 조선족 집거지구

49) 장정룡, 《중국고성촌 이주사연구》 고성군, 2013., 김병학 채록편저, 《재소 고려인의 노래를 찾아서》 1.2, 도서출판 화남, 2007

50) 장정룡, 《중국 길림성 양양촌의 이주생활사》 양양문화원, 2012

에는 강원촌, 춘양촌, 고성촌, 양양촌 등 강원지역명을 띤 마을이 상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설악권아리랑’의 전과론적 추적도 향후 수행할 연구과제라 하겠다.<sup>51)</sup>

참고로 명산 설악산을 주제로 한 1950년대에 무암 박일호 씨가 작사한 ‘설악산노래’와 설악산기행 시조가 창작된 바 있다.<sup>52)</sup> 신민요와 시조로 불린 설악산 노래처럼 속초아리랑도 지속적인 가사창작이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된다.<sup>53)</sup> 정선과 평창아리랑의 가사집이나 가사사전 등이 좋은 예가 된다.<sup>54)</sup>

### [설악산노래] 박일호 작사

설악산 보고지고 천리를 찾았드니,  
푸른산 붉은잎이 옥류끼고 미소짓네  
어즈버 세상풍류 다버리고 너와함께 살리라

설악산봉 높은구름 이내마음 실어다가  
한양성중 지날적에 우리님을 만나거든  
연분홍 치마폭에 그린마음 안겨주오

### 술보다 담배보다 어여쁜 아가씨가

51) 장정룡 외, 《재중강원인 생활사 조사연구-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 강원발전연구원, 2006

52) 이 노래는 1950~60년대 불린 것으로 생각된다. 필자는 어렸을 때 박일호 씨를 만난 기억이 어렵게 이 난다. 설악산 노래를 즐겨 불렀으며 설악산을 사랑하며 설악에 살았던 분이다. 이 노래는 당시에 만든 설악산 기념 펜넨트에 적힌 내용이다(속초시립박물관소장). 이외에도 대중가요로도 여러 편이 불렸다. 참고로 김부자와 하춘화가 1975년에 부른 설악산노래를 소개한다.<관동팔경 설악산> (1975, 김부자 노래) 설악산 푸른봉은 구름헤쳐 솟아있고, 비단같은 폭포수는 하늘까지 이어졌네. 얼씨구 절씨구 절씨구나 좋을시고, 관동팔경 어드멘고 설악산이 예아닌가. 귀면암 가을단풍 석양같이 붉게 타며, 후세떠난 비선대에 선녀들이 춤을추고, 얼씨구 절씨구 절씨구나 좋을시고, 관동팔경 어드멘고 설악산이 예아닌가, 울산바위 소금강은 천하명산 자랑하고, 신흥사 종소리는 국태민안 빌고비네. 얼씨구 절씨구 절씨구나 좋을시고, 관동팔경 어드멘고 설악산이 예아닌가, <설악산메아리>(1975.6월, 김형인 작사, 하춘화 고평산 노래, 지구레코드사) 흰구름덮힌 설악산으로 그대와, 손잡고 휘파람 불면서 하이킹 가자, 진달래 철쭉꽃 우리를 부른다. 레이 레이 레이호 레이레이호, 산메아리 들려온다 사랑노래 들린다. 시원한 폭포수가 노래를 합창하면, 오색의 무지개핀다 그대와 손을 잡고, 설악산 찾아가는 즐거운 청춘하이킹, 형제봉으로 마등령으로 즐거운 하이킹, 콧노래도 흥겹게 설악산 가자, 에델바이스가 우리들을 부른다. 레이 레이 레이호 레이레이호, 산새들이 노래한다 흰구름이 떠있다, 금강산 찾아가다 설악산 봉우리된 전설의 울산바위로, 발걸음 가벼웁게 비선대 찾아가는 즐거운 하이킹”

53) 《정선아리랑창작가사집》 2013년 정선아리랑전수관 가사짓기교실, 정선군, 2013

54) 장정룡.이한길, 《평창아리랑가사집》 평창군, 2005, 진용선 편, 《정선아리랑가사사전》 정선군, 정선아리랑문화재단, 2014

아무리 좋다한들 대자연의 설악만은 못하더라  
설악이 무어나고 물으신다면  
땀방울에 씨앗이라고 말해주세요요

[鳳頂菴別曲]<sup>55)</sup>

雪嶽(지금 설악산)이 아니라 벼락이요  
求景이 아니라 苦境이요  
鳳頂이 아니라 難頂이라

[설악산 기행시조]<sup>56)</sup>

일컫한 설악산을 와서 반가운데  
세속이 범람하니 참아보기 괴로워라  
언제나 본연 그대로 마주보고 싶구나(설악산)

넓은 바위 깨끗한 물소리치며 흐르는데  
그 옛날 노던 신선 지금은 간곳없고  
깨끗한 물 넓은 바위 맑은 바람뿐이로다(비선대)

용이 살든 푸른 못물 용이 오른 세찬폭포  
이 장관 무어두고 구름타고 어뎠잖나  
설악산 기이한 풍경만 용의 조화로 남아있네(비룡폭)

속초아리랑의 가창형태는 나물 캐면서 메나리조로 부르다가 하면, 어  
랑타령에 맞추어 흥겹게 모임에서 부르기도 한다. 속초지역 아리랑은  
정선아리랑의 영향을 받은 흔적이 나타나며, 일본어나 일본지명이 등

55) 金昌祿, 〈嶺東地方의 民謠考察〉《文湖》創刊號, 건국대학교 국어국문학회, 1960, 96쪽 “李朝時代 鄭澈이가 역적이 난다고 해서 인제군 북면에 있는 봉정암에 穴을 지르러 왔다가, 갑자기 천지가 진동 하고 靈靈이 일어남에 정철이 중얼대고 혈을 지르지 못한 채 돌아갔다 한다.”

56) 崇山 지음, 《圓光》 제60호, 원불교교단기관지, 1968년 7월

장하는 것에서 일제강점기에도 불렀을 것으로 추정된다. 첫째 속초아리랑의 특징은 노랫말 즉 가사의 변별성을 찾을 수 있다. 속초의 지명이 등장하는 노랫말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설악산이다. 이외에도 늘민령, 물안골, 삼팔령 등 지명이 등장한다. 둘째는 자연의 의탁하여 자신의 심정과 생활상, 정한 등을 토로한 내용이 많다. 이것은 산과 계곡 등 설악산을 끼고 살고 있는 주민들의 생노병사, 나물캐는 여성들의 삶 등에 대한 정서의 표출이라고 할 수 있다. 설악산과 같은 명산승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러한 이채로운 민요의 면모와 가치를 널리 알리는 뜻은 일찍이 강조되었다.<sup>57)</sup>

강원도는 우리나라에서 전설의 鄉이요, 신비의 鄉이요, 시의 鄉으로 유구한 역사를 지니고 오는, 굴지의 東邊의 雄道라고 볼 것이다. 즉 本道는 내외의 금강산을 비롯하여 설악산, 오대산, 대관령 등을 중심으로 하여 가장 奇絶莊嚴하면서도 淸遠幽深한 기상을 드러내고 있는 명산승지가 도처에 벌여져 그 아름다운 자태야말로 海內外 列邦에서도 그 짝을 찾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런 신비경역을 배경으로...여기에 따르는 사적, 민요 및 향가와 시가문학의 자취가 외부세계에 그 빛을 발휘시키고저 하는 면에서 현존 민요를 더욱 연구발전시킴으로써 이채로운 면모를 나타낼 것이라고 본다.

속초아리랑 가사 가운데, “산천초목이여 불붙은 거는 만인간이나 꺼주지/요내 속에야 불붙은 거는 어느 누가 꺼주나”라는 내용이 있다. 속으로 까맣게 타들어가는 심정을 산천초목에 붙은 불에 비유하고, 이를 아리랑에 의탁해서 한탄의 감정을 노출한 것이다. “산간에 초목은야 구시월 단풍에만 늙고/우리같은 여자몸은 살림살이에 늙노라”고 하여 산천에 빗대어 단풍처럼 살림살이에 늙어가는 자신의 노쇠함을 표현하였다. 또한 “청천하늘에 아구야 쟈별도 많고/요내야 가삼에는 왜요리 수심도 많느냐”고 하늘에 빗대어 수심많은 자신을 표출하였고 “참나물여즈내기여 쓰러진 곳에/우리집야 삼동세가나 나물캐러가세”고 ‘참나물’ ‘즈내기’라는 설악계곡 산나물이 등장한다.

57) 金昌祿, 〈嶺東地方의 民謠考察〉《文湖》創刊號, 건국대학교 국어국문학회, 1960, 88쪽

세 번째는 사랑과 정한에 얽힌 가사들이 많다. 사랑은 영원불변의 이야기이다. 속초아리랑도 마찬가지다.<sup>58)</sup> 속초아리랑에서는 “무정한 산천초목아 말 물어보세/임이 그리워 죽은 무덤이 몇무덤이나 되나”고 그리움의 정한을 죽음과 연관 지어 나타냈다. “돈그리워 죽은것은 은행소복판에 묻고요/임그리워 죽은것은 신작로 복판에 묻어라”고 하여 돈과 임을 동가적(同價的) 위상에 놓고 있다. 가난과 그리움은 숨길수록 안타깝게 더 드러난다.<sup>59)</sup> 아리랑시원설에서 “누가 내 마음을 알리오”라는 ‘알리오 어원설’이 존중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sup>60)</sup>

네 번째는 정선아리랑의 일정한 영향을 받은 가사들이 존재한다. 이것은 아리랑의 권역에서 정선지역을 중심으로 백두대간으로 퍼져나간 것으로 볼 수 있다. 정선아리랑 대표 가사와 같이 “눈이올라나 비가 올라나/저산밑에 검은구름이 다모여드네”라고 부르고,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아리랑 고개고개로 날만 넘게주게/갈철인지 봄철인지 나는 몰랐더니/ 앞동산야 행화춘절이 나를 알려준다” 고 하였다. 또한 “산천이 고와서 뒤돌아보았나/우리님이 가시던 곳이래 뒤돌아보았네”라고 했듯이 이들 노랫말도 정선아리랑에 자주 등장한다. 산천은 정선이나 설악권 산천이 노래를 통해서 정서적으로 같은 개념화로 차용한 것이다.<sup>61)</sup>

다섯째, 속초아리랑은 강원도 아리랑가운데, 설악권아리랑, 동해안유역권아리랑에 해당한다.<sup>62)</sup> 특히 자진아라리가 많이 불리고 있으며 바다를 접하고 있어 해안을 따라 형성된 것으로 나타나고, 북강원과의 관계도 주목된다.<sup>63)</sup> 속초아리랑은 넓은 범주에서 슬프고 애타는 듯한 느낌을 주는 음조인 계면조(界面調)로 불리는 강원도 민요권역에 속하

58) 김한나, <아라리 가사에 나타난 이성문제> 강릉원주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11에서는 ‘사랑고백과 이성교제, 이별 및 그리움, 성 인식과 표현’등으로 이성문제를 다루었다.

59) 박춘명, <아리랑의 연원과 민족적 정서> 《조선문학》 12집, 2001, 71쪽 “여러 가지 아리랑의 발생설을 종합하여 보면 불우한 사회적 처지, 서글픈 생활감정을 바탕으로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아리랑고개는 어디까지나 생활체험과 민족적 정서를 반영한 가상적인 고개이다”

60) 김연갑, 《아리랑시원설연구》 명상, 2006, 16쪽

61) 《旌善의 鄉史》 정선군, 1981, 82쪽 “산천이 고와서 되돌아 봤나/임자당신이 보고 싶어서 뒤를 돌아 봤지”

62) 강원지역 아리랑권역 중에서 동해안유역권은 강릉.고성.동해.삼척.속초.양양 등 6개 시군이 해당되는 바, 총 937수가 수집된 것으로 나타나 강원도 아리랑 전체 3,516수에서 30%를 상회하고 있다. 이 가운데 속초지역은 51수로 비교적 적다. 유명희, <아라리연구> 한림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논문, 2004, 55쪽 참조

63) 유명희, <아라리연구> 한림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논문, 2004, 119쪽

며<sup>64)</sup> 동시에 속초아리랑은 시김새가 강조되는 정선아리랑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sup>65)</sup> 아리랑과 메나리는 속초지역에 전승된 중요한 전통민요로 평가받을 수 있다.

지난 2012년 유네스코 인류구전 및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한국의 아리랑이 등재되었다. 이에 따라 정선을 비롯한 강원도 지역의 아리랑도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 되었다. 아리랑의 속초지역 전승자료는 강원 동해안권역에 속하는 아라리계통으로 보고 있으며 필자에 의해 수집 정리된 가사는 60여 수에 해당한다.

본고는 61수를 대상으로 속초아리랑의 전승맥락과 특징을 살펴본 것이다. 속초에 전승되는 아리랑은 향토지리적 특성을 띤 것과 자연과 생활, 애정과 정한 등의 서정성을 배경으로 한 것도 있는데 강원도아리랑의 영향이 나타난다. 근래 속초지역에서는 ‘속초아리랑보존회’가 결성되고 다양한 아리랑의 전승작업과 공연활동이 활발해 지고 있다. 이는 이른바 ‘속초아리랑’이 한국아리랑의 큰 범주에서 또 동해안아리랑의 특징으로 존재함을 확인하는 중요한 일이라고 하겠다. 이미 속초 농업노동요인 도문메나리가 강원도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으며 전수회관이 건립되는 등 활발한 전수를 펼치고 있는바, 속초아리랑의 무형문화재적 가치 또한 높다고 평가된다.

앞서 설명했듯이 지금부터 80년 전인 1935년 일제강점기하에서도 속초 설악산, 양양 의상대 등을 배경한 ‘설악권아리랑’이 밝혀졌다. 또한 1930~40년대 일제의 수탈을 피하여 멀리 중국 북간도로 이주한 강원도 출신들이 부른 고성아리랑도 중국 조선족 사회에서 전승되고 있다. 따라서 1930년대부터 속초·고성·양양 등 이른바 설악권에서 아리랑이 실존했음은 확인된다.

64) 박춘식, <강원도 민요의 조식과 음조적 특성> 《조선예술》 문학예술출판사, 2009, 78쪽 “강원도 민요는 그 대부분이 ‘라’계면조와 ‘미’계면조에 기초하고 있어 다른 지방의 민요들에 비하여 전반적 음악형상이 상대적으로 어둡고 처량한 정서적 색깔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강원민요에는 장식적 굴림음을 조를 많이 쓰고 있다.”

65) ‘시김새’는 선율을 이루는 골격음의 앞이나 뒤에서 그 음을 꾸며주는 임무를 띤 장식음 또는 음길이 [時價]가 짧은 잔가락을 뜻한다. 넓은 의미로는 선율선(旋律線)이나 절주(節奏: 리듬)의 자연스런 연결이나 유연한 흐름을 위하여 또는 화려함과 멋스러움을 위하여 어느 음에 부여되는 표현기능을 뜻하는 용어로 쓰인다. 식음(飾音)새, 또는 시금새로도 부른다.



우리나라 아리랑권역 가운데 이른바 영월·평창·정선의 아리랑을 ‘영평정아리랑’이라고 확정했듯이, 이른바 ‘설악권아리랑’의 실체를 강조하고자 한다. ‘강원동해안아리랑’이라는 기존의 개념과 더불어 실상이 부합한 ‘설악권아리랑’이라는 이름은 한국아리랑의 새로운 권역설정이라고 하겠다.

### 3. 돈돌라리 민요



속초에 살고 있는 실향민은 고향을 북쪽에 두고 갈 수 없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민족분단의 비극적 역사의 희생자이다. 또한 그 상실의 고통을 극복하고 남쪽에서 자기실현을 수행하고, 모든살이를 추구하며 늘 고향회귀와 남북평화통일을 꿈꾼다. 속초는 함경도 피난민 제2의 고향인 청호동 아바이마을이 존재하고 있다. 이들의 이주정착은 속초속의 함경도라는 새로운 융합문화를 창조하였다.<sup>66)</sup> 함경도 문화이식과정착은 분단한국의 한을 간직한 채 속초에서 전승의 꽃을 피우고 있다.

‘돈돌라리’는 함경남도 지역에서 전승된 ‘가무놀이’ 또는 ‘노래춤’으로서 그 가락과 춤사위가 상징적이며 복합적인 의미를 내재한 것으로 파

66) 장정룡, <속초실향민문화의 전승과 창조적 발전방안> 《속초문화》26호, 속초문화원, 2010, 94~125쪽

악된다. 본고에서는 ‘돈돌라리’ 민요의 유래를 고찰하고, 속초 전파와 정착과정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돈돌라리는 함경남도 신창, 덕성, 단천, 이원, 갑산, 풍산지역의 민속 무용으로 특히 북청 모래산(현재 신창군 속후)의 돈돌라리가 가장 유명하며 북한에서도 현재 집단가무놀이로 널리 퍼졌다.<sup>67)</sup>

이 민요는 문화이식(文化移植:culturation acculturation)으로 정착된 것이다. 문화이식은 제국주의에 의한 식민화, 정복이나 전쟁 혹은 군사적 점령, 대규모의 인구이동의 경우에 발생하는 현상이다.<sup>68)</sup>

함경남도에서 속초로 옮겨온 민요 ‘돈돌라리’의 민요적 정체성과 그것은 의미를 탐구하면, 우선적으로 “돈돌라리란 어원은 알 수가 없고 일제에게 나라를 잃은 이후부터는 ‘동틀날’ 즉 조국광복의 여명이 밝아온다는 뜻에서 불렀다고 전해온다”고 하였다.<sup>69)</sup> ‘돈돌라리’의 어원설명은 대부분 유사한 바,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돈돌라리 민요, 1930년대초 북청지방에서 창조되었다. 가사는 ‘돈돌라리, 리라라리요’ 등 별 뜻이 없는 어구들의 반복으로 이루어지면서 ‘모래산천, 시내강변, 보배산천’ 등의 단편적인 표현들이 그와 결합되어있다. 음악은 리듬이 선명하고 절도가 있으며, 흥겹고 낙천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곡조는 부르기 쉬운 선율로 이루어져 있으며 ‘먹일소리’ ‘받는소리’의 구분이 선명하지 않다. 이것은 노래가 무곡으로 발전한 것과 중요하게 관련되어있다. 이 민요에 맞춘 춤은 제각기 흥이 나는대로 추다가 원을 지어가면서 절도있게 추기도 한다. 춤가락은 손목을 다양하게 움직이는 동작과 경쾌한 발 움직임에서 다른 춤들과 구별된다. 북청지방에서는 이 노래에서 파생된 ‘흘라리, 라이라떼뜰, 라이쏘’ 등 수많은 민요들이 있다. 이런 노래들도 ‘돈돌라리’와 마찬가지로 무곡으로 되어 있다.<sup>70)</sup>

돈돌라리는 북청지방 민요이다. 이곳 사람들의 노래에 ‘동틀날이

67) 장정룡, <속초실향민 민속놀이의 콘텐츠 개발> 《속초문화》23호, 속초문화원, 2007, 80쪽

68) 이우영, 《북한문화의 수용 실태조사》통일연구원, 2001, 8쪽

69) 최창호, <북청의 돈돌라리와 흘라리> 《민요따라 삼천리》 1995, 42쪽

70) 《문학예술사전》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1972, 225쪽

오리라' 즉 '광복의 날이 다가온다'는 뜻을 담아 명절날이나 모임이 있을 때마다 이 노래에 맞추어 춤을 추며 놀았다. 노래에는 일제침략자들을 하루빨리 우리나라에서 쳐몰아내고 다시금 평화롭게 살 날이 동이 터오듯 반드시 올 것이라는 믿음과 신념이 반영되어 있다.<sup>71)</sup>

북청지방민요인데 이 곳 사람들은 노래 제목을 '동틀날' 즉 '해방의 날이 다가온다'는 뜻으로 해석하면서 명절날이나 모임이 있을 때마다 이 노래에 맞추어 춤을 추면서 놀았다.<sup>72)</sup>



일설에는 '동틀날이 동틀날이 동틀날이요'라고 부르다가 일제 강점기 순사가 찾아오면 그 뜻을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발음을 흘려 '돈돌라리'라고 불렀다고도 한다. 필자의 관점으로 '돈돌라리'가 본래 '돌고돌다'의 회전을 의미하는 '돌다'의 '돌'이 겹쳐 '돌고 돈다'와 같이 이 말을 강조한 '돌돌'이 '돈돌'로 변하고 '라리'는 '메나리(미나리)' 민요를 뜻한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함경남도 북청지방에는 돈돌라리, 흘라리와 함께 '미나리' 민요가 전승되므로<sup>73)</sup> '돌고 돌면서 부르는 메나리 또는

71) 김범주, 《우리말 어휘의 뜻과 유래》 금성청년출판사, 2010, 140쪽

72) 안옥규, 《어원사전》 동북조선민족교육출판사, 1989, 111쪽

미나리'라는 뜻의 '돌돌미나리'가 음운축약으로 줄어서 '돈돌라리'가 된 것이 아닐까 의심된다.



'돈돌'이라는 뜻은 회전(回轉)을 뜻한다. 제 구비로 돌아온다는 어원이다. 국토를 빼앗아버린 일본의 침략적인 식민지가 된 우리 땅이 제 나라의 백성의 손에 되돌아온다는 뜻이 되기도 한다. 여러 군민들이 이 노래를 부르다가 일본경찰에 끌려가 고문당한 사실을 생각하면 필경 일인들은 그러한 사상적인 표현으로 본 것이 분명하다. '동틀날' 여명의 뜻도 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가지 첨부시켜 생각할 것은 속후(俗厚)에 있는 모래산 이야기다 이것은 분명 근대에 들어와서부터 전해 내려온 이야기다. 이조 초에까지 소급하여

73) 이동원, 《조선민요의 세계》(하), 2002, 432쪽 “놀이과정에는 ‘동틀날’이와 함께 ‘흘라리’ ‘미나리’도 광범히 불리워졌다.…놀이과정에서 함께 불리워진 민요 ‘미나리’(未來里)도 미래가 마을에 온다는 본래 뜻을 살려 조국광복에 대한 지향을 유연한 선율에 담아 절절하게 토로하고 있다.”

이신벌군(以臣伐君)하여 집권한 이조는 저 모래산에 모래가 다 덮히면 망한다는 뜻에다가 돈돌한 사실을 생각하면 필경 일본인들은 그러한 사상적 표현으로 본 것이 분명하다.<sup>74)</sup>

메나리는 우리나라 민요의 토리로 ‘메나리(미나리)조’라는 특색을 갖고 있으며 우리 민족에게는 보물과 같은 곡조다. 홍사용은 메나리는 민요를 지칭하다고 했으며 한국의 보물, 거룩한 녀이라고 까지 말하였다.<sup>75)</sup> ‘돈돌라리’는 춤과 노래로 진행되는 가무곡으로 반일운동 때 널리 불린 것으로 전한다.



반일운동을 하는 과정에 널리 불리워진 ‘돈돌라리’는 8소절로 되어 있는 짧은 형식의 민요인데 운치있는 선율을 더듬어보아도 가무곡의 하나였음을 알 수 있다. 원래 북청지방은 모래로 형성된 산과 밭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장 사람들은 주로 시내강변의 백사장에서 ‘돈돌라리’의 춤을 추었다. 둥그렇게 원을 짓고 사람들이 둘러앉으면 그중 몇몇 사람들이 춤판에 뛰어들고 나머지 사람들은 손

74) 북청군지, 《북청군지편찬위원회》 1970, 260쪽

75) 洪露雀, 〈朝鮮은 메나리 나라〉《別乾坤》 1928년 5월, 최철·설성경, 《민요의 연구》 정음사, 1984, 104쪽

벽장단을 치며 노래를 부른다. 여기에는 피리, 저대 등 풍악반주가 따르기도 하였지만 기본은 북장단이었다. 춤판이 점점 흥겨워지고 분위기가 고조되면 춤판에 뛰어드는 사람이 많아지고 빙글빙글 돌면서 원을 짓고 춤을 추었다고 전해온다.<sup>76)</sup>

지금까지 전하는 돈돌라리는 8소절로 구성된 비교적 짧은 민요곡조다. 그동안 한국, 북한, 중국 조선족 등에서 전승된 노랫말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조선의 민속놀이(1964년)에 수록된 돈돌라리 춤 장면-

76) 최창호, <북청의 돈돌라리와 흘라리> 《민요따라 삼천리》 1995, 43쪽

- 1) 돈돌라리 돈돌라리 돈돌라리요/리라 리라리 돈돌라리요
- 2) 돈돌라리 돈돌라리 돈돌라리요/시내강변에 돈돌라리요
- 3) 돈돌라리 돈돌라리 돈돌라리요/모래산천에 돈돌라리요
- 4) 돈돌라리 돈돌라리 돈돌라리요/보배산천에 돈돌라리요<sup>77)</sup>
- 5) 돈돌날이 돈돌날이 돈돌날이오/모래靑山에 돈돌날이오
- 6) 오막살이 초가집에 모래江山에/나라리 나라리 돈돌날이오<sup>78)</sup>
- 7) 산에가면 산이모두 황금산이라/열매가 주렁져 돈돌라리요
- 8) 들에가면 들이모두 풍년별이라/금나락 넘쳐나 돈돌라리요
- 9) 집집마다 찾아가면 웃음꽃이라/기쁨이 넘쳐나 돈돌라리요
- 10) 일터마다 찾아가면 노래소리라/일하기 흥겨워 돈돌라리요
- 11) 간곳마다 경치종고 살기가 좋아/금수라 이강산 돈돌라리요<sup>79)</sup>
- 12) 돈돌라리 돈돌라리 돈돌날이오/모래청산에 돈돌날이오.
- 13) 보배청산에 동틀날이요/동틀날이 동틀날이 동틀날이요/리라리라  
리 동틀날이요
- 14) 동산에 해솟고 서산에 해떨어진다/동틀날이 동틀날이 동틀날이  
요/리라리라리 동틀날이요

77) 문하연, <돈돌라리와 달래춤> 《조선의 민속놀이》 군중문화출판사, 1964, 30쪽

78) 《북청군지》 북청군지편찬위원회, 1970, 259쪽에 오막살이, 다른 자료는 초가짜리(살이)도 나온다.

79) 엄하진, 《조선민요의 유래》 예술교육출판사, 1992, 41쪽





-민요따라 삼천리(1995)에 수록된 돈돌라리 춤-

- 15) 역사를 핑핑 돌리는 무산대중아/동틀날이 동틀날이 동틀날이요/  
리라리라리 동틀날이요
- 16) 무산혁명대열로 뭉쳐 나가세/동틀날이 동틀날이 동틀날이요/리라  
리라리 동틀날이요<sup>80)</sup>
- 17) 돈돌라리 돈돌라리 돈돌라리요/때물젓어 가난살이 돈돌라리요
- 18) 조발콩밭 김다매면 돈돌라리요/햇밥지어 첫술뜨니 돈돌라리요
- 19) 남편소식 그리워서 돈돌라이요/밤이가고 해가뜨면 돈돌라리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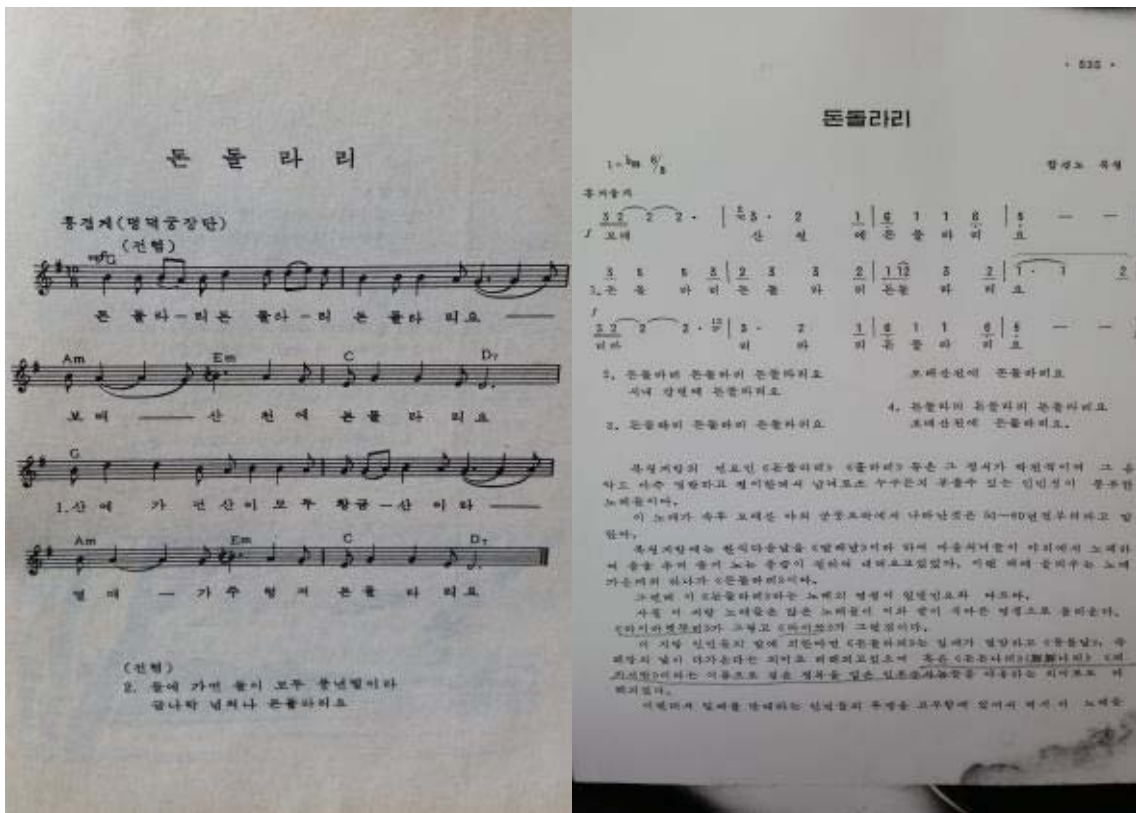
80) 이동원, 《조선민요의 세계》(하), 2002, 431~432쪽

- 20) 돈돌라리 돈돌라리 돈돌라리요/얼씨구나 노래춤에 돈돌라리요
- 21) 돈돌라리 돈돌라리 돈돌라리요/안팍살림 후줄근해 돈돌라리요
- 22) 예비불러 우는자식 돈돌라리요/울지말고 웃어보렴 돈돌라리요
- 23) 겨울가고 꽃피여서 돈돌라리요/천자만홍 꽃피여서 돈돌라리요
- 24) 돈돌라리 돈돌라리 돈돌라리요/돌물레가 돌고돌아 돈돌라리요
- 25) 양말뜨고 조끼뜨며 돈돌라리요/애간장이 타고나서 돈돌라리요
- 26) 기다리는 내사랑아 돈돌라리요/그언제면 님이올가 돈돌라리요<sup>81)</sup>

앞서 ‘돈돌라리’를 어원론적 측면에서 원무곡식으로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른 ‘돌돌미나리’가 ‘돈돌라리’로 추정된 바 있다. 북한의 연구에 의하면 돈돌라리를 부르며 추는 춤은 발해의 답추무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언급하고 있다.

답추무는 답가 또는 답추가에 의하여 추어졌던 춤이었는데 답추무의 구체적인 형식은 원을 지어선 사람들 속에 북을 메고 노래를 맥이면 원무를 하는 사람들은 그 맥이는 노래의 가사에 화답하는 노래를 합창으로 부르면서 춤을 추었던 것이다. 원무가들의 구체적인 춤동작은 여성들이 민족적인 연중행사 때 그네줄을 가지껏 벌렸다가 그네가 밑으로 내려올 때는 그네줄을 좁히는 것과 동시에 그네 발판을 다리로 힘껏 굴러서 높이 올라가는 그러한 동작형태를 모방하여 답추무가 창작되게 되었던 것이다. 답추무의 무용형식과 그 구체적인 동작들은 20년대 초에 이르러 ‘돈돌라리’민속무용으로 발전하였던 것이다.

81) 김정훈, 《중국 조선족 민속춤과 민속놀이》 북경민족출판사, 2010, 102쪽



답추무가 인민들의 연중행사놀이에서 흥겨운 춤으로 추어졌다면 '돈돌라리' 민속무용은 조국강토에 드리운 검은 구름을 헤쳐버리고 동트는 새날 즉 빼앗긴 조국을 되찾으려는 우리 인민들의 애국적인 이상과 염원이 춤과 노래에 구현되어 있는 것으로 해서 확연하게 구별되고 있다. 때문에 '돈돌라리' 민속무용은 옛날의 답추무의 형식을 계승하면서도 새로운 시대의 환경과 사상조류의 요구에 맞게 혁신적인 성과로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이다.<sup>82)</sup>

주지하듯이 발해(698~926)는 고구려를 계승한 한민족의 주권국가로서, 7세기 말부터 10세기 초까지 229년 동안 우리나라 역사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 해동성국(海東盛國)이었다. 중국 동북지역과 북한 북부, 러시아 원동의 남부지역을 포함한 광활한 영토를 차지한 발해사에 대한 연구는 고고학적 발굴과 함께 역사적 전통과 문화적 특성, 민속과 전승설화 등에 대하여 진행된 바 있다.<sup>83)</sup>

82) 박병화, <민속무용 돈돌라리> 《천리마》 제10호, 1990, 91쪽

북청지역은 발해국 시대에 5경 가운데 하나인 남경 남해부의 수부가 북청군 속후면 하천리에 있었다. 당시의 도로 흔적을 지금도 찾아볼 수 있는데, 하천산과 부근전야에는 이때 폐허인 초석이 있고 성벽의 잔해가 하천리의 구릉에 묻혀있다. 발해의 견면(바다숨), 말과 돼지, 곤포, 건문어, 자하배는 이곳의 토산물로 수출이 되었다고 하며, 특히 음악의 곡조와 함께 일본에 전해졌으며, 곡보는 고려악 중 여러 곡이 들어있음을 볼 때<sup>84)</sup> 발해 답추무가 이곳의 돈돌라리로 계승된 것이 아닐까 추정하는 바이다.

7세기경 고구려의 장수인 대조영이 세운 발해국의 주민들이 추던 춤과 답추무는 유사하다. 발해인들의 대표적인 세시풍속 집단무용으로 답추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83) 장정룡, <발해전설과 풍속연구> 《국제아시아민속학》 제4집, 국제아시아민속학회, 2013, 59~150쪽

84) 《북청군지》 북청군지편찬위원회, 1970, 124쪽

발해풍속에서 매년 세시풍속 명절 때면 모두가 모여서 이 날을 축하하기 위해 음악을 연주하는데 먼저 노래와 춤에 능한 사람을 명하여 몇몇이 앞으로 나가면서 노래를 부르며 그 뒤로 선비와 병사 등 여러 사람이 따라 부르며 원활하고도 자유롭게 빙빙 돌면서 춤을 추는 원무곡식(圓舞曲式) 춤을 추었다. 이것을 답추(踏鎚)라 한다.<sup>85)</sup>

원무곡인 답추는 강강술래춤과 같은 모습으로 유추되는데, 노래와 춤을 결합한 일종의 집체무로서<sup>86)</sup> 일본에도 널리 알려져 일본조정에서도 발해국 사신을 맞이할 때 답가를 연주하여 환영했다고 한다. 답추는 노래를 부르며 춤추는데 서로 팔을 이어서 끼고 수십 명이 서로 따르면서 땅을 발로 차면서 장단을 맞추는 답지위절(踏地爲節)과 같은 것이며, 서경잡기에 나오는 연비답지위절(連臂蹋地爲節)을 말한다. 따라서 답추는 땅을 발로 차면서 장단을 맞추는 ‘답지위절’로서 답지의 답(蹋)은 ‘밟다’는 뜻과 ‘차다’는 뜻을 다 가지고 있다. 곧 추격지(鎚擊地)와 같은 것이며 전투무도의 형태로도 보고 있다.<sup>87)</sup> 중국소수민족인 장족(藏族) 집단가무의 척답무(踢踏舞, 일명 堆諧)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면위에서 발로 차고 땅을 밟는 행위다.

퇴해(堆諧) 가무의 무도동작의 가장 큰 특징은 다리 부분의 차기와 밟기이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차기와 밟기는 서양 탭댄스의 밟기 동작과 다르다. 서양 탭댄스의 다리 동작은 춤추는 사람의 발바닥과 발꿈치(발뒤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선후, 경중으로 분류되며, 지면위의 규칙적인 운동으로, 그리하여 발생하는 각기 다른 여러 종류의 차기와 밟기는, 그 소리가 특징적이다. 중국 장족(티벳족)의 퇴해는 전체 발 부분이 지면상에서 규칙적으로 만들어지는 차기동작의 음악이 특징적이다. 이것으로도 서양의 탭댄스에서 변화해 온 것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다. 가무자가 뛰고 움직일 때, 상반신은 움직이지 않고 단지 방향을 바꿀 때만 아주 조금 비스듬히 기울뿐

85) 《契丹國志》卷24 王沂公行程錄(王欣公上契丹事), 《宋會要輯稿》蕃夷2 “渤海俗, 每歲時聚會作樂, 先命善歌善舞者, 數輩前行, 士兵相隨, 更相唱和, 回旋宛轉, 號曰踏鎚” 이외에도 《續自治通鑑長編》卷79, 《遼史》卷39에 수록되어 있다.

86) 王承禮, 《渤海簡史》黑龍江人民出版社, 1984, 204쪽

87) 張軍, 〈說渤海的‘踏歌’〉《哈爾濱學院學報》제22권, 제2기, 2001, 74~76쪽

이다. 전설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춤을 잘 추는 사람은 머리 꼭대기에 물이 담긴 그릇을 놓아도 물이 조금도 흘러내리지 않았다고 한다.<sup>88)</sup>

따라서 답추는 필자의 언급과 같이 단순히 땅을 밟는 것이 아니라 땅을 신에게 풍년을 기원하기 위해서 ‘땅을 밟로 차면서 고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밟해의 답추는 멀리 우리나라 고대 삼한 때 마한 사람들이 5월과 10월 농공시필기가 되면 다양한 세시행사로서 ‘회선완전(回旋宛轉)’의 방식으로 둥근 원을 돌면서 굽혔다가 도는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다. 이것은 이른바 허리를 굽혔다가 세우는 ‘답지저양’ 그리고 손과 발을 서로 맞추는 ‘수족상응’ ‘구기상수’의 춤과 유사하며<sup>89)</sup> 돈돌라리도 돌고 도는 원무라는 측면에서 같은 방식이다. 이는 농악의 원무와도 상관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기도 한다.

88) 彦克, 《丰富多彩的藏族歌舞》武漢 長江文藝出版社, 1956. 27~28쪽 “堆谐 歌舞的舞蹈动作, 最大特点是在脚部的“踢”“踏”。但这种“踢”“踏”, 都不同于西洋“踢踏舞”的“踢踏”。西洋踢踏舞的脚步动作, 是由于舞者的脚掌与脚根, 分别先后轻重, 在地面上作节奏性的运动, 因而发出各种不同的“踢”“踏”声音为特征的; 而藏族“堆谐”, 则是以整个脚部随着音乐在地面上作着有规律的踏动为特征的, 这显然不一样(这里, 也可证明它不是由西洋“踢踏舞”变化而来)。歌舞者在跳动时, 上身部并不摇动, 只是转方向时才有微微的斜倾, 因此, 传说着凡跳得好的人, 头部顶着一碗水也不会溢出一二来。”

89) 《後漢書》韓傳 “常以五月下種訖, 祭鬼神, 群聚歌舞, 飲酒晝夜無休. 其舞數十人俱起相隨, 踏地低昂, 手足相應, 節奏有似鐸舞. 十月農場畢, 亦復如之”



조선의 농악은 종으로 가장 긴 역사악인 동시에 횡으로 가장 넓은 토속악이라는 점에 있어서 흥미를 느끼게 된다. 농악의 비릇을 찾으려면 실로 망연한 감이 없지 못하나 한인의 기록이라 할지라도 “馬韓常以五月下種訖 祭鬼神 群聚歌舞 其舞數十人 俱起相隨 蹋地低昂 手足相應節奏 有似鐸舞”(三國志)이라 한 것은 단오절쯤에 이앙이 끝나면 일년풍양을 빌어 귀신에 제사하고 수십명이 단취하여 춤추고 노래하되 같이 이로서 뒤를 따라 다니면서(아마 당고의 형식일 것이다) 발춤을 추며 고개를 들었다 숙였다하며 수족으로 절주를 맞추되 그 소리가 탁성과 같다하였고 또 후한서에도 “辰韓俗喜歌舞”라 한 것이 있음을 보면 삼한시대부터도 조선의 농민은 그 향토 무악에 매우 즐겨하였든 것을 알 수 있고 그 무도의 양식도 금일의 그것과 방불하였다는 것을 엿볼수 있다. 그리고 “渤海國俗 每歲時聚會作樂 先命善歌舞者數輦前行 士女隨之 更相唱和回旋宛轉 號曰踏鎚焉”(문헌통고)이라 하고 “濊常用十月祭天 晝夜飲酒歌舞 名爲舞天 其

作樂 大抵與夫徐同 特所用月異耳“(동상서)이라 하였는데 ‘회선완전’함이 전자의 ‘구기상수’와 방불한 원무의 형식을 말하는 것 같고 특히 주의를 이끄는 점은 ‘답추’와 ‘특소용월이이’라는 것이다. 답(踏)은 무도의 답을 말함이겠으나 추(鎚)는 응당 악기관계를 말하는 것일지니 구당서 예종기에 “上元夜(中略)出內人連袂踏歌”라 한 예를 볼지라도 답은 추를 답한다는 것이 아니요 두 개의 독립된 명사일 것 같다. 즉 답하고 추한다는 것으로서 추는 분명히 악기의 일종일 것이다. 후한서에 “夫餘以臘月祭天 大會連日 飲食歌舞 名曰迎鼓”라 한 것과 아울러 생각하면 다 가치 그 의식화한 무악을 추상명사화시킨 것을 볼 수있고 그 관념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악기명을 끝으로 붙인 것 같다. 그러면 추는 금속제 타악기구니 그 당시부터 과연 ‘뽕매기’같은 것을 사용하였을 것인가. 그리고 전기 인용문중 ‘월이(月異)’라는 것도 ‘뽕매기’의 소리를 형용한 ‘달다리’의 차자가 아닐가 하는 점도 있으나 역시 추와 가치한 연구과제로 담겨들 뿐이다.<sup>90)</sup>

이러한 원시종합무용 형태는 중국 운남, 태국 치앙마이일대에 살고 있는 한민족과 혈통이 유사한 라후족의 신년행사와 유사하며, 고대 마한인들의 농경 의식춤은 세시풍속으로 전해졌다.

마한에서는 해마다 5월이 되면 씨를 뿌리고 나서 귀신에게 제사를 올린다. 이때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노래하고 춤추며 술 마시고 노는데 밤낮을 쉬지 않는다. 춤을 출 때는 수십 명이 한꺼번에 일어나서 서로 뒤를 따르면서 땅을 차고 구부렸다 치켜들었다 하면서 손과 발이 서로 장단을 맞추는데 이 모습은 꼭 중국의 탁무와 흡사하다. 10월에 농사일이 끝나면 역시 이렇게 논다.

상기 3세기경 삼국지 동이전 마한의 기록에서 “땅을 차고 구부렸다 치켜들었다”는 답지저앙(踏地低昂)의 행위는 이른바 땅의 신에게 풍작을 기원하고

90) <동아일보> 1939년 7월 6일, “鄉土舞樂의 農樂, 江陵 풍물의 印象記① 李如星 文.畫”



감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답지’는 ‘땅을 밟는다’는 표현은 복합적인 해석이 필요하다. ‘답지’는 일상적 행위가 아니라, 적어도 ‘밟는’ 의식을 강조한 것이고, 단순히 밟은 것이 아니라 발로 땅을 ‘차는’ 행위이고 ‘저양’도 땅을 굽어보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풍작을 기원하며 감사한 의식무임을 유추할 수 있다. 그러한 흔적을 우리와 동일한 혈청과 풍습을 가지고 중국과 태국 일대에 거주하는 소수민족인 라후족의 신년제의 집단무에서 볼 수 있다.<sup>91)</sup>

다음에 주목되는 것은 주야 음주가무의 모습, 그리고 그것이 탁무와 흡사하다고 한 것이다. 집단적으로 서로의 뒤를 따르면서 타악이 수반된 집단무용의 모습을 엿보게 한다. 탁무(鐸舞)는 중국의 한·위나라 때 민속무용으로 탁을 들고 추는 춤이다. 이것은 중국 고대의 동이악으로 잡귀를 쫓는 매귀(埋鬼)의식과 연관된다. 중국 청해성 상손채(上孫寨)에서 출토된 신석기시대 무도문채도분(舞蹈紋彩陶盆)의 안쪽 면에도 다섯 명이 손에 손을 잡고 한쪽 발을 치켜든 모습이 새겨져 있다.

이것 또한 발해의 답추처럼 한쪽 발로 땅을 차는 무도행위로 볼 수 있으며,<sup>92)</sup> 그 역사가 오래된 것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수십 명이 서로의 뒤를 따르면서 춤을 추는 ‘구기상수(俱起相隨)’의 행위는 이속(夷俗)의 전통을 지닌 것으로 수십 인이 둥글게 무리 지어 땅을 밟으며 노래 부르는 답가(踏歌)와 다르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마한의 축제는 파종과 수확의 농경세시의례와 직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세시놀음은 계절제의로서 하늘의 신에게 제사를 올리고 음주가무로 놀이판을 벌이며 신과의 만남을 통해 인간의 소원을 빌었음을 알 수 있다.<sup>93)</sup>

91) 장정룡, <라후족의 원시문화> 《南方文化》 창간호, 남방문화연구회, 1995, 42쪽

92) 劉秉果, 《中國古代體育史話》 文物出版社, 1987, 圖版

93) 장정룡, <축제와 세시> 《한국축제의 이론과 현장》 월인, 2000



지난 2008년 국립문화재연구소와 러시아과학원이 공동발굴한 러시아 연해주의 콕사로프카 발해 성터에서 사람들이 손잡고 춤추는 장면이 새겨진 토기가 출토됐다. 특히 토기에서 사슴뿔 같은 것을 머리에 단 사람들이 치마를 입고 서로 손잡고 있는 모습은 발해의 춤으로 기록된 ‘답추(踏鋤)’와 유사해 화제가 됐다. 답추는 실제 사람들이 손잡고 같이 추는 춤을 말한다. 어떤 사람은 발을 오른쪽으로 향하고 어떤 사람은 앞쪽을 향하고 있는 등 춤추는 사람들의 발 모양이 약간씩 다른 것도 특징인데, 부경대 강인욱 교수는 둥글게 원을 그리고 있는 것을 묘사한 듯하다고 말하였다. 이것은 한국의 강강술래 같은 집단무를 형상화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답추(踏鋤)와 답가(踏歌)는 땅의 신에게 노래와 춤으로 풍요를 기원하던 생명력이 가장 길고, 오랫동안 전승된 종합예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볼 때 발해인은 노래 잘하고 춤추기 좋아하는 민족으로 답추는 ‘능가선무(能歌善舞)’의 전통을 계승한 것이라 할 수 있다.<sup>94)</sup> 발해인들은 춘절, 단오, 동지 등 다양한 명절행사를 했으며,<sup>95)</sup> 당나라에 있던 인일, 상원, 한식, 청명, 칠석, 중원, 중추, 중양, 제석 등 대체로 있었다는 견해도 있다.

94) 張碧波, 「說渤海의踏歌」 『東北民族與疆域論稿』(下), 黑龍江教育出版社, 2002, 241~245쪽

95) 楊保隆 編, 《渤海史入門》 青海人民出版社, 1988, 40쪽

이처럼 중요한 명절이나 군왕, 부처님 탄신일 등 여러 가지 경축 행사를 했으며 미신점복, 예언, 풍수 등의 풍속도 있었다고 한다.<sup>96)</sup>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돈돌라리’춤은 원무곡인 ‘답추무’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sup>97)</sup> 북청지방 ‘달래춤’에서 유래되었다는 견해도 있다.



돈돌라리는 ‘달래춤’에서 유래된 노래라고도 전해온다. 음력 3월 한식 무렵이면 여인들이 남대천 기슭 모래밭에서 달래를 캐다가 노래를 부르며 바구니를 들고 춤을 추었는데 그것이 돈돌라리로 발전하였다고 한다. 노래와 춤은 당대시대의 생활의 반영이기 때문에 세월의 흐름과 사람들의 생활환경에 따라 변화하기 마련이므로 1930년대부터는 반일집회를 하다가 경찰이나 밀정놈이 온다는 신호가 오면 그것을 위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돈돌라리’춤을 추었다.<sup>98)</sup>

96) 王承禮·劉振華, 《渤海의歷史與文化》 延邊人民出版社, 1991 “渤海人已有春节、冬至等年、节的观念, 届时举行朝会及庆祝活动。唐朝有人日、上元寒食、清明、七夕、中元、中秋、重阳、除夕等, 渤海也大体上存在这些季节性节日. 遇到重大活动及国王、佛祖诞辰等等, 也有不同形式的庆祝和纪念. 同时, 也存在着迷信占卜、预言和看风水的习俗”

97) 장정룡, <발해전설과 풍속연구> 《국제아시아민속학》 제4집, 국제아시아민속학회, 2013, 99쪽

98) 최창호, <단청아리랑과 북청의 돈돌라리> 《금수강산》 3호(누계 제20호) 1991, 53쪽

북청지방의 민요인 돈돌라리, 흘라리 등은 그 정서가 낙천적이며 그 음악도 아주 명랑하고 평이한데서 남녀노소 누구든지 부를 수 있는 인민성이 풍부한 노래들이다. 이 노래가 속후 모래산 야외 군중오락에서 나타난 것은 50~60년대 전부터라고 말한다. 북청지방에는 한식다음날을 '달래날'이라하여 마을처녀들이 야외에서 노래하며 춤을 추며 즐겨노는 풍습이 전하여 내려오고 있었다. 이런 때에 불리우는 노래 가운데의 하나가 '돈돌라리'이다.



그런데 이 '돈돌라리'라는 노래의 명칭이 일반민요와 다르다. 사실이 지방 노래들은 많은 노래들이 이와 같이 색다른 명칭으로 불리운다. '라이라렛뚜리'가 그렇고 '라이쏘'가 그런 것이다. 이 지방 인민들의 말에 의한다면 '돈돌라리'는 일제가 멸망하고 '동틀날' 즉 해방의 날이 다가온다는 의미로 이해되고 있으며, 혹은 '돈돈나리'(豚豚나리) '돼지서방'이라는 이름으로 검은 정복을 입은 일본순사놈들을 야유하는 의미로도 이해되었다. 이런 데서 일제를 반대하는 인

민들의 투쟁을 고무함에 있어서 역시 이 노래들이 크게 작용하였던 것이다.<sup>99)</sup>

돈돌라리는 우리나라 조선동해안 지방의 특색을 가장 뚜렷이 나타내고 있는 노래의 하나로서 지난날의 함경남도 북청군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서 명절이나 어떠한 모임이 있을 때마다 여러 사람들이 큰 원을 짓고 돌아가면서 춤을 추면서 군중적으로 불려오던 민요이다. 노래 원문은 다음과 같다.

‘보배산천에 돈돌라리요, 돈돌라리 돈돌라리 돈돌라리요, 리라 리라리 돈돌라리요/  
 시내강변에 돈돌라리요, 돈돌라리 돈돌라리 돈돌라리요 리라 리라리 돈돌라리요/  
 모래산천에 돈돌라리요 돈돌라리 돈돌라리 돈돌라리요, 리라 리라리 돈돌라리요’

노래에는 ‘보배산천’ 시내강변, 모래산천과 같은 자연표현들과 결합되면서 ‘돈돌라리’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되어 나온다. 그러면 조흥구의 기본을 이루며 노래의 제목으로도 되는 이 ‘돈돌라리’란 말은 어떻게 생겨난 것이고 그 뜻은 무엇이겠는가. 지난날 이 지방에는 해마다 이른 봄이 오면 여인들이 모래밭이나 강변에 나와 달래를 캔 다음 즐겁게 춤추며 노는 달래터놀이라는 것이 있었다. 이때마다 노래를 부르며 달래춤을 추었는데 그 노래에 ‘돈돌라리’란 말이 정착되어 불리워지게 되었다고 한다. 여기에서 ‘돈돌라리’란 말은 ‘동틀날’이란 말이 변화된 것이며, ‘돈돌라리 돈돌라리 돈돌라리요’는 ‘동틀날 동틀날 동틀날이 온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한다. 따라서 그 내용은 밝은 날, 광명의 날이 다가온다는 뜻을 상징한다고 한다. 한편 ‘돈돌’은 계속 따라서 ‘돌자’는 뜻의 말이고, ‘라리’는 순수한 조흥구라고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 노래는 내용에 있어서 조국의 자연과 산천을 지극히 정다운 심정으로 자랑하고 있으며 곡조가 부

99) 서영화·최준 수집정리, 《민요곡집》 룡녕인민출판사, 1982, 535쪽

르기 쉽고 선명하며 낙천적인 것으로 하여 우리 인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 노래로 하여 우리나라의 북청지방은 돈돌라리의 고향으로 널리 알려졌다. 여러 기회들에 이 지방의 여성들은 강가나 경치 아름다운 산기슭에 모여 '돈돌라리'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면서 즐기었다. '돈돌라리'는 봉건기에는 봉건적인 착취와 속박을 반대하고 조국산천을 사랑하는 심정을, 일제식민지 통치시기에는 일제를 반대하며 빼앗긴 나라를 찾기 위한 숭고한 감정을 자아내었다.<sup>100)</sup>



이처럼 '돈돌라리'는 본래 '돌고돌다'의 회전을 의미하는 '돌돌'이 '돈돌'로 변하고 '라리'는 '미나리'나 '아라리'를 칭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돌돌미나리' '돌돌아라리'가 음운축약으로 줄어서 '돈돌라리'가 된 것이 아닐까 의심된다. 돈돌라리춤은 우리 민족 고유의 답추무와 같이 발해춤의 '회선완전(回旋宛轉)'과 마한의 춤인 '구기상수(俱起相隨)' '수족상응(手足相應)' '답지저양(踏地低昂)'과 같은 방식의 춤사위에서 유래했다고 하겠다. 현재 중국 조선족들이 추는 돈돌라리 춤사위는 모

100) 김인호, 《어원유래상식》 2, 사회과학출판사, 2009, 237~238쪽

두 11가지다. 즉 범벅동작, 밀고당기기동작, 활개꺾기동작, 여미기동작, 손벽치기동작, 채질동작, 방아짚기동작, 취엮기동작, 팔굽받쳐들기동작, 어깨짚기동작, 뽀뽀기동작 등으로 구성된다.<sup>101)</sup>

돈돌라리는 속초뿐 아니라 북한과 중국 조선족들 속에서 재형상되어 무용춤과 함께 불리고 있다. 이는 본래 함경남도에서 시작되었지만, 한국전쟁이후 월남한 북한의 함경도 주민들이 속초에 정착하면서 자연스레 동해안 지역의 특색을 뚜렷하게 지닌 이주민요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이 노래가 언제 어떻게 창작되었는가 하는 것은 아직 고증된 자료가 없다. 북청지방의 '달래춤'에서 유래되었다면 그 가원의 역사가 깊을 것이다. 그러나 이 노래가 1920년대에 창작된 신민요라는 설도 있다. 신민요는 민족음악에 바탕을 두고 현대적 미감이 나게 새롭게 창작한 민요를 이르는 말이다. '노들강변'을 비롯하여 '울산타령' '조선팔경가' '처녀총각' '물결따라(별한)' 등 1920년대와 1930년대에 창작된 신민요들은 담고 있는 내용이 명백하고 선율조성에서 세련미가 있고 현대적 미감에도 맞는 것이 일반적 특성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지어는 1900년에 창작된 계몽기민요인 '이팔청춘가'도 주제가 명백하다. 그러나 '돈돌라리'는 그렇지 못하다. 바로 이러한 점들을 고찰해볼 때 1920년대에 창작된 신민요라기보다는 오래전부터 전해오는 이 지대의 '달래춤'에서 유래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아무튼 '돈돌라리'는 북청지방의 민요이며 오늘에 와서도 예술적 생명력을 잃지 않고 날을 따라 사람들 속에서 더욱 널리 애창되고 있는 가락의 하나이다. 전후에 이 노래는 가사가 개작되어 전국적으로 널리 불리워졌으며 이 가락에 안배된 무용도 전국적으로 보급되었다.<sup>102)</sup>

돈돌라리춤은 대중적이고 평이하야 누구든지 북장단과 노래에 맞추어 춤판에 뛰어들어 마음대로 춤출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보급된 오랜 과정을 통하여 놀이 구성에는 일정한 격식이 이루어졌다.

101) 김정훈, 《중국 조선족 민속춤과 민속놀이》 북경민족출판사, 2010, 103~106쪽

102) 최창호, 〈북청의 돈돌라리와 흘라리〉 《민요따라 삼천리》 1995, 44쪽



흰 모래밭의 춤판을 둘러싸고 큰 등그러미를 지어 군중이 둘러앉으면 그 중 여러 사람이 춤판 한 복판에 뛰어들어간다. 이것을 계기로 모여 앉은 사람들은 노래를 부르며 손뼉을 치면서 흥을 돋운다. 때에 따라서는 미리 준비하였던 피리, 통소 등 풍악반주가 거기에 따르기도 한다. 이리하여 놀이판의 분위기가 고조되면 한복판에 나간 사람은 군중들의 손뼉장단, 북장단, 노래에 맞추어 명랑하고 경쾌한 돈돌라리춤을 춘다. 그러면 둘러앉았던 군중들 중에서 한 두 사람씩 연달아 춤판에 뛰어 들어가 본격적인 군중가무가 벌어진다. 처음에 군중들은 제각기 흥이 나는대로 춤을 추다가 점차 대열을 지어가면서 둥그렇게 원을 짓는다. 춤 대열은 몇 겹으로도 될 수 있는데 그 중심에는 한 명의 먼저 춤추는 사람이 나타난다. 돈돌라리 춤가락은 우리나라 민간무용 가운데서도 고유한 특색을 가지고 있다. 우선 이 춤은 우리나라 민족무용 동작의 특징의 하나인 날씬하고 우아한 춤사위와 대조되는 활발하고 움직임이 잦고 절도가 명



료한 낙천적이고 경쾌한 성격을 가졌다. 이러한 춤 성격은 인민들의 아름답고 명랑한 품성과 순박성을 반영한 것이다. 춤사위에서는 여러 가지 동작들이 바뀌어지면서 변화를 나타낸다. 그런데 여기서는 다른 춤들에서 흔히 두 팔을 옆으로 벌리는 움직임보다 팔을 옆으로 들고 움직이는 동작과 머리를 숙인 채 좌우로 살랑살랑 흔들면서 춤추는 것이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다. 돈돌리리춤에서 특색 있는 또 하나는 손을 움직이는 동작이다. 손목을 돌리면서 잔가락을 쓰는 것이 이 춤가락의 고유한 특징의 하나이다. 또한 다리 동작에서도 뒤로 살짝살짝 들면서 춤추는 것은 돈돌리리춤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다.<sup>103)</sup>

‘돈돌리리’의 속초정착은 1950년대 전파된 원형질의 지속화이며, 문화적 융합성을 함께 지닌다. 돈돌리리는 현재 함경남도 지방무형문화재 1호로 지정되었으며, 지난 제40회 한국민속예술축제(1999년 9월 15~17일, 제주도)에 이어, 속초에서 개최된 제17회 강원민속예술축제(1999년 10월 9~10일)에서도 특별공연을 가졌다. 6.25를 겪은 속초 실향민들에게 고향의 전통민속의 부활이라는 수확과 함께 망향의 한을 달래고 통일정서 형성에 크게 이바지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함경남도 북청군이 원산지로 알려지고 있는 ‘돈돌날이’의 ‘돈돌’은 회전(回轉)으로 제 구비로 돌아온다는 뜻인데 가난에서 풍요, 억압에서 해방으로 그리하여 일제 강점기에 반일사상 민요로 지목되어 금지당한 역사를 가지기도 하였다. 이 돈돌날이가 해방후 함경도 전 지역일 정도로 집단적 가무놀이(북한의 정책적 개작이었지만)로 성대하였으나 6.25사변으로 하나의 망향으로 그리는 추억의 민속놀이였을 뿐이었다. 이 사장된 민속동요 돈돌날이를 함남북청민속예술보존회가 10여년 전부터 되살리기를 시작, 정부로부터 98년 함경남도 지방무형문화재 제1호로 지정받아 오늘에 전국각지에 순회하면서 북한민속 보급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돈돌날이 춤은 누구든지 바가지장단 또는 북장단과 노래에 맞추어 춤판에 뛰어들

103) 문하연, <돈돌리리와 달래춤> 《조선의 민속놀이》 군중문화출판사, 1964, 29쪽

어 마음대로 춤출 수 있는 간단한 것이었다. 그러나 오랜 전승과정을 통하여 놀이구성에는 일정한 형식이 갖추어졌다. 흰 모래판의 춤판을 둘러싸고 큰 원형을 이루면서 둘러앉으면 그 중 몇 사람이 한 복판으로 들어가면서 춤을 춘다. 이때 모여 앉은 사람들은 노래를 부르고 손뼉을 치면서 흥을 돋운다. 경우에 따라서는 미리 준비하였던 통소들의 풍악반주가 뒤따르기도 한다. 이리하여 놀이판의 분위기가 고조되면 한 복판에 나간 사람들은 군중들의 손뼉장단, 바가지장단, 북과 징 장단 노래에 맞추어 명랑하고 경쾌한 돈돌날이 춤을 춘다. 그러면 모여 앉았던 사람들이 춤판에 뛰어 들어가 본격적인 군무가 벌어진다. 처음에는 제각기 춤을 추다가 점차 대열을 지어가면서 원형을 이룬다.

그 중심에는 무동, 꼬추, 유걸이 등이 나타나서 연희한다. 돈돌날이 춤가락은 우리나라 민간무용 가운데서도 고요한 특색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민속춤의 특징인 날씬하고 우아한 춤사위와 대조되는 활발하고 움직임이 잦고 절도가 명료한 낙천적이고 경쾌한 성격을 지녔다. 북춤의 특징을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 1) 머리를 약간 숙인 채 좌우로 살랑살랑 흔들면서 춤을 춘다
- 2) 팔을 옆으로 들고 움직이는 동작과 손목을 돌리면서 잔가락을 쓰면서 춤을 춘다
- 3) 발꿈치를 살짝살짝 뒤를 들면서 춤추는 다리동작, 돈돌날이는 그 춤과 어울리는 특색있는 곡조를 갖고 있다. 이 곡조는 열 가지 변형을 갖고 있으나 총체적으로 하나의 공통된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돈돌날이' 군가요라는 명칭으로 부를 수 있을 정도로 통일된 모습을 보인다. 모든 가락이 단순하고 소박하면서 밝은 성격을 띠고 있다.<sup>104)</sup>

104) 조하림, <돈돌날이> 《속초문화》 15호, 속초문화원, 1999, 98~99쪽

함경남도 북청민속예술보존회에서는 과거의 전통을 따라서 원형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음에 반하여, 현재 북한에서는 원형상의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고 판단된다. 즉 마당에서 행하던 윤무 형식의 놀이가 3마당 4인무의 무대예술 작품으로 옮겨지면서 표현양식상 많은 변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한 정황은 다음의 글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우리나라 동서해안지방의 대표적인 민속무용으로 널리 알려진 '돈돌라리'와 '용강기나리'도 있다. 민속무용 '돈돌라리'는 지난 시기 함경남도 북청지방의 여성들 속에서 해마다 4월에 달래를 캐면서 추던 윤무형식의 춤으로서 "동틀날이 오리라"라는 말이 줄어들면서 붙은 것이라고 한다. 특히 일제식민지통치의 그 암담한 속에서도 이 고장 사람들은 희망을 잃지 않고 기어이 오고야말 조국해방의 '동틀 날'을 그리며 돈돌라리춤을 추어왔다....(1975년 12월)

원래 '돈돌라리'춤은 손동작을 맞추어 추는 특색이 있는 춤인데 원래의 곡은 다 없애고 현대화된 곡에다 손동작을 맞추어 놓으니 흥취가 나지 않는다고 일깨워주시었다. 그러시면서 '돈돌라리'를 하자면 민속무용대로 해야지 원래의 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현대화하면 누구도 그것을 보고 '돈돌라리'라고 하지 않는다고 가르쳐주시었다....그이께서는 먼저 그전에 만든 '돈돌라리'에서는 손을 들었다 내리며 어깨를 가지고 재간을 부리는 것이 있었는데 오늘 출연한 무용에는 그런 것이 없고 손을 머리위에서 놀리는 것이 너무 많다고 지적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음악을 지금대로 고착시키고 춤동작만 '돈돌라리' 춤가락들을 살려 완성한데 대한 구체적인 방도까지 일일이 가르쳐주시었다....

그후 시대적 요구와 지향에 맞게 민속무용의 본보기 작품으로 훌륭히 완성되어 주체예술의 화원 속에서 아름다운 꽃으로 다시 피어나게 되었다.<sup>105)</sup>

민요 '돈돌라리'는 원래 노래만으로도 불리웠지만 여럿이 '돈돌라리춤'을 추면서 군중적으로도 많이 불리웠다. 고유한 덩덕궁장단을

105) 박승길, 《유구한 민속전통, 그 갈피마다에》 2013, 235~237쪽

타고 흐르는 민요 '돈돌라리'의 선율은 순차적인 2도진행과 3도진행으로 일관되어있다. 뿐만 아니라 민요의 선율은 강약이 명료한 것으로 하여 절도가 있으면서도 흥겹고 활달하며 낙천적이다. 선율이 가지고 있는 이런 특성은 어깨춤을 자아내면서 사람들에게 독특한 율동감을 안겨줄 뿐만아니라 부르기도 험하다....이러한 것들은 민요 돈돌라리가 무용곡으로서의 성격도 다분히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래만으로도 불리웠지만 민요 돈돌라리는 민속무용 '돈돌라리춤'과 함께 이 지방에서는 물론 신포, 신창, 광천, 흥원, 이원 일대와 양강도 풍산, 갑산 등 북부내륙지방의 일부 지역에까지 퍼져갔다. 그러나 지방적인 특색이 진한 것으로 하여 더 넓은 지역에 퍼지지는 못하였다.



민요 돈돌라리의 본래가사에는 '리라 리라리'와 같이 별로 뜻이 없는 어구가 반복되는가 하면 '보배산천'과 같이 우리나라의 자연경치를 노래하는 뜻이 명백한 어구도 섞이어 있다. 곡조는 누구나 쉽게 부를 수 있도록 유순하며 먹이는 소리와 받는소리의 구분이 없다.

그리고 노래의 마지막을 조식의 5음으로 끝내고 있다. 이것은 노래가 춤과 함께 몇 번이고 반복하여 불리운 사정과 관련된 것이다. 북청지방에는 이 곡조와 춤에서 파생된 '흘라리' '라리라렛뚜리' '쏘쏘 라이쏘'등 수많은 민요들이 애창되어왔다. 이민요들도 모두 무곡적 성격을 매우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오늘날 민요 돈돌라리는 민족음악유산을 적극 발굴하여 우리시대에 맞게 발전시키는 방침에 따라 발굴 정리되어 군중무용곡으로, 4인무 '돈돌라리'의 반주음악으로 편곡되어 무대에 옮겨졌다.<sup>106)</sup>

'돈돌라리'는 지난날 함경도 지방에서 많이 추던 민속무용 '돈돌라리'를 재형상한 현대적 미감에 맞으면서도 지방적 색채가 매우 짙은 무대예술작품이다. 작품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부분은 잣은모리장단으로 경쾌하고 발랄하게 울리는 음악을 타고 4명의 여성무용수가 무대로 1렬 횡대를 지어 스쳐 달려 나와 손목돌리기를 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된다. 계속하여 무용수들은 손목밀기로 무대의 사선방향으로 서고 다시 손목흔들기로 무대 뒤쪽에 한줄로 섰다가 무대앞쪽으로 달려 나와 밀집대형으로 앉는다. 이때 오른손을 머리우에 얹은 가짐으로 하여 여성들의 아릿다운 자세를 보여준다.

둘째부분은 돈돌라리춤의 원가락을 살려 느린 춤을 추는 장면이다. 가볍게 굴신하며 손목돌리기로 넓어지면서 자리를 잡은 무용수들은 한발깊이 굴신하며 걷기, 어깨 튕기며 손목돌리기, 두팔 겹사위로 돌리며 손목돌리기 등 돈돌라리 원가락을 살려 춤을 춘다.

셋째부분은 잣은모리장단에 맞추어 추는 빠른 춤장면이다. 독무와 안쌘불이 잘 배합되고 다양한 구도로 전개되는 이 부분 춤장면은 활달하고 경쾌한 돈돌라리 춤의 본색을 잘 드러내고 있다. 무용수들이 무대앞쪽에 1렬횡대로 서서 몸통돌리기와 손목돌리기로써 춤의 절정을 장식하다가 제자리에서 앉아 모양을 잡는 것으로 춤은 끝난다. 재형상한 민속무용 돈돌라리는 돈돌라리 음악에 맞추어 양푼에 얹어놓은 바가지를 두드리면서 추던 본래의 춤가락을 잘 살려

106) 엄하진, 《조선민요의 유래》 예술교육출판사, 1992, 41쪽

낸 4인무의 무대예술작품으로서 지방적 색채가 짙고 율동기교도 매우 높다. 지난날 윤무형식으로 많이 추어오던 돈돌라리는 오늘날도 군중무용으로 재형상되어 명절날이나 기념일 때 널리 추어지고 있다.<sup>107)</sup>

이상에서 엿볼 수 있듯이 바가지를 두드리면서 춤추던 윤무형식의 ‘돈돌라리’는 현재의 북한에서는 많이 변화되었다. 또한 중국 조선족의 ‘돈돌라리’도 무대화로 연출되면서 그 내용이 바뀌었다. 1930년부터 40년대 사이에 중국 길림성 안도현 내두산으로 이주한 조선족 가정의 많은 남성들은 처자와 가정을 두고 항일전쟁에 참가하거나 외지에 나가 돈벌이를 했다. 부녀들은 어려운 생계를 이어나가기 위해 농사도 짓고 물레를 잣거나 뜨개를 뜨거나 잡일을 했다. 남편을 그리면서 애절한 마음으로 춤을 추면서 마음 속 고충을 달래던 춤이 바로 ‘돈돌라리’라고 한다. 이곳의 돈돌라리춤은 북청지방에 비하여 동작이 깨끗하고 매끈하다고 한다. 춤사위는 시종일관 다리를 절룩거리는데 이는 결혼을 하였지만 곁에 남편이 없어 노상 생과부 생활을 하는 자신들의 불안한 생활을 뜻하는 것이라 말한다.<sup>108)</sup>

107) 이순신, 이금산, 《조선의 민속전통6 -민속음악과 무용》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95, 355쪽

108) 김정훈, 《중국 조선족 민속춤과 민속놀이》 민족출판사, 2010, 101~106쪽



현재 속초지역에서는 문화원의 활동 가운데 함경도 실향민의 민속인 북청사자놀음과 돈돌라리의 전승의 돌보인다. 함경도 출신 뿐 아니라 속초 지역주민들을 중심으로 운무형식의 원형에 입각한 돈돌라리 강습회를 여는 등, 민속놀이와 민요전승에 노력하고 있다. 이것은 1990년대 이후 북한의 돈돌라리 춤·노래가 4인무의 무대예술작품으로 재형상된 것과 달리 1950년 이전의 원형을 계승하려는 뜻이 담겨있다고 하겠다. 한국전쟁 이후 속초에 정착한 함경도민들은 민요 돈돌라리는 애원성과 함께 속초에서 옛 전통방식으로 역사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북청사자놀음의 활발한 지역전승에 힘입어 차츰 그 전승의 폭을 넓히고 있다. 따라서 돈돌라리의 원형전승지역에서 속초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올바른 민속원형 전승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돈돌라리’는 노래와 춤이 합쳐진 함경남도 지역의 가무곡으로 1950

년대 이후 속초의 이주민요로 자리를 잡았다. 속초지역 함경도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돈돌라리’는 ‘북청사자놀이’와 함께 분단의 문화유산이자 이식문화의 창조적 전통문화로 전승되고 있다. 위에서 논의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돈돌라리의 어원은 첫째로 ‘동틀날’ 즉 조국광복의 여명이 밝아온다는 뜻에서 “동틀날이 오리라”를 줄여서 ‘돈돌날이’ ‘돈돌라리’라고 불렀다. 둘째는 ‘돌고돌다’의 회전을 의미하는 ‘돌다’의 ‘돌’이 겹쳐 강조한 ‘돌돌’이 ‘돈돌’로 변하고 ‘라리’는 ‘미나리’ 민요로 볼 수 있다. 셋째는 ‘돈돈(豚豚)나리’ 즉 ‘돼지서방’이라는 이름으로 검은 정복을 입은 일본 순사를 야유하는 뜻에서 나온 것이다.

다음으로 돈돌라리의 음악무용적 특징을 보면, 옛 발해시대에 추었던 답추를 계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것은 노래를 부르며 춤추는 원무곡으로서 서로 팔을 이어서 끼고 수십 명이 서로 따르면서 땅을 발로 차면서 장단을 맞추는 답지위절(踏地爲節)과 같은 것이다. 답추는 땅을 발로 차면서 장단을 맞추는 ‘답지위절’로서 답지의 답(蹯)은 ‘밟다’는 뜻과 ‘차다’는 뜻을 다 가지고 있듯이 곧 추격지(鎚擊地)와 같은 것이며 전투무도의 형태로도 보고 있다.

다음은 북청지방의 여성들이 매년 4월에 달래를 캐면서 추던 율무형식의 달래춤에서 유래된 것으로도 전한다. 무용적 특징은 활발하고 움직임이 잦으며, 절도가 명료한 낙천적, 경쾌한 성격을 지닌다. 팔을 옆으로 들고 움직이는 동작, 머리를 숙인 채 좌우로 살랑살랑 흔들면서 춤추는 동작, 손목을 돌리면서 잔가락을 쓰는 동작, 다리를 뒤로 살짝살짝 들면서 춤추는 동작은 돈돌라리춤에서만 볼 수 있다.

음악적으로 고유한 덩덕궁장단에 선율은 순차적인 2도진행과 3도진행으로 일관되어있다. 뿐만 아니라 선율은 강약이 명료하며, 절도가 있으면서도 흥겹고 활달하며 낙천적이다. 선율이 가지고 있는 이런 특성은 어깨춤을 자아내면서 사람들에게 독특한 율동감을 안겨주며 부르기도 쉽다. 곡조는 유순하고 맥이는소리와 받는소리의 구분이 없으며 마지막을 조식의 5음으로 끝내는데 이것은 노래가 춤과 함께 반복하여 불리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속초에서 전승되는 ‘돈돌라리’는 함경도 출신의 고증에 따라서 1950년대 이전의 윤�무와 가락, 가사를 그대로 전수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원형이 보전된 곳이라 할 수 있다. 북한지역과 중국 조선족들에 의해 전승되는 춤의 형태는 4인무의 춤으로 무대화되면서 개변되었고, 가사도 북한은 사상적인 것을 고취하고 있으며, 중국조선족은 현실적 생활상을 반영하였다. 따라서 돈돌라리는 북청사자놀이와 함께 속초에서 그 원형을 지키고 있으며, 문화예술사적 측면에서도 분단민속의 이주정착이라는 특수한 가치를 지닌다고 하겠다.

## Ⅱ. 민속극이야기 마당

### 1. 속초사자놀이 (강원도무형문화재 제31호)



속초사자놀이는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31호(2019년 3월 8일)로 지정되었다. 우리나라 사자놀음은 여러 지방에 분포되어 있는바, 1930년대 양양군에 속하였던 속초와 고성지역도<sup>109)</sup> 사자희 즉 사자놀음이 전승되었다는 보고가 있다.<sup>110)</sup> 이를 근거한다면 속초지역 사자놀음전승이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진행되었음을 방증하게 된다.

속초사자놀이는 한국전쟁으로 인해 함경도 출신 피난민이 청호동 아바이마을에 집단거주하면서 1957년부터 전승된 전통 민속극으로 마을 공동체 발전을 위한 ‘걸립’과 ‘안택’의 의미를 강조한 ‘길놀이’가 특징이

109) 주상훈, 《속초의 지명》, 속초문화원, 1990, 15~16쪽 “1914.3.1.부령(府令) 제111호로…양양군 도문면과 소천면이 통합되어 도천면이 되었다.…1937.7.1. 면소재지가 대포리에서 속초리로 옮겨지고 면의 명칭도 도천면에서 속초면으로 바뀌었다. 이어서 1942.10.1. 부령 제104호로 속초면이 속초읍으로 승격되면서 속초리는 1구에서 4구까지 나뉘지며…”

110) 村山智順, 《朝鮮鄉土娛樂》 朝鮮總督府 調査資料 제47호, 1941, 264쪽 고성 “獅子戲(사자노름), 269쪽 양양 獅子戲”

며, 벽사진경(辟邪進慶)의 민속적 의미와 예능적 가치가 큰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반도 분단이후 약 60년 동안 북한민속의 이주 정착 사례로 속초사자놀이는 그 대표성을 지니고 있으며, 함경도 출신 1세대와 2~3세대, 지역주민들이 합심하여 북한지역 사자놀이를 전승하고 있다.

속초사자놀이를 강원도무형문화재로 지정함으로써 새로운 평화시대에 우리 민족의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 조성은 물론, 우리 민족 동질성과 혈맥을 잇는 중요한 축매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속초는 함경남도 북청군민들이 1950년 한국전쟁 중에 남쪽으로 피난 와서 살고 있는 지역이다. 속초시 청호동은 바로 함경남도 주민의 집단마을로서 일명 ‘아바이 마을’이라 불리고 있으며 이들의 민속문화가 지금도 전승·보존되고 있다.<sup>111)</sup>

따라서 이곳은 북청사자놀음의 남쪽지역 최초 전승지이자 북청사자놀음이 지금도 속초문화로 정착되어 전승되고 있다.<sup>112)</sup> 북한주민들이 피난 내려와 함경도민회,<sup>113)</sup> 평안도민회,<sup>114)</sup> 황해도민회 및 부산지역 평안남도민회를 만든 것은 분단이후 실향민들의 안타까운 현황을 말해준다. 일제강점기 조사자료에 의하면 고성과 양양 지역에서도 사자놀음이 분포된 것으로 나타난다.<sup>115)</sup>

[고성] 사자희(獅子戲:사자노름) 전승시기:정월 중, 전승주체:농민, 놀이법:사자 가면은 대나무로 짜서 만든 틀에 종이를 바르고 얼굴을 그린다. 머리 부분과 몸체는 거적으로 만들고, 그 위에 가늘고

111) 장정룡·김무림, 《속초청호동의 민속과 언어》 속초문화원, 1998

112) 장정룡, 〈속초북청사자놀음〉 《속초문화》 제23호, 속초문화원, 2007

113) 《關北》 제2집, 함경도민회, 1953, 부록에는 재강원함경도민회역원 및 각지부 기념촬영, 수복선두에 선 인물들, 도민전위에 선 이들, 수복을 대비하는 기관들, 재강원함경도민회역원 명부, 도민명부(재강원도), 도민기업체와 단체들에 대한 재강원특집이 실려 있어 강원지역 함경도민들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114) 《路芳草》 재강원도평안도민회, 1964, 이 책에는 1.4후퇴 때 평북 강계에서 남쪽으로 피난 내려오신 필자의 부친 ‘張문八(48, 속초시 속초리 3동, 상업)’도 기재되어 있다. 이 책은 권두사(도민회장 하봉희) 출간에 즈음하여(김명선), 치사(평안남도지사 박재창, 평안북도 지사 백영엽) 두고 온 산하(글 김희양), 망향에 붙여서(이석봉), 우리의 면모, 우리의 자랑(평안남도편:평양시, 진남포시, 대동군, 안주군, 강동군, 강서군, 순천군, 덕천군, 평원군, 양덕군, 성천군, 중화군, 용강군, 개천군, 맹산군, 영원군) 평안북도편(신의주시, 의주군, 용천군, 철산군, 선천군, 정주군, 박천군, 강계군, 영변군, 운산군, 구성군, 삭주군, 창성군, 태천군, 희천군, 벽동군, 추산군, 후창군, 자성군, 위원군)

115) 村山智順, 《朝鮮鄉土娛樂》 조선총독부 조사자료 제47호, 1941, 264쪽

길게 자른 종이를 풀로 많이 붙여서 털로 삼아, 사자의 형태를 만든다. 사자 가면에 두 사람이 들어가서 한 사람은 머리 부분, 다른 한 사람은 꼬리 부분을 계속 움직이며 걸어가면서 악대와 어울려 논다.

[양양] 사자희(獅子戲), 전승시기:추경(秋頃), 전승주체:소아(小兒)

조선총독부의 향토오락 자료는 1936년 각 도지사에게 명하여 각 지방 보통학교에서 수집한 것을 정리한 것이다.<sup>116)</sup> 이 조사에 따라 우리나라 사자놀음의 분포도가 작성된 바 있는데,<sup>117)</sup> 그렇다면 1950년대 북청사자놀음의 전파 이전부터 이 지역에서는 정월 중에 농민들에 의해서 사자놀음이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조사된 내용을 분석하면, 오늘날 행해지는 북한지역 사자탈과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사자머리는 대나무 틀에 종이를 붙여 만들며 사자가면에는 앞뒤로 두 명이 들어가서 악대와 함께 정월달에 어울려 노는 방식이다. 이 사자탈은 대부분 북방계 사자탈 제작방식과 일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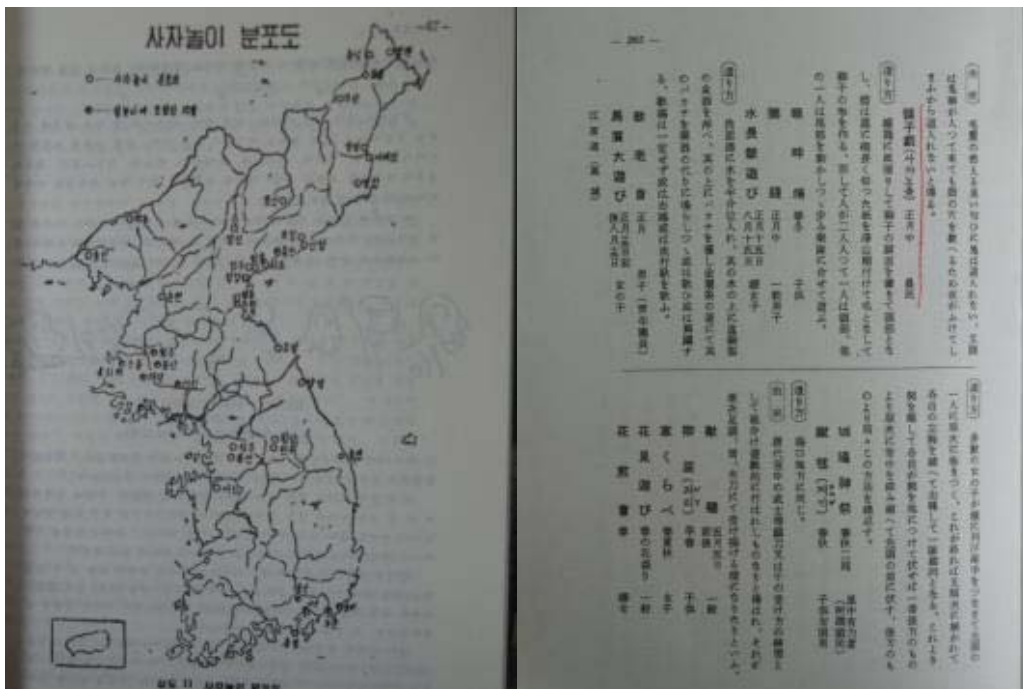
이 책자는 1924년부터 1941년 사이에 조선총독부에서 식민지 정책의 일환으로 간행된 조사자료 전 47권 가운데 마지막 책이다. 이 책의 간행 책임자인 촌산지순(일본명 무라야마지준)은 동경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조선총독부 문서과 조사제이계 주임 겸 촉탁으로 재직하였고, 조선의 귀신, 조선의 풍수, 부락제 등을 펴냈다.

이 책에서 제시된 놀이명은 약 6,400종이 이를 정도로 방대하다. 놀이법이 설명된 항목은 1,300여종이고 설명이 없는 경우는 5,100종에

116) 村山智順 編, 朴銓烈 譯, 《朝鮮의 郷土娛樂》集文堂, 1992, 27쪽 “이 책은 1936년 각 도지사에게 조회하여 전국 각지에서 행해지고 있는 향토오락을 조사, 정리한 자료이다. 조사는 각 지방의 보통학교에 의뢰하여 수집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졌다. 향토오락의 성질상 분류가 명확하게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 무리하게 분류할 때 생길 수 있는 오류를 피하기 위해서 엄격한 분류를 시도하지 않았다. 또한 같은 내용임에도 지방에 따라서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놀이명은 각 지방의 고유놀이명을 밝혔다. 놀이의 한 요소를 이루는 노래는 한글로 조사된 경우는 한글로 실었다. 이는 한글을 일본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오류로 인하여 이 책의 가치가 덜해짐을 염려하였기 때문이다. 자료의 조회나 수집에는 동료이자 본청의 촉탁 오청 씨의 도움이 컸다. 분류, 편집, 교정 등을 위해 애써준 평천 씨와 권본 씨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1941년 무라야마 지준”

117) 김일출, 《조선민속탈놀이연구》과학원출판사, 1958, 67쪽

달한다.<sup>118)</sup> 당시 향토오락에 대한 총체적 조사자료인 이 책자는 조선 총독부가 전국 15개 시·도, 22개 지방으로 세분하여 조사한 것으로 통치를 위한 풍속조사이나 자료적 가치는 상존한다고 볼 수 있다. 아래 자료는 김일출이 그린 우리나라 사자놀이 분포도와 《조선의 향토오락》 원문이다.



함경남도 이주민들이 정착한 속초지역은 고향을 두고 남쪽으로 월남한 실향민들의 애환이 서려 있는 곳이다. 이러한 민족사적 비애와 남북한 분단의 역사적 현실에 비추어 월남한 주민에 대한 본격연구는 속초지역<sup>119)</sup> 일부 학자들에 의해 비교적 늦게 출발되었다.<sup>120)</sup> 월남한 북한주민들을 칭하는 용어는 월남민, 피난민, 실향민 등이 있으나, ‘실향민’이라 표기하고 그들의 인구분포, 언어생활, 생활문화 등에 대한 생애사, 구술사, 정착사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sup>121)</sup> 아울러 함남지

118) 村山智順 編, 朴銓烈 譯, 《朝鮮의 郷土娛樂》 集文堂, 1992, 30쪽  
 119) 장정룡 외, 《속초시거주 피난민정착사》 속초문화원, 2000  
 120) 김귀옥, 《정착촌 월남민의 생활경험과 정체성 -속초 아바이마을과 김재 용지농원을 중심으로》 서울  
 대대학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1999, 김귀옥, 《이산가족 ‘반공전사’도 ‘빨갱이’도 아닌》 역사비평  
 사, 2004

역 민속극인 북청사자놀음의 속초지역 현장조사<sup>122)</sup> 실향민문화의 전승과 창조적 발전방안,<sup>123)</sup> 돈돌라리민요에 대해서도 고찰한 바 있다.<sup>124)</sup>

한국전쟁이후 함경남도 피난민의 집거촌인 속초시 청호동을 중심으로 북청사자놀음이 이주 전파되었다. 따라서 속초사자놀음은 함경도로부터 속초로 이주한 북한민속극이며, 피난민들이 품고 자유를 찾아 남쪽으로 넘어온 이주민속(移住民俗)의 하나다. 그러므로 1950년대까지 북한에서 연행된 사자놀음이 그대로 남한으로 와서 정착하고 전승된 귀중한 사례로 평가할 수 있으며 속초사자놀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북청사자놀음이가 유명하지요. 내가 알기로는 서울서 사자놀이 하는데, 첫말이 그러하잖아요. 북청사자놀음. 그런데 내가 북청에 있으면서 내가 살던 고향이가 희한합니다. 북청군 신창읍 토성리라는 곳에서 살았는데 토성이라는 데가 허허벌판입니다. 산으로 가자면 십 키로씩 가야되지요. 벌판에 마을이 있는데 그 옛날에는 나라 임금이 오백년 도읍을 같이했는데, 거기서 바다같이 너른데 성을 쌓았어요. 남대문, 동대문, 북대문이 있는데, 일제 때 총독부에서 관리를 했어요. 이 성을 엄청나게 크게 쌓고 그 주위에 소나무를 심어 소나무가 들어서서 마을전체가 풀숲입니다. 거기 관장이 있는데 오백년 도읍지이므로 사자놀음을 거기서부터 기초가 돼서 북청사자놀음이다 하지요. 우리 고향에서 사자놀음터가 처음 발족해 탄 부락에서도 하고, 참 멋있고 그래서 그걸 본 받아서 탄 부락에서 하고 탄 부락에서 하고, 그래서 북청사자놀음이란 말이 나왔지요.

원 말이 근본은 우리 토성에서 나왔지요. 그래서 토성에 가면 돌로 만든 숟가락, 젓가락, 밥그릇이 나와요. 처음에 토성리에서 북청사자놀음이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어려서 보았는데 내가 서른 몇 살에 나왔으니, 일제 때는 허가 못해서 못했거든요. 일제 때는 시시한 그런 거 가지고는 경찰서에서 허가 안내줘요. 그러

121) 장정룡, 《강원도출신 독립운동가 및 강원도 거주 실향민 생애사조사연구》 강원발전연구원, 2005  
장정룡.김무림.함성호.한정규.최송길, 《속초지역 실향민 구술조사보고서》 속초시, 속초시박물관, 2007  
장정룡.사득환.김영식, 《강원지역 이북도민정착사》 이북5도위원회, 속초시, 속초시립박물관, 2009

122) 장정룡, 《속초북청사자놀음 전승실태조사보고서》 속초문화원, 2010

123) 장정룡, 〈속초실향민문화의 전승과 창조적 발전방안〉 《속초문화》 제26호, 2010, 94~125쪽

124) 장정룡, 〈돈돌라리 민요의 실상과 전승론〉, 《속초문화》 제30호, 속초문화원, 2014, 54~71쪽

니까 허가하지 않으면 토성리에 사는 부락사람이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머리가 특수하다든지 아니면 인재라 하는 분네들이 어떻게 지령으로서 그 사람들이 승인이 맥이게 되니까 허가를 내줘서 하지요. 그때 보름달로 해가지고 하는데 사자놀음도 하고 그때 당시는 운동을 크게 하지요. 그래서 그대 사자놀음하는 걸 이북에서도 많이 구경도 하고, 내가 십 오년 이상 구경하구 나온 사람이니까. 사자놀음할 때에는 소나발이라구 그걸 불면 '뽕'하는 소리가 나지요. 우리가 들을 때는 소나발 그러는데요. 그리구 피리불구, 요만한 생활도 불구, 아마 중앙에는 우리 토성리 사람들이 사자놀음을 하는데 지금은 대부분 물려 받아하지마는 원 근본 임원들이 더러 있을 겁니다.(장정룡 조사:김하륜, 남.84, 교동, 1999.12.10)<sup>125)</sup>



125) 장정룡 외, 《속초지역구전설화집》 속초문화원, 1999, 59~60쪽

남북분단 이후 사자놀음의 변화를 겪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북청사자놀음의 남쪽지역 원형은 속초지역에 보존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것은 함남출신자들이 가장 많이 집거하고 있으며, 함경도 방언으로 진행되는 사자놀음이기에 그 맛과 흥이 남다르다. 전라도 판소리의 맛이 남도사투리에 짙게 배어 나오듯이 북청사자놀음도 함경도의 문화와 주민들과 밀접하기에 그러하다.

속초 청호동에 거주하는 함경남도 주민들이 북청도청을 만들고 사자놀음을 시작했음은 북쪽 고향을 그리워하는 향수차원에서 행해진 것으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북한문화의 전파와 남쪽 정착·전승이라는 문화적 측면에서 통일 이후를 준비하는 측면에서 중시된다.





6세기에 신라인 이사부는 동해중에 있는 우산국을 정복할 때 사자를 형상한 허수아비를 배에 싣고 가서 그것으로써 섬사람들을 위압하였다고 한다. 4세기 중엽의 고구려 옛무덤인 안악 제3호 무덤 벽화에는 악기를 타며 춤을 추는 사람 네 명을 그렸는데 그중 한 사람은 코가 큰 탈을 쓰고 춤추고 있다.



신라 초기 유적에서 나온 토기에는 거북과 닭의 탈을 쓴 탈꾼들이 춤추는 장면이 있으며 6세기 음악가인 우륵이 작곡한 12곡 중에는 사자기(師子伎)라는 사자놀음이 있었다. 가야국 기실왕이 우륵에게 명하여 12곡을 짓게 했는데 가야국이 난리나자 우륵은 신라 진흥왕에게 귀화하였다. 당시 우륵이 제작한 12곡은 하가라도, 상가라도, 보기, 달사, 사물, 물혜, 하기물, 사자기, 거열, 사팔혜, 이사, 상기물 등이다.<sup>126)</sup>

이 중 여덟 번째 곡에 사자기가 들었다. 이는 가야금 곡조만이 아니고 노래와 춤이 어울린 노래였으며 남제(南齊)에서 전래한 기악의 사

126) 《삼국유사》 권제32, 악지 가야금조

자기로 해석된다.<sup>127)</sup> 백제에도 일찍부터 탈놀이가 성행했는데 612년에 백제인 미마지(味摩之)가 일본에 탈놀이를 가르쳐주었으며 법륜사에는 당시의 탈이 보관되어 있다.

삼국시대에는 이와 같이 다양한 탈놀이가 진행되었는데 통일신라이후 탈놀이는 더욱 발전되었다. 아래 자료는 《삼국사기》에 수록된 산예 즉 사자놀음에 대한 최치원의 글과 근래 태백 본적사지에서 출포된 신라 때 사자문양 기와이다.



신라 말기 때 최치원(857~?)이 쓴 향악잡영(鄉樂雜詠) 5수 가운데에도 산예라는 사자놀음 내용을 보면 “사막을 지나서 몇만 리를 왔느냐(遠涉流沙萬里來), 털은 다 빠지고 먼지투성일세(毛衣破盡着塵埃). 머리를 흔들고 꼬리를 치며(搖頭掉尾順仁德) 사람 말은 잘 듣지만 억센 그 기운 짐승 중의 왕이로다.(雄氣寧同百獸才)”라고 읊었다.<sup>128)</sup> 이 시에 나오는 유사는 사막의 명칭으로 서역 일대 고비사막을 지칭하는 것

127) 김동욱, <우륵십이곡에 대하여> 《신라가야문화》1호, 대구청구대학, 1966, 32쪽

128) 金富軾, 《三國史記》卷第三十二 志第一, 樂

으로 사자무가 인도에서 전래했음을 말하는 것이다.

육당 최남선은 《조선상식문답속편》에서 산예는 “인도 특유의 동물 의장무로서 서역과 동방의 각국에 유행하게 된 유명한 무악(舞樂)이요, 그 여풍(餘風)이 한국, 일본 등에 지금도 남아 있다.”하였다.

산예는 위의 시 내용처럼 잡희의 내용이 선명한 북방계 사자희라 할 수 있으며, 산예라는 명칭은 아마도 최치원이 만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이 산예라는 사자무를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기 때문인데, 그 내용이 중국의 연희시와 매우 흡사하다고 한다.<sup>129)</sup> 일반적으로 북방계 사자는 대나무 골조에다 종이를 발라 붙여서 사자모양을 만드는데 푸른 물감을 들인 대마나 칩쩍질로 모양을 꾸미기 때문에 용맹스럽고 활발한 동작을 보여주며, 남방계 사자는 그림 도구로 눈코입을 그려서 색실과 꿩꼬리, 짐승털로 아름답게 꾸민다.

삼국시대의 기록에 나무사자상이 보이고, 《삼국사기》 약지에서 ‘사자기’라는 기록도 있다. 이처럼 〈향악잡영〉은 최치원이 당대에 창조 공연된 극놀이의 내용과 진행 과정을 시적으로 매우 능숙하고 흥미롭게 그려냈다.

이런 측면에서 〈향악잡영〉은 신라 말기 극예술의 발전 면모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며 시인의 창작문예작품으로서도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산예의 사자춤은 중국의 오방사자나 구두(九頭)사자가 아니라 서량기(西凉伎)의 사자무로 보인다.<sup>130)</sup> 백거이(白居易:772~846)의 시에 “奮迅毛衣擺雙耳(털옷을 흔들어 털고 두 귀를 흔들며), 如從流沙來萬里(마치 서역을 거쳐 만리길을 온 것 같구나)”라 하였듯이 산예의 사자놀음과 흡사한 형용을 보인다.

강원도 태백시 본적사지에서 출토된 통일신라 때 사자문양의 수막새는 강원도 지역에 사자가면의 전래를 추정케 한다. 특히 막새의 드림면 전체에 가득 차는 크기로 세부적인 부분까지 섬세하고 뚜렷하게 표현된 좌상이고, 경주 이외 지역에서 사자문 막새가 출토된 점은 매우

129) 윤광봉, 《한국연희시연구》 이우출판사, 1987, 41쪽

130) 김학주, 《한·중 두 나라의 가무와 잡희》 서울대출판부, 1994, 93~94쪽

주목되는 부분이라고 평가한다.<sup>131)</sup>

이 사자문양 막새는 사자가 앉아 있는 모습을 새긴 것으로 사자가 정면을 보고 있는 무서운 모습이다. 눈썹, 코, 입, 콧등, 수염, 갈기, 턱수염, 앞니 등이 잘 표현되어 신라 때 사자가면을 추측하는 중요한 자료라고 하겠다. 산예라는 사자가면의 모습을 유추하려고 한다면 태백 본적사지 출토 사자문(獅子紋) 수막새는 벽사진경과 수호신적 의미를 가진 신수(神獸) 또는 영수(靈獸), 벽사수(辟邪獸)로 사찰을 수호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도 신라와 당나라와의 관계에서 사자와 관련된 벽사신앙이 유입되었으며, 태백 본적사지의 사자문 막새도 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사자춤은 우리나라와 중국나례(儺禮)에서 모두 발견된다. 고려말 이색(李穡:1328~1396)의 <구나행(驅儺行)>은 나례에서 사자무가 추어진 사실을 전하는데 나례에 오방귀무와 백택무가 나온다. 구나행의 1구에서 14구까지는 12지신과 진자들이 역귀를 쫓는 의식이고, 15구에서 28구까지는 의식이 끝난 뒤 놀이패가 각종 잡희를 연행하는 내용이다.



131) 강원도문화재연구소.태백시, 《本寂寺址》2003, 128쪽

그 내용은 오방귀무, 사자무, 서역의 호인희, 처용무, 불토하기, 칼삼키기, 인형극, 백수희 등의 놀이를 묘사한다. 15구와 16구는 “舞五方鬼踊白澤, 吐出回祿吞青萍”(오방귀신의 춤과 사자놀이를 하며 불을 뿜기도 하고, 칼을 삼키네)라고 하였다. 여기서 백택무가 신수(神獸) 또는 사자의 별칭으로 까마귀, 주지(사자), 비비탈과 같은 것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sup>132)</sup> 대부분 나례에 등장하는 동물은 사자이고, 벽사적 동물로 사자가 등장하므로 우리나라에서도 고려 말에 이미 나례에서 사자무가 연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가면탈놀이는 동해안 일대의 북청사자놀음과 통천가면극, 서해안 일대의 봉산탈춤과 산대탈춤, 남해안 일대의 수영야류와 통영오광대, 내륙지방의 양주소놀이굿과 하회별신굿으로 나눈다.<sup>133)</sup> 현존하는 가면극 가운데 대표적인 사자놀음은 동해안 지역의 북청이며 봉산·강령·은륜 등지 해서탈춤, 수영야유, 통영오광대, 하회별신굿탈놀이의 주지(사자) 등에서 사자무를 발견할 수 있다.

이두현은 “중국민속사자무와 비교하여 보건대 우리의 사자놀음은 북방계에 가까운 것이며 또 하회가면 속의 주지탈은 사자탈을 뜻하는 것인데 그 가면에 꿩털[雉尾]를 꽂는 것은 사자의 갈기로서 사용한 것이며, 중국 남방계 사자에서도 그 예가 있음을 볼 때 주지탈은 사자탈임을 더욱 확증하여 준다고 할 수 있겠다.”<sup>134)</sup>라고 언급하였다.

이 가운데 동해안지역의 사자놀음은 일정한 구성을 가졌으며, 극적 줄거리가 선명하다. 이들 가면극들에서 사자가 등장하는 것은 벽사적 기능을 갖는 구나의식(驅儺儀式)의 일환이라고 하겠으며, 이 가운데 함경남도 북청사자놀음이 나례의 구나형식과 가장 흡사한 모습을 보인다. 북청사자놀음은 정월 14일 날 밤부터 16일까지 가가호호를 방문하면서 지신밟기를 하는데 이것은 나례의 매귀(埋鬼)와 같은 성격이고, 방울소리를 울리거나 ‘딱딱’ 소리를 내며 입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귀신을 잡아먹는 시늉을 하는 것도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

132) 尹光鳳, 《韓國演戲詩研究》 二友出版社, 1987, 59쪽. 윤광봉, 〈한국가면극의 형성과정 -나례의 변이양상을 중심으로〉 《비교민속학》 제9집, 비교민속학회, 1992, 97쪽

133) 권택무, 《조선중세민간극문학》 평양출판사, 2006, 12쪽

134) 李杜鉉, 《韓國假面劇》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69, 383쪽

또한 부엌으로 들어가 바가지를 물고 나와 마당에서 깨뜨리는 것도 엄중한 행위로 위협하여 귀신을 쫓는 것이다. 가면극의 중심에 사자가 등장하는 자체로도 벽사(辟邪)의 의미를 가질 뿐 아니라 집안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사자가 방울소리를 내고, 입을 여닫는 ‘딱딱’ 소리를 내는 것도 잡귀를 쫓는 나례의 구나형식과 유사하다. 1936년 2월 7일 송석하가 북청을 방문하여 사진촬영을 하고 글을 남긴 이래,<sup>135)</sup> 본격적인 연구는 이두현,<sup>136)</sup> 전경옥<sup>137)</sup> 장정룡<sup>138)</sup> 등에 의해 이루어졌고, 북한에서는 김일출, 박종성, 장권표, 리순신, 최창호, 조대일, 권택무, 한태일 등의 연구가 있었다.



필자는 지난 1991년 7월 16일 김수석(속초시 영랑동 8통 5반, 당시 84세), 김하륜(속초시 금호동 10통 1반, 당시 76세) 제보자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를 하였다. 이 조사는 실질적인 면담 심층조사로서 북청동 향친목계 계획 및 계원명단을 찾았고, 이들이 북청사자놀음의 실질적

135) 송석하, 《한국민속고》 일신사, 1960년 75~79쪽

136) 이두현, 《한국가면극》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69, 381~393쪽

137) 전경옥, 《북청사자놀이연구》 태학사, 1999

138) 장정룡, 〈속초북청사자놀음 전승실태조사〉 《속초의 향토민속》 속초문화원, 1992,

전승자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월남이후 최초 제작된 북청사자탈을 김하륜 옹의 집에서 찾아내 사진촬영을 하여 원형복원에 기여하였다.<sup>139)</sup>

이후 1957년 당시 북청사자놀음의 장구와 양반역을 맡았던 신겸(87세) 옹을 찾아냈고, 부친 변무성으로부터 통소와 양반을 배우 변경일(78세) 씨와 김철섭(73) 제보자를 찾아서 전승실태조사보고서를 다시 작성하였다.<sup>140)</sup> 속초지역에 전승된 사자놀음의 본격 조사와 내용은 필자에 의해서 두 차례로 수행되었고, 고인이 되신 김수석, 김하륜 옹의 소중한 구술 대본과 통소 녹음자료를 확보하게 되었다. 이후 2010년에는 피난 1세대, 1.5세대인 신겸, 변경일, 김철섭 연희자를 발굴하여 속초북청사자놀음의 전승 기반을 확고하게 정립할 수 있게 되었다.



139) 장정룡, <속초북청사자놀음전승실태조사> 《속초의 향토민속》 속초문화원, 1992, 198~216쪽

140) 장정룡, 《북청사자놀음 전승실태조사보고서》 속초문화원, 2010

속초사자놀음의 지역 전승은 춤(음악)을 중심으로 하느냐, 아니면 내용을 중심으로 하느냐의 측면이다. 두 가지 분류에 사자춤의 초장, 중장, 말장이 들어가므로 사자춤이 중핵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사자놀음은 연희자들의 여흥놀이가 중심이 아니다. 따라서 칼춤, 사당춤, 무동춤, 꼽새춤, 승무를 비롯하여 민요 애원성, 에구내딸 봉섬이, 마지막의 군무 등은 사자놀음을 보완하고 놀이판을 구성하는 요소라고 볼 수 있다.

### 1) 놀이과장<sup>141)</sup>

- (ㄱ) 연희시기:정월대보름 전후 2~3일간
- (ㄴ) 연희장소:도청마당(각 가가호호 방문 후)
- (ㄷ) 등장인물:악사, 양반, 꼭쇠, 애원성춤 2인, 거사춤 2, 사당춤2, 칼춤2, 무동춤4, 꼽새춤2인
- (ㄹ) 가면:양반, 꼭쇠, 사자탈(모두 종이탈)
- (ㄴ) 악기:통소 3~4개, 팽과리, 장고, 북, 징
- (ㄷ) 소요시간:40~50분(전체), 사자춤은 5~10분 정도
- (ㄹ) 연희내용:벽사진경
- (ㄷ) 연희마당:[아홉굿거리(춤)] ①입장곡 ②애원성곡 ③에구내딸 봉섬이 ④연풍대 ⑤칼춤 ⑥사자춤초장 ⑦중장 ⑧말장 ⑨자유곡 [열두마당(내용)] ①양반꼭쇠의 해학마당정리 ②애원성노래 ③사당춤 ④무동춤 ⑤꼽새춤 ⑥칼춤 ⑦사자춤 초장 ⑧중장 ⑨말장 ⑩승무 ⑪풍자 ⑫군무
- (ㄹ) 사자탈의 크기:1958년 남한에서 최초로 만든 사자탈은 크기가 사자전면 가로 70cm, 세로 62cm, 이마에서 눈썹까지 15cm, 눈썹의 길이 20cm, 한쪽 눈의 크기 14cm, 코길이 22cm, 입의 길이 21cm, 입높이 3cm이다, 원래는 피나무로 깎고 색칠을 했으나 종이로 만들었으며 사자탈은 페그물을 색칠함.<sup>142)</sup>

141) 1950년대 속초지역에서 처음 사자놀음을 연희하였던 김수석, 김하륜 두 분의 고증을 토대로 그 내용과 사자탈의 크기를 정리한 것이다.

142) 장정룡, 《속초의 향토민속》 속초문화원, 1992, 214쪽



북청사자놀음을 기본으로 한 대표적인 놀이대본을 살펴보면 마당놀이와 사자놀이 마당으로 크게 두 마당으로 나뉜다. 이두현 채록본의 경우

제1과장:애원성

제2과장 :마당놀이-①마당놀이 ②사당춤 ③무동춤 ④뽕새춤

제3과장:사자춤-①사자춤 ②군무로 되어 있어서 애원성 과장이 따로 들어갔다.<sup>143)</sup>

다음으로 함남북청민속예술보존회 조규희 채록본은

제1애원성마당-①해학 ②애원성 ③사당춤 ④갈춤 ⑤무동춤 ⑥뽕새춤,

제2 사자놀이마당-⑦사자춤과 승무 ⑧풍자 ⑨군무(넙두리춤)으로 2마당 9과장으로 나누었다.

전경옥 채록본은 마당놀이 마당과 사자놀이 마당으로 나누었다. 마당 놀이에는

①마당놀이과장 ②애원성춤과장 ③사당 거사춤과장 ④무동춤과장 ⑤넙두리춤과장 ⑥뽕추춤과장 ⑦갈춤과장 등 7개 과장이 있고,

사자놀이에는 ①사자춤 초장 ②사자춤 중장 ③사자춤 말장 ④마을놀이와 뒷풀이과장으로 모두 4과장으로 하였다.<sup>144)</sup>

143) 이두현, 《한국가면극》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69, 381~393쪽

144) 전경옥, 《중요무형문화재 제15호 북청사자놀음》 화산문화, 2001, 59쪽



박종성은 북청사자놀음이 하나의 완전한 독립적인 탈춤이라는 고유한 특징을 지닌다고 강조하였으며, 기본적으로 세 부분으로 나누었다.

즉 첫부분은 느린춤부분이다. 이 지방에서 느린춤부분의 장단을 ‘마당장단(굿거리장단)’이라고 하였고, 춤은 ‘넘놀이춤’이라고 한다. 이 춤에서 사자의 위엄을 보여주는 것이 기본이다.

둘째부분은 ‘닐니리장단(타령장단)’에 춤은 ‘넉두리춤’이다. 이 춤부분에서는 사자의 맹수로서의 날래고 용맹한 모습을 강조한다.

셋째부분은 ‘검모리장단(타랑장단이 빨라진 것)’에 환희의 춤이다. 여기서 사자가 마음껏 논 환희로운 기분을 형상하고 있다. ‘검모리춤’이라고도 하는 이 부분에서 힘차고 약동적인 북장단에 재빠르고 박력 있는 율동이 전개된다.

셋째부분에서는 하나의 이야기가 삽입된다. 한참 사자가 날떨 때 어린아이 하나가 춤판에 끼어든다. 사자가 큰 입을 벌리며 달려들어 아이를 삼킨다. 사자는 곧 체기를 받아 빙빙 돌다가 쓰러진다. 이때 사자를 끌고 다니던 마부가 침쟁이를 엮고 들어온다. 침쟁이는 막대기만한

침으로 사자를 쿡쿡 찌른다. 사자가 살아나고 기쁨을 안고 춤을 추면 놀이꾼들 모두가 어울려 큰 춤판을 날이 셀 때까지 계속되는데, 개별적인 집들을 찾아다니면 놀기도 하였다.

이때는 집주인의 요청에 의하여 부엌으로 해서 방안을 통과하여 마당으로 나온다. 집주인은 음식을 차려주는데, 사자가 그렇게 해야 목은해의 부정한 것이 다 물러간다는 지방의 옛 풍습과 관련되어 있다고 한다.<sup>145)</sup>

권택무에 의해 정리된 북한 전승의 북청사자놀음은 ‘북청사자탈극’이라 부르며 북상리(대별)의 것을 기본으로 하여 하나의 대본형식으로 만들었다고 한다.<sup>146)</sup> 과장은 제1 도청과장, 제2 길군악과장, 제3 경연과장, 제4 마을돌이과장, 제5 마감과장으로 나누었으며, 나오는 탈은 사자탈, 꼭쇠(또는 짝쇠), 양반, 중, 점바치, 의원, 굴중(상모)돌리는 사람, 소고든 거사2명<sup>147)</sup>, 무동,<sup>148)</sup> 아이(또는 기생) 등이다.

한태일의 대본은 사자탈춤 중심으로 초장, 중장, 말장의 3개 춤마당으로 되어있다. 초장은 사자널리리로 마당장단(긋거리장단)에 맞추는 넘놀이춤(느린동작의 춤), 중장은 검모리장단(빠른 타령장단)에 맞추는 빠르고 격동적인 춤으로 사자의 웅장한 모습과 위엄을 보여주고, 말장은 사자가 기생을 삼키는 장면, 기생을 삼키고 체기받은 사자를 의원이 막대기침을 놓아 소생시키는 장면 등 극적이야기를 보여준다고 한다.<sup>149)</sup>

145) 박종성, 《조선민속무용》 문예출판사, 1991, 143쪽

146) 권택무, 《조선중세민간극문학》 평양출판사, 2006, 86~91쪽

147) 거사(乞士, 居士)는 유랑예술인집단인 사당패 가운데 남자를 이르는 말.

148) 무동(舞童)은 걸립패 유랑예술인들의 집단에서 다른 출연자의 어깨위에 올라서서 춤을 추는 아이.

149) 한태일, 〈사자탈춤〉 《조선예술》 10월호, 문학예술출판사, 2009, 64~65쪽



따라서 현존 남북한전승의 북청사자놀음은 마당놀이마당과 사자놀이마당으로 둘로 나누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속초지역의 전승도 이와 다르지 않은바 현재 행해지지 않는 승무나 거사춤 등을 배제한다면 전체적으로 10과장이 핵심이라고 하겠다. 현행 속초사자놀음의 전체 구성은 4과장 10마당이다.

이는 9곳거리 12마당을 고려하여 정리한 것으로 첫째는 길놀이이다. 그 순서는 깃발-햇불꾼-통소-장고-징-소고-격쇠-양반-무동-승무-뽕추(순서가 바뀌기도 함)이다. 북청사자놀음은 야간에 행해지는 특성을 살려서 길놀이에 등꾼이 햇불을 들고 사령이 깃발을 들고 도청 앞으로 모여들자 애원성을 부른다. 마당놀이에서는 양반과 꼭쇠가 등장하고, 다음에 녀두리춤, 무동춤, 뽕새춤, 칼춤으로 여흥놀이를 마치면 본격적인 사자놀이가 진행된다. 여기서 사자춤 초·중·말장을 마치면 마지막 군무놀이에서는 출연자가 함께 군무를 추고 돈돌라리 민요를 부르면서 끝낸다. 따라서 속초사자놀음은 타 지역과 달리 돈돌라리 민요를 부르며 마치는 것이다.

속초사자놀음은 마당놀이와 사자놀이가 중심이나 그 앞에 길놀이와 그 끝에 군무놀이를 넣어 놀이마당 구성상 체계성을 갖추었다. 전체 과장은 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으며 길놀이는 길군악 시작마당이며,

마지막 군무놀이는 마감마당과 같은 의미다.

속초사자놀이의 가면과 과장을 보면,

제1과장: 길놀이-①애원성,

제2과장: 마당놀이-②양반꼭쇠해학 ③넋두리춤 ④무동춤 ⑤뽕새춤 ⑥  
칼춤 ,

제3과장: 사자놀이-⑦사자춤초장 ⑧중장 ⑨말장,

제4과장: 군무놀이-⑩돈돌라리이다.



속초사자놀음에 사용된 사자가면은 현재 전하는 것은 1936년 2월 7일 석남 송석하(宋錫夏:1904~1948)가 북청현지에서 촬영한 북청읍 사자와 토성리 사자가면이 있다. 송석하의 사자탈은 전체적으로 붉은색 계통이며, 이마에는 검은색으로 길게 세 줄의 주름을 짚으며, 양쪽 눈꼬리가 위로 치켜 올라갔으며 눈은 황금색을 칠하고 눈 주위를 깊게 파고 가운데 구멍을 뚫었다. 코는 콧마루가 넓고 양쪽 콧구멍이 불룩하게 튀어 나왔다. 얼굴 양쪽에 사자 갈기를 흰색으로 치켜 그려서 무

서운 형상이다. 이것은 사자놀음이 나례의 유풍을 간직하고 벽사를 하기 위한 것이라 할 때 탈의 색이나 모양이 사자가면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김일출이 1955년 겨울부터 1956년 여름까지 세 차례 북청지방을 방문하여 조사한 사자가면 사진 자료가 전하고 있으며, 필자가 속초 현지에서 찾아낸 사자가면은 1957년 김수석, 김하륜 두 분이 속초에서 처음으로 페그물을 이용하여 사자피면의 몸통을 제작하고, 종이로 사자얼굴을 제작하였다. 현재 속초사자가면은 김수석, 김하륜 제작의 사자가면을 원형으로 확정하고 이를 다시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 가면은 필자가 김하륜 씨의 집을 방문하여 창고에서 찾아냈으며, 김하륜 씨 타계 후 현재는 속초문화원에 소장되어 있다.

강원도 내에 전승되는 사자모양의 유물 가운데 특별히 중요시되는 자료는 강원도 태백시 본적사에서 출토된 통일신라 때 사자문양의 수막새다. 가장 주목되는 사자 관련 자료라고 평가할 수 있다.<sup>150)</sup>

북한지역 김일출의 현지조사에 의하면 각 마을의 사자가면들이 서로 다른 특색들을 가졌다고 하였다. 그것은 대체로 호랑이 또는 고양이 모습으로 된 것, 귀면 모양으로 된 것과 얼굴 전면에 용비늘을 그린 것 등이다. 속초사자놀음 가면의 형태는 김하륜 옹의 고증에 의하면 속초에서 만들어 보관하는 있는 사자가면에 대하여 “이게 본 사자거채입니다. ...우리 사자 저기 진짜지”라고 증언하고 속초지역이 아닌 곳에서 만든 사자가면은 원형에서 벗어나고 음악도 달라졌음을 말하였다.<sup>151)</sup> 필자가 조사할 당시 김수석 옹의 증언도 그러하였다.<sup>152)</sup> 따라

150) 《本寂寺址》 강원문화재연구소 학술총서 5책, 강원문화재연구소, 태백시, 2003, 126~128쪽

151) 장정룡 조사:1991년 7월 16일 김하륜(남, 76세, 속초시 금호동 10통1반) “이게 다 우리 손으로 만든거요. 지금도 망글어요. 만들기 힘이 들어요. 이게 질이 세 가지고 (통소)구녕을 뚫기 힘들어요. 그래도 이거 우리 여기선 무스할까. 우리는 여기서 그렇게 해가지고 한 삼년하고, 삼십년전 일이야. 한 삼년 놀아거든, 가서 저 사자가지고 가서 그래서 서울가서 한 삼년 대녘어요...그래 귀찮으니까 한 삼년 다니고 등록난 다음에 자기네... (이게)지금 노는 사자야. 틀이 지들이 맞지 않나 싶어 칠한 거야. 이게 본 사자 거채입니다. 그렇담 지금 서울학생들이 지금 말하는기 저 영감들이 옛날 모습이 하나도 없다는 기야. 지금 현재 영감들이. 그래도 우리 사자가 저게 진짜지.. 거 내 하도 무속해서 지금도 보관하고 있어요.”

152) 장정룡 조사:1991년 7월 16일, 김수석(남,1907년생, 속초시 영랑동 8통5반) “원래 여기서 만든 사자가 서울 올라가서, 서울서 올라오라 그래서 여기서 만든 사자를 올려 갔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여기 사자 그 꼴을 모방한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이 자기네까지 망글어 가지고 지금 탈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네끼리 꼴을, 탈을 만들어 가지고 한단 말이야. 이겨서 망근 건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우리 친목회 김하륜이라고, 우리 회장으로 모시고 있는데요. 지금 그 사람이 사자를 보관하고 있거든요. 아

서 북청사자놀음의 속초전승지에서 최초로 제작한 사자가면이 원형이 가장 가까운 것으로 방증된다. 현재 사용하는 속초사자가면의 형태이다.



① 종이(과거에는 피나무 바탕에 조각하여 암수 한 쌍을 만들어서 썼다고 한다)

② 암수 한 쌍인데 수컷의 얼굴 윤곽은 전체적으로 둥그레하고 붉은색, 검은색, 황색 등으로 채색한다. 수염을 흰색을 칠하거나 납종이를 붙이고 눈썹을 검게 그리기도 한다. 몸에는 그물을 씌우고 그 그물에 황색, 흑색, 백색, 청색, 홍색 등 오색실을 매고 꼬리는 대나무에 오색실을 감아 붙인다. 눈은 금색을 칠하였으며 눈동자와 코는 검은색 바탕에 구멍만 뚫렸다. 암컷 사자는 전체적으로 붉은 색을 띠고 이마는

주 대가리가 참 보기도 좋아요. 제가 만든기요. 거기 있습니다. 종이로, 종이를 붙인 거예요.”

검은색 주름을 넣었고 눈은 흰색 눈동자에 검은색으로 그렸다. 코는 굽게 만들고 끝에 구멍을 뚫었다. 귀자리에는 방울을 달았다.

③ 높이 55cm 너비 넓은 곳이 48cm 좁은 곳이 37cm, 코높이 10cm, 눈동자 지름 5.5cm, 꼬리길이 86cm(손잡이 10cm), 몸 전체길이 200cm

④ 사자몸은 같은 오색실이 달린 바지와 신을 신고 사자머리와 사자몸에 두 사람이 들어간다.

## 2) 양반:

① 종이

② 흰색 바탕에 검은색 눈썹과 수염을 달았다. 눈과 입이 뚫렸다.

③ 높이 30cm 너비 21cm 코길이 11cm, 코높이 4cm

④ 높은 정자관을 쓰는데 정자관에는 사람 얼굴 모양을 그렸다. 옷은 흰색 도포를 입었으며 부채와 장죽(74cm)을 든다. 김하륜 옹의 고증에는 양반은 손에 담뱃대를 들고 부채를 들고 도포 관복을 입고, 탈은 종이로 만들었으며 수염은 근사하게 길쭉하게 만든다고 한다.

## 3) 꼭쇠(팍쇠):

① 종이

② 검은색 바탕에 수염을 검은색으로 길게 달았다. 눈과 입은 뚫렸다.

③ 높이 31cm 너비 20cm, 코높이 5cm

④ 빨간색 수술이 달린 전립을 쓰고 등과 어깨에 검은 빗갈이 들어간 갈색 옷을 입었고 허리에 붉은 천을 두른다. 김하륜 옹의 고증에는 “꼭쇠는 일색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쪽에는 줄을 이렇게 매고 바지도 한 쪽 가다리, 반팔을 빨건거나 검은 거하고 팔이때기 절반은 빨건거 하고 탈을 쓰고 짚신신고 행전치고 머리에는 고깔을 쓴다.”고 한다.

## 4) 푹추:

① 종이

② 분홍색 바탕에 눈썹은 검은칠을 하고 붉은 입술이며, 눈과 입은 뚫렸다.



- ③ 높이 29cm 너비 20cm 코높이 3cm ④ 보통 여자 복색에 땡기머리를 한다.



5) 칼춤꾼:

- ① 2인이 등장하며 가면은 없이 머리에 수건을 쓰고 칼을 들고 나와 춤을 춘다.  
② 상의의 끝에는 검은색으로 선을 둘렀다.

6) 무동 2인:

- ① 가면은 없이 고깔을 쓰고 소매와 어깨에 붉은 줄이 그어진 소매가 넓은 가사와 흰바지를 입는다.

7) 약사:

- ① 흰 색 바지저고리에 남색 쾌자를 입고 머리에는 상투를 틀었다.

김하륜 옹의 고증에 의하면 대부분이 고깔을 썼다고 한다.

② 고깔색은 흰색에 양쪽에 꽃을 달았다.

③ 통소는 5~6명이 등장하며 굽은 대를 사용하여 만들었다. 길이 65.5cm 지름 3.3cm 그밖에 장고 1, 소고 1, 북1, 징 1 등이 등장한다. 김하륜 옹의 고증에는 통소는 3~4, 큰북, 작은북, 장고 하나, 징 하나, 썩과리 하나가 있었다고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속초지역에서는 일제강점기 무렵 사자희(獅子戲)가 전승되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것은 오늘날 북청사자놀음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속초사자놀음은 1950년 한국전쟁 직후 함경남도 피난민들에 의해 본격 시작되었다. 지난 1957년 음력 정월대보름날 월남한 함경도민의 최초 정착, 최다 집거지인 속초에서 북청사자놀음이 사자후를 토했다.

북청출신으로 사자놀음 연희자인 김수석과 통소 명인 김하륜 두 분을 중심으로 청호동에 거주하던 함경남도 도민 가운데 사자놀음을 보았거

나 실제로 했던 실향민들이 중심되었다. 1958년 속초읍장의 도움으로 처음 속초지역에 함경남도 도민들이 북청도청을 세우고 사자가면을 만들어서 매해 정월대보름날 연회를 시작하였다.



1957년 당시의 연회자들과 명단을 적시하면,

사자 : 김수석(앞채, 애원성) 뒷채(오동술)

양반 : 이종욱,

꼭쇠 : 양계건

사당춤 : 박씨

의원 : 장남우

승무: 김봉수

총각 : 김원사

곶추 : 마유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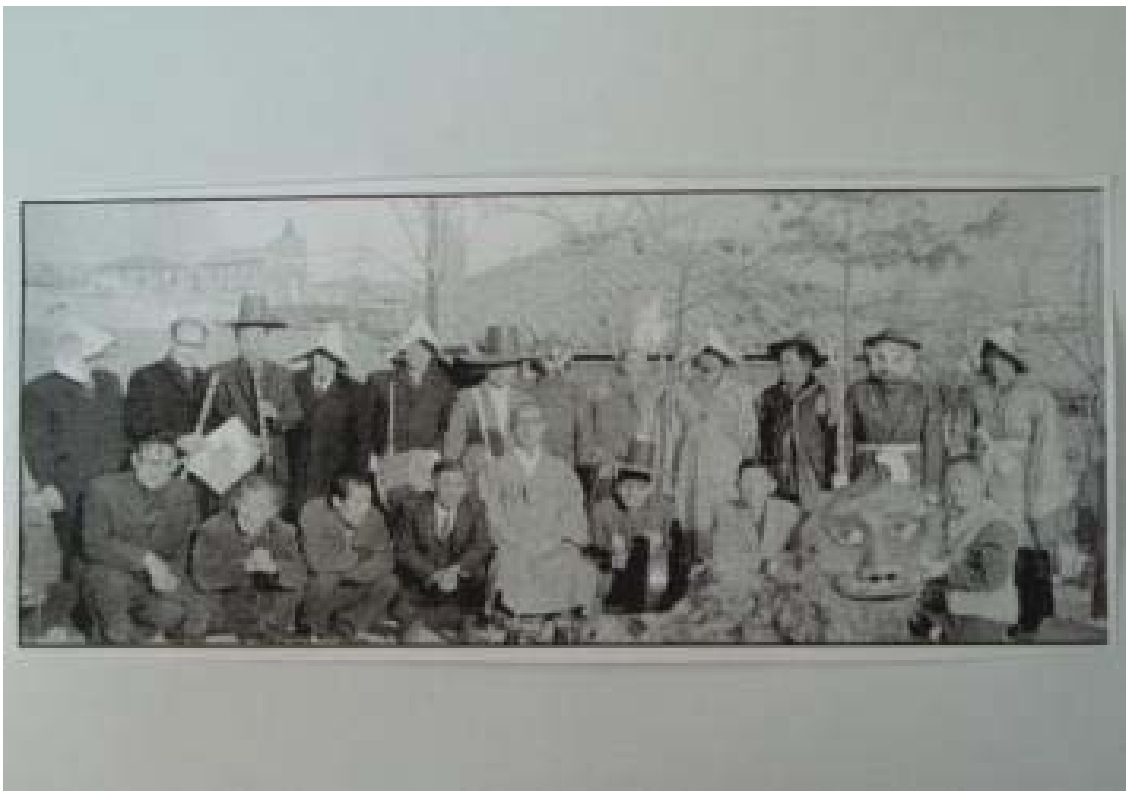
도깨비 : 김효환

중국인 : 이종호

악사 : 변무성(통소) 박진환(통소), 이재섭(통소), 김하륜(통소), 마방섭(북), 이종준(징), 신겸(장구)  
이외에도 길잡이 놀이패 수 명이 참가하였다.

속초에는 1957년 당시 연희 때 장구를 쳤던 양반역을 맡았던 신겸 씨가 중앙동에 거주하고 있으며, 당시에 통소를 불었던 고 변무성 씨의 아들 변경일(남.78세) 씨가 당시 아버지에게 통소와 양반놀이를 배웠다고 한다. 또한 사자놀음을 잘 기억하고 있고 사자탈 제작에 참여한 김철섭 씨가 재현에 힘을 쏟고 있다.

따라서 속초사자놀음의 대본은 최초 북청도청을 만들고 김수석(1907~1997), 김하륜(1914~2008) 씨의 지도하에 연희하던 당시의 모습대로 재현하였다. 이들은 1959년 5월 2일 북청동향친목계를 만들었으며 계원은 당시 북청사자놀음을 했던 분들이 주도적으로 활동하였다.



당시 친목계원은 다음과 같다. 이정기(63, 북청읍 외서리), 오경창(59, 서리), 김남룡(54, 남리), 김수석(52, 죽평리), 이창희(52, 거산면 평리), 이호영(51, 북청읍 외서리), 김삼목(49), 방학복(48, 북청읍 서리), 박진한(48, 신북청면 신상리), 이재섭(47, 신포면 육구), 최순재(47, 하차서면 상신리), 이옥영(48, 북청읍 상동리), 이완섭(46, 남리), 박성철(46, 서리), 방석홍(45, 서리), 양계건(45, 덕성면 동압내리), 김하륜(45, 신북청면 양가리), 어윤무(45, 덕성면 동압내리), 박유형(43, 상차서면 방촌리), 유홍렬(43, 덕성면 주의동리), 이종욱(43, 상차서면 엄동리), 방석재(43, 북청읍 서리), 이종준(42, 상동리), 어중룡(42, 날미), 마방섭(41, 가회면 봉의리), 김홍천(40, 가회면 봉의리), 이종호(40, 북청읍 서리), 민병국(39, 거사면 하입석리), 최○운(39, 건자포), 김효환(38, 신포면 신포리), 김선천(38, 북청읍 상동리), 이오섭(38, 서리), 오동술(36, 죽평리), 신겸(36, 죽평리), 마유득(34, 가회면 봉중리), 박용천(33, 북청읍 북삼리)<sup>153)</sup>

북청동향친목회는 36명이야. 그때나 이때나 이 형님(김수석)이 제일 고령자시고 그래서 그때 어떻게 했는고 하니 계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거요. 그래 가지고 사자를 저기 선조로 내려오는 공연문화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돈이 없거든, 저 바닷가에 가면 고기 그물을 썩어서 내버리는 것을 골라가지고 씻어가지고 바다에 씻어가지고 삶아가지고 물을 들여 사자를 만든 겁니다. 그때 사자를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그대나 이 형님이 사자를 만들고 그래서 사자 노는 걸 연습했지. 그래서 그 활동으로 모인 돈을 가지고 운영했지요. 우리는 정월 대보름날 야튼 음력설부터 보름날까지 계속 땡겨요. 그래 몇 날을 해 가지고 우리 고향의 선조들은 정월대보름날이라 정초에 사자놀이를 하게 되면 그 잡신들이 다 쫓겨나고 만수무강하라고 빌고 다 그래서 집집마다 쌀노 노나주고 돈도 노누는 집이 있고, 그때 돈으로 삼백원, 제일 잘 사는 사람은 한 천원내고 그럼 그걸 함께 모아 재산을 만들었어요.<sup>154)</sup>

153) 장정룡, 《속초의 향토민속》 속초문화원, 1992, 199쪽

154) 장정룡 위의 책, 207쪽

당시 북청군민 28만 가운데 절반인 14만 명이 월남했으며, 속초에는 북청 출신 3~4백 가구가 살았다고 한다. 상기 계원 가운데 북청사자놀음에 참가한 연희자 중 최고령자는 앞서자의 김수석이 중심이 되었다. 사자 뒷채 오동술, 꼭쇠 양계건, 양반 이종욱, 곱추 마유득, 도깨비 김효환, 중국인 이종호, 통소 김하륜, 통소 이재섭, 장구 신겸. 북 마방섭, 징 이종준 등 12명이나 되므로 북청동향친목계는 사자놀음의 실질적 공연단체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이들은 속초읍내에 거주하는 북청군민 36명이 북청도청을 만들어 계원간의 우의와 친애협동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당시 매월 20일 월례회의를 하며 연예부, 장의부, 의식부 등이 있어 사자놀음과 장례행사 등을 주관했다.



사자놀음은 속초에 거주하던 앞사자 김수석 씨를 중심으로 1956년에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첫 출전을 하였다. 이후 1957년 본격적으로 속초지역에서 연희되었는데 북청도청 기금마련을 위해서 음력 정월대보름날 속초에서 처음 공연하였다. 10일 동안 공연한 기금으로 1958년 속초읍장 전성우 씨로부터 금호동 읍소유지를 무상으로 불하받아 북청도청을 건립하였다.

이후 1960년 서울에서 북청사자놀음보존회를 발족하고 1964년부터 전수활동을 하였으며, 1966년 10월 제7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속초의 김수석, 오동술이 사자놀음을 하고 이재섭, 김하륜이 통소로 참가하여 김수석이 개인상을 받았다.



사자놀음은 이듬해인 1967년 중요무형문화재 제15호로 지정받았으며 김수석 씨는 사자앞머리 기능보유자로 1970년 기예능보유자 제84호(본적:함경남도, 주소: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1구 18반, 주민등록번호:140404-107507), 생년월일:1907년 7월 19일)로 지정받았다. 이후에도 김수석 씨는 속초에 계속 거주하면서 사자놀음의 정착에 노력하

였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점차 속초사자놀음은 서서히 명맥이 끊기고 1982년 김수석 씨는 전문대학생들을 지도하여 축제 때 공연하였으며, 1981년 9월 설악동에서 가을맞이 ‘새마을대예술제’를 마지막으로 전승이 중단되었다. 그러다가 1985년 10월 10일 제20회 설악제 당시 서울의 북청사자놀음 공연단이 속초공설운동장에서 공연하였고, 1988년 음력 정월대보름날에는 속초지역에서 북청출신 10여명이 사자놀음을 구성하여 걸립을 하였으나 본격적인 복원은 아니었다. 당시의 복색은 악사들이 모두 종이꽃을 한 개 단 고깔을 썼으나 현재는 쓰지 않고 있다.

10년 후인 1991년 속초시의 노력으로 설악제 민속제 때에 가장행렬로 참가하였으며, 단체구성이 안되어 사단법인 함남북청민속보존회에서 공연하고 김수석 씨는 애원성만을 불렀다.

필자는 김수석 씨와 김하륜 씨를 1991년 7월 16일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속초 현지조사에서 처음 만났다. 당시에 두 분은 고령이었지만 사자춤을 성실하게 증언해 주었고, 통소를 직접 불었다. 당시 김수석 옹은 놀이내용과 탈 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사당춤, 뭐 칼춤, 뭐 꼽새춤, 애원성, 그 다음에 거기 사자놀이마당이요. 맨 마지막 사자춤이 끝나고 그때 사자가 놀 때는 다른 사람은 안 들어가거든. 그러구 승무하고 그러니 세 사람이 들어가 놀거든. 마지막에 이제 끝날 무렵에 한 이십분 놔두고 다 들어간다이. 인원이 다 들어가서 한마당에 사자도 놀고 그 다음에 칼춤하나, 칼춤추는 사람이 칼을 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 몸뚱이만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저기 의상이 다를 게 아니요. 꼭쇠, 양반 뭐 의상이 다를 게 아니요. 그때그때는 한마당에 들어가서 전부 어울리게 복잡하게 놀지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나와서 나올 적에도 막 그리 쉽게서 순서없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마지막에 한바퀴 돌아요. 외줄서서 말이요. 외줄 서서 말이요. 한 줄로 서서 빙 돌거든요. 그래 이제 돌고서 거기 인제 존위라는 게 있어요. 옛날에는 말이요 옛날에 동네 부락에서 제일 나 먹은 사람을 존위라고 하거든요. 존위, 그래 그 존위가 맨 마지막에 무슨 잡병쫓구 있지요. 꼽추

가 탈이 있고, 양반이 탈이 있고 그 다음에 꼭쇠, 그 나머지는 그냥 맨 얼굴, 수건 쓰는 것도 있고, 고깔쓰고... 옛날 옛날에 자손이 귀한 집 애들은 이제 사자를 태우거든, 태우면 장수한다 그래요. 그리고 사자탈이 사자탈을 이제 주머니에 넣어서 애기 기저귀에다 채우면 명이 길다 그래서 그런 건 많지요. 사자탈은 빨간 것, 흰 것, 노른 것, 밤색, 검정색 다섯 가지 여섯 가지 그래요. 사자는 앉아서 움직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래 타지 않소? 그 안에서 서는 것도 있고, 앉아서 골을 흔들 때도 있고 서서 흔들 때도 있고 이렇다이. 두 마리가 나올 때도 있고 한 마리가 나올 때도 있지요. 놀이시간은 오래 못 놀죠. 사자는 한 십분 하는 대도 있고 한 이십분 하는 때도 있고, 전체는 한 사십분, 오십분, 자연적으로 음악에 따라 하는 거이 인간문화재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초장, 중장, 말장까지 다 있재이, 그러니까 3장이지. 사자는. 사자는 3장에서 노는 거지. 그게 두 마당 아홉거리라고 그랬지요. 두 마당 아홉 거리라는 게 두 마당인데 아홉 가지가 나오는 기지, 애원성마당, 사자춤마당. 사자탈은 종이를 붙인 것이요.<sup>155)</sup>

### 제1과장:길놀이-① 마당돌이와 애원성

길놀이를 일명 ‘마당돌이’라고도 하는데 북청 토성리에서는 사자놀이와 관원놀이가 합쳐져 연희되었다고 한다. 길놀이 때 사자놀이와 관원놀이 연희자들이 악기반주에 따라 행진했는데 관원놀이를 하지 않지만 길놀이만 하는 마을도 있다. 길놀이를 하지 않는 마을에서는 도청 앞 마당에 통소가락이 울리면 모여서 놀았다고 한다. 이것을 입장곡이라고 하는데 행진은 햇불과 깃대가 앞을 서고 길잡이가 막대를 휘두르면서 장내를 정리한다.

다음에 양반과 꼭쇠가 등장하여 사자놀이를 소개하고, 그 진행을 맡는데 꼭쇠는 양반의 하인이다. 길잡이는 길놀이의 한 형태라 하겠다. 길놀이에 부르는 애원성(哀怨聲)은 함남민요로 널리 불린다. 1957년

155) 장정룡, <속초북청사자놀이 전승실태조사> 《속초의 향토민속》 속초문화원, 1999, 202~203쪽

최초로 속초에서 북청사자놀음을 공연할 당시에는 김수석 씨가 불렀다.



애원성은 “사자놀이 하기 전에 마을주민들이 흥을 돋우기 위해 애원성, 돈돌라리, 어랑타령 등의 민요를 단지 노래만 부르던 것인데, 월남한 이후에는 새로 춤을 만들어 공연하고 있다. 따라서 북청고유의 춤이 아닌 별난 것이 들어있다고 할 수 있다.”<sup>156)</sup>는 견해도 있으나 속초에서는 애원성이 북청사자놀음에 들어갔으며, 김수석 씨가 타계한 이후 전승되지 않고 있다. 현재 속초에서는 ‘넉두리춤’을 추고 있다.

애원성은 함경도 북청, 혜산, 갑산, 무산, 삼수 등에서 가장 많이 부른 민요로 개화기 때 유랑의 길을 따라 떠난 남편을 그리워하는 아내의 구슬픈 노래라고도 하고, 북청 지방에서는 대원군이 경복궁 중건할 때

156) 전경옥, 《북청사자놀음》 화산문화, 2001, 63쪽

노역에 종사하기 위해 떠난 남편을 이별하며 부른 아내의 노래라고도 한다. “우수 경칩에 대동강이 풀리고, 정든 님 말쌈에 요 내 가슴 풀린다. 에헤”라고 부르는데 달 밝은 밤 옛 성의 폐허에 서 있을 때, 통소를 손에 쥐고 먼저 한 곡을 불 때라든지, 목동이 석양녘에 집으로 향할 때, 굽이쳐 흐르는 두만강 뗏목을 탈 때도 불렀다고 한다. 김하륜옹이 고증한 내용이다.

통소는 입장곡부터입니다. 그 다음이 애원성타령, 이 김하륜하고 그리고 인간문화재등록난 할아버지가 변영호라. 지금 통소 못 붙어요. 이게 김수석 할아버지가 애원성타령 한 거요. “에헤, 에헤 우수 경칩에 대동강이 풀리고 정든 님 말쌈에 요내 가슴 풀린다. 에헤 해는 오늘 보면 내일 보는 것 임자는 오늘 보면 언제나 보는가. 에헤 태산에 붙는 불은 만백성이 끄고 요내 가슴에 붙은 불은 어느 누가 끌까 에헤” 이 가사가 의미가 있는기야. 그리고 사자놀이 “에구 내딸 봉섬이”란게 있어요. 그 봉섬이란 아가씨가 그 아가씨가 예뻐던 모양이지. 처음에 입장곡, 그 다음에 애원성타령 부르고 에구 내딸 봉섬아 불렀거든, 그 다음에 이제 불렀던 게 연풍대라는 기요. 이번에는 칼춤이 나와요. 칼춤 잘춰요.(김하륜, 이하 김하륜, 김수석 옹의 고증은 필자조사 1991월 7월 16일)

제2과장:마당놀이-② 양반꼭쇠해학 ③ 녀두리춤 ④ 무동춤 ⑤ 꼬새춤 ⑥ 칼춤

양반꼭쇠 해학은 양반과 그 하인 꼭쇠가 마당돌이에 등장하여 마지막과장이 끝날 때까지 계속 놀이판을 돌아다니면서 놀이 내용을 소개하고 춤추는 사람들을 부른다. 양반과 꼭쇠는 말을 하면서 놀이의 진행을 돕는 보조자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놀이 중심은 사자놀이이며 춤과 동작으로 일관된다.



넛두리춤은 북청지방 여성들의 춤으로 돈돌리춤이라고도 한다. 이 춤은 양팔을 옆으로 들고 움직이는 동작과 머리를 숙인 채 좌우로 살랑살랑 흔들며 추는 것이 특징이다. 손목을 돌리고 다리를 살짝살짝 들면서 춤추는 것이 보기에 좋다. 무동춤은 어린아이를 무동 태워서 춤을 추게 하는데 대체로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2명이 각각 무동을 올라간다.

무동춤이 끝나면 꼽새춤(일명 꼽추춤)을 춘다. 양반이 꼭쇠에게 꼽새춤을 부르라고 하며 가슴과 등에 형짚을 넣어 불룩 튀어나온 모습으로 등장하여 웃음을 자아낸다. 꼽새가 한바탕 춤을 추고 들어가면 양쪽에서 두 명이 등장하여 중앙에 놓여 있는 칼을 들고 다양하게 칼춤을 춘다.

이번에는 칼춤이 나와요. 칼춤 잘춰요. 처음에는 입장곡하고 그 다음에 애원성타령, 그 다음에 에구내딸 봉섬아, 그때 사당춤 추거든. 그거 하면서 곱새춤추고, 칼춤은 맨 마지막에 하는기야. 그 다음에 또 연풍대 할적에 그때두 추는데, 여기도 춤추는 사람 서넛있소. 우리 고향사람들이 옛날 할머이들이 옛날 머리쓰개 머리 수건을 이렇게쓰고 옛날 할머이들이 추는 겁니다. 마지막이 칼춤이 끝났소. (김하륜)



제3과장:사자놀이-⑦ 사자춤 초장 ⑧ 사자춤 중장 ⑨ 사자춤 말장

사자놀이는 초장, 중장, 말장으로 나누는데 초장은 사자가 몸 푸는 과정이다. 좌우상하로 힘차게 돌리는데 ‘모래기친다’고 한다. 예전에는 사자 몸에 방울을 달아 소리를 냈다고 하는데 지금은 달지 않는다. 북청에서는 한 마리가 놀았으나 현재는 대부분 두 마리가 나온다. 양평리에서는 사자춤 중장에게 사자 먹이로 아이를 내놓았다.

사자가 아이를 먹고 체한 시늉을 하며 쓰러지면 의원이 나와서 침을 놓아 살려내다가 하면 다른 곳에서는 종이 나와 염불을 하고 그것이 효험이 없자 의원을 불러서 약과 침으로 사자를 살린다. 죽평리에서는 사자가 쓰러지면 점쟁이가 나와 병점을 치고 후에 중과 의원이 등장한다. 다시 살아난 사자는 중장의 마지막에 입사자춤을 추는데 앞채사람이 뒷채사람의 어깨 위에 올라탄다. 요즘은 아이 대신 토끼를 사자가 먹는 장면으로 바뀌었다.

일본악서의 하나인 《신서고악도(信西古樂圖)》에 보면 ‘신라박(新羅狛)’은 직립한 사자 모양이다. 이것은 앞채 한 사람이 뒷채 사람 어깨 위에 올라앉은 직립한 사자로 안에 두 사람이 들어 있는 것이다. 이것으로 보아도 사자놀이무법(舞法)이 신라 이래의 것으로 오래된 것임을 추측케한다.

중장은 사자가 엎드리고, 기고, 뛰고, 입 맞추고, 몸 털고, 머리를 좌우로 돌려 이도 잡고, 꼬리 흔들고, 몸을 굽기도 하는 등 다양한 기교를 보여준다. 역동적인 사자춤을 보여줄 때 승무가 들어와 춤을 춘다. 사자는 신나게 춤을 추다가 토끼를 먹고 쓰러진다. 대사가 염불해도 소용이 없자 의원이 들어와 침을 놓고 감로수를 먹여 소생시킨다. 사자가 소생하면 말장으로 들어가는데 승무가 다시 들어오고 거사도 들어와 원을 그리며 소고춤을 춘다.

이제 사자놀음하는데 초장, 중장, 말장이 있어요. 달라요. 이게 다 소리가 달라요. 음악이 달라요. 초장이 제일 늘지요. 뜨지요. 중장은 조금 더 빠르구 그 다음 말장에 가선 아주 빠르다이.(김하륜)

사자는 앉아서 움직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래 타지 않소? 그 안에서 서는 것도 있고, 앉아서 골을 흔들 때도 있고 서서 흔들 때도

있고 이렇다이. 두 마리가 나올 때도 있고 한 마리가 나올 때도 있지요. 놀이시간은 오래 못 놀죠. 사자는 한 십분 하는 대도 있고 한 이십분 하는 때도 있고, 전체는 한 사십분, 오십분, 자연적으로 음악에 따라 하는 거이 인간문화재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초장, 중장, 말장까지 다 있재이, 그러니까 3장이지. 사자는. 사자는 3장에서 노는 거지. 사자가 한창 놀다 거꾸러지믄 이제 토끼를 하나 가져다가 만든 토끼를 갖다 거 허기증이 있으니 거꾸러졌다하면 아제 의원을 찾는다 말이요. 꼭쇠에게 양반이 "의원을 찾아오라"고 말이요. 그래 의원이 와서 진맥하게 되면 이제 의원이 "뭘 먹였는가?"하면 그럼 양반이 있다가 "사자가 허기증이 나서 토끼를 먹였는데요."하면 의원이 "아, 그럼 언쳤는데요."그러거든. "언쳤다. 이거 침을 놔야 하겠다." 그 다음에 침을 놓다 말이야. 맨 마지막에 스님이 들어가서 염불하는기야. 그러면 사자가 살아나거든.(김수석)





제4과장:군무놀이-⑩ 돈돌라리

군무는 마지막 뒷풀이 마감마당이다. 집에 들어간 사자가 어린아이를 등에 태우는데 이렇게 하면 무병장수한다고 믿는다. 아이를 태운 사자는 한바탕 놀고 주인은 꼭쇠에게 쌀과 엽전을 주고 냇두리춤을 추자고 권한다. 마지막으로 모두 참가하는 군무가 이뤄진다. 이때 전 출연자들이 어울려 춤을 추고, 여성들이 등장하여 바가지장단을 치며 돈돌라리를 부른다. 봄철 강가에서 달래를 캐다가 “돈돌라리 돈돌라리 돈돌라리요, 시내강변에 돈돌라리요, 모래산천에 돈돌라리요, 보배청산에 돈돌라리요, 오막살이 초가집에 모래강산에 리라 리라리 돈돌라리요 리라리리리 돈돌라리요.”라고 노래 부르고 춤을 춘다. 이 말뜻은 일제강점기 나라를 빼앗겼을 때 ‘동틀날’ 즉 조국광복의 여명이 밝아온다는 뜻에서 불렀다고 한다.<sup>157)</sup>



157) 장정룡, <돈돌라리 민요의 실상과 전승론>, 《속초문화》 제30호, 속초문화원, 2014, 54~71쪽 참조

속초사자놀음의 가장 중요한 음악적 특징은 통소가 여러 명 등장하여 연주한다는 점이다. 대체로 5명 이상이 부는데 10년 이상은 불어야 소리가 난다고 한다. 악기는 통소 이외에 북1~2, 장고1~2, 징1로 구성되며 초창기 속초에서는 뽕과리를 사용했으나 현재는 통소 소리가 들이지 않아서 쓰지 않는다. 통소는 애원성을 부를 때는 애조편 슬픈 가락으로 불고, 칼춤이나 뉘두리춤을 출 때는 흥겹게 분다. 반주음악은 주로 3분박을 사용하는데 굿거리장단이나 자진굿거리장단에 속한다.

사자춤 반주음악은 검모리장단(빠른 타령장단)으로 첫장에는 심산유곡에 사자가 잠들어 있는 것을 형상, 중간장은 성낸 사자의 으르릉대는 소리와도 같이 씩씩한 박자로 격동적 선율, 마지막장은 부정을 물리친 승리자의 위엄을 그윽한 선율로 형상한다고 한다.

북청지역에서는 빠른 타령장단인 검모리장단(영풍장단, 도드라미) 이외에도 마당장단(굿거리장단), 널리리장단(승모장단, 타령장단) 등이 사용되고, 악기는 뽕과리(뽕매기)1, 새납1, 피리4, 통소4, 해금1, 소고1, 징1, 북1명 등이 등장한다.



속초사자놀이 춤사위는 애원성춤, 녀두리춤, 무동춤, 꼬추춤, 칼춤, 승무, 사자춤 등이 있는데 북한에서는 넘놀이춤, 잣은넉두리춤(승모춤), 건모리춤을 춘다고 한다. 사자춤은 서서 모래치기, 앉아서 모래치기, 선모재비, 앉은 모재비, 앉은 잔걸음모재비, 뽀뽀동작, 앞걸음, 뒷걸음질, 좌로 네박돌기, 우로 네박돌기, 바닥에 입대고 돌기, 바닥에 턱대고 돌기, 바닥에 엎드려돌기, 선자세로 허리구부려돌기, 쪼그려 앉아돌기, 똑바로 일어서서돌기, 이잡기, 입맞추기, 기지개켜기, 몸털기, 입사자만들기, 입사자에서 내리기, 쓰러졌다 일어나기, 먹이먹는 동작 등이 있다.

그리고 온몸을 흔들며 가볍게 뛰며 땅을 밟는 동작, 머리를 숙였다 들었다하는 동작, 꼬리를 좌우로 휘저으며 엉덩이를 돌리는 동작, 엎드려 머리를 들고 땅을 짚는 동작, 입을 크게 벌렸다 다물며 소리가 날 만큼 이빨을 마주치는 동작, 앞발을 들고 곧추 일어서는 동작 등이 있다.

중장에서 꼭쇠가 앞장서서 방안으로 뛰어들어가는데, 사자가 쓴살같이 그 뒤를 따른다. 사자가 방을 거쳐 부엌까지 훅훅 돌며 입을 벌렸다 다물었다 무서운 동작을 하다가 부엌에 놓아둔 바가지를 입에 물고 마당으로 뛰쳐나와 동맹이 쳐 버린 다음 높이 솟았다 엎드렸다 하며, 두 마리의 사자가 빙빙 돌게 된다.



속초사자놀이의 전승은 그동안 1950년 한국전쟁 이후 함경남도 월남민들에 의해서 전파·정착된 문화이식(文化移植)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조선총독부의 우리나라 향토오락 즉 민속놀이에 대해서 언급한 책자에 고성과 양양의 사자회가 적시되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한국전쟁 이전 시기 속초지역에도 사자놀이가 상존했음을 언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조사에 따라 우리나라 사자놀음의 분포도가 작성된 바 있듯이 1950년대 북청사자놀음의 전파 이전부터 정월 중에 농민들에 의해서 사자놀음이 행해졌음을 인식할 수 있다.

당시 조사된 내용을 분석하면, 오늘날 행해지는 북한지역 사자탈과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사자머리는 대나무 틀에 종이를 붙여 만들며 사자가면에는 앞뒤로 두 명이 들어가서 악대와 함께 정월달에 어울려 노는 방식이다. 이 사자탈은 대부분 북방계 사자탈 제작방식과 일치하고 있다.



이러한 정황을 살펴보건대 현재 속초지역인 고성과 양양 일대에서 1930~40년대 사자놀음이 전승된 것으로 조사되었다는 점에서 지역전승의 준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이다. 속초지역 전승의 사자놀이가 우리나라 북방계 사자놀음계인 함경도와 강원 동해안 권역에 포함된 사자놀이 연행의 독자적 영역을 지녔던 것으로 보인다. 속초사자놀이는 한국전쟁으로 인해 함경도 출신 피난민이 청호동 아바이마을에 집단거주하면서 전승된 전통 민속극이다. 마을공동체 발전을 위한 ‘걸립’과 ‘안택’의 의미를 강조한 ‘길놀이’가 특징이며, 벽사진경(辟邪進慶)의 민속적 의미와 예능적 가치가 크다.

끝으로 속초사자놀이가 강원도무형문화재로 지정됨으로써 새로운 평화시대에 우리 민족의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 조성은 물론 우리 민족 동질성과 혈맥을 잇는 중요한 축매체가 될 것을 기대를 받고 있다.

### Ⅲ. 농악이야기 마당

#### 1. 속초도리원농악



도리원은 노학동에 속한 마을로 물레방앗간이 있었으며, 예로부터 농토가 잘 형성되어 전형적인 농촌이다. 농악놀이도 오래전부터 전승되었는데 마을에 사는 노인들의 고증에 따르면 1900년 이전부터 마을에는 농악대가 구성되어 있었다고 하며, 지금도 속초시에는 노학동 도리원 마을만 유일하게 농악이 전승되고 있다.

속초의 민속놀이는 다른 지방에서 행해지는 윷놀이, 씨름, 그네타기, 줄다리기, 농악놀이, 사자놀이 등이 연중 이루어지는데<sup>158)</sup> 이 가운데 논피호불꽃놀이, 만천동나룻배싸움, 속초든대질놀이 등이 호수, 바다의 특징을 갖춘 놀이로 전승되고 있다. 아울러 도리원농악은 전형적인 강

158) 장정룡, 《속초의 민속》 속초문화원, 1987, 31쪽

원도 동해안 영동농악의 특징을 유지하고 있는데<sup>159)</sup> 한 해 농사의 전 과정을 놀이로 푼 농사풀이와 함께 뱃고사가 강조되는 등 속초의 해양 문화적 요소를 담고 있어 주목된다.

동해바다와 인접한 속초지역의 특성상 새로 배를 만들어 띄우는 ‘설망’때 바다에 배를 내리는 든대질을 하고 난 다음, 무녀가 축원굿을 하고, 도리원농악대가 뱃고사 농악을 치면서 항구를 한 바퀴 돌아 풍년을 기원하던 것이 일상적 과정이었다.

도리원농악대는 1930년부터 대포동 별신제 굿놀이와 고성 아야진 별신굿에 초청받아 성대하게 농악공연을 했으며, 정월달에는 거진읍, 양양 강현면 일대 농가의 초청을 받아 일주인간 머물면서 여러 마을에서 대보름 걸립농악을 했으며 이때 모은 걸립기금으로 소야천 큰 다리를 놓기도 하였다.

도리원농악은 1900년대 이전부터 활동하였는데 당시에는 김경대, 최정수 씨 등이 중심이 되어 걸립굿과 뱃고사가 행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던 중 1910년대에 이르러 강릉에 살던 경기도 출신 이설기 씨가 이 마을에 정착하면서 도리원농악 발전의 전기가 마련되었다.

초기 농악은 대체로 영동지역 농악과 비슷하게 편성되었으나 경기지역과 강릉에서 농악대원으로 활약했던 이설기 씨에 의해 경기도 웃다리농악의 섬세한 가락과 동작이 반영되었고, 강릉농악의 특징인 농사풀이가 접맥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이설기 씨에게 쇠를 배운 엄상원 씨가 농악대를 이끌면서 다양한 활동을 펼쳤으나 전형적인 농촌마을인 도리원에서 농악놀이는 자연 발생되었다. 그러나 외부의 요인에 의하여 경기농악과 강릉농악의 장점을 받아들였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도리원지역이 청호동, 동명동, 영랑동 등 어촌과 인접한 까닭에 뱃고사굿이 발달한 것도 도리원농악의 특징이라고 하겠다.

이들의 활동은 인근 고성지역과 양양까지도 알려져 도리원농악의 뱃고사굿은 대표성을 띤 농악놀이로 퍼졌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현재의

159) 정병호, 《농악》 열화당, 1986년, 18쪽 “嶺東農樂의 영향권에 있는 지역은 강릉, 삼척, 울진, 정선, 평창, 동해, 고성 등 강원도 동해안 일대와 동해안 지역에 임해 있는 일부 경북지방에도 파급되어 있고, 길주와 함주 등지의 함경도지방의 농악에도 그 영향이 미치고 있다.”

속초도리원농악은 백년전통의 고유한 농촌서낭굿농악의 전통을 계승하고, 뱃고사의 특성을 살리면서 경기농악과 강릉농악의 장점을 계승한 영북지역 유일의 농악대라는 영예로운 전통을 만들어나가고 있다.



속초시는 해안에 접한 구릉지와 저지대로 형성되어 내륙 쪽은 농사짓기에 적합한 지형을 갖추고 있다. 1860년에 편찬된 《관동읍지(關東邑誌)》에 보면 도문면(道門面)에 538명, 소천면(所川面)에 668명 등 총 1,206명이 거주하는 등 비교적 인구의 밀집현상을 보여준다. 이것은 설악산 계곡에서 동해로 흘러드는 쌍천 인근 도문동 일대와 달마봉에서 시작하여 노학동 도리원 앞의 평야지대를 지나 청초호로 유입되는 청초천 주변에 농토가 집중적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도문면의 상도문리, 하도문리, 물치리 등은 풍부한 수원에 힘입어 평지의 논농사가 활발하였고 소천면의 논산리, 부월리 등에서도 주민들이 잘 발달된 평야지대를 끼고 농토를 경작하였다.

도리원(桃李源)은 조선시대 행정구역상 소천면 논산리에 속하였는데



노학동 지역 동북쪽 둔덕 지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설악산 자락 끝에 넓은 소야평야 들판을 끼고 있다. 이곳의 농토 넓이는 390여 정보로 한 해 약 3,600석이 생산되었다고 하는데 주민 대부분이 농사를 짓게 됨에 따라 농악놀이가 오랫동안 전승되었다.

도리원은 일제강점기인 1914년 도천면 노리(蘆里, 노동)가 생기면서 노리 마을 뒤 안쪽 둔덕에 마을이 있다하여 ‘뒤안둔덕’ ‘뒤란덕이’라 부르던 것이 ‘되린덕’ 이 되고 이러한 발음을 따서 한자로 바꾼 ‘도리원’이라 정했다고 한다.<sup>160)</sup> 또한 이 마을에는 복숭아나무가 많아서 도리원이라 불렀다고도 전하는데 소야벌에서 바라보는 아름다운 경치에는 도원홍우(桃源紅雨:도리원리에 복숭아꽃이 떨어지는 것이 붉은 비가 내리는 것처럼 아름다운 경관)와 척산야침(尺山夜砧:척산마을에서 옷감을 다듬이질하는 밤의 경관)이 들어있다.

이처럼 눈으로 보고 귀로 듣던 복숭아꽃과 다듬이질 경관 이외에도 소야팔경(所野八景)을 기록한 《도천면 면세일반(道川面 面勢一斑)》(대정15년, 1926)에는 또 다른 팔경을 언급하였다.

즉 청호마경(靑湖磨鏡), 속초귀범(束草歸帆), 주교야화(舟橋夜火), 논산조양(論山朝陽), 온정조하(溫井朝霞), 노동명월(蘆洞明月), 청대화병(靑岱畫屏), 이동백설(梨洞白雪)이 들어 있는데 노학동과 청초호 일대의 아름다운 팔경을 언급한 것이다. 속초시에서는 이 마을을 전통민속마을로 지정하였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속초시 노학동 도리원 마을은 노학동 지역 동북쪽 둔덕지대에 위치한 마을로, 약 500년 전에 형성된 마을이다. 이전에는 노학동 지역이 전부 중심마을 노리에 속하였듯이 본래 蘆里에 속하였으나, 인구증가에 따라 1942년 행정상 노리에서 분리되었다가 1966년 동제 실시에 따라 다시 노학동으로 합쳐졌다. 한자로는 桃李源으로 표기하나 구전으로는 ‘되린덕’이라 부른다. 이 마을은 복숭아나무가 많아서 도리원이라고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복숭아桃에 대한 설명은 되지만 오얏李에 대한 설명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위의 설명은 도리원이라는 한자 표기에 의거하여 후대에 만들

160) 주상훈, 《속초의 지명》 속초문화원, 1990, 196쪽

어진 설명인 것 같다. 그것보다는 도리원이 인구가 적어 노리에 속할 때 노리 마을 뒀안쪽 둔덕이므로 뒀안둔덕, 뒀안덕, 뒀란덕이라고 하던 것이 ‘되린덕’으로 변하고, 이것을 한자로 유래와는 관계없이 발음이 비슷한 도리원으로 표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도 도리원을 속칭으로는 되린덕이라고 한다.

전형적인 농촌 마을로서 언제부터인지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지만 주업이 농업인 관계로 전통적으로 농악대를 구성, 각종 마을행사로 전통적으로 농악대를 구성, 각종 마을행사에 참여해왔다. 도리원농악은 흥겨우면서도 부드러운 삼채덩덕궁 가락이 특색인데 영북 지역을 대표할 만하다. 이 농악대는 명절에는 마을의 길복을 기원하기 위해, 농번기에는 노동악 형태로, 농한기에는 마을주민의 일체감 조성을 위해, 그리고 입신출세자 등 특별히 경하할 만한 일이 있을 때에는 이를 경축하기 위해 활용되었으며, 추수 후에는 풍년 마당놀이를 크게 벌이곤 하여, 인근 주민들이 축제를 관람하러 오기도 했다 한다. 상쇠, 무동, 상모꾼, 악사 등 3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986년 이 지역 향토축제인 설악제에 출품되어 호평을 받은 바 있다.<sup>161)</sup>

이 지역은 1966년 동제도가 시행되면서 노리, 도리원리, 이목리, 척산리, 신흥리를 합쳐 노학동(蘆鶴洞)이 되었다. 일제강점기에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노리가 신설되었는데 1942년 속초면이 속초읍으로 승격되면서 노리는 도리원리, 이목리, 척산리를 포괄한 4개 동으로 나뉘었고, 1962년에 이곳 뒷버덩으로 많은 사람들이 집단 이주함에 따라 신흥리가 신설되었다. ‘노학’이란 이름은 노리의 ‘노’와 척산리 학사평의 ‘학’자를 딴 것이며 당시에 노리 지역이 합쳐져 노학동이 되었다. 이곳에 전하는 지명유래는 다음과 같다.

예전에 노학동이라는 게 노리, 갈무리라는 게 전문대학 있는 데가 노리거든. 노린데 노리가 네 개 부락이여. 네 개 부락은 도리원, 이목, 노리, 척산 그래서 일정 때도 이 네 개 부락이 두 개 부락씩 도

161) 강원도, 《강원의 전통민속예술》 1994, 60~61쪽

리원, 이목리 한 부락이 되어가지고 서는 부장이 나와가지고서는 이제 이 부락일을 보고 척산, 노리 가지고 한 부락이 되어서 보고 이러다가, 아 그게 일정 때 대동아 전쟁나기 그 무렵은 아주 통합이 됐어. 노리가 그 네 부락이 그래 가지고선 부장이 하나 나가지고서는 네 개 부락을 총지휘하고 그랬지. 근데 이제 노리는 왜 노리라 했냐면 거기 이 갈 노(蘆)자 갈대가 많아. 제일 누가 정착을 빨리 했냐면 서씨네. 저 지금 차씨네가 그 다음, 이 씨네가 정착을 했어. 제일 최초에 이제 서씨네가 하고. 그래 이제 도리원은 왜 도리원이라 했냐하면 복상나무 꽃이 피서. 거기 이제 양지천이거든. 그래서 도리원이라고 이름을 짓고 부락이름을. 또 이목리는 왜 이목리라 했냐면은 배꽃 이(梨)자 배나무꽃이 이젠 봄이면 하얗게 피고, 예전인 제 개척 시에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 말이야. 부락이름을 척산은 왜 척산이라고 짓냐 하면 이 척산 쪽 올라가면 왼쪽으로 올라가면 판봉이라는 데가 있어. 판봉이 왜 판봉이냐 하면은 여기는 지금 이렇게 된다면 여기는 양짓마을이고, 온천장 너메 양지마을이고, 요건 중간마을은 큰 솔대가 있으니 큰 솔대가 있어. 거기를 중간마을이라고 해서. 판봉은 이제 이 지금 온천장인가 이쪽으로 너메로서 여관이 하나 있지. 개바닥에 여관 뒤로 올라가면 외판봉 있는 게 자 척(尺)같애. 그래서 거 자 척자 같다 그래 가지고서 그 자 척자를 써서 척산이라 한다. 지명을 그렇게 짓고 쪽 내려와요<sup>162)</sup>

노학동 ‘학(鶴)’에 대한 전설은 척산 목우재와 달마봉 사이에 있는 과명당(破明堂)터의 유래에 근거한다. 예전에 어떤 사람이 명당자리를 몰래 봤더니 그곳에서 세 마리의 학이 나왔는데 한 마리는 양양으로 다른 한 마리는 보광사 쪽으로 그리고 다른 한 마리가 이 마을에 날아와 앉았다고도 전한다. 이처럼 도리원 지역은 속초에서 유일하게 소야천 강변을 끼고 넓은 농토를 확보한 평야지대로 물레방앗간과 초가집이 아름답게 펼쳐진 농촌 마을이었으므로 농악발생의 자연적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학사평과 관련된 과명당 전설은 다음과 같

162) 장정룡 조사:김종태(남.83) 속초시 교동, 1999.11.25

다.

옛날 이곳 노학동에는 다음과 같이 전설이 내려오고 있어요. 이곳에 이씨 성을 가진 대가가 살고 있었는데 이 이씨 집안에는 대대로 과거에 장원급제하여 높은 벼슬을 한 사람도 많고 학문의 경지에 오른 대 학자도 많이 난 명문대가입니다. 그렇게 명성과 학문을 날리던 그 이씨 집안은 어느 때 부터인지 점점 가문이 기울기 시작하여 과거에 급제하는 일도 거의 없고 대학자도 나타나지 않고 가문의 명예를 오히려 떨어뜨리는 불순한 일도 가끔 발생하곤 하였다고 해요. 이렇게 되자 이씨 가문의 어른들이 모여서 대가의 여러 문제점을 검토하고 의논하기에 이르렀는데 그 당시만 하여도 풍수지리설을 매우 신봉하던 터이라 지관을 모셔다가 선조의 묘소를 돌아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묘소 앞 편에 산사태로 산이 많이 유실되어 나간 곳을 알게 되었어요. 그 지관은 유실된 그 곳을 유심히 이리저리 살펴보기 시작하고 그는 무릎을 탁 치면서 ‘바로 이곳 이구나’하고 생각했어요.

이 유실된 이 자리가 설악산 중에서 최고의 명당터일 줄이야. 그리하여 그 지관은 그 같이 갔던 이씨 문중의 어른들에게 여기가 설악산 최고의 명당인데 이렇게 유실되었으니 이씨 집안의 운이 소멸될 수밖에 없다고 일러 주었다고 해요. 그러자 그 중 한사람이 “그럼, 지관 어른, 이렇게 명당이 유실된 파명당이 되어 우리 가문이 쇠하게 되었는데 뭐 좀 좋은 방도가 없겠습니까?” 그러자 그 중 또 한 사람이 “지관 어른, 속는 셈치고 그 방법을 일러주면 우리들이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겠으니 그 방도를 일러주시지요?”

그 지관은 이렇게 하는 방법을 일러 줄 터이니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없으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옛날에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다시 명당을 복원하여 후손이 흥하고 보금받은 일이 가끔 있기는 하였는데 하여튼 이 파명당을 다시 복원하여 보시지요.” 그래서 그들은 일꾼을 얻어서 파명당 자리를 다시 흙으로 메우고 다지고 하여 한창 공사를 진행할 즈음에 이 이씨 문중에 가장 나이든 어른이 돌아가셨어요. 문중에서는 이 어른을 모셔야 될 산소자리에 관하여 의논을 하기 시작했어요. 한편에서는 “지금 복원하

고 있는 과명당 자리에 모셔야 우리 후손이 복을 받고 길할 수 있다”는 의견과 “아직 다 복원도 안 되고 또한 설령 되었다 하더라도 그곳이 명당의 기운을 받냐”는 신중론이 대립하게 되었어요. 그들은 갑론을박하여 몇 차례 다시 만나 숙의를 하기 시작했네요.

그도 그럴 것이 이 가문의 흥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아주 예민한 문제인지라 결론이 나기가 쉽지 않은 일이지요. 그러나 가문의 제일 연로하신 어른이 돌아가셨으니 복원하는 과명당 자리에 모시기로 의논을 모았어요. 이 사실을 지관과 의논하였더니 그 지관은 한참 생각하다가 “그러면 묘자리를 너무 깊게 파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단단히 일러 주었어요. 인부들을 시켜서 묘자리를 만들기 시작하여 정해진 깊이만큼 파내려 갔는데 한 인부가 잘못하여 그 깊이 이하로 삽질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갑자기 땅이 움직이더니 하얀 학 두 마리가 광채를 발하며 하늘로 솟아오르는 것이 아닌가!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놀라고 황홀하여 한참 동안 정신을 잃고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대요. 학 두 마리는 하늘을 몇 번 선회하다가 한 마리는 지금의 학사평 쪽으로, 또 한 마리는 양양 쪽으로 날아갔다고 해요.

원래 학사평은 옛날에 시인 묵객들이 많이 드나드는 정자가 하나 있었는데 많은 선비들이 이곳을 출입하여 왔다고 하여 학사평을 배울 학(學), 선비 사(士), 평야 평(坪)하여 학사평(學士坪)이라고 불렀다고 해요. 그런데 이 학이 내려앉고부터는 또한 모래도 많고 하여 학 학(鶴), 모래 사(沙), 들 평(坪)하여 학사평(鶴沙坪)이라 하였어요. 이 학은 여기 학사평에 잠깐 내려앉았다가 지금의 노학동으로 날아 가버렸어요. 노학동은 원래 노동 즉 갈대가 많은 고을이라 하여 갈 노(蘆), 고을 동(洞)하여 노동이었는데 학이 왔다하여 노학동으로 불리게 되었고, 한편 양양 쪽으로 날아간 학은 양양에 학포리(鶴浦里)란 지명을 얻게 하였다고 합니다.<sup>163)</sup>

노학동에 편입된 학사평은 예로부터 배우는 학자가 많아서 학사평(學士坪)이라 했는데 그것을 예언이라도 했듯이 이곳에는 대학이 들어서

163) 장정룡 외, 《속초지역 구전설화집》 속초문화원, 1999, 35~37쪽

인재를 양성하고 있으며, 목우재 과명당의 학이 날아간 양양지역에는 학이 내려와 앉듯이 국제공항이 생겨 비행기가 오르내리고 있다. 학사평은 일설로 흑사평(黑沙坪)이라 하여 소야천 주변에 형성된 늪지의 검은 빨로 형성되었다는 견해도 있으며 도리원 지역은 과수원이 많아서 유래한 것으로 전한다.



도리원은 복숭아나무라든가 배나무골 이목리 같은 경우 옛날 배나무골이라고 해서 마을명명이 그렇게 명명이 돼서 이목리, 도리원리 그런 식으로 부르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저쪽에 신흥촌이라든가 자활촌같은 경우 아주 최근에 60년대 어떤 게 있었냐 하면은 박정희 정권 때 정화차원에서 그 재건활동 같은 게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말하자면 그 자활촌 같은 경우는 60년대 집단이주 정책이 이루어졌어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쪽에는 허허벌판였거든요. 황무진데 주로 충남 쪽의 논산사람들이나 연산사람 등 그 사람들이 이제 강제 이주가 됐어요. 지금은 자활촌과 신흥리 마을쪽에 그 사

람들을 이주시켜가지고 재건촌을 형성하게 됐어요. 재건촌 그게 이제 의미가 승계되면서 자활촌이라고 명명이 되면서 60년대 이후 향촌이 생겨진 그 경우라서 역사성은 크게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신흥리 마을이라든가 자활촌마을이고 흑사평은 펄(뽕)판이예요. 원래 이름이 흑사평이예요. 척산마을은 그렇게 설명이 되고 노리마을은 역사성을 갖고 그 다음에 도리원리와 이목리 같은 겨우 배나무골이라든가 복숭아 주로 과수원이 많이 형성되었던 지역이예요. 지금도 가보게 되면 도리원이라든가 이목리쪽은 좀 덜한데 응곡쪽에는 과수원이 많아요. 그쪽에 과수원마을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전반적인 노학동의 명칭에 대한 연혁은 그렇게 되요.<sup>164)</sup>

도리원마을이 형성된 시기는 지금부터 500년 전쯤으로 추정되는데, 농촌의 농악이 발전되기 시작한 것은 지금부터 백 년 전인 1900년대 초로 추정된다.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농악놀이가 전승되었는데 1910년 경 경기도 출신으로 웃다리 농악대원이었던 이설기 씨가 강릉에 살다가 이곳에 이주 정착하면서 농악발전의 새 전기가 마련되었다고 한다. 당시 이 마을에는 김경대, 최경수 씨 등이 자체적으로 소규모의 농악대를 이끌고 있었으나 이설기 씨가 가세하면서 도리원농악이 크게 발전하였다.

경기도와 강릉에서 활동하면서 농악놀이에 재능을 가졌던 이설기 씨에게 쇠를 배운 엄상원 씨(남. 89)가 20세부터 현재까지 도리원농악 상쇠를 맡고 있다. 본래 도리원 출신인 엄상원 씨는 상벽구를 맡았던 부친을 따라 무동으로 처음 농악을 시작했으며 당시 상쇠였던 이설기 씨에게 체계적인 농악을 배우고 상쇠를 맡았다고 한다.

우리 아버지도 농악대에서 상벽구를 했거든. 아버지가 하두 따라 오라구 해서 따라 나갔는데 무동을 하라는 거야. 그때부터 무동을 했지. 그때 농악은 영동농악두 쪼금, 저기 농악도 쪼금해서 농악대를 꾸려 가지구 설라무네 그걸 농악대라고 해서 다녔지. 그래도 가

164) 장정룡 조사:김철환(남.37), 속초시 노학동, 1999.11.20

락은 빨라가지구 경중경중 뛰어다녀서 힘들어서 숨이 목까지 달렸어. 1910년에 그때 경기도에 이설기란 양반이 도리원에 살라구 왔는데 쇠를 잘 쳤지. 그 양반이 경기농악을 가르쳤다고 하더라. 그래가지구 마을농악대가 그 양반한테 도리원농악을 맡겨 가지구 다른 도리원농악이 맹글어 지게 된 거지. 그렇게 되니까 사방에서 와서 놀아 달라구 하는거야. 그때 생각하든 지금도 어깨가 들썩이지. 놀이두 많이 해가지구 오든 돈두 벌구 쌀두 많이 벌구했거든. 그래가지구 동네 앞 콘크리트 다리를 맨들었던거지. 나두 상무동을 하다가 품새가 났거든. 그래서 이설기 양반이 “쇠를 해보지 않겠냐”구 해서 “배우구 싶다”구 했더니 갈켜주더라구. 그러다가 도리원 상쇠가 된거 아니우.<sup>165)</sup>

한편으로 도리원농악대의 잡색인 ‘화쟁이’로서 양반역을 맡고 있는 김동섭 씨(당시 남.76) 집안도 도리원농악의 전승에 큰 기여를 했다. 김동섭 씨 부친인 김경대 씨는 농악대에서 부쇠를 쳤고, 동생 김동수 씨는 벽구놀이를 잘했다고 한다.

우리 조상이 전부 농악을 했어. 할아버지두 아버지(고 김경대, 부쇠), 작은 아버지(벽구), 동생(김동수, 벽구)다했는데 나는 따라만 다녔지. 그래서 도리원농악을 다 알지. 어릴 적에 어머니 등에 업혀 갔구 따라 댕겼는데 그 때는 마을회관 앞에서 매일 하다시피 했어. 그때 상쇠에 이설기, 부쇠에 우리 아버지, 부쇠에 이호영, 새납에 최종수, 무동 엄상원, 벽구에 양춘석, 김동수 등 등 수도 없었는데 가락이 빨라 가지구 보면 전부 숨이 목까지 찾는데도 엄청 놀았지. 무척 보기 좋았어. 설날하구 대보름에는 크게 놀았구 이리저리 댕기는데 아녀자들이 바깥을 못 나가자누. 그래서 무동을 15세되는 애들루 여자루 맹글어(만들어)가지구 놀아주러 갔다오든 돈두 벌구 많이 벌구 올꺼 아니우. 그래서 다리두 났지. 6.25가 나서 잠깐 중단됐는데 그 후에 다시 농악대를 맹글어서 다니는데 아래와 저 경기도두 다니구 그랬어. 농악이 이설기가 경기에서 선생을 했다고

165) 제22회 강원도민속예술축제 속초시출연, 《속초도리원농악》해설집, 속초시, 속초문화원, 2007. 6.1



그래. 도리원에 와서 갈켜(가르쳐)가지구 양양이나 그 아래 지역에서 배우러 오구 그랬었지.<sup>166)</sup>

이상의 고증에 따라 도리원농악 초창기 1기의 구성원을 정리하면 김경대(쇠), 이설기(쇠), 이호영(부쇠), 오창근(새납) 김주섭(북), 최경수(새납, 고사반), 김동수(벽구), 양홍석(벽구), 김종대(벽구), 이호춘(벽구), 이세열(벽구), 김세열(북), 장기순(무동), 윤기준(무동), 최식중(무동), 이계춘(무동), 양춘석(무동) 씨가 1세대로 활약하였다.

일제강점기가 끝난 1945년 8월 15일 속초에서는 광복절 기념 농악대회가 열렸다. 당시 강릉, 양양 등지의 농악대도 참가하였는데 이 대회에서 도리원농악대가 우승을 하였다. 당시에 무동으로 참가했던 최식중(남.71) 씨의 고증은 다음과 같다.

최:오래 되었지요. 연도수가 오래되었어요. 강릉 저 주문진 사임당 거기 갔다오고. 팔일오 경축할 때 양양이고 거기에 갔고. 그전에는 속초에 팔일오 해방경축으로 여기서 시합을 하면 강릉에서 오고 고성에서 오고 양양에서 오는데 일구 거기서 했는데 농악시합을 했어요. 거기서 도리원이 최고 일등을 했어요. 팔일오 해방 때, 해방 기념으로 인공 때부터 했어요. 축구경기, 운동회예요. 거기에서 농악경연을 했어요. 그전에 일구시장이거든. 도립병원 있던 자리 그 앞에 바닷가에. 영랑동이 거기가 중심이에요. 고 밑에 시장이거든. 바닷가 거기, 부둣가 거기에서 했어요. 팔일오 해방을 경축하는 뜻에서 농악도 하고, 씨름도 하고, 축구도 하고, 운동회를 했어요.

조:거기서 농악대회를 했다는 말이지요? 어디서 왔나요?

최:강릉도 오구, 북평도 오구, 양양도 오구, 주문진에서 오구.

166) 제22회 강원도민속예술축제 속초시출연, 《속초도리원농악》해설집, 속초시, 속초문화원, 2007. 6.1

조:누가 심사를 했나요?

최:그전에 여기가 면사무소잖아. 면사무소에서 나와서 심사를 했지.

조:그러면 상장도 받으셨겠네요?

최:그럼, 그게 불타가지고 다 없어졌지요. 일등을 했어요. 상타가지고 그날 밤새 놀았어요.

이와 같이 전성기를 누렸던 도리원농악은 1950년 6.25 전쟁으로 잠시 중단되었다가 후반기에 다시 활발한 활동을 펼쳤는데 거진, 삼척, 경기 수원 등지에도 초청을 받아 공연하였으며, 무동은 15세 전후의 남자아이들이 맡아서 했다.

최:제일 우두머리 오야지가 이설기, 두 번째가 최경수 이 양반들은 한꺼번에 같이 헨 거요. 거기 제일 주모자가 최경수지. 고사고 뭐고 돈벌이는 그 양반이 다 벌은 거나 한가지지. 그 다음에는 북치고 장구 이런 거 만드는 데는 이(김)세열, 그 양반이 벽구잡이거든, 벽구잡이 오야지, 병거지 돌리는 거. 고담에 저 아래 대영이 아버지라고, 그 양반 이름도 까져먹었네. 거기에 제일 어린 것이 벽구잡이 양춘석이. 벽구가 팔벽구니까 제일 귀여움 받았어요. 병거지도 잘 돌리고, 저 거진 가서 제일 대우 잘 받았지. 거진 어판장 부듯가 살풀이할 때 어판장 지을 때 대우 잘 받았어요. 거기서 봉포 다니며 일주일씩 있었어요. 배타는 사람들 집은 거진 다 갔어요. 배타는 사람들이 “우리 집으로 가자”고 끌고 이렇게 선착순으로 부락책임자가 따라 다녀요.<sup>167)</sup>

167) 장정룡 조사:최식중(남.71) 속초시 노학동 도리원마을, 2008.1.31



속초 유일의 농악대로 활약을 거듭하였으나 1970년대 농촌의 고령화와 이동 현상 등 인구의 축소로 전승이 어려워져서 겨우 명맥만 유지했다. 이런 가운데 설악문화제를 기해서 전통문화를 계승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진행되었는데 1986년 설악제 당시 도리원풍년마당놀이를 재현하면서 과거의 농악대가 행했던 농사풀이를 살리고, 1990년대 들어와 본격적으로 도리원농악대를 개편하였다.

이 과정에서 속초문화원이 중심이 되어 도리원농악대를 재건하여 1992년 설악문화제에는 동대항 농악경연을 개최하고 1995년 12월 29일 도리원농악대 옛 구성원이었던 엄상원, 양춘석, 최철수 씨를 중심으로 재창단하게 되었다. 이들이 도리원농악의 2세대라고 할 수 있다.

당시 대원은 28명으로 갯마당풍물단 5명과 도리원농악대 상쇠 엄상원 씨가 다시 팽과리를 잡고 정훈, 장기순, 이호성 씨가 참여하고, 장구는 김종인, 정한섭 씨 징은 이주복, 최식윤, 김기영, 북은 양춘석 기타 13명으로 구성되었다.

도리원농악의 3세대는 속초풍물단원인 갯마당이 합세하면서 새롭게 전승의 기틀을 마련하였는데 1996년 제77회 전국체전 시연, 설악문화제 공연, 제15회와 19회 강원민속예술축제에 속초시 대표로 참가하여



공로상 등을 수상하였다.

제21회 강원민속예술축제에서는 작품성을 인정받아 ‘도리원농악’ 출연단의 상쇠 엄상원 씨가 연기상을 수상하는 큰 영광을 차지하였다.<sup>168)</sup> 도리원농악은 고령이지만 1세대 초창기 대원인 엄상원, 김동섭, 양춘석 씨가 중심이 되어 잊혀졌던 판굿과 가락을 되살리고 젊은 대원들이 합세하여 속초농악의 전통을 계승하였다.

이 마을태생으로 어려서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농악대 무동을 했던 양춘석(남.64)씨는 당시에 어른들이 “농악을 하라고 하면 안할 수가 없었다”고 구술한다. 이와 같이 도리원농악대의 전통은 대를 이어 자연적

168) 강원일보, 2004년 9월 20일 “강원민속예술축제 연기상 엄상원 씨, 연기상을 수상한 속초시 도리원 농악 상쇠 엄상원(84) 씨는 15세부터 악기를 다뤄온 놀이꾼. 60년간 상쇠를 맡아왔다. 연로해 등이 굽었지만 팽과리를 손에 든 모습이 잘 어울린 엄씨는 ‘큰 상을 받아 기쁘지요’라고 수상소감을 함축했다. 자신의 할아버지 때부터 살아온 속초에서 태어나 줄곧 살아왔다고 소개한 엄씨는 15세대 어른들의 손에 이끌려 팽과리를 치는 요령을 배웠으며 20세 때부터 당시 70세를 넘긴 마을 어른에게 연주시범을 거쳐 상쇠역할을 넘겨받았다고 밝혔다. 당시에는 마을사람이면 당연히 농악놀이 단원이 되는 시절이었고, 자신도 부친과 함께 민속놀이 단원으로 활동했다고 말했다. 엄씨가 이끌고 있는 도리원농악은 18일 오전 비가 내려 질척한 공연장에도 불구하고 익숙한 숨씨와 다져진 팀웍으로 공연을 펼쳐 심사위원을 비롯한 관계자들로부터 정통 농악의 진수를 보였다는 평을 받았다. 현재도 농사일을 하고 있는 엄씨는 ‘재미있고 흥에 겨워 농악놀이를 자주하게 된다’며 ‘명절 때와 농사일을 하는 틈틈이 마을 사람들과 함께 여가생활로 농악놀이를 하고 있다’고 민속단원들간에 호흡 잘맞는 비결을 소개했다”(용호선 기자)

으로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속초도리원농악의 시작은 현재의 시점에서 추정하여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1900년부터 1950년까지를 제1기라 할 수 있다. 6.25전쟁 등 혼란기를 지나 안정기에 들어서는 1960년대부터 새롭게 재창단되는 1990년대까지를 제2기라 할 수 있으며, 지역의 젊은이들이 참가하고 체계적인 지원과 전승이 확보되고 속초시에 시립풍물단과 도리원농악단이 창단된 현재까지를 도리원농악의 제3기로 나눌 수 있다.

도리원농악대의 놀이마당은 걸립굿, 서낭굿, 뱃고사굿, 농사풀이, 진놀이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들 농악대는 정초 대보름부터 영등신이 하늘로 올라가는 음력 2월 15일까지 약 한 달간 마을이나 외부의 걸립굿을 하기 전에 항상 마을서낭당에 가서 마을안녕과 풍년을 기원하였다. 농악대가 외부로 출타하거나 다리가 나올 경우 “다리다리 잘봤다 칠렁칠렁 건네서”라는 장단의 다리굿을 치고 통과한다. 동해안을 끼고 있는 속초지역 특성상 뱃고사에도 농악대가 참여했으며 농사풀이와 다양한 형태의 진놀이도 구성되었다.

도리원농악은 정월대보름을 기점으로 마을 서낭굿과 집돌이를 하고 이로부터 2월 15일 영등신이 하늘로 올라가는 날까지 걸립굿을 하였다. 일제강점기에도 마을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하여 걸립을 위한 전문 걸립패를 농악대 안내자격인 ‘질라래비’가 이끌며 인근의 여러 마을을 다녔다고 한다. 걸립농악패는 농악대원 가운데 고사를 잘 올리는 사람이 앞장을 서서 행하며 서낭걸립, 동사걸립, 다리걸립 등 마을기금을 모금하였다.



농악대의 걸립 시에는 끝무동이 징으로 쌀이나 돈을 받았다고 하며 걸립고사는 새납을 붙였던 최경수 씨가 주로 맡아서 했다고 한다. 그는 날라리도 잘 붙고 고사반도 대단히 잘 했다고 전한다. 걸립(乞粒)은 본래 절을 중건할 때 민가로 다니며 경문을 외거나 염불을 하여 시중받는 일로 걸궁이라 했는데, 후에는 놀이패가 가담하여 집집마다 다니며 고사를 해주고 돈과 쌀을 걷는 전문적인 걸립패가 나타나게 되었다. 이들의 농악을 걸립굿이라 하는데 순서는 지방에 따라 다르나 집돌이는 문굿·샘굿·마당굿·조왕굿·터주굿·장돛굿·성주고사·인사굿 등으로 되어 있다.<sup>169)</sup>

조: 그러면 농악대에 상쇠도 있지만 이런 것을 관리하고 적고, 쌀을 걷는 사람이 있나요? 대방, 영좌 이런 직함이 있나요?

김: 총무가 있지요. 해영이 아버지가 그걸 했잖아요. 맨 앞에서 가면서 마을 구장한테 가든지 동네 좌장한테 가서 “우리 도리원 농악대가 들어왔으니 잘 부탁한다”고 앞에 가서 말을 하는 사람을 가지고 ‘질라래비’라 그래요. “질(길)을 알으켜서 데리고

169) 《한국민속대사전》(1) 민족문화사, 1991, 85쪽

간다” 그런 뜻이에요.

조: 이런 말이 중요한데요. 일종의 총무지요?

김: 질을 가르켜서 데리고 간다는 뜻이지요. 지금 말하자면 안내자  
지요. 쌀이 얼마나 오고, 한갑수 그 양반 말대로 순수한 조선  
말이에요.

조: 농악대를 초청하잖아요. 그러면 가서 섭외를 하는데 그 역할  
하는 분을 ‘질라래비’라 했지요. 그것을 누가 잘 하셨어요?

김: 그 양반들이 다 돌아가셨어요. 해영이 아버지, 이계춘 씨가  
있었어요. 아는 사람이 많아야 해요.

조: 질라래비는 농악을 안하지요?

김: 그럼요. 어디로 간다고 안내하지요. 안면이 많은 분이 하지  
요.<sup>170)</sup>

조: 그러면 어디어디 가서 농악하셨어요?

장: 복골, 장재터, 이 시내를 다 했어요. 음력설 췌다 하면 정월달  
내로 돌아댱겨요. 척산 뭐 절로 다녀요. 청대리고 뭐고. 그때는  
뭐 차가 있나 밤중에 왔지, 걸어서 열두시 넘어서 들어오지요.

김: 집에 있어보면 저기서 농악 치면서 와요. 우하고 나가보면 대  
단하지요.

장: 그래서 쌀을 벌면 동네로 짊어지고 오는 사람이 따로 있지요.  
질꾼이 따로 있어요.

---

170) 장정룡 조사:김동섭(남.75) 속초시 노학동 도리원리, 2008.1.31

조: 그러면 한번 가면 쌀이 얼마나 걷히나요? 한 가마니씩 걷나요?

장: 아유, 한가마니가 뭐예요. 몇 가마니 씩이예요. 한 집에서 한 말씩 내놓으니까요. 그러면 집집마다 고사 드려 줘야 되요. 그러면 돈 내놓고 실 한 뭉텅이 내놓는 집도 있어요.

김: 자손들의 명이 길게 해달라고 실을 내놓아요. 쌀은 말에다 수북하게 내놓아요.

장: 한번 나가면 쌀 열댓 말씩 거둬가지고 와요. 집에 가면 부엌에 가서 신에게 쳐달라고 해서 치구 또 똥에 가서 치구, 마당에서 치구 그래요. 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조: 그때는 무동도 같이 따라 다니나요?

장: 그럼요. 같이 따라 다녀요. 쌀 받고, 돈 받고, 상에다 놓으면 받는 거는 무동이 받아요. 증(징)에다 받아요.

김: 제일 꼬마무동 끝무동이 재롱스러우니까 가서 징을 가지고 가면 쌀을 거기다 주지요.<sup>171)</sup>

조: 무동하시다가 벅구하셨나요?

최: 그렇지요. 귀염 받았지요. 대부분 팔무동 팔벅구 그래요. 소고도 있었어요. 여기는 장구잡이가 셋, 북이 둘이고, 그 담에 날라리, 팽과리가 서이고, 징이 하나, 벅구가 팔명, 무동 팔명 그렇지요. 그담에 앞에 주선자가 두 명, 안내자가 두 명이 질라잡이, 화뎡이가 한 명, 기수는 따로 있지요. 그 사람은 깃발만 들고 다녀요. 그 사람이 제일 힘들어요. 바람불면 깃발 들고

171) 장정룡 조사:장기순(남.62), 김동섭(남.75), 속초시 노학동 도리원리, 2008.1.31



다니면 애먹어요. 172)

농악대원들은 걸립을 통해서 공동의 마을숙원사업을 해결했는데 마을의 다리를 놓거나 동사를 짓는 등 기금을 만들기도 하였다. 또한 마을 자체적으로 도리원 동사 앞마당에서 어린이나 청장년들을 대상으로 활발한 전수활동과 농악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다음은 서낭굿이다. 도리원농악은 전통적 마을에서 행해지는 마을서낭굿농악의 흔적도 발견된다. 서낭제는 매년 3월과 9월 길일인 삼짓날과 중구절에 지내는데, 황소 한 마리를 잡아 생육으로 제물을 사용할 정도로 마을서낭제는 중요하고 성대했다. 이때는 쇠소리를 내지 않는다. 그러나 마을농악대가 외부로 공연차 출타할 경우 반드시 ‘질꾸내기’를 치면서 마을서낭당을 들렸고 돌아올 때도 무사히 귀가한 것을 고한다고 한다. 서낭당에서 입출입 고사를 올리며 치는 상쇠의 쇠소리 구음도 “서낭님 서낭님 동네밖에 서낭님”이다.

이처럼 도리원농악대에는 반드시 서낭대를 앞세우고 다녔다고 하는데 서낭대를 ‘신대’라고도 부르며 왕대나무에 삼베와 한지를 걸었다. 이른바 이동서낭신으로 마을 서낭신을 농악대의 신격으로 받들었음을 알 수 있다. 도리원서낭신에게 바치는 제물은 반드시 황소 생육을 썼는데 소의 껍질을 말려 농악대원들이 손수 북이나 장구를 만들었다고 한다.

조: 서낭대도 있지요?

최: 서낭대는 왕대로 만들어요. 깃발 들고, 한 사람은 서낭대 들어요. 그러니 두 사람이 들지요.

조: 한 사람이 든 것은 ‘농자천하지대본’이라고 쓴 것을 들지요?

최: 서낭대는 대나무에 깃발을 달지요. 삼베를 한 발 정도로 해서

172) 장정룡 조사:최식중(남.71) 속초시 노학동 도리원리, 2008.1.31



거기에 달지요. 그전에 그랬어요. 지금은 모르지만, 왕대에 이  
파리 땃개 달린 거에 삼베를 걸고, 한지도 달아요. 주렁주렁 달  
지요.<sup>173)</sup>

서낭대는 고성군 토성면 교암리 농악에서도 있었다. “10尺 정도의 대  
나무로 깃대를 만들고 生葉枝를 깃대 끝에 달고 그 밑에 白紙를 그물  
처럼 오려 만든 것을 길이 6尺 정도 되게 단다.”<sup>174)</sup>고 한 것으로 보면  
유사하다. 동해시 괴란농악은 고청제라하여 성황굿을 치는데 서낭목이  
등장한다.<sup>175)</sup> 이러한 서낭굿 농악대를 ‘굿중패’라고도 부르는데 당산  
제, 성황제, 부락제, 고사제와 같은 굿의식과 결합되어 있었다는 의미  
에서 ‘농악제’라고 불렀다. 그러므로 벽사진경의 굿의식과 결부된 농악  
을 ‘매구;’ ‘매굿’ ‘지신밟이’라고 하였으며 그것을 담당하는 농악대를  
‘굿중패’라 불렀다.<sup>176)</sup>

173) 장정룡 조사·최식중(남.71) 속초시 노학동 도리원리, 2008.1.31

174) 문화공보부·문화재관리국,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제8책, 강원도편, 1977, 535쪽

175) 장정룡, <동해시 괴란동 고청제농악 전승실태>《강원민속학》제21집, 2007, 589쪽

노학동은 도리원, 이목리, 노리, 척산, 응골, 신흥1리, 신흥2리, 학사평, 자활촌 등 전체 9개 통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4개 마을에 서낭당이 있었다. 1997년 조사당시 도리원리, 이목리, 노리, 척산리에서 서낭제가 유지되고 있었는데, 춘추로 음력 3월 3일과 9월 9일 두 차례 제를 지내고 있었다.

척산리의 경우 성황지신, 여역지신 이외에 전조지신(田租之神)을 모신 점이 특징이었으며 학사평은 남서낭신이고 척산은 여서낭신이라 하였다.<sup>177)</sup> 이들 가운데 오랜 전통을 지닌 도리원마을은 과거에 제답(祭畓)이 있어 이곳에서 나오는 소출로 춘추로 동제를 지냈다. 또한 이 마을 농악대가 외부로 나갈 때는 반드시 서낭당에 들러 고하고 나갔으며 서낭대를 모시고 다녔다.

이 마을의 동제는 봄과 가을에 택일하여 지내는데 음력 3월 3일과 음력 9월 9일에 지낸다. 제당 인근에 살고 있으며 고추농사를 하는 변경용(남.64) 제보자에 의하면 100여 호 세대에서 제사에 참가하며 제관은 10여명 내외라고 한다.

176) 《조선민속사전》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4, 53쪽

177) 장정룡, <속초의 민속문화> 《속초시의 역사와 문화유적》강릉대박물관, 1997, 249쪽



제물은 메 한 그릇, 해물, 떡 등을 정성껏 장만하며 축문을 읽고 각자 소지를 올린다. 당집은 없으나 마을 입구 둔덕 길 옆 솔숲에 제단을 만들어 놓았으며 주변에는 1m 정도로 입구만 내놓고 둥글게 돌담을 굵은 돌로 올려 쌓았다. 수령이 200년 정도 된 소나무를 신목으로 삼고 있으며 금줄을 원새끼 줄로 소나무 하단에 여러 번 빙빙 감고 한지를 함께 매달아 놓았다. 매년 감아 놓은 금줄과 한지를 떼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 이 마을의 성황제단은 산간마을에서 볼 수 있는 신목과 제단으로 구성되어 있다.<sup>178)</sup>

김: 그러니까 어디루 나갈 때는 여기 서낭당에 가서 서낭굿을 치고 나가구, 또 다리를 새로 났거나 다리를 갈 때는 다리굿을 치고, 가다가 우물이 나오면 우물굿을 치구, 이제 농악이 돈 벌러 나갈 때는. 서낭님한테 가서는 “서낭님 서낭님 동네밖에서 낭님” 이제 그 양반 최경수 씨가 이제 팽과리를 치는데 꼭 사람 말하는 것처럼 하지요. 팽과리 소리가 꼭 그렇게 들려요.

178) 장정룡, <속초시의 민속문화> 《속초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강릉대박물관, 1997, 247쪽

그리구 인제 우물궂을 칠 때는 따로 치고, 다리궂을 칠 때는 “다리다리 잘났다 다리다리 잘났다 칠렁칠렁 건너라 칠렁칠렁 건너라” 그 아주 사연이 많더군요. 출렁출렁이 아니고 칠렁칠렁하더군요.

조: 서낭당 제사를 언제 지내시나요?

김: 3월달 9월달, 3월 3일하고 9월 9일 지내요. 네 시나 다섯 시쯤 지내요. 저녁에. 초헌관은 부락 통장이고, 우리들은 제관이 지요. 도가는 통장이 생기를 봐서, 두 부부가 생기가 맞으면 그 집이 도가를 하지요.

조: 그러면 유건을 쓰거나 도포나 두루마기를 입나요?

김: 그전에는 다 했어요. 도포같은 것은 입는 사람도 있어요. 옛날 어른들이 쓰신 축문도 있었어요.

조: 그러면 그 서낭당 소나무 아래 제물을 차려놓고 초헌, 아헌, 종헌하고 축문 읽고 홀기외우고 그러셨겠네요? 거기서도 농악을 하셨나요?

김: 아니요. 그때는 농악을 안했어요. 축문을 읽고 집집마다의 소지를 올려주고요.

조: 그러면 제물이나 그런 것들이 다른 서낭당제사와 다른 점이 있었나요? 특별히 어물이라든지. 소를 말이라고 하지요?

김: 옛날에는 소를 한 마리를 사지요. 도살장이 대포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통 마리를 다 갖다놓고 제를 지내지요. 화소로만 쓰지요.

조: 그러면 황소만 쓰네요. 머리하고 다 사족을 쓰겠네요.

김: 그걸 갖다가 네발때기로 똑 갈라서 머리하고 다 갖다 놓고 제사를 지내고 이제 다 타살을 해가지고 동네가 이제 팔십 집이면 팔십 몫을 저울로 달아서 생 곶로 나누지요. 생고기를 놓고 제사를 지내니까요. 그걸 집에 가지고 가서 삶아먹지요.

조: 제관들은 제사가 끝나면 고대로 나누어서 음복하고 집집마다 제물을 봉하지요. 시루떡도 나누고 생고기도 나누어주고요.

김: 그래, 대포로 별신맞이하러 가는 날에는 서낭당에서 먼저 가서 하는데, 마을에서 제사지낼 때는 먼저 서낭당에 가마를 걸구 그걸 삶아 가지구 제사지내고 나서 안주 줌하고 국물도 골고루 나누어줘요. 우선 우리가 음복하고 안주하기 위해서 삶는 거구요. 나누어주는 것은 화소를 생고기로 나누어요.

조: 마을에서 농악대원이 외부로 나갈 때 서낭님을 모시는데 갔다 와서도 지냅니까?

김: 올 적에 들려서 오지요. “서낭님 다녀왔습니다”하고 인사를 드리지요.

조: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은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김: 뭐, 이제 신세대들은 안하지요. 농악대가 없어지면서 안하고, 마을제사는 지내요.

조: 제사를 지내려면 비용은 걸림을 하시나요?

김: 그러니까 유교식으로 하는데 호구당 얼마씩 걷지요. 그 전에 옛날에는 제전이 있었는데 그걸 팔아가지고서는 회관도 짓고

했어요. 우리 공동논에서 나오는 수확으로 통장 수고비도 주고 제사도 지냈는데 팔아서 회관을 지었어요. 동네논이 천사백 평이 있었어요. 삼환아파트 있는 거기에요.<sup>179)</sup>

다음은 뱃고사굿이다. 도리원농악은 대표적 특징 가운데 하나가 뱃고사굿이다. 청호동과 동명동, 영랑동 등 바다를 끼고 생업을 유지한 어촌이 가까운 지리적 특성상 농촌농악이지만 뱃고사굿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점이 다른 영동지역농악과 차이점이며 이것이 도리원농악의 특징이다.

농악에서 ‘굿’을 사용하는 것은 무속적 용어와 동일하나 그 의미는 ‘의식이 행해지는 농악’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뱃고사굿은 ‘뱃고사 의식을 치르는 농악’이라고 하겠다. 이것은 이른바 농악 분류에서 ‘어업굿’에 속한다. 농악대가 행하는 어업굿은 선창굿, 배따라기, 배굿, 띠뱃굿, 풍어제, 슬비굿 등이 있다.<sup>180)</sup>



179) 장정룡 조사:김동섭(남.75) 속초시 노학동 도리원리, 2008.1.31

180) 류무열, 《한국의 농악》 강원일보사, 1983, 15쪽에는 축제굿, 어업굿, 연극굿, 음악굿, 가정굿, 모금굿, 액막이굿, 놀이굿 등 8개로 나누었다.

속초에서는 정초 무렵 뱃고사를 정례적으로 지낼 경우 외에도 새롭게 배를 만들면 속초나 고성지역의 선주들이 배를 만들어 바다에 띄우는 ‘설망’때 든대질을 하면서 뱃고사를 하였으며, 정초에 풍어와 안녕을 기원하는 뱃고사를 지낼 때도 도리원농악을 초청하면 나가서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강릉농악에 두레농악의 하나로서 여름농사가 마무리된 후 7월 이후에 배 위에서 농악을 잡히고 노는 뱃놀이가 있으나<sup>181)</sup> 도리원농악대와 같은 방식의 뱃고사는 아니다. 이를 ‘배굿’ 또는 풍어제와 관계되는 ‘진대백이굿’이라고도 하는데 과거에는 배에도 징과 쟁과 리 같은 악기를 싣고 다녔다고 한다. 정월에는 배에 고사를 지내고 무당과 농악잡이가 합하여 풍어와 무사함을 축원 드리는데 이러한 곳은 바다에 접한 마을과 크고 작은 섬에서 하는 축원농악이라고 할 수 있다.<sup>182)</sup> 통영지방에서는 서낭기를 배 위에 장식하고 농악을 치면서 선주가 제사를 지내고 이어서 집돌이를 하고 있으며, 전북 부안과 강릉 지방에는 농악대들이 배에 재수 있기를 기원하는 뜻으로 배성주신을 달래고 대접하며 잡귀를 물리는 곳을 한다.

든대질은 육지에서 만든 배를 바다로 내리는 일이다. 든대는 일종의 지렛대와 같은 나무로서 ‘드는 대’라는 뜻으로 생각된다. ‘질’이란 행위의 뜻을 가진 ‘짓’과 같은 말이다. 든대질놀이는 노동요가 곁들여진 것으로 새로 배를 만들었을 때 항구가 없는 날바리 모래사장에서 주로 행했던 재래식 배이동 방식이다. 뱃고사를 이해하기 위해서 지난 1987년 제5회 강원도민속예술경연대회에 속초시 대표로 출연했던 당시의 내용을 다시 언급하면<sup>183)</sup> “배를 만들면 선주는 제물을 준비하여 도사공과 허리도리(선소리꾼)을 불러 고사를 지낸 후 든대질을 하여 배를 처음 물에 내리는 ‘설망’을 하게 된다. 든대질은 기원과 액막이가 끝나면 허리도리는 젊은이들과 괴꾼, 든대꾼이 선소리와 뒷소리를 부르며 배를 내린다. 저- 자- 자- 자- 이럴적에 기운을내고 이럴적에 용기를써라. 자지향이 황금출이요 개문향이 만복래라. 우리배를 내려다보니 모진강풍이 불어온다. 이리저리 하다보니 이내손발이 다얼었구나. 사공님은 배를내려 정라진 앞바다에 당도되니 여보사공님 가까운 곳으로

181) 국립문화재연구소, 《강릉농악》, 1997, 115쪽

182) 정병호, 《농악》 열화당, 1986, 114쪽

183) 장정룡, 《속초의 민속》 속초문화원, 1987, 34~36쪽



어서빨리 들어갑시다. 그것이 좋은말이다 정라진 들어가니 막걸리장사가 지나치며 나를 보고 손을 치네. 손을 치는데는 밤에 나가구 동네술집은 낮에 나가자. 자- 자<sup>184)</sup> 설망은 배가 처음 물에 들어가면 성주기를 바닷물에 세 번 적신 후에 배에 달고 노를 저어 나가며 돛을 올려 바다를 한바퀴 돈다. 마을 사람들과 어부들은 선주가 장만한 음식을 들며 풍어와 무사고를 기원한다. 마지막 농악은 농촌과 달리 농악대는 따로 없으나 뱃걸림시에 무녀와 함께 풍악을 울리며 악대들이 배에 올라가 만선과 무사 조업을 빈다.”고 하였다.

속초도리원농악의 뱃고사굿 활동은 그동안 재현되지 않았다. 그러나 바닷가에서 행해진 설망이나 정초에 행하던 어촌의 뱃고사굿 활동이 속초농악의 특징을 규정하는 중요한 내용이므로 이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을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조: 마을에서 삼월 삼진과 구월 구일 제사 때에는 농악을 안치고 정초에서 대보름 사이에 걸림농악을 치시고, 다리 놓을 때는 다리굿을 치고, 그리고 배를 이제 내릴 때 가서 뱃고사를 지내지요. 그 뱃고사 놀 때는 어떻게 노시나요?

김: 농악 치고 그러는데 그거는 무동이 가서 춤을 추고 이러는 건 아니고, 무동은 없고, 악사들하고 앞에서 고사 올리는 양반하고, 배 앞에 제물을 차려놓지요. 거기서 고사를 지내고 한바탕 놀지요.

조: 놀 때는 배 위에 올라가지 않지요?

김: 발동선 큰 배는 그 위에 올라서 빙빙 돌아 댕기면서 농악 놀더라구요.<sup>185)</sup>

조: 농악대가 가서 뱃고사 지내는 것을 보셨어요?

184) 장정룡 조사:김형준(남.72) 속초시 청호동 4통1반, 1987.6.10

185) 장정룡 조사:김동섭(남.75) 속초시 노학동 도리원리, 2008.1.31

김: 배를 만들어서 띄우면 우리 도리원 농악이 나가서 치고. 거기 최경수 씨라고 그 사람이 고사도 아주 잘하고, 새납도 여기서는 최고라고 해요. 그 양반만큼 새납 잘 부는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없다고 해요. 저기 할머니가 있어요.

조: 할아버지 사진이 있으시지요? 농악하시던 모습이 있나요?

민병희(최경수 씨 부인): 안 찍어 두었어요. 주민등록증 사진만 있어요.

조: 최경수 씨가 농악대원으로 새납을 잘 불고 고사반도 잘하셨군요. 그러면 뱃고사에 도리원농악대가 갔을 때는 어떻게 하셨나요?

김: 이 배가 고기를 많이 잡으라고 했지요. 배선주가 청하지요. 속초항 전 어부들이 초청해서 시내 내려가 살다시피 했어요. 이 양반이 고사지내는 데는 천재래요.

조: 대개 보면 고사반을 할 때 팽과리를 치면서 하는데요, 고사지낼 때 어떻게 하셨나요?

김: 이제 그 양반이 팽과리를 치면서 “이 집 짓고 삼년 만에 아들을 나면 효자를 나고” 그러면서 했어요.

조: 오늘 도리원농악에 새로운 좋은 자료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농악이라면 보통 농촌에서만 하는 것으로 아는데 속초는 바다가 가까우니까 뱃고사 농악이 있다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김: 그 아주 뱃고사 드리러 많이 갔어요.

조: 그러면 배가 크던 작던 청하면 갑니까?

김: 가지요. 그전에 발동선이라고 하지요. 목선을 만들어서 사뭇

기를 잔뜩 키우고는 뺱과릴치고 나가다가는 전수 이렇게 물에 빠지기도 했어요. 나가다가 이 배가 어떻게 기울어져서 물에 모두 빠지고 그랬어요. 배에 타구서 나가요. 나가서 저기 섬 있는데 돌아서 와요.

조: 이제 만든 배를 든대질해서 날바리에서 바다에 진수를 하잖아요. 그럴 때 농악대가 배에 타서 뺱과리를 치면서 가서 그 배를 타고 한바퀴 돌아서 온다는 말이지요? 그럴 때 대개 만선기를 쫓던데요? 풍어를 기원하는 것이지요?

김덕수: 배에 준공식할 때, 고기를 많이 잡게 해달라고, 배를 바다에 띄울 때 거기에 타고서 짝 기를 달고서 농악대를 싣고서 바다를 돌아요. 한바퀴를 돌지요.<sup>186)</sup>

다음에 농사풀이를 보면 도리원농악은 역사는 농사와 관련된 것에서 시원을 찾을 수 있다. 노학동은 소야천인 청초천변 소야평의 넓은 평야지대를 형성하고 있는데 뒷버덩인 후평(後坪)과 앞버덩을 포함하여 학사평일대가 글자 그대로 논으로 이뤄진 소야(所野)평야다. 이곳은 속초지역 벼농사의 적지로서 한 해 농사와 관련된 도리원농악대의 농사풀이가 강원 영동농악의 전통과 함께 그 전승의 기틀을 형성해왔다. 도리원농악의 농사풀이에서는 김매 때 부르는 소리인 오독떼기나 미나리농요가 불렸고 타작가인 마댕이소리도 불렸음을 알 수 있다. 농사풀이는 ‘농사놀이’ 또는 ‘농식’(農式)이라고도 하는데 일종의 놀이굿농악에 속한다.

김: 그러니까 주로 농사과정을 하는 것이 재미있지. 우리가 또 알고, 하는 일이고 하니까 그런거 하면 아 그게 재미있다 하지요.

조: 김매는 과정에서는 김매는소리 같은 것도 하나요?

186) 장정룡 조사:김동섭(남.75) 속초시 노학동 도리원리, 2008.1.31

김: 근데 여기는 미나리 같은 거 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오독떼기나 미나리하는 사람이 우리 동네는 지금 드물어요. 그 양반들이 다 작고하셨어요. 운석이 할머니, 동훈이 할아버지가 좀 잘 했나요? 우리두 그걸 좀 따라하다가 못했어요.

조: 김멜 때 메나리나 오독떼기를 농사할 때 김매는 소리를 하잖아요. 그러니 농악할 때 농사놀이하면 소리를 하나요?

김: 소리하는 양반들이 있어서 그때는 했어요.

조: 놀이 중간에 소리가 들어가지요. 마당이소리도 하지요. “에헤 마당이야” 그러지요.

김: 그래 인제 농악이 놀다가 상쇠가 쇠꼭지를 바꿔주지요. 그러면 부쇠가 그걸 따라서 치지요. 쇠를 치며 노는 사람들이 삼채덩덕궁이 같은 거를 치면 신나게 마을사람들이 덤벼들어서 같이 놀지요.<sup>187)</sup>

강원도 농악은 전체적으로 빠른 동작과 가락을 이용하고 있는데 정병호 교수는 영동지역이 산악지대가 많기 때문에 지신밟기를 할 때 마을을 돌기 위해서는 산을 넘어야 할 경우가 많으므로 바쁘게 많이 걸어야 하는데서 나온 동작으로 추정하였다.<sup>188)</sup> 나아가 판굿진행에 있어서 제자리 춤없이 행진하는데, 정방형, 체조대형, 'ㄷ'자형, 명석말이, 오방진 등의 모습은 기마민족의 수렵모습, 농군이 전투에 임하는 모습, 손자 말이 논밭을 갈고 있는 것처럼 거칠고 전투적인 면으로 보기도 하였다.

그러나 영동지방 농악놀이의 춤, 걸음걸이, 동작, 가락 등이 전체적으

187) 장정룡 조사:김동섭(남.75) 속초시 노학동 도리원리, 2008.1.31

188) 정병호, 《한국의 민속춤》 1992, 238쪽



로 빠른 것은 고구려민족의 특성을 닮은 것으로 의심된다. 옛 강원지역이 북방 고구려의 영토에 속했던 만큼 고구려 사람들의 걸음걸이가 마치 달리는 것과 같다는 《삼국지》 위지동이전 기록이나 고구려 무용총 벽화, 안악 고분을 볼 때 발랄하고 직선적이고 동적을 춤을 춘 것으로 증명된다.

농사풀이는 강릉농악, 평창농악 등에서도 연행되는 모의농경(模擬農耕)으로 벽구놀이가 중심이다. 대부분 일년 농사짓는 모습의 형태로 이끌어가며 진행되는데 이 풀이를 지나치게 길게 함으로써 본연의 농악놀이인 황덕굿놀이나 서낭굿, 걸립굿 등이 축소되는 경향이 있다. 현재 강릉홍제농악은 15개 풀이로 가장 많으며,<sup>189)</sup> 평창둔전평농악은 7개 풀이,<sup>190)</sup> 고성 교동농악은 12개,<sup>191)</sup> 도리원농악은 8개 풀이를 하고

189) 국립문화재연구소, 《강릉농악》1997, 134~159쪽에는 농사풀이로 가래질, 논갈이, 못자리누르기, 법씨뿌리기, 모찌기, 모심기, 논매기, 호미씻기, 낫갈이, 벼베기, 벼광이기, 벼타작, 벼모으기, 벼방아찧기 등 15개가 소개되었다.

190) 장정룡, 〈평창농악의 전통과 계승〉《강원도민속연구》국학자료원, 2002, 521~522쪽 농사풀이는 논갈이, 모찌기, 모심기, 김매기, 벼베기, 탈곡마당, 벼가마나르기 등 7개 풀이가 있다.

191) 정병호, 《농악》열화당, 1986, 170쪽에는 농사풀이로 가래질, 논갈기, 못자리하기, 모찌기, 모심기, 논매기, 낫갈기, 벼베기, 벼광이기, 태치기, 벼모으기, 방아찧기 등 12가지를 언급하였다.

있다.

그러나 이러한 농사풀이는 원래 영동지역농악대에서 간단하게 행했던 농경모의 형태였다. 이것을 강릉농악 상쇠 박기하 씨가 이를 확대했다는 고증이 나왔다. “처음부터 스물네살 때부터 우리가 모여 가주고 상쇠가 뗏을 가지고 가르쳤느냐 이거야. 옛날에는 그냥 놓고 막 이리그덩. 그래서 내 그랬지, ‘이거 농악이 농악이니까 농사로 농식을 배워보자. 농식을 배우는데 어떻게 배우느냐’ 나도 연구를 해봤지만 이래봐도 안돼지 저래봐도 안돼지. 그래가주고 연구하던 중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 처음 이보형 선생하고 강릉에 오셔가지구 우리 첫 출연을 양조장 한 술밭인데 거기가 처음 시범을 보였어요.(박기하를 만나기전까지 강릉의 마을농악은)그냥 놀았지. 그냥 돌고 두들기고...”라고 언급하였다.<sup>192)</sup>

강원도 농악은 크게 영서지방농악과 영동지방농악으로 나누는데 영동지방은 속초, 고성, 강릉, 동해, 삼척 등 동해안 일대에서 성행하고 경북 동해안 일부 지역과 함경도 지역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강원영동농악의 특징으로 알려진 농사풀이는 1970년부터 전체적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진놀이는 ‘진풀이’라고도 하는데 판굿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초창기 도리원농악의 진놀이는 십자진, 골뱅이진, 도리원, 대한독립만세 등의 글자새기기 등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농악대가 초청받은 마을의 동이름을 새기면 걸립이 많이 나왔다고 한다. 1974년에 창단된 강원도 고성지방 교동농악의 경우 판굿으로 인사굿, 명석말이, 골뱅이진 등이 있었다고 한다.<sup>193)</sup>

특이한 점은 도리원농악대에 ‘화동’ ‘화맹이’라 부르는 잡색이 있었다고 전한다. 이것은 ‘화동(花童)’을 뜻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강릉농악에도 예전에는 있었다.<sup>194)</sup> 화동은 잡색과 다른 것으로 생각되는데 현재

192) 국립문화재연구소, 《강릉농악》1997, 183쪽

193) 정병호 앞의 책, 170쪽

194) 정병호 앞의 책 162쪽에는 1979년 강릉시 흥제농악을 조사한 자료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화동은 장삼에 가사를 걸치고 한삼 소매를 매고 고깔을 썼었으나 지금은 花童이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도리원농악의 화동과는 차이를 보인다. 김동섭 제보자가 말한 화동은 잡색의 일원인 ‘양반’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양반잡색이외에 화동이 따로 있었던 것은 아닌지 혹은 화동만 있었던 것이 아닌지 전승과정이 의심된다. 강릉농악의 경우 잡색은 없고 화동만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영동농악권에 속한

의 도리원농악에는 양반이 잡색으로 등장하고 있다.

농악대에 양반이 등장하는 것이 가면극의 원초적 형태라는 견해 뿐 아니라 잡색의 연극성이나 제의성은 여러 방향에서 논의된 바 있는데 도리원농악의 경우 사라진 ‘화동’의 재현이 중요하다. 현행의 양반잡색은 고증에 없는 것으로 농악대를 이끄는 ‘질라잡이’가 양반의 역할 가장(假裝)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도리원농악의 진놀이 판굿에 대한 고증은 다음과 같다.<sup>195)</sup>

김: 도리원 농악은 옛날 어른들이 농악하는 것을 그때만 해도 어렸을 때니까 봤지요. 그전에 우리가 6.25사변 나고 한 열 대 여섯 살 때 보았고, 사변 전 왜정말기에도 농악하는 거를 어렸을 때 구경했습니다. 이 동네가 농악을 오래했어요. 그래서 구경을 많이 했지요. 농악을 나 많은 이들이 하고, 젊은 사람들이 했구. 그리고 농악놀이하는 거는 무슨 놀이, 짐(김)매기, 타작하는 거, 그런 거 십자놀이 하고, 골뱅이식도 하고 여러 가지 하지요.<sup>196)</sup>

조: 농사놀이 말고도 진놀이가 있잖아요?

김: 십자가 그리는 거, 글 새기는 것도 하더라구요. 글은 대한독립 만세 이런 걸 그때 보니까 하더라구요. 근데 그게 사람이 일루 갔다 절루 갔다 볍아치니까 제자리를 못 찾아서 빙빙 돌아치구. 골뱅이하고 그랬어요.<sup>197)</sup>

속초도리원농악은 고성, 양양의 영북권 강릉, 평창, 삼척 등 영동권에 속한 강원농악이나 판제구성과 진행에 있어서 두드러진 차이를 보인다. 일반적으로 인사굿, 골뱅이틀기, 십자진, 황덕굿, 농사풀이로 판굿

도리원농악에서도 화동만 존재한 것으로 보인다.

195) 판굿은 놀이와 극으로 나누는데 놀이에는 열두발상모놀이, 무동타기, 농사풀이, 진풀이가 있으며, 극에는 잡색놀이, 판굿의 극놀이가 있다.

196) 장정룡 조사:김동섭(남.75) 속초시 노학동 도리원리, 2008.1.31

197) 장정룡 조사:김동섭(남.74) 속초시 노학동 도리원리, 2008.1.31

을 진행하지만 황덕굿을 할 때 ‘쇠꼭지’라는 개인놀음이 있어 한 명씩 재주를 보이는 독특한 구성이 있고, 십자진풀이는 전개방법과 진풀이가 독특하다. 주로 걸립굿 중심의 농악으로 발달되어 오랫동안 외부활동을 하였으므로 초창기 무동은 대부분 15~18세의 남자들로 구성하였고, 해방 뒤에는 신과극놀이 등이 첨가되어 잡색놀음도 연희되었다.

강원농악의 전승권역으로 불리는 지역은 북쪽의 고성에서부터 강릉, 평창을 비롯하여 남쪽의 삼척농악까지를 퍼져있는데 초창기 도리원농악의 편제는 팽과리 3, 날라리 1, 장구 3, 북 2, 징 1, 벽구 8, 무동 8, 질라잡이 2, 화랭이 1, 기수 1명 등 30여 명이었으며, 가락은 삼채덩덕궁이, 춤사위는 덩거리춤이 주로 쓰였다.

특히 도리원농악의 무동은 팔무동으로 이들이 추는 춤사위가 갖는 의미가 심오하다. 즉 손바닥을 펴서 안으로 감거나 뒤집고 펴는 것 등이 모두의 행복을 찾고 행복을 나누어준다는 뜻이라고 한다. 대부분의 무동은 고깔을 쓰고 쾌자를 입고 춤추는데 옛날의 도리원농악에서는 네 가지 색깔의 큰 종이꽃을 단 고깔에 삼색띠를 댄으며, 대부분 정초 무렵 걸립 때에는 날씨가 추운 관계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 도리원농악 무동춤사위는 깨끼춤, 좌우치기, 발림 등으로 파악되는데<sup>198)</sup> 이에 대한 고증은 다음과 같다.

조: 무동춤의 특징은 무엇이 있습니까?

최: 내가 볼적에는 무동춤이라는 거는 손바닥을 이렇게 하구 이렇게 하구 하는데, 이렇게 손바닥을 벌릴 때는 상대방의 행복을 찾고, 그 답에 이렇게 하는 거는 여기 들어온 행복을 여러 사람과 같이 누리자, 이렇게 안을 때는 여럿이 행복을 같이하자는 그런 뜻이라고 하더라구요. 그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그

198) 깨끼춤은 경기 평택과 이천 등지 농악에서 보이는데 1박에 양 손을 옆으로 흔들어 부드럽게 펴고, 2박에 오른손을 꺾어서 손바닥을 위로 보이게 흔들어 올리고, 3박에 오른손을 옆으로 부드럽게 흔들어 펴고, 4박에 왼손을 꺾어서 손바닥을 위로 보이게 흔들어 올린다. 좌우치기는 쾌자 앞자락을 양 손에 쥐고 좌우로 휘젓는 동작이며, 발림은 제자리에서 오른발을 앞으로 뒤로 밟는 동작을 반복하면서 왼손 오른손을 번갈아 부드럽게 앞으로 폈다 굽히고 춤추는데 대전 웃다리농악에서 하고 있는 동작이다. 최식중 무동이 언급한 것처럼 손바닥을 보이게 흔드는 동작, 그리고 ‘앞으로 잘랑잘랑’한다는 발동작을 통해서 경기웃다리 농악의 흔적을 유추할 수 있다.



렇게만 알았지요. 그래서 손을 뻗쳐 가지구 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요. 발은 앞으로 요렇게 요렇게 잘랑잘랑하지요.

조: 무동하시다가 벽구하셨나요?

최: 그렇지요. 귀염 받았지요. 대부분 팔무동 팔벽구 그래요. 여기는 장구잡이가 셋, 북이 둘이고, 그 담에 날라리, 팽과리가 서이고, 징이 하나, 벽구가 팔 명, 무동 팔 명 그렇지요. 그담에 앞에 주선자가 두 명, 안내자가 두 명이 질라잡이, 화뎡이가 한 명, 기수는 따로 있지요. 그 사람은 깃발만 들고 다녀요. 그 사람이 제일 힘들어요. 바람불면 깃발 들고 다니면 애먹어요.199)

조: 농악대 끝에 잡색이라고 탈 쓰고 나오는 인물이 있나요?

김: 그걸 ‘화동’이라 그래요. ‘화동’ 아주 웃기는 사람. 영감님처럼 하나요. 한 명 있어요. 수염만 쓰고 가면은 안 써요. 양반을 만들었는데 그걸 옛날에는 ‘화동이’ ‘화뎡이’라 그랬어요. 아주 사투리지요.200)

조: 그 담에 벽구라 그러나요? 벽구쟁이 그러나요?

김: 벽구쟁이 그래요. 상벽구, 벽구쟁이, 무동(무동) 그래요.

조: 무동을 무동, 속초사투리인데요. 제일 기억 남는 놀이가 뭐가

199) 장정룡 조사:최식중(남.71) 속초시 노학동 도리원리, 2008.1.31 이 분의 언급에 따르면 법고(벽구)와 소고의 존재가 혼동된다. 강릉농악의 경우 악기자체에서 소고와 법고가 분명하게 나뉘나 1977년 조사된 고성군 교암농악의 경우도 법구 8명, 무동 8명만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되어 있다. 따라서 도리원농악의 경우도 소고는 없고 벽구와 무동만 8명으로 구성되었을 가능성이 짙다. 후에 들어와 소고가 들어갔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대부분 도리원농악 고증자들이 소고에 대해서 구체적 언급하지 않고 있음에서도 확인되는데 벽구잡이 농사풀이가 특징이라고 말하고 있다.(필자주)

200) 정병호, 《농악》 열화당, 1986, 160쪽에는 “영동농악에서 특이한 것은 무동 이외의 雜色들이 없다는 것이며, 무동춤은 어른들의 配役으로 추어지나 삼층 높이의 무동타기는 대개 어린이가 담당하고 그 위에서 열두발 상모놀이를 하는 것이 특징이다”고 하였다. 이에 따르면 도리원농악에서 잡색인 ‘화동이’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으며, 도리원에서는 삼동고리 위에서 열두발상모를 돌리지 않고 개인놀이로 행했다.

있었나요?

김: 그러니까 주로 농사과정을 하는 것이 재미있지. 우리가 또 알고, 하는 일이고 하니까 그런거 하면 아 그게 재미있다 하지요.201)

제19회 강원도민속예술축제(화천:2001.9.20)에 참가했던 속초도리원 농악의 편성과 복색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인사굿-일채, 질꼬내기 가락을 치며 입장하여 삼채, 사채까지 가락을 내고 인사굿을 친다.
- (2) 골뱅이진-삼채장단의 빠른 걸음으로 골뱅이처럼 원을 말았다가 다시 뒤로 돌아서 반복한다.
- (3) 십자진-상쇠와 부쇠줄로 나누어 서로 마주보고 있다가 서로 엇갈리게 빠져나와 십자진을 만든다. 좌우로 방향을 바꿨다가 가운데부터 원을 그리며 돌아 나온다.

---

201) 장정룡 조사:김동섭(남.75) 속초시 노학동 도리원리, 2008.1.31



- (4) 오방진-원진을 만들어 돌다가 상쇠가 가운데 서고 쇠와 징, 장구와 북, 소고, 무동이 각자 네귀통이에서 원을 만들어 오방진이 되게 한다.
- (5) 농사풀이(농사짓는 모의동작을 연출한다)
- ① 가래질:쇠, 징, 장구, 무동들은 제자리에서 연주하고 소고 중 한 사람은 가래를 쥐고 두 사람은 끈을 당기는 동작을 연출하며 앞으로 나간다.
  - ② 논갈기:쇠, 징, 장구, 무동들은 제자리에서 연주하고 소고가 일렬로 서서 논갈기를 한다.
  - ③ 모찌기:쇠, 징, 장구, 무동들은 제자리에서 연주하고 소고들이 일렬로 앉아 모찌기를 하며 무동이 모를 나른다.
  - ④ 모내기:소고는 모를 심는 동작을 하고 무동은 모를 나르는 흥내를 낸다.
  - ⑤ 낫갈기:소고가 한 줄로 앉아서 소고를 발 사이에 끼고 소고채로 장단에 맞추어 이리저리 낫을 바꾸어 간다.
  - ⑥ 벼베기:소고가 벼를 베어서 수확하는 동작을 한다. 상모를 돌리며 벼를 베다가 단을 묶어 던지는 동작을 연출한다.
  - ⑦ 태치기:무동들이 나와서 도리깨질을 하고 소고는 북을 사이에 앉혀놓고 태치기를 한다.
  - ⑧ 방아찝기:소고 중 한 사람은 방아가 되고 두 사람은 방아의 중심대가

되며 무동은 방아찝기와 키질을 한다.

농악 복색은 다음과 같다.

- (1) 상모;짚으로 또아리를 틀어 만든 다음 진자를 맞추어 엮고 껍을 매달아 만들었다. 굵은 무명실에 적자(구슬)를 여러 개 끼워달고 길이는 2척에 끝부분에 4척의 얇은 한지를 매단다. 상모를 쓸 때는 머리에 머리수건을 동여매고 짚상모의 끈을 얹어 머리에 맨다. 50년대 말부터 한지를 이용해서 상모를 만들기 시작했다.
- (2) 고깔:흰색의 천과 종이에 상, 좌, 우측에 큰 종이꽃을 장식한다.
- (3) 상쇠:흰 바지저고리에 청색 덧저고리를 입고 짚상모를 쓴다. 삼색띠를 어깨와 허리에 맨다. (상벽구, 상소고-청색 덧저고리)
- (4) 농기수, 단기수:흰바지 저고리에 삼색띠, 고깔을 쓴다.
- (5) 징, 장구:흰바지 저고리에 삼색띠, 껍이 달린 짚상모를 쓴다.
- (6) 무동:흰바지에 붉은 치마, 노란저고리를 입고 남색괘자를 걸친다. 머리에는 고깔을 쓴다.
- (7) 삼색띠:청색과 적색의 띠를 한 번에 겹쳐 청색이 위로해서 오른쪽 어깨에서 왼쪽 어깨허리로 묶어 묶고 노란색띠를 허리에 두른다. 무동은 양 어깨에 엑스자로 하고 적색을 허리에 감아 묶는다. 초창기 농악대 복색은 다음과 같다.

조: 농악대 복색은 어떻던가요?

김: 상모도 쓰고 무동은 고깔을 쓰고요. 상모는 병거지 꼬랭이를 달고, 악사들은 상모위에다가 꽃만 달고, 인제 벽구쟁이는 한 발씩 되는 풍지를 달지요.

조: 그걸 채상이라 그러지요?

김: 여기는 '병거지꼬리'라 그래요.

조: 다른 데서는 ‘떡상’이라서 해서 수술같은 것이 앞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김: 여긴 거냥 꽃만 달지.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움직이는 건 없어요.

조: 꽃의 색깔이 어떻던가요?

김: 그러니깐 하얀 것에다가 끝에는 발그레하게 장미꽃 모양으로 하지요. 전부다 그전에 하마 어디루 간다하면 그걸 며칠씩 만 들어요. 신문지를 인제, 그때는 종이가 귀하니까 어디 땡기며 문종이 뜯어놓은 거, 신문지 이런 거를 전부 물에다 불귀가지고 풀에다 이렇게 섞어 식기를 요렇게 얹어놓고 자꾸 이렇게 봉해 가지구 며칠 말려 가지구 농민모자마냥 만드지요. 그레가에는 빨간 걸로 뽕 돌리게 하고 밑에는 새까만 거로 하고요. 위에 돌아가는 거는 박달낭그(나무)로 만드어요. 고걸 요렇게 깎지요. 맨드는 거 우리가 많이 봤지요. 자전거 체인줄로 엮어 실로 감아서 하지요. 만들라면 그거 뭐. 그레 식기 같은 거를 얹어놓고 마른 다음에 여길 구녕(구멍)을 뚫구 박달나무로 깎은 꼬쟁이 고걸 여기 박지. 박아가지고 요 밑에 구녕을 뚫고 빗장을 친다구. 이렇게 빠져나가지 않게. 지금처럼 보도를 박으면 되는데 그때는 그런 게 없으니 이게 요만큼 나오면 요길 구녕을 뚫고서는 빗장을 친다구. 덜미꼭지에다가. 그레 가지구 실을 양초를 매겨 가지구 꼭지에다 칭칭 감았지.

조: 상모는 이렇게 두 가지고요. 머리에 고깔을 쓰잖아요? 고깔은 누가 쓰나요?

김: 무동이 주로 많이 쓰지요.

조: 무동은 팔무동인가요?

김: 원래 팔무동 팔벅구인데, 여덟 명 더 되는 것 같더라구요.

조: 무동이 고깔에 꽃을 달잖아요? 몇 개나 달게 되나요?

김: 그러니까 하나 둘, 한 네 개를 달지요. 분홍색깔 약간 장미꽃 색깔처럼 그렇게하고, 꽃잎 위로는 밭그지하고 밑으로는 푸름하게 한다든가 하얗든지 그렇게 하더라구요.

조: 그걸 만들 때는 종이는 어떤 거를 쓰나요? 한지든가요?

김: 한지가 아니고 뭐 백노지 같은 거로 해요. 그걸 꼬불꼬불하게 만들자면, 지금은 그런 종이가 나오는지 몰라도, 그전에는 나무에다 쪽 이렇게 말아가지고 쪽 압축을 시키고 쪽 빼니까 쪽글 쪽글하게 되더라구요. 끝에다 요기다가 물감을 들이고 자꾸 말아서 맨들더라구요. 나갈 어른들이 만드는데 보니까 그렇게 맨들드라고요. 고깔 바탕은 삼각형으로 지금 같으면 골판지 같으면 좋은데 없으니까 종이를 겹겹이 풀을 발라서 말려 가지구 이제 만들지요. 고깔 바탕은 흰 색깔이지요.

조: 그러면 복장은 어떤 것을 입었나요?

김: 그때는 한복을 입었지요. 바지저고리, 광목이지요. 옛날 50년대 찍은 사진에 보면 나와요. 끈은 파란끈, 빨간끈, 띠는 노르한 거 하고, 신발은 운동화 같은 거 신고, 행진 쳤어요.

조: 무동은 어떤 옷을 입나요? 아래위로 치마저고리를 입지 않나요?

김: 될 수 있으면 일괄로 한 색깔로 입드라구요. 그리고 띠를 두르고 쾌자를 걸쳐요.

조: 무동은 다 남자들이지요?

김: 옛날에는 남자로 다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부인들이 하지요.  
우리가 삼척갈 때는 부인들이 많이 갔지요.<sup>202)</sup>

2007년 강원민속예술축제에 출연한 도리원농악은 1950년대 이전의 고증과 기존의 사진자료에 따라 옛 모습으로 재현하여 속초고유의 가락과 판놀음을 되살렸다. 기, 악기, 복색, 판놀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기:도리원 농악의 기는 농기와 마을기가 있다.

· 농기:긴 대나무 깃대에 지네발이 달린 기폭을 달고 ‘農者天下之大本’이라 쓰고 깃대 꼭대기에 평장목을 단다. 흰색바탕에 검정 글씨, 지네발은 검정색이다.

· 마을기:긴 대나무 깃대에 지네발이 달린 기폭을 달고 ‘東草桃李源農樂’이라 쓰고 깃대 꼭대기에 평장목(평장)을 단다. 흰색바탕에 검정 글씨, 지네발은 검정색이다.

(2) 악기:뽕과리 4명, 징 4명, 장구 8명, 북 8명, 소고 8명, 벽구 8명, 호적 1명

(3) 복색:복색은 위에서 언급한 내용과 다르지 않다.

(4) 판놀음:속초도리원농악의 판놀음은 고증자들의 구술에 따라 계승되고 있다. 다만 농사풀이 부분이 가미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농사풀이 부분이 1960년대부터 타 지역에서 하던 것을 모방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도리원 고유의 농악을 재현하기 위해 개인놀이와 동고리놀이를 보강하여 전수하였다.

놀음의 구성은 인사굿, 달팽이진(황덕굿), 십자진(십자진과 건풍놀이), 입구(口)자진, 가마니짜기, 밭전(田)자진(밭전자진과 건풍놀이), 글자놀이(도리원), 개인놀이(무동-소고-벽구-열두발상모놀이), 동고

202) 장정룡 조사:김동섭(남.75) 속초시 노학동 도리원리, 2008.1.31

리놀이(동고리와 단오그네놀이), 황덕굿(인사굿)으로 구성되어 진행된다. 특히 다른 곳과 달리 글자와 놀이를 접목시켜 시각적인 구성을 돋보이게 한 점이 이채롭다.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인사굿-한 일자로 된 대형으로 입장해서 정면에 정렬하여 인사를 한다. 인사굿을 마치면 삼채가락에 맞춰 원진을 만들고, 발맞추기를 한다. 입장 12채(굿거리), 원진 삼채, 악을 칠 때는 항상 몸을 숙인다. 입장 및 인사굿은 첫째줄 무동, 둘째 벽구, 셋째 소고, 넷째 쇠·징, 다섯째 장구, 여섯째 북이다.

농악이 들어가면 몸을 숙이구 엉거주춤하게 왼발, 오른발을 들었다 놔다 하면서 입장을 해. 인사굿은 한 일(一)자루 서서 인사하는데 무동이 앞줄, 벽구, 소고, 쇠, 징, 장구, 북 이러케 줄을 맹글어서 섰지. 인사하구 원진을 맹글어서 발맞추기를 오른쪽으로 여덟번, 왼쪽두 여덟번 가구 가락에 팽그르 돌았지(엄상원, 남.87세, 전 속초도리원농악상쇠 고증)<sup>203)</sup>

② 달팽이진-원진에서 삼채로 달팽이진을 만들고 풀고 나가면서 다음 동작선으로 이동 준비한다. 삼채-사채-오채, 악을 칠 때는 항상 몸을 숙인다.

③ 십자진-상쇠가 이끌어서 1번과 2번, 3번과 4번으로 나누어 일자로 만난다. 제자리에서 삼채-사채-오채로 정리한다. 건풍가락에 홀수는 제자리에서 가락에 맞추고 짝수는 오른쪽으로 돌아 십자진 대형을 갖춘다.

달팽이진을 만들고 풀고 나가는데 상쇠가 재빠르게 나가서 쇠와 징이 번갈아서 빠져 나가게 해가지구 왼쪽과 오른쪽으로 돌면서 만나게 되니까 한 일자를 맨들게 아니우. 그때 건풍가락으로 해서 건풍놀이를 하면서 짝수쪽이 사이사이 빠져 가지구 오른쪽으로 돌면서 십자진을 맨들었지 뭐. 그래서 건풍놀이 박자에 발맞추기를 해서 열십(十)자를 맹글며는 큰 박수를 받았지.(엄상원, 남.87세, 전

203) 제22회 강원도민속예술축제 속초시 출연, 《속초도리원농악》해설집, 속초시, 속초문화원, 2007. 6.1



속초도리원농악상쇠 고증)204)

④ 입구(口)자진-십자진에서 삼채-사채-오채로 정리한 다음 가운데 상쇠로부터 원을 돌며 풀어 나오게 된다. 쇠와 징이 세로의 한일자를 구성하고 장구와 북이 가로의 한일자, 소고가 세로의 한일자, 벽구와 무동이 아래위 한일자를 대형으로 구성하여 사각의 입구자진이 되게 한다.

⑤ 가마니짜기-입구자를 만든 다음 쇠와 징의 줄과 소고가 자리를 서로 바꾼다. 지나갈 때는 서로 왼쪽 어깨를 스치듯이 이동하고 그 다음 장구와 북, 무동과 벽구줄이 자리를 바꾸다 다시 반복해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⑥ 발전(田)자진-가마니짜기가 끝난 입구자진에서 진을 풀어 발전자를 만든다. 쇠와 징이 한일, 장구, 소고, 무동이 각각 한일로 바깥쪽에 사각을 만들고 북과 벽구가 안에서 열십자를 만들어 발전자를 만든다. 진을 만들면서는 삼채-사채-오채가락, 대형을 갖추게 되면 건풍가락을 치고 논다.

⑦ 글자놀이-발전(田)에서 풀어 나오면서 원진을 구성하게 되면 ‘도리원’이라는 글자를 만들어서 논다.

발전자를 맨드는데 벽구가 한일(一)자, 북이 옆으로 한일자를 만든 다른 줄도 빈자리가 있으니 돌면서 발전자를 맨들게 되는거지. 또 풀면서 맨들다가 바루 도리원마을이니까 도리원 글자놀이루 들어가는 거여. 글자놀이는 해방 전부터 시작해가지구 놀이하러 땡길때 자기네 마을글자두 맹글어달라구 해서 맨들어주믄 돈두 주구 막걸리두 주구 굉장했지. (엄상원, 남.87세, 전 속초도리원농악상쇠 고증)205)

그때 자기 마을 이름 써주니까 술을 많이 줬거든. 그러니까 술을 많이 먹으니 그저 취해 가지구 자기 자리도 못 찾아 가지구 이리저리 뛰 땡기구 그럴 거 아니오. 그 담부터 한지에 먹으로 써서 높이

204) 제22회 강원도민속예술축제 속초시 출연, 《속초도리원농악》해설집, 속초시, 속초문화원, 2007. 6.1

205) 제22회 강원도민속예술축제 속초시 출연, 《속초도리원농악》해설집, 속초시, 속초문화원, 2007. 6.1

착하구 걸어놓으면 다음에 "이거구나"하구 놀이를 잘하게 된거지 뒤.(김동섭, 남.74, 전 속초도리원농악 양반역)<sup>206)</sup>

⑧ 개인놀이-‘도리원’글자에서 풀어 나오면서 쇠와 징, 장구가 한일자로, 북과 벽구가 그 뒤로 한일자, 소고가 세로로 한일자, 무동이 반대편 세로로 한일자로 하여 'ㄷ'자 대형을 갖춘다. 무동놀이, 소고놀이, 벽구놀이, 열두발상모놀이가 있다.

개인놀이를 들어가는데 쇠와 징, 장구가 한일자, 북하구 벽구가 한일자, 무동이 세로루 한일, 소고가 세로루 한일자루 해서 서가꾸 맨 먼저 무동이 나오는데 무동이 나오니까 그 세로루 한일자가 없으니까 벽구가 나와서 그 줄을 끼워서 ‘ㄷ’자 맞추든 무동은 발 맞추구 팔무동이니까 홀수 짝수해서 앉았다 일어났다 반대루두 하구. 안쪽 바깥쪽 번갈아서 이쁘게 놀았지. 끝나면은 소고잡이 자리루 가요. 그러면 소고잡이들이 나오지. 소고들이 나와서 앉았다 일어났다 상모돌리기 기술을 보이면서 갈라져서 돌리구 일자루 서서 ‘개갱 적 적 개갱 적’에 맞춰서 기술을 보였지. 그 답에 벽구가 나와서 놀구. 또 그담엔 열두발들이 나와가지구 놀구 아주 불만했어. 그렇게 놀았다우. (엄상원, 남.87세, 전 속초도리원농악상쇠 고증)<sup>207)</sup>

조: 무동춤의 특징은 무엇이 있습니까?

최: 내가 볼적에는 무동춤이라는 거는 손바닥을 이렇게 하구 이렇게 하구 하는데, 이렇게 손바닥을 벌릴 때는 상대방의 행복을 찾구, 그 답에 이렇게 하는 거는 여기 들어온 행복을 여러 사람과 같이 누리자, 이렇게 안을 때는 여럿이 행복을 같이하자는 그런 뜻이라고 하더라구요. 그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그렇게만 알았지요. 그래서 손을 뻗쳐 가지구 하잖아요. 이렇게

206) 제22회 강원도민속예술축제 속초시 출연, 《속초도리원농악》해설집, 속초시, 속초문화원, 2007. 6.1

207) 제22회 강원도민속예술축제 속초시 출연, 《속초도리원농악》해설집, 속초시, 속초문화원, 2007. 6.1

이렇게요. 발은 앞으로 요렇게 요렇게 잘랑잘랑하지요.

조: 뛰어 가면서도 하잖아요?

최: 그게 덕거리춤이라고 있어요. 덕거리는 번개질하고 옆에 나팔 불고 하면 무동들은 안에 들어가서 춤을 추고 벽구잡이들도 안에서 하고 그럴 때는 덕거리춤 막춤을 추지요. 관람객들을 웃기기도 하구.

조: 덕거리춤이라고 했나요?

최: 그런 거는 막거리춤이지요. 막거리춤, 덕거리춤이라고도 하지요. 이렇게 무동들이 추지요.

조: 무동들이 소매자락가지고 이렇게 흔들면서 추던데요?

최: 옷끄네기가 요렇게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첫번에는 가위로 요렇게 요렇게 흔들고 찰랑찰랑하지요. 손은 인제 그다음부터 ‘깡깡 자작 깡’하면 이렇게 하지요. 예쁘게 행복이 오라는 거지요. 막춤을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지요.

조: 농악대 무동이 끝에 따라오잖아요. 팔무동이지요?

최:무동이 여덟이란 말이에요. 벽구잡이는 안에서 돌리고 나팔하고 북은 옆에서 하고, 북 장구를 때리면 우리가 그 안에서 놀지.208)

⑨ 동고리놀이(동고리와 단오그네놀이)-‘ㄷ’자 대형에서 벽구와 소고, 무동이 나와 동고리와 그네놀이를 한다. 벽구가 단동고리를 만들어 그네를 만들고, 무동 1인은 그네에 타고 1인은 그네를 밀어

208) 장정룡 조사:최식중(남.71) 속초시 노학동 도리원리, 2008.1.31

주며, 소고쟁이도 무동을 한다.

삼동고리를 두 개 만들어서 그네놀이를 했는데 사람이 빠지구 해서 단동고리 그네 단오놀이루 했어요. 소고쟁이들도 무동두 타구 나머지는 신이 나서 막 잡아돌리구, 하여튼 숨이 목까지 차서 힘들었어요.(장기순, 남.60, 전 속초도리원농악 상무동)<sup>209)</sup>

조: 우리가 동고리받기라고 그러잖아요. 태우는 거요? 삼동고리나 오동고리를 했나요?

김: 예전에는 했어요. 삼동고리까지 했어요. 밑에 들어서 있고 위에 한 명 올라서고 그 위에 조그만 애가 올라가요. 상모는 위에서 못 돌렸어요.

조: 열두발 상모도 돌리셨나요?

김: 옛날에 여기 열두발 상모가 있었어요. 그 양반들 이름도 다 잊어버렸어요.<sup>210)</sup>

⑩ 황덕굿(인사굿)-‘ㄷ’자 대형에서 진을 풀어 달팽이진을 만들고 한바탕 놀이를 한다. 인사를 한 후 퇴장한다.

김: 이런 데서 치는 거는 질꾸내기나 삼채덩덕궁이 같은 거를 치고 그러지요.

조: 질꾸내기는 행진할 때 치는 거고, 삼채덩덕궁이는 흥겹게 놀 때 치지요.

김: 한참 흥겹게 놀 때 삼채덩덕궁이를 치지요. 황덕굿이라고도 하

209) 제22회 강원도민속예술축제 속초시 출연, 《속초도리원농악》해설집, 속초시, 속초문화원, 2007. 6.1

210) 장정룡 조사:김동섭(남.75) 속초시 노학동 도리원리, 2008.1.31

고, 사방 모여서 신나게 치고 놀지요.<sup>211)</sup>

상기 언급에서 도리원농악 가락은 삼채덕덩궁이와 행진채, 질꾸내기, 황덕굿을 쳤음을 알 수 있고 춤사위는 덕거리춤, 막춤을 추었다고 한다. ‘채’는 농악가락 장단이라는 뜻이다. 이 낱말은 ‘치다’ ‘차다’ 등의 명사형으로 말채, 파리채와 같이 때리는 기구를 뜻하나 음악에서는 북채, 징채, 궁글채 등과 같이 타악기를 쳐서 소리 내는 기구를 말한다.

국악보의 ‘편(鞭)’은 ‘채편’ ‘채’ 등으로 쓰는데 ‘치다’ 혹은 ‘연주하다’는 뜻이 있으며 장단의 ‘박(拍)’을 뜻하게 되므로 농악가락의 ‘채’는 장단의 의미로 볼 수 있다. 또한 ‘채’와 같은 의미로 ‘마치’가 쓰이기도 한다. ‘마치’는 적중(的中)의 의미로서 겨냥하여 때려 마치는 것이므로 고어 ‘마치다’에서 나온 것으로 본다.

따라서 ‘마치’ 역시 농악 가락의 ‘박’과 같은 의미로 장단을 가르킨다. 위에서 ‘삼채’라 언급한 것은 ‘세마치’와 같다. 삼채에 대하여 이보형 씨는 갱매기는 “갱매갱 갱매갱 갱매갱 갱갱 개갱매 갱매갱 갱매갱 갱매,…”하고 한마루 4박 11점을 치는데 징은 한마루에 제1, 2, 3박에 3점을 친다고 하여 징에 의한 분류임을 밝혔다. ‘덩덕궁이’는 장구의 구음(口音)으로 3분박 좀 빠른 4박자(8분의 12박자)이며, 자진모리장단과 같다. 긴 삼채굿 혹은 자진 삼채굿과 비슷하나 다른 점은 삼채굿은 기본형과 변주형을 교대로 치지만 덩덕궁이는 기본형에 구애됨이 없이 다채롭게 변주하며 리듬이 매우 생동한 느낌을 준다. 따라서 유능한 농악대에서는 긴 삼채굿보다 덩덕궁이를 주로 치며 상쇠놀이, 설장구 등에 주로 사용한다.<sup>212)</sup>

자진모리장단으로 기교가 뛰어난 농악대는 삼채굿 대신에 맺고 푸는 매우 구성진 가락인 덩덕궁이를 많이 사용한다고 하며 삼채굿은 세마치장단의 변형으로 ‘징을 세 번 친다’ 하여 ‘삼채굿’이라 하는데 빠른 자진삼채와 느린 긴 삼채 두 가지가 있다.<sup>213)</sup>

211) 장정룡 조사:김동섭(남.75) 속초시 노학동 도리원리, 2008.1.31

212) 류무열, 《한국의 농악》 강원일보사, 1983, 46쪽

213) 김우현, 《농악교본》세 광음악출판사, 1984, 23쪽

‘질꾸내기’는 지역에 따라 ‘질꼬냉이’라고도 발음하는데 ‘길곳’ 또는 ‘길군악’을 말한다. 이것은 행악(行樂)중의 하나로 관현악곡인 취타의 뒤를 이어 연주되는 관악곡에 속한다. 또한 농업노동요로도 같은 명칭이 쓰이는데 도리원농악의 ‘질꾸내기’는 길군악칠채로 치는 가락이다.

이것은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농악에서 쓰이는 장단의 하나로 정이한 장단에 일곱점 들어가는 장단이란 뜻이다. 행진과 오방진 같은 진법, 그리고 명석말이 같은 판굿에서도 쓰인다. 매우 빠른 3박과 2박의 혼합으로 이루어지며 서양음악식으로 표기하면 8분의 36박자다. 빠르기에 따라 느린길군악칠채와 자진길군악칠채가 있으나 자진길군악이 많이 쓰이고 리듬이 경쾌하며 생동한 느낌을 준다.<sup>214)</sup>

도리원농악 무동이 춘 덕거리춤은 막춤, 막거리춤이라고 불렀다고 하는데 정확한 의미를 간취하기 어려우나 즉흥적인 덧뵈기춤 종류가 아니었을까 추정된다. 덧뵈기춤은 덧보기·덧배기·덧베기춤이라고도 하는데 즉흥적으로 특징적인 것만 추려는 추는 춤을 말하기도 한다.<sup>215)</sup>

도리원농악은 속초 유일의 농악대로 백여 년의 전통을 유지하고 있다. 소야천을 감고 도는 소야평야 농토를 경작한 농민들에 의해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농악이라 하겠다. 옛날에 농악에 참여했거나 보았던 고증자의 증언을 토대로 하여 도리원농악의 전반적 특징과 새로운 언급을 중심으로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리원농악은 서낭대를 모시고 행해진다는 점이다. 서낭대는 대나무 잎이 달린 긴 왕대로 만드는데 상단에 삼베와 한지를 매단다. 이는 도리원농악이 서낭굿농악에서 유래했음을 밝혀 주는 자료로서 농악대가 출타할 경우 반드시 서낭당에 들렀다는 옛 대원들의 고증에서도 이 농악이 전통적 기층신앙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도리원농악은 속초지역만이 갖는 어촌문화에 접목된 뱃고사굿을 쳤다는 점이다. 필자의 보고서에는 든대질놀이 때 농악이 들어갔음을 밝힌 바 있는데,<sup>216)</sup> 이번 조사에서 뱃고사굿의 과정과 그 방식 등

214) 이보형,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4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555쪽

215) 《한국민속대사전》(1) 민족문화사, 1991, 387쪽

216) 장정룡, 《속초의 민속》 속초문화원, 1987, 37쪽

이 구체적으로 밝혀졌다. 뱃고사굿은 고사반으로 이루어졌으며 이것이 끝나면 배 위에 타고 항구를 한바퀴 돌았다. 무동들은 이때 배에 타거나 참가하지 않았다. 이것은 도리원농악의 또 다른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 도리원농악은 걸립굿 때 ‘질꾸내기’(길군악, 질꼬내기라고도 함) 장단을 쳤으며 놀이판에서는 삼채덩덕궁이를 중심가락으로 활용하였다. 놀이내용은 걸립굿, 황덕굿, 진놀이, 삼동고리받기, 열두발상모의 개인놀이와 농사풀이가 있었다. 특히 농악대에는 ‘질라잡이’라는 안내자와 ‘화등’이라는 잡색이 있었으며 농사풀이는 팔벽구와 팔무동이 연출했다.

넷째, 도리원농악의 복색은 다른 농악과 차이가 나는데 상모는 짙상모를 썼으며, 어깨끈도 청홍색을 하나로 겹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한쪽만 매고 황색으로 허리를 묶었다. 이것은 1950년대 사진으로도 확인된다. 즉 징, 장구, 북, 벽구 등의 악사는 분명히 한쪽으로만 색띠를 매었으며 무동만 치마저고리를 입고 양어깨에 색띠를 매었다. 이러한 점은 다른 지역에서 일률적으로 양어깨에 엑스자로 청홍황색 끈을 매는 것과 다르다.<sup>217)</sup>

속초지역은 해안에 접해 있는 구릉지와 저지대가 형성되어 농업에 적합한 지형을 구비하고 있다. 속초의 농지분포는 설악산 계곡에서 동해로 흐르는 쌍천 연변의 도문동 일대와 달마봉에서 시작하여 노학동 평야지대(도리원 앞버덩)를 지나는 청초천 연변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도리원마을이 형성된 시기는 지금부터 500년 전쯤으로 추정되는데, 농촌의 농악이 발전되기 시작한 것은 지금부터 백 년 전인 1900년대 초로 추정된다.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농악놀이가 전승되었는데 1910년 경 경기도 출신으로 웃다리 농악대원이었던 이설기 씨가 강릉에 살다가 이곳에 이주 정착하면서 농악발전의 새 전기가 마련되었다고 한다.

217) 이 점은 영북지역인 고성군 토성면 교암농악의 사례와도 일치한다. “징잡이, 장구잡이, 북잡이는 한 쪽 어깨와 허리에 가사(색띠)를 메고 가사를 쓴다. 법구잡이는 한 쪽 어깨 허리에 가사를 메고 병거지를 쓰는 법구잡이의 병거지는 상쇠의 것과 같되 초리가 5척이나 되어 쓰면 땅에 닿는다. 무동은 여자 옷에 남색 덧저고리(남괘자)를 걸치고 양어깨 그리고 허리에 가사(색띠)를 매고 고깔을 쓴다.”고 하였다. 《강원도민속종합조사보고서》제8책, 강원도편, 문화공보부·문화재관리국, 1977, 536쪽 참조

당시 이 마을에는 김경대, 최경수 씨 등이 자체적으로 소규모의 농악대를 이끌고 있었으나 이설기 씨가 가세하면서 도리원농악이 크게 발전하였다.



경기도와 강릉에서 활동하면서 농악놀이에 재능을 가졌던 이설기 씨에게 쇄를 배운 엄상원 씨가 20세부터 2007년까지 도리원농악 상쇠를 맡으며 수차례 강원민속예술축제와 지역행사 공연을 진행하며 농악 전승에 큰 기여를 하였다. 본래 도리원 출신인 엄상원씨는 상벽구를 맡았던 부친을 따라 무동으로 처음 농악을 시작했으며 당시 상쇠였던 이설기 씨에게 체계적인 농악을 배우고 상쇠를 맡았다고 한다.

도리원농악 조사에 따라 도리원농악 초창기 1기의 구성원을 정리하면 김경대(쇠), 이설기(쇠), 이호영(부쇠), 오창근(새납) 김주섭(북), 최경수(새납, 고사반), 김동수(벽구), 양홍석(벽구), 김종대(벽구), 이호춘(벽구), 이세열(벽구), 김세열(북), 장기순(무동), 윤기준(무동), 최식중(무동), 이계춘(무동), 양춘석(무동) 씨가 1세대로 활약하였다. 일제



강점기가 끝난 1945년 8월 15일 속초에서는 광복절 기념 농악대회가 열렸다. 당시 강릉, 양양 등지의 농악대도 참가하였는데 이 대회에서 도리원농악대가 우승을 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전성기를 누렸던 도리원농악은 1950년 6.25 전쟁으로 잠시 중단되었다가 후반기에 다시 활발한 활동을 펼쳤는데 거진, 삼척, 경기 수원 등지에도 초청을 받아 공연하였으며, 무동은 15세 전후의 남자아이들이 맡아서 했다. 속초유일의 농악대로 활약을 거듭하였으나 1970년대 농촌의 고령화와 이동현상 등 인구의 축소로 전승이 어려워져서 겨우 명맥만 유지했다. 이런 가운데 설악문화제를 기해서 전통문화를 계승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진행되었는데 1986년 설악제 당시 도리원풍년마당놀이를 재현하면서 과거의 농악대가 행했던 농사풀이를 살리고, 1990년대 들어와 본격적으로 도리원농악대를 개편하였다.

이 과정에서 속초문화원이 중심이 되어 도리원농악대를 재건하여 1992년 설악문화제에는 동 대향 농악경연을 개최하고 1995년 12월 29일 도리원농악대 옛 구성원이었던 엄상원, 양춘석, 최철수 씨를 중심으로 재창단하게 되었다. 이들이 도리원농악의 2세대라고 할 수 있다. 당시 대원은 28명으로 갯마당풍물단 5명과 도리원농악대 상쇠 엄상원 씨가 다시 팽과리를 잡고 정훈, 장기순, 이호성 씨가 참여하고, 장구는 김종인, 정한섭 씨 징은 이주복, 최식윤, 김기영, 북은 양춘석 기타 13명으로 구성되었다.

도리원농악의 3세대는 속초풍물단원인 갯마당이 합세하면서 새롭게 전승의 기틀을 마련하였는데 1996년 제77회 전국체전 시연, 설악문화제 공연, 제15회와 19회 강원민속예술축제에 속초시 대표로 참가하여 공로상 등을 수상하였다. 그 후 도리원농악 전승 노력과 작품성을 인정받아 제21회 강원민속예술축제에선 상쇠 엄상원 씨가 연기상을, 제23회 강원민속예술축제에선 상쇠 박치영 씨가 우수연기상을 수상하는 큰 영광을 차지하였다. 2019년 제28회 강원민속예술축제에서도 개인 연기상을 수상하였다.

현재 도리원농악은 1세대 초창기 대원들은 거의 돌아가시고 지역 출

신의 전통예술인들에게 도리원농악의 특색있는 판굿과 가락이 전수되어 속초농악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속초도리원농악의 시작은 현재의 시점에서 추정하여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1900년부터 1950년까지를 제1기라 할 수 있다. 6.25전쟁 등 혼란기를 지나 안정기에 들어서서는 1960년대부터 새롭게 재창단되는 1990년대까지를 제2기라 할 수 있으며, 지역의 젊은이들이 참가하고 체계적인 지원과 전승되어 그들이 중심으로 구성된 속초도리원농악대가 제3기로 전승되어 오고 있다.



도리원농악은 속초 유일의 농악대로 백여 년의 전통을 유지하고 있다. 소야천을 감고 도는 소야평야 농토를 경작한 농민들에 의해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농악이라 하겠다. 도리원농악 자료와 고증자의 증언을 토대로 하여 도리원농악의 전반적 특징과 새로운 언급을 중심으로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리원농악은 서낭대를 모시고 행해진다는 점이다. 서낭대는 대나무 잎이 달린 긴 왕대로 만드는데 상단에 삼베와 한지를 매단다. 이는 도리원농악이 서낭굿농악에서 유래했음을 밝혀 주는 자료로서 농악대가 출타할 경우 반드시 서낭당에 들렀다는

옛 대원들의 고증에서도 이 농악이 전통적 기층신앙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도리원농악은 걸립굿 때 ‘질꾸내기’(길군악, 질꼬내기라고도 함) 장단을 쳤으며 놀이판에서는 삼채덩덕궁이를 중심가락으로 활용하였다. 놀이내용은 걸립굿, 황덕굿, 진놀이, 삼동고리받기, 열두발상모의 개인놀이와 농사풀이가 있었다. 특히 농악대에는 ‘질라잡이’라는 안내자와 ‘화동’이라는 잡색이 있었으며 농사풀이는 팔벽구와 팔무동이 연출했다.

셋째, 도리원농악의 복색은 다른 농악과 차이가 나는데 상모는 짙상모를 썼으며, 어깨끈도 청홍색을 하나로 겹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한쪽만 매고 황색으로 허리를 묶었다. 이것은 1950년대 사진으로도 확인된다. 즉 징, 장구, 북, 벽구 등의 악사는 분명히 한쪽으로만 색띠를 매었으며 무동만 치마저고리를 입고 양어깨에 색띠를 매었다. 이러한 점은 다른 지역에서 일률적으로 양어깨에 엑스자로 청홍황색 끈을 매는 것과 다르다.<sup>218)</sup>

끝으로 속초도리원농악대의 활동사항과 특징적인 사건을 중심으로 연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혁]

- 1900년대 이전 농악대 구성
- 1910년대 이설기 씨에 의해 지역 농악에 경기농악이 가미된 색다른 농악전승
- 1930~40년대 대포동 별신제 등에서 공연
- 1945년 8월 15일 속초에서 개최된 광복절기념 농악대회 우승
- 1950년대 삼척, 경기 지역 등에서 공연
- 1986년 설악문화제 초청 도리원풍년마당놀이로 공연
- 1995년 속초도리원농악대 재창단, 엄상원, 양형석, 최철수 씨 중

218) 이 점은 영북지역인 고성군 토성면 교암농악의 사례와도 일치한다. “징잡이, 장구잡이, 북잡이는 한 쪽 어깨와 허리에 가사(색띠)를 메고 가사를 쓴다. 법구잡이는 한 쪽 어깨 허리에 가사를 메고 병거지를 쓰는 법구잡이의 병거지는 상쇠의 것과 같되 초리가 5척이나 되어 쓰면 땅에 닿는다. 무동은 여자 옷에 남색 덧저고리(남쾌자)를 걸치고 양어깨 그리고 허리에 가사(색띠)를 매고 고깔을 쓴다.”고 하였다. 《강원도민속종합조사보고서》 제8책, 강원도편, 문화공보부·문화재관리국, 1977, 536쪽 참조

십

- 1997년 제15회 강원민속예술축제 참가, 공로상 수상
- 2001년 제19회 강원민속예술축제 참가, 공로상 수상
- 2002년 남산골 한옥마을 초청공연
- 2004년 제21회 강원민속예술축제 참가, 엄상원씨 연기상 수상
- 2005~2006년 정월대보름제, 설악문화제 초청 공연
- 2007년 제22회 강원민속예술축제 참가, 공로상 수상
- 2008년 제23회 강원민속예술축제 참가, 박치영씨 우수연기상 수상
- 2009년~현재 지역주민 대상 도리원농악 전수
- 2009년~현재 학교문화예술교육사업으로 온정초등학교에 도리원 농악교육
- 2009~2017년 정월대보름맞이 민속놀이 한마당 지신밟기 공연
- 2019년 제28회 강원민속예술축제 참가, 연기상 수상

도리원농악대의 놀이마당은 걸립굿, 서낭굿, 농사풀이, 진놀이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들 농악대는 정초 대보름부터 영등신이 하늘로 올라가는 음력 2월 15일까지 약 한달간 마을이나 외부의 걸립굿을 하기 전에 항상 마을서낭당에 가서 마을안녕과 풍년을 기원하고 농사풀이와 다양한 형태의 진놀이도 구성되었다.

도리원농악은 정월대보름을 기점으로 마을 서낭굿과 집돌이를 하고 이로부터 2월 15일 영등신이 하늘로 올라가는 날까지 걸립굿을 하였다. 일제강점기에도 마을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하여 걸립을 위한 전문 걸립패를 농악대 안내자격인 ‘질라래비’가 이끌며 인근의 여러 마을을 다녔다고 한다. 걸립농악패는 농악대원 가운데 고사를 잘 올리는 사람이 앞장을 서서 행하며 서낭걸립, 동사걸립, 다리걸립 등 마을기금을 모금하였다.

농악대의 걸립 시에는 끝무동이 징으로 쌀이나 돈을 받았다고 한다. 걸립(乞粒)은 본래 절을 중건할 때 민가로 다니며 경문을 외거나 염불을 하여 시중 받는 일로 걸궁이라 했는데, 후에는 놀이패가 가담하여

집집마다 다니며 고사를 해주고 돈과 쌀을 걷는 전문적인 걸립패가 나타나게 되었다. 이들의 농악을 걸립굿이라 하는데 순서는 지방에 따라 다르나 집돌이는 문굿·쌈굿·마당굿·조왕굿·터주굿·장돛굿·성주고사·인사굿 등으로 되어 있다.



농악대원들은 걸립을 통해서 공동의 마을숙원사업을 해결했는데 마을의 다리를 놓거나 동사를 짓는 등 기금을 만들기도 하였다. 또한 마을 자체적으로 도리원 동사 앞마당에서 어린이나 청장년들을 대상으로 활발한 전수활동과 농악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도리원농악은 전통적 마을에서 행해지는 마을서낭굿농악의 흔적도 발견된다. 서낭제는 매년 3월과 9월 길일인 삼짓날과 중구절에 지내는데, 황소 한 마리를 잡아 생육으로 제물을 사용할 정도로 마을서낭제는 중요하고 성대했다. 이때는 쇠소리를 내지 않는다. 그러나 마을농악대가 외부로 공연차 출타할 경우 반드시 ‘질꾸내기’를 치면서 마을서낭당을 들렸고 돌아올 때도 무사히 귀가한 것을 고한다고 한다. 서낭당에서 입출입 고사를 올리며 치는 상쇠의 쇠소리 구음도 “서낭님 서낭

님 동네밖에 서낭님”이다.

이처럼 도리원농악대에는 반드시 서낭대를 앞세우고 다녔다고 하는데 서낭대를 ‘신대’라고도 부르며 왕대나무에 삼베와 한지를 걸었다. 이른바 이동서낭신으로 마을 서낭신을 농악대의 신격으로 받들었음을 알 수 있다. 도리원서낭신에게 바치는 제물은 반드시 황소 생육을 찢는데 소의 껍질을 말려 농악대원들이 손수 북이나 장구를 만들었다고 한다.

노학동은 도리원, 이목리, 노리, 척산, 응골, 신흥1리, 신흥2리, 학사평, 자활촌 등 전체 9개 통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4개 마을에 서낭당이 있었다. 1997년 조사당시 도리원리, 이목리, 노리, 척산리에서 서낭제가 유지되고 있었는데, 춘추로 음력 3월 3일과 9월 9일 두 차례 제를 지내고 있었다. 척산리의 경우 성황지신, 여역지신 이외에 전조지신(田租之神)을 모신 점이 특징이었으며 학사평은 남서낭신이고 척산은 여서낭신이라 하였다. 이들 가운데 오랜 전통을 지닌 도리원마을은 과거에 제답(祭畓)이 있어 이곳에서 나오는 소출로 춘추로 동제를 지냈다. 또한 이 마을 농악대가 외부로 나갈 때는 반드시 서낭당에 들러 고하고 나갔으며 서낭대를 모시고 다녔다.

이 마을의 동제는 봄과 가을에 택일하여 지내는데 음력 3월 3일과 음력 9월 9일에 지낸다. 제물은 메 한 그릇, 해물, 떡 등을 정성껏 장만하며 축문을 읽고 각자 소지를 올린다. 당집은 없으나 마을 입구 둔덕 길 옆 솔숲에 제단을 만들어 놓았으며 주변에는 1m 정도로 입구만 내놓고 둥글게 돌담을 굽은 돌로 올려 쌓았다. 수령이 200년 정도 된 소나무를 신목으로 삼고 있으며 금줄을 원새끼 줄로 소나무 하단에 여러 번 빙빙 감고 한지를 함께 매달아 놓았다. 매년 감아 놓은 금줄과 한지를 떼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 이 마을의 성황제단은 산간마을에서 볼 수 있는 신목과 제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리원농악 역사는 농사와 관련된 것에서 시원을 찾을 수 있다. 노학동은 소야천인 청초천변 소야평의 넓은 평야지대를 형성하고 있는데 뒷버덩인 후평(後坪)과 앞버덩을 포함하여 학사평일대가 글자 그대로 논으로 이뤄진 소야(所野)평야다. 이곳은 속초지역 벼농사의 적지로서

한 해 농사와 관련된 도리원농악대의 농사풀이가 강원 영동농악의 전통과 함께 그 전승의 기틀을 형성해왔다. 도리원농악의 농사풀이에서는 김맬 때 부르는 소리인 오독떼기나 미나리농요가 불렸고 타작가인 마당이소리도 불렸음을 알 수 있다. 농사풀이는 ‘농사놀이’ 또는 ‘농식’(農式)이라고도 하는데 일종의 놀이굿농악에 속한다.

강원도 농악은 전체적으로 빠른 동작과 가락을 이용하고 있는데 정병호 교수는 영동지역이 산악지대가 많기 때문에 지신밟기를 할 때 마을을 돌기 위해서는 산을 넘어야 할 경우가 많으므로 바쁘게 많이 걸어야 하는데서 나온 동작으로 추정하였다.<sup>219)</sup> 나아가 판굿진행에 있어서 제자리 춤 없이 행진하는데, 정방형, 체조대형, 'ㄷ'자형, 명석말이, 오방진 등의 모습은 기마민족의 수렵모습, 농군이 전투에 임하는 모습, 손자 말이 논밭을 갈고 있는 것처럼 거칠고 전투적인 면으로 보기도 하였다.

농사풀이는 강릉농악, 평창농악 등에서도 연행되는 모의농경(模擬農耕)으로 벽구놀이가 중심이다. 대부분 일년 농사짓는 모습의 형태로 이끌어가며 진행되는데 이 풀이를 지나치게 길게 함으로써 본연의 농악놀이인 황덕굿놀이나 서낭굿, 걸립굿 등이 축소되는 경향이 있다.

강원도 농악은 크게 영서지방농악과 영동지방농악으로 나누는데 영동지방은 속초, 고성, 강릉, 동해, 삼척 등 동해안 일대에서 성행하고 경북 동해안 일부 지역과 함경도 지역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강원영동농악의 특징으로 알려진 농사풀이는 1970년부터 전체적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속초 도리원 농악은 백년 전통의 고유한 농촌서낭굿농악의 전통을 계승하고, 경기농악과 강릉농악의 장점을 계승한 영북지역 유일의 농악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도리원농악대의 놀이마당은 걸립굿, 서낭굿, 뱃고사굿, 농사풀이, 진놀이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들 농악대는 정초 대보름부터 영등신이 하늘로 올라가는 음력 2월 15일까지 약 한달 간 마을이나 외부의 걸립굿을 하기 전에 항상 마을서낭당에 가서 마을안녕과 풍년을 기원하였다. 농악대가 외부로 출타하거나 다리가 나올 경

219) 정병호, 《한국의 민속춤》1992, 238쪽

우 “다리다리 잘났다 칠렁칠렁 건네서”라는 장단의 다리굿을 치고 통과한다. 특히, 다른 곳과 달리 글자와 놀이를 접목시켜 시각적인 구성을 돋보이게 한 점도 이채롭다.

진놀이는 ‘진풀이’라고도 하는데 판굿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초창기 도리원농악의 진놀이는 십자진, 골뱅이진 등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특이한 점은 도리원농악대에 ‘화동’ ‘화대이’라 부르는 잡색이 있었다고 전한다. 이것은 ‘화동(花童)’을 뜻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강릉농악에도 예전에는 있었다.<sup>220)</sup> 화동은 잡색과 다른 것으로 생각되는데 현재의 도리원농악에는 양반이 잡색으로 등장하고 있다.

농악대에 양반이 등장하는 것이 가면극의 원초적 형태라는 견해뿐 아니라 잡색의 연극성이나 제의성은 여러 방향에서 논의된 바 있는데 도리원농악의 경우 사라진 ‘화동’의 재현이 중요하다. 현행의 양반잡색은 고층에 없는 것으로 농악대를 이끄는 ‘질라잡이’가 양반의 역할 가장(假裝)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속초 도리원농악의 놀이과정은 서낭굿과 진놀이로 진행된다. 진놀이는 십자진(십자진과 건풍놀이), 입구자진, 밭전자진(밭전자진과 건풍놀이), 개인놀이(무동-벽구-열두발), 동고리놀이(동고리와 단오그네놀이), 황덕굿(인사굿)으로 구성되며, 쇠 4, 징 4, 장구 8, 북 8, 벽구 8, 소고 8, 무동 8, 서낭대 1, 단기 1, 농기 1, 호적 1, 할미 1, 새납 1명 등 54명으로 구성된다. 농악놀이마당은 다음과 같다.

### 1) 서낭굿

한일자로 된 대형으로 입장해서 서낭대에 정렬하여 서낭굿을 한다. 입장 질꾸내기(굿거리), 대형 - 무동, 벽구, 쇠·징, 장구, 북

### 2) 진놀이

220) 정병호 앞의 책 162쪽에는 1979년 강릉시 흥제농악을 조사한 자료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화동은 장삼에 가사를 걸치고 한삼 소매를 매고 고깔을 썼으나 지금은 花童이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도리원농악의 화동과는 차이를 보인다. 김동섭 제보자가 말한 화동은 잡색의 일원인 ‘양반’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양반잡색이외에 화동이 따로 있었던 것은 아닌지 혹은 화동만 있었던 것이 아닌지 전승과정이 의심된다. 강릉농악의 경우 잡색은 없고 화동만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영동농악권에 속한 도리원농악에서도 화동만 존재한 것으로 보인다.



(1) 십자진

상쇠가 이끌어서 1번과 2번, 3번과 4번으로 나누어 일자로 만난다. 제자리에서 삼채-사채-오채로 정리한다. 건풍가락에 홀수는 제자리에서 가락에 맞추고 짝수는 오른쪽으로 돌아 십자진대형을 갖춘다. 이후 풀면서 골뱅이진을 만든다.



(2) 입구(口)자진

십자진에서 삼채-사채-오채로 정리한 다음 가운데 상쇠로부터 원을 돌며 풀어 나오게 된다. 쇠와 징이 세로의 한일자를 구성하고, 장구와 북이 가로의 한일자, 소고가 세로의 한일자, 벽구와 무동이 아래의 한일자 대형으로 구성하여 사각의 입구자진이 되게 한다.



(3) 가마니짜기

입구자를 만든 다음 쇠와 징의 줄과 소고가 자리를 서로 바꾼다. 지나갈 때는 서로 왼쪽어깨를 스치듯이 이동하고 그다음 장구와 북, 무동과 벽구줄이 자리를 바꾼다 다시 반복해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 (4) 밭전(田)자진

가마니짜기가 끝난 입구자진에서 진을 풀어 밭전자를 만든다. 쇠와 징이 한일자, 장구, 소고, 무동이 각각 한일로 바깥쪽에 사각을 만들고 북과 벽구가 안에서 열십자를 만들어 밭전자를 만든다. 진을 만들면서 삼채-사채-오채가락, 대형을 갖추게 되면 건풍가락을 치고 논다.



#### (5) 개인놀이

쇠와 징, 장구가 한일자로, 북과 벽구가 그 뒤로 한일자, 소고가 세로로 한일자, 무동이 반대편 세로로 한일자로하여 ㄷ자 대형을 갖춘다.

- 무동놀이

무동이 가운데에서 원을 만들어 상쇠와 함께 무동놀이를 한다.

- 벽구(소고)놀이

소고가 가운데에서 원을 만들어 상쇠와 함께 소고놀이를 한다.

- 열두발 상모놀이

열두발상모 두 명이 가운데에서 열두발놀이를 한다.

#### (6) 동고리놀이(동고리와 단오그네놀이)

ㄷ자 대형에서 벽구(소고), 무동이 나와 동고리와 그네놀이를 한다. 소고가 단동고리를 만들어 그네를 만들고, 무동 1인은 그네에 타고 1인은 그네를 밀어주며, 소고 잭이도 무동을 한다.



#### (7) 황덕굿(인사굿)

ㄷ자 대형에서 진을 풀어 달팽이진을 만들고 한바탕놀이를 한다. 인사를 한 후 퇴장하여 서낭대를 고정하고 출타하여 돌아왔다가 서낭

곳을 끝으로 공연을 정리한다.



2019년 속초도리원농악 걸립 농악의 구성 및 놀이과장은 다음과 같다.



[제1과장] 서낭굿:걸림을 나가기 전 도리원마을의 서낭신을 서낭대에 받는 농악굿이다.

[제2과장] 지신밟기:서낭대에 서낭신을 받은 농악대는 서낭터 지신을 밟아주고 일년 내내 마을의 안과태평을 기원하는 농악굿. 상쇠의 서낭굿 사설이 있다.

[제3과장] 우물굿:서낭대를 모시고 마을 곳곳을 걸림할 때에 마을마다 있는 공동우물에 풍요로운 용수(湧水)를 기원하며 치는 굿이다. 상쇠의 우물고사반이 있다.

[제4과장] 다리굿:다리굿은 마을과 마을을 다니며 다리를 건널 때마다 한 해 동안 다리의 튼튼함과 무사함을 기원하며 다리굿을 쳐준다.

[제5과장] 뱃고사굿:뱃고사는 도리원 마을 아래의 청초호 부근의 어촌마을과 멀리 밧독재[외옹치] 어촌마을까지 걸림을 나가서 배걸림을 하였다. 이때 뱃고사를 쳐주는 과장이다.

[제6과장] 뱃굿:뱃고사는 뱃고사를 올리고 풍어의 기원과 무사항해를 기원하는 농악굿이다.

[제7과장] 만선굿:만선굿은 배주인과 농악대가 만선깃발을 들고 배 안에서 한바탕 굿을 치는 흥겨운 농악굿이다.

[제8과장] 오방지신굿:이 과장은 걸립이 끝나고 농악대의 기량을 구경꾼에게 판을 짜서 보여주는 판굿이다. 잽이놀이, 무동놀이, 소고놀이, 벽구놀이, 열두발상모놀이의 기량을 펼쳐보인다.

[제9과장] 뒷풀이:영동지역의 황덕굿 농악이다. 농악대와 구경꾼들이 한데 어울려 축제의 장을 마련한다.

백년 전통을 지닌 속초도리원 농악의 기수별 농악대원은 다음과 같다.

○ 제1기(1900~1950년):김경대(쇠), 이설기(쇠), 이호영(부쇠), 오창근(새납) 김주섭(북), 최경수(새납, 고사반), 김동수(벽구), 양홍석(벽구), 김종대(벽구), 이호춘(벽구), 이세열(벽구), 김세열(북), 장기순(무동), 윤기준(무동), 최식중(무동), 이계춘(무동), 양춘석(무동)

○ 제2기(1960~1990년):엄상원(상쇠), 양춘석, 최철수, 정훈, 장기순, 이호성, 김종인(장구), 정한섭(장구), 이주복(징), 최식윤(징), 김기영(징), 양춘석(북) 등 13명, 박치영·주동진·전성호 등 갯마당풍물단 5명을 포함한 28명

○ 제3기(1990~현재):속초도리원농악보존회 회원으로 이 명단은 지난 2007년 제22회 강원민속예술축제(홍천)에 출연한 농악대원들이다.

- 단장: 노광복(속초문화원장),
- 고증: 엄상원(남.67), 김동섭(남.74), 양춘석(남.63),
- 지도연출: 한정규(속초문화원 사무국장), 박치영(속초시립풍물단),
- 쇠: 주동진·박치영·김소희·이향하,
- 징: 김홍식·윤기준·신승태·이장원,
- 장구: 전성호·최수미·유영순·유리라·이유경·이복례·이순자·김춘형,
- 북: 김종범·김경선·김기순·이태숙·유인혜·정정자·강금옥·김도연,

●●● Ⅲ. 농악이야기 마당 ●●●

백구: 황헌중·남호섭·김민혁·석경환·김진우·정격수·추교미·김문성,  
소고: 김동연·김태희·임희영·신우근·주미애·한덕규·김태후·홍길찬,  
무동: 정현애·김민희·우수경·정진향·박종순·정연숙·최순옥,  
양반: 이형찬,  
할미: 이정옥,  
호적: 이규왕,  
기수: 김승가·김인섭,  
행사지원: 최택수·김은중·차은영·김만중

○ 2019년 제28회 강원민속예술축제 속초시 출연작품인 속초도리원 (걸립)농악의 보존회원은 다음과 같다.



지도: 박치영(갯마당),  
태평소: 주동진,  
쇠: 박치영·김동연·전성호·박준영,

징: 송병동·박승수·이지원·채성남,  
 장구: 임희영·이순자·강금옥·이복례·오영자·유영순·김민강·조광녀,  
 북: 김태화·이정옥·정연자·오숙자·김재규·정현애·조춘영·최정옥,  
 벽구: 김청익·이경숙·박수빈·소정애·백금자·김재규·이성자·정옥경,  
 소고: 신우근·황승연·임효건·오준영·박한별·배건석·홍준서·이성용,  
 무동: 김민희·김민예·김현숙·강은순·이경민·윤화자·남정이·김순자,  
 양반: 장기순,  
 할미: 이재남,  
 기수: 유지현·김강석

[구술조사1]

- 조사일시 : 2008년 1월 31일 오전 11시~오후 1시
  - 조사장소 : 속초시 노학동 도리원마을회관
  - 조사자 : 장정룡
  - 제보자 : 김동섭(남.75) 김덕수(남.68)
- (이하 조사자는 '조'로 표기하고 제보자는 '성'만 기록한다)

조: 여러분들도 아시듯이 도문동 농요가 강원도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도문동에 계신 분들이 많은 노력을 한 결과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노력으로 농악을 계승하고 계십니다. 과거에 속초지역에도 농악이 여러 곳에 있었지만, 속초도리원농악이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고, 이제는 새롭게 발전을 시켜야하므로 지역에 계신 여러분들의 고증을 토대로 예전 모습대로 재현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몇 분에게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예전에 농악대에 참여하셨던 엄상원, 김동섭, 양춘석 어르신 이외에도 고증을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이 과거에 '이렇게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잘 기록하여 재현하고 전통을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협조해주시면 도리원 지역이 농악마을로 발전되고 여러분들이 중심이 되어서 후배들에게도 물려주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면 예전 농악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김: 김동섭입니다. 올해 일흔 넷입니다.

조: 태생은 어디신가요?

김: 원래 여기서 나서 여기서 살고 있어요. 선친들은 경상도 경주에서 나왔는데 경주 김씨이니깐요. 우리 할아버지가 이곳으로 와서 우리가 한 사오 대째 지금 살고 있어요.

조: 몇 세 때 처음 농악을 보셨어요? 아주 어려서 물론 보셨겠지만요?

김: 도리원 농악은 옛날 어른들이 농악하는 것을 그때만 해도 어렸을 때니까 봤지요. 그전에 우리가 6.25사변 나고 한 열 대여섯 살 때 보았고, 사변 전 왜정말기에도 농악하는 것을 어렸을 때 구경했습니다. 이 동네가 농악을 오래했어요. 그래서 구경을 많이 했지요. 농악을 나 많은 이들이 하고, 젊은 사람들이 했구. 그리고 농악놀이하는 거는 무슨 놀이, 짐(김)매기, 타작하는 거, 그런 거 십자놀이 하고, 골뱅이식도 하고 여러 가지 하지요. 나는 귀경만 했지요. 몇 년 전에 도리원 농악 양반을 했어요.

조: 예전 보셨을 당시에 농악 하시던 분들이 누가 있었나요?

김: 제일 열심히 하던 사람이 저 사람 양춘석 씨인데, 제일 막내지요. 시방 다 작고하고 엄상원 씨가 그 양반이 남았는데 거동도 힘들어요.

조: 그때는 농악을 언제 했습니까? 정월 대보름에도 하시지요?

김: 정월대보름에도 하고, 설 이런 명절 때도 하지만, 여기는 내가 보기에는 그전에 별신이라고 있어요. 옛날에 별신할 때 도리원에서 농악도 했을 뿐 아니라 부월리, 도문동 이런 데도 가고, 농악을



했는데 아야진 장에서 별신할 때도 그때 모두 가서 했지요. 도리원 농악이 아야진에서 이등했니 뭐 그러드라구요.

조: 그때가 언제쯤 되나요?

김: 제가 잘 모르지만 육이오 전 왜정 말년 쯤 될 거예요. 농악하러 가는 것만 알았지요. 여기 마을회관 마당에서 뭐뭐 다 저녁으로 연습했지요. 여기가 동사(洞舍)자리니까요. 주위 마을사람들이 “저기 도리원 사람들은 밤낮 두드리고 모여 그린다”고 했어요.

조: 농악은 아무래도 농사와 관련이 있잖아요? 연습을 어떻게 하셨나요?

김: 밤으로만 해요. 낮에는 일하구. 기리니까 나는 그렇지 않았는데 내 동생(김동수)하고 우리 아버지(김경대)가 농악에 골수분자들이지요. 아버지는 경자 대자예요. 동생은 김동수라고 있었어요. 다 죽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하구 그 양반들이 다 없고 동생들이 했지요.

조: 아버님은 악기를 뭘 하셨나요?

김: 채, 팽과리를 하고, 동생은 벽구(법구)하고, 저기 사람하고(양춘석) 둘이서 같이 했어요.

조: 그러면 아버님에게 쇠를 가르쳐 주신 분은 누구였나요?

김: 근데 전에 그 양반들이 여기에 이설기 씨라고 있었어요. 그 양반들하고 이제 같이 했지요. 원래 우리 아버님도 채는 그전부터 쳤구요.

조: 여기 분인데 여기 채를 치셨구요. 이설기 씨는 여기 분이 아니지

요?

김: 강릉 분인데 일루 이사를 왔지요. 어려서 이동네로 이사를 와서 여기서 살면서 그 농악을 그 양반이 그렇게 구성을 해가지구, 그렇게 한지 한 칠십년 되었지요.

조: 그러니까 이설기 어른이 오시면서 부친이 같이 힘을 합쳐서 농악이 활성화되었군요?

김: 그전부터 이 동네는 농악이 있었는데 같이 더 했지요.

조: 김선생님 아버님께서 상쇠를 하시고 어디어디를 이렇게 다니셨다고 하던가요? 아까 아야진도 다녀오셨다고 했는데요?

김: 아야진도 가고, 사방 돌아다녔지요. 양양 어디를 갔다 왔는지 농악노는 데는 다 댕겼어요. 그래가지구 이 다리가 큰 다리가 있었는데 농악으로 벌어서 다리를 놓았다고 그러드라구요. 댕기면서 걸림을 했구요. 그래고 시내 바다로 내려가서 뱃고사도 지내고요. 아주 우리 동네에서는 문화재가 될만한 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대해서 아주.

조: 농악대가 가서 뱃고사 지내는 것을 보셨어요?

김: 배를 만들어서 띄우면 우리 도리원 농악이 나가서 치고. 거기 최경수 씨라고 그 사람이 고사도 아주 잘하고, 새납도 여기서는 최고라고 해요. 그 양반만큼 새납 잘 부는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없다고 해요. 저기 할머니가 있어요.

조: 할아버지 사진이 있으시지요? 농악하시던 모습이 있나요?

민병희(최경수 씨 부인): 안 찍어 두었어요. 주민등록증 사진만 있어

요.

조: 최경수 씨가 농악대원으로 새납을 잘 붙고 고사반도 잘하셨군요.  
그러면 뱃고사에 도리원농악대가 갔을 때는 어떻게 하셨나요?

김: 이 배가 고기를 많이 잡으라고 했지요. 배선주가 청하지요. 속초  
항 전 어부들이 초청해서 시내 내려가 살다시피 했어요. 이 양반  
이 고사지내는 데는 천재래요.

조: 대개 보면 고사반을 할 때 팽과리를 치면서 하는데요, 고사지낼  
때 어떻게 하셨나요?

김: 이제 그 양반이 팽과리를 치면서 “이 집 짓고 삼년 만에 아들을  
나면 효자를 나고”그러면서 했어요.

조: 오늘 도리원농악에 새로운 좋은 자료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농  
악이라면 보통 농촌에서만 하는 것으로 아는데 속초는 바다가 가  
까우니까 뱃고사 농악이 있다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김: 그 아주 뱃고사 드리러 많이 갔어요.

조: 그러면 배가 크던 작던 청하면 잡니까?

김: 가지요. 그전에 발동선이라고 하지요. 목선을 만들어서 사뭇 기를  
잔뜩 키우고는 팽과릴치고 나가다가는 전수 이렇게 물에 빠지기도  
했어요. 나가다가 이 배가 어떻게 기울어져서 물에 모두 빠지고  
그랬어요. 배에 타구서 나가요. 나가서 저기 섬 있는데 돌아서 와  
요.

조: 이제 만든 배를 든대질해서 날바리에서 바다에 진수를 하잖아요.  
그럴 때 농악대가 배에 타서 팽과리를 치면서 가서 그 배를 타고

한바퀴 돌아서 온다는 말이지요? 그럴 때 대개 만선기를 쫓던데요? 풍어를 기원하는 것이지요?

김덕수: 배에 준공식할 때, 고기를 많이 잡게 해달라고, 배를 바다에 띄울 때 거기에 타고서 짝 기를 달고서 농악대를 싣고서 바다를 돌아요. 한바퀴를 돌지요.

조: 그러니까 보셨다는거죠. 언제 이렇게 기를 쫓고 뱃고사 지내는 것을 마지막으로 보셨나요? 오십년전인가요?

김: 그렇지요. 육이오 사변 나고도 땡겼어요. 장재터도 가고 뭐 사방 돌아다녔어요. 복골도.

조: 장재터가 설악동 부근인데 거긴 왜 가셨나요?

김: 집집마다 다니면서 돈 벌러요. 돈벌러 땡겼어요. 다리 놓으려고요. 우리 아버지 살았을 때 팽과리해서 다리 놔다고 들었어요.

조: 그럼, 다리 이름이 뭐니까? 다리 걸립을 한 것이잖아요?

김: 그렇지요. 소야천에 큰 다리지요. 그전에 다리가 이거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여기 속초일대는 그렇게 큰 다리를 시멘트로 놓은 것은 이것 밖에 없었어요. 기차길 내놓고는 그 다리 밖에 없었어요.

조: 그 당시에 걸립을 얼마나 한 것으로 기억되십니까?

김덕수: 다리 발이 세멘이니까 그 다리가 여기 물방아간 옆에 있었거든요. 물방아 옆에 다리를 놔어요. 그 주변으로 내려가면서 하천 옆으로 오리나무가 큰 것이 있었어요.

김: 그전에 경치가 말이지요, 기차타고 가면서 여기 노학동 골짜기

를 디다보면 이 하천 옆으로 오리나무 이런 기 짝 찻 짱어요. 그 기 지금 경지정리가 되어가지구 저렇게 되었지요.

김덕수: 행상들도 그 옆에 있었어요.

조: 옛날 사진을 보니까 물레방아가 있던데요. 그러면 그 옆에 다리는 전부 농악대원들이 걸립을 한 돈으로 놓은 것이군요. 다리가 완공되었을 때 흥겹게 노셨겠군요? 이 마을 분들이 흥이 있으셨군요?

김: 그럼요. 아, 유명했었어요. “여기 와서는 노는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동네 와서는요.

조: 그러니까 어르신 말씀하신 대로 다리를 놓기 위해서 했던 걸립, 그리고 뱃고사 지낼 때 이제 배내릴 때 하는 농악이 있었군요.

김: 가끔 농촌으로 다니면서 이제 집고사를 했어요. 정초에는 주로 그런 거를 많이 했어요.

조: 대보름 전후하여 고사 걸립을 하셨겠군요?

김: 그러니까 어디루 나갈 때는 여기 서낭당에 가서 서낭굿을 치고 나가구, 또 다리를 새로 났거나 다리를 갈 때는 다리굿을 치고, 가다가 우물이 나오면 우물굿을 치구, 이제 농악이 돈 벌러 나갈 때는. 서낭님한테 가서는 “서낭님 서낭님 동네밖에 서낭님” 이제 그 양반 최경수 씨가 이제 뽕과리를 치는데 꼭 사람 말하는 것처럼 하지요. 뽕과리 소리가 꼭 그렇게 들려요. 그리고 이제 우물굿을 칠 때는 따로 치고, 다리굿을 칠 때는 “다리다리 잘났다 다리다리 잘났다 칠렁칠렁 건너라 칠렁칠렁 건너라” 그 아주 사연이 많더군요. 출렁출렁이 아니고 칠렁칠렁하더군요.

조: 서낭당은 지금도 있습니까? 집이 있습니까?

김: 나무인데요. 죽었어요. 돌아가셨잖아요. 소나무인데요.

조: 몇 년 썸 된 나무인가요?

김: 우리가 보기에는 몇 백년 된 것 같지요.

조: 서낭당 제사를 언제 지내시나요?

김: 3월달 9월달, 3월 3일하고 9월 9일 지내요. 네 시나 다섯 시쯤 지내요. 저녁에. 초헌관은 부락 통장이고, 우리들은 제관이지요. 도가는 통장이 생기를 봐서, 두 부부가 생기가 맞으면 그 집이 도가를 하지요.

조: 그러면 유건을 쓰거나 도포나 두루마기를 입나요?

김: 그전에는 다 했어요. 도포같은 것은 입는 사람도 있어요. 옛날 어른들이 쓰신 축문도 있었어요.

조: 그러면 그 서낭당 소나무 아래 제물을 차려놓고 초헌, 아헌, 종헌하고 축문 읽고 흘기외우고 그러셨겠네요? 거기서도 농악을 하셨나요?

김: 아니요. 그때는 농악을 안했어요. 축문을 읽고 집집마다의 소지를 올려주고요.

조: 그러면 제물이나 그런 것들이 다른 서낭당제사와 다른 점이 있었나요? 특별히 어물이라든지. 소를 말이라고 하지요?

김: 옛날에는 소를 한 마리를 사지요. 도살장이 대포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통마리를 다 갖다놓고 제를 지내지요. 화소로만 쓰지요.

조: 그러면 황소만 쓰네요. 머리하고 다 사족을 쓰겠네요.

김: 그걸 갖다가 네발때기로 똑 갈라서 머리하고 다 갖다놓고 제사를 지내고 이제 다 타살을 해가지고 동네가 이제 팔십 집이면 팔십 몫을 저울로 달아서 생 길로 나누지요. 생고기를 놓고 제사를 지내니까요. 그걸 집에 가지고 가서 삶아먹지요.

조: 제관들은 제사가 끝나면 고대로 나누어서 음복하고 집집마다 제물을 봉하지요. 시루떡도 나누고 생고기도 나누어주고요.

김: 그래, 대포로 별신맞이하러 가는 날에는 서낭당에서 먼저 가서 하는데, 마을에서 제사지낼 때는 먼저 서낭당에 가마를 걸구 그걸 삶아 가지구 제사지내고 나서 안주 줌하고 국물도 골고루 나누어 줘요. 우선 우리가 음복하고 안주하기 위해서 삶는 거구요. 나누어 주는 것은 화소를 생고기로 나누어요.

조: 마을에서 농악대원이 외부로 나갈 때 서낭님을 모시는데 갔다 와서도 지냅니까?

김: 올 적에 들려서 오지요. “서낭님 다녀왔습니다”하고 인사를 드리지요.

조: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은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김: 뭐, 이제 신세대들은 안하지요. 농악대가 없어지면서 안하고, 마을 제사는 지내요.

조: 제사를 지내려면 비용은 걸립을 하시나요?

김: 그러니까 유교식으로 하는데 호구당 얼마씩 걷지요. 그 전에 옛날에는 제전이 있었는데 그걸 팔아가시고서는 회관도 짓고 했어요. 우리 공동논에서 나오는 수확으로 통장 수고비도 주고 제사도 지냈는데 팔아서 회관을 지었어요. 동네논이 천사백 평이 있었어요. 삼환아파트 있는 거기에요.

조: 이곳 소야뜰에는 소야팔경이 있던데요? 온정조하, 청호마경 등이 있는데 이곳은 농사가 중심이지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상쇠셨으니까 자연스럽게 농악을 들으셨겠네요?

김: 그런 걸 지금 같으면 귀담아 들었겠지만 땡기니깐 만날 놀러만 땡기는 줄 알았지요. 난 농사밖에 아는 게 없어요. 사람만이 피이는데는 농악이 제일이에요.

조: 마을에서 삼월 삼진과 구월 구일 제사 때에는 농악을 안치고 정초에서 대보름 사이에 걸립농악을 치시고, 다리 놓을 때는 다리굿을 치고, 그리고 배를 이제 내릴 때 가서 뱃고사를 지내지요. 그 뱃고사 놀 때는 어떻게 노시나요?

김: 농악 치고 그러는데 그거는 무동이 가서 춤을 추고 이리는 건 아니고, 무동은 없고, 약사들하고 앞에서 고사 올리는 양반하고, 배 앞에 제물을 차려놓지요. 거기서 고사를 지내고 한바탕 놀지요.

조: 놀 때는 배 위에 올라가지 않지요?

김: 발동선 큰 배는 그 위에 올라서 빙빙 돌아 땡기면서 농악 놀더라고요.

조: 그 위에서 장단은 신나게 치겠네요?

김: 이런 데서 치는 거는 질꾸내기나 삼채덩덕궁이 같은 거를 치고



그러지요.

조: 질꾸내기는 행진할 때 치는 거고, 삼채덩덕궁이는 흥겹게 놀 때 치지요.

김: 한참 흥겹게 놀 때 삼채덩덕궁이를 치지요. 황덕굿이라고도 하고, 사방 모여서 신나게 치고 놀지요.

조: 농악대 복색은 어떻던가요?

김: 상모도 쓰고 무동은 고깔을 쓰고요. 상모는 병거지 꼬랭이를 달고, 약사들은 상모위에다가 꽃만 달고, 인제 벽구쟁이는 한 발씩 되는 콩지를 달지요.

조: 그걸 채상이라 그러지요?

김: 여기는 ‘병거지꼬리’라 그래요.

조: 다른 데서는 ‘떡상’이라서 해서 수술같은 것이 앞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김: 여긴 거냥 꽃만 달지.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움직이는 건 없어요.

조: 꽃의 색깔이 어떻던가요?

김: 그러니깐 하얀 것에다가 끝에는 발그레하게 장미꽃 모양(모양)으로 하지요. 전부다 그전에 하마 어디루 간다하면 그걸 며칠씩 맨 들어요. 신문지를 인제, 그때는 종이가 귀하니까 어디 댕기며 문종이 뜯어놓은 거, 신문지 이런 거를 전부 물에다 불궂가지고 풀에다 이렇게 섞어 식기를 요렇게 얹어놓고 자꾸 이렇게 봉해 가

지구 며칠 말려 가지구 농민모자마냥 맨들지요. 그래 가에는 빨간 걸로 뽕 돌리게 하고 밑에는 새까만 거로 하고요. 위에 돌아가는 거는 박달낭그(나무)로 만들어요. 고걸 요렇게 깎지요. 맨드는 거 우리가 많이 봤지요. 자전거 체인줄로 엮어 실로 감아서 하지요. 만들라면 그거 뭐. 그래 식기 같은 거를 엮어놓고 마른 다음에 여길 구녕(구멍)을 뚫구 박달나무로 깎은 꼬쟁이 고걸 여기 박지. 박아가지고 요 밑에 구녕을 뚫고 빗장을 친다구. 이렇게 빠져나가지 않게. 지금처럼 보도를 박으면 되는데 그때는 그런게 없으니 이게 요만큼 나오면 요길 구녕을 뚫고서는 빗장을 친다구. 덜미꼭지에다가. 그래가지구 실을 양초를 매겨가지구 꼭지에다 칭칭감았지.

조: 상모는 이렇게 두 가지고요. 머리에 고깔을 쓰잖아요? 고깔은 누가 쓰나요?

김: 무동이 주로 많이 쓰지요.

조: 무동은 팔무동인가요?

김: 원래 팔무동 팔벽구인데, 여덟 명 더 되는 것 같더라구요.

조: 무동이 고깔에 꽃을 달잖아요? 몇 개나 달게 되나요?

김: 그러니까 하나 둘, 한 네 개를 달지요. 분홍색깔 약간 장미꽃 색깔처럼 그렇게하고, 꽃잎 위로는 빨그지하고 밑으로는 푸름하게 한다든가 하얗든지 그렇게 하드라구요.

조: 그걸 만들 때는 종이는 어떤 거를 쓰나요? 한지든가요?

김: 한지가 아니고 뭐 백노지 같은 거로 해요. 그걸 꼬불꼬불하게 만들자면, 지금은 그런 종이가 나오는지 몰라도, 그전에는 나무에다

쪽 이렇게 말아가지고 쪽 압축을 시키고 쪽 빼니까 쪼글쪼글하게 되더라구요. 끝에다 요기다가 물감을 들이고 자꾸 말아서 맨들더라구요. 나갈 어른들이 만드는데 보니까 그렇게 맨들드라고요. 고깔 바탕은 삼각형으로 지금 같으면 골판지 같으면 좋은데 없으니까 종이를 겹겹이 풀을 발라서 말려 가지구 이제 만들지요. 고깔 바탕은 흰 색깔이지요.

조: 그러면 복장은 어떤 것을 입었나요?

김: 그때는 한복을 입었지요. 바지저고리, 광목이지요. 옛날 50년대 찍은 사진에 보면 나와요. 끈은 파란끈, 빨간끈, 띠는 노르한 거 하고, 신발은 운동화 같은 거 신고, 행전 쳤어요.

조: 무동은 어떤 옷을 입나요? 아래위로 치마저고리를 입지 않나요?

김: 될 수 있으면 일괄로 한 색깔로 입드라구요. 그리고 띠를 두르고 쾌자를 걸쳐요.

조: 무동은 다 남자들이지요?

김: 옛날에는 남자로 다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부인들이 하지요. 우리가 삼척갈 때는 부인들이 많이 갔지요.

조: 등장하는 악사부터 말해볼까요?

김: 상쇠, 부쇠, 그러니까 상쇠는 하나지만 부쇠는 세 사람도 할 수 있고, 부쇠 뭐 주로 농악노는 거는 상쇠는 쇠머리만 딱 잡아주면 데리고 노는 거는 부쇠가 짝 데리고 놀아요. 십자도 하고, 베 비는 것도 하고, 뭐 탈곡하는 것도 하고 짐(김)매는 것도 하고 시키는 거는 상쇠는 쇠꼭지만 눌러주고는 그 데리고 움직이는 거는 부쇠가 짝 하지. 실은 부쇠가 기술이 더 좋지. 하하하

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농사놀이가 많네요. 김매고 하는 등 농사하는 과정을 노시잖아요. 김맬 때는 김매는 흥내를 내시나요?

김: 주로 농사놀이지요. 김맬 때는 김매는 흥내 내고, 베 빌 때는 베비는 흥내 내고, 또 탈곡할 때는 탈곡하는 흥내 내고, 손으로 짚단 내던지는 흥내를 내고 그러지요.

조: 우리가 동고리받기라고 그러잖아요. 태우는 거요? 삼동고리나 오동고리를 했나요?

김: 예전에는 했어요. 삼동고리까지 했어요. 밑에 들어서 있고 위에 한 명 올라서고 그 위에 조그만 애가 올라가요. 상모는 위에서 못 돌렸어요.

조: 열두발 상모도 돌리셨나요?

김: 옛날에 여기 열두발 상모가 있었어요. 그 양반들 이름도 다 잊어버렸어요.

조: 보셨을 때 질꼬내기 치고 가서 마을에서 걸립농악을 할 때 상쇠가 있고 부쇠가 있고 그담에 징이 있었지요?

김: 징도 여기 두어 개 있지요. 장구도 두 서너 개씩 있고, 그담에 벅구도 팔벅구하고 소고도 여덟명, 무동도 여덟 명이예요.

조: 농악대 끝에 잡색이라고 탈 쓰고 나오는 인물이 있나요?

김: 그걸 ‘화동’이라 그래요. ‘화동’ 아주 웃기는 사람. 영감님처럼 하나요. 한 명 있어요. 수염만 쓰고 가면은 안 써요. 양반을 만들었는데 그걸 옛날에는 ‘화둥이’ ‘화댕이’라 그랬어요. 아주 사투리지

요.

조: 그 답에 벽구라 그러나요? 벽구쟁이 그러나요?

김: 벽구쟁이 그래요. 상벽구, 벽구쟁이, 무동(무동) 그래요.

조: 무동을 무동, 속초사투리인데요. 제일 기억 남는 놀이가 뭐가 있었나요?

김: 그러니까 주로 농사과정을 하는 것이 재미있지. 우리가 또 알고, 하는 일이고 하니까 그런거 하면 아 그게 재미있다 하지요.

조: 김매는 과정에서는 김매는소리 같은 것도 하나요?

김: 근데 여기는 미나리 같은 거 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오독떼기나 미나리하는 사람이 우리 동네는 지금 드물어요. 그 양반들이 다 작고하셨어요. 윤석이 할머니, 동훈이 할아버지가 좀 잘했나요? 우리두 그걸 좀 따라하다가 못했어요.

조: 김멜 때 메나리나 오독떼기를 농사할 때 김매는 소리를 하잖아요. 그러니 농악할 때 농사놀이하면 소리를 하나요?

김: 소리하는 양반들이 있어서 그때는 했어요.

조: 놀이 중간에 소리가 들어가지요. 마댕이소리도 하지요. “에헤 마댕이야” 그러지요.

김: 그래 인제 농악이 놀다가 상쇠가 쇠꼭지를 바꿔주지요. 그러면 부쇠가 그걸 따라서 치지요. 쇠를 치며 노는 사람들이 사채덩덕궁이 같은 거를 치면 신나게 마을사람들이 덤벼들어서 같이 놀지요.

조: 농사놀이 말고도 진놀이가 있잖아요?

김: 십자가 그리는 거, 글 새기는 것도 하더라구요. 글은 대한독립만세 이런 걸 그때 보니까 하더라구요. 근데 그게 사람이 일루 갔다 절루 갔다 볍아치니까 제자리를 못 찾아서 빙빙 돌아치구. 골뱅이 하고 그랬어요.

[구술조사2]

- 조사일시 : 2008년 1월 31일 오전 11시~오후 1시
- 조사장소 : 속초시 노학동 도리원마을회관
- 조사자 : 장정룡
- 제보자 : 양춘석(남.65), 김동섭(남.75), 장기순(남.62), 최식중(남.71)

(이하 조사자는 ‘조’ 제보자는 성씨만 기록한다)

조: 이름과 주소가 어떻게 되나요?

양: 양춘석, 속초시 노학동 147번지, 여기서 태어나가지고 여태껏 살지요. 아버지도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살았어요. 양양 가래피 양씨지요. 남원 양씨.

조: 남원 양씨지요. 가래피가 어디예요?

양: 양양 오색리, 동네 이름.

조: 농악을 처음 몇 살 때 했어요?

양: 초등학교 졸업하자 배웠어요. 온정초등학교, 거기 그전에는 설악국민학교였어요. 설악초등학교 3회예요.

조: 설악국민학교는 옛날 주봉초등학교 아니예요?

양: 그거는 도문에 있고, 설악국민학교였어요. 도문으로 넘어가고 여긴 온정초등학교가 되었어요.

조: 동네에서 농악할 때 무슨 역할을 하셨나요?

양: 처음에는 무동하다가 그 담에는 벽구. 계속 벽구쟁이했어요.

조: 벽구는 누구한테 배웠어요?

김: 지도는 성만이 아버지 이설기 씨가 했어요.

양: 나는 하나 가지고 와서 집에서 댜에서 상모 돌리는 거 혼자서 배웠어요.

조: 상모 돌리는 거를 혼자서 연습하셨군요.

양: 내가 배울라고 욕심을 썼기 때문에 댜이 넓으니까 혼자 했어요.

김: 이 양반 형도 했어요.

조: 형님 성함을 어떻게 되세요?

양: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양홍석이에요.

김: 두 형제가 같이 벽구를 했어요. 상모는 한지를 이렇게 파가지고 요렇게 돌려서 가에 돌려요. 그래서 묶어놨지요.

조: 그러면 농악을 어려서부터 배웠잖아요. 예전에 상쇠를 누가 하셨어요?

양: 이설기 씨가 상쇠를 했어요. 그 양반이 했어요. 엄상원 씨가 부쇠를 하고, 그러다가 그 양반들이 다 작고하니까 상쇠를 했어요.

조: 그럼 계속 벽구만 했나요?

양: 그럼요. 첫 번째 한 일년은 무동하고 그 담부터는 벽구를 했어요.

조: 벽구를 어떻게 했어요?

양: 그걸 돌리게 되면 자연히 돌아가게 되었어요. 병거지만 돌렸어요.

조: 농악놀 때 벽구가 하는 장면이 어떤 게 있나요?

양: 많지요. 그걸 델라면 많지요. 아까 그 말따나 김매고 벼베고 그럴 때 하던 게 자연히 쇠만 들으면 뭘 한다는 걸 알지요.

조: 그러면 초등학교 때 하고 60년대까지 하셨나요?

양: 시 승격하고 할 때 했고, 80년대까지 했어요.

조: 그전 노학동에 몇 개 지역이 있는데 도리원이 있고 이목리, 척산, 노리, 응골, 학사평 등 아홉 개 부락이 있었다고 하는데 주변에 다 농악이 있었나요?

양: 없었어요. 이 동네 밖에 없었어요. 도리원만 있어요. 노학동 대표로 도리원이 나갔어요. 정월대보름날 되면 노학동 짝 돌아 댕겨요. 돈벌이 댕기러. 고사 드려주면 쌀 주고, 쌀하고 말에 돈 올려놓고 실 올려놓고 그래요.

조: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설기 씨가 여기 오기 전부터 노학동에서 농악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일제시대 초기인가요? 1910년쯤 되나요?



김: 그 양반이 강릉서 여기 들어오기 전인데, 내가 어려서 잘 모르지만, 그전에 하마 농악을 했거든요.

조: 그러면 구한말에 시작했나요? 언제부터 했다고 할 수 있나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농악역사는 한 백년쯤 되겠군요. 그러면 벽구쟁이 할 때 동구리도 했나요?

양: 그건 안 해봤어요.

조: 그러면 상모도 만들어봤나요?

양: 만들었지요. 개인으로 가지고 와서 했지요.

김: 여기 와서 여럿이 만들어요. 시영이 아버지가 와서 만들었는데 그 양반이 선생이야. 다 만들어서 주면 가지고 가서 했지.

조: 시영이 아버님 성함은 어떻게 되나요?

김: 이호영 씨인데 그 양반들이 나이가 많은데, 김세열 씨가 만들었어요. 그 양반들이 상쇠도 하고 상벅구도 하고, 북도 만들었어요.

조: 이호영 씨가 상모도 만들고 그랬군요?

김: 그 양반들이 만들어서 자급자족했어요.

조: 예전에 농악하시던 분들이 이호영 씨, 김세열 씨, 엄상원 씨가 있는데요. 아버님도 같이 하셨나요?

김: 우리 아버님(김경대)은 이 양반들 그 전에 했지요. 이설기 그 양반들하고 같이 했어요.

조: 그러면 도리원 농악 1세대 주축이 김경대, 이설기, 최경수 씨가 되겠네요. 2세대는 이호열, 김세열, 엄상원, 양춘석 씨가 되겠군요. 그러면 지금 하시는 분들이 3세대 되겠네요.

김: 장구, 북, 소고 만드는 쇠가죽을 어디서 가져 오냐면 서낭제사 지낼 때 소를 잡거든요. 그 소 껍질을 거기다 주지 않고, 우리가 갖다가 집에서 말려서 제작하여 소고도 만들고 했어요. 김주섭 그분이 북을 만들었어요. 살았으면 한 백세 되었어요. 그분이 경을 했어요. 북술. 그걸 했어요. 그래 그 양반이 북도 잘 맨들고 이 농악에도 좋아하고, 힘도 장사고. 쌀도 잘 줘어지구 그랬어요.

조: 김주섭이란 분이 살았으면 백살이 넘지요. 경쟁이란 말이지요. 마을에 일이 있으면 경을 읽어주고 그랬지요. 이 분도 농악대원인가요?

김: 그럼요.

조: 오늘 예전 농악대원 여러분 이름이 나오네요. 이호영, 김세열, 양홍석, 김주섭 이런 분들이 나오네요.

김: 거기에 김종대, 이호춘 이 양반들이 벽구예요. 이 양반이 끝벽구예요.

조: 혹시 무동하시 던 분이 계신가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장: 장기순이에요. 육십 둘이에요.

조: 태생이 여기신가요? 무동을 하셨다구요. 몇 살 때 처음 하셨어요?

장: 어렸을 때 했어요. 열 대 여섯살 때 했어요.

조: 그러면 초등학교 때인가요?

장: 아, 졸업했지요. 집에 있을 때지요.

조: 무동을 어떤 동기로 시작하셨나요?

장: 그때 동네에서 농악을 하는데 안하면 안 되잖아요. 어른들이 붙잡아서 끝무동으로 시작했어요. 저기 저 양반(최식중)이 상무동을 했어요.

조: 무동도 춤사위가 있잖아요? 손바닥을 뒤집는다든지. 어떻게 했어요?

장: 이렇게 하라고 어른들이 시키면 그대로 했어요.

조: 그러면 어디어디 가서 농악하셨어요?

장: 복골, 장재터, 이 시내를 다 했어요. 음력설 쟤다 하면 정월달 내로 돌아댱겨요. 척산 뭐 절로 다녀요. 청대리고 뭐고. 그때는 뭐 차가 있나 밤중에 왔지, 걸어서 열두시 넘어서 들어오지요.

김: 집에 있어보면 저기서 농악 치면서 와요. 우하고 나가보면 대단하지요.

장: 그래서 쌀을 벌면 동네로 짊어지고 오는 사람이 따로 있지요. 질꾼이 따로 있어요.

조: 그러면 한번 가면 쌀이 얼마나 걸히나요? 한 가마니씩 걸나요?

장: 아유, 한가마니가 뭐예요. 몇 가마니 썩이예요. 한 집에서 한 말씩 내놓으니까요. 그러면 집집마다 고사 드려 줘야 되요. 그러면 돈

내놓고 실 한뭉텅이 내놓는 집도 있어요.

김: 자손들의 명이 길게 해달라고 실을 내놓아요. 쌀은 말에다 수북하게 내놓아요.

장: 한번 나가면 쌀 열댓 말씩 거둬가지고 와요. 집에 가면 부엌에 가서 신에게 쳐달라고 해서 치구 또 똥에 가서 치구, 마당에서 치구 그래요. 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조: 그때는 무동도 같이 따라 다니나요?

장: 그럼요. 같이 따라 다녀요. 쌀받고, 돈받고, 상에다 놓으면 받는 거는 무동이 받아요. 증(징)에다 받아요.

김: 제일 꼬마무동 끝무동이 재롱스러우니까 가서 징을 가지고 가면 쌀을 거기다 주지요.

조: 그러면 농악대에 상쇠도 있지만 이런 것을 관리하고 적고, 쌀을 걷는 사람이 있나요? 대방, 영좌 이런 직함이 있나요?

김: 총무가 있지요. 해영이 아버지가 그걸 했잖아요. 맨 앞에서 가면 서 마을 구장한테 가든지 동네 좌장한테 가서 “우리 도리원 농악대가 들어왔으니 잘 부탁한다”고 앞에 가서 말을 하는 사람을 가지고 ‘질라래비’라 그래요. “질(길)을 알으켜서 데리고 간다” 그런 뜻이에요.

조: 이런 말이 중요한데요. 일종의 총무지요?

김: 질을 가르켜서 데리고 간다는 뜻이지요. 지금 말하자면 안내자지요. 쌀이 얼마나오고, 한갑수 그 양반 말대로 순수한 조선말이에요.

조: 농악대를 초청하잖아요. 그러면 가서 섭외를 하는데 그 역할 하는 분을 ‘질라래비’라 했지요. 그것을 누가 잘 하셨어요?

김: 그 양반들이 다 돌아가셨어요. 해영이 아버지, 이계춘 씨가 있었어요. 아는 사람이 많아야 해요.

조: 질라래비는 농악을 안하지요?

김: 그럼요. 어디로 간다고 안내하지요. 안면이 많은 분이 하지요.

조: 끝무동하실 때가 몇 세였어요?

장: 한 열 다섯 여섯 살쯤 되었어요. 어떤 때는 저물면 거기서 자고 오는 때도 있어요. 저물면 자요.

조: 어느 마을에 가서서 자고 왔나요?

장: 복골 가서 잤어요. 많아요. 거진 가서 일주일 썩 있고요. 동네에서 다 해줘요. 진종일 해요. 아침에 나가서 술 먹고 떡 주면 떡 먹고, 정월달 되니까 영동 때까지 해요.

조: 영등날이 이월초하루잖아요?

김: 영동 올라가는 이월 십오일까지 해요. 초하루가 영등오는 날이지요. 초하루날 바람님이 오고, 보름에 가지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해요. 대부분 정월보름부터 영등날까지 배타는 사람들이 초청을 해요. 고사를 해요. 속초시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어요. 거진도 갔어요.

조: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최: 최식중입니다. 나이는 칠십 하나요. 여기서 나서 여기에 현재까지 있어요. 나팔부는 최경수 그 양반이 고사를 잘 드립니다. 그전에 왜정 때부터 해가지구, 우리가 그때는 잘 모르지만, 이걸루 해서 돈벌어가지고 요 앞에 청대리 건너가는 그 다리 그거 놓구요. 그담부터 여기서 버는 거는 지지한거는 우리 부락에 많이 해냈습니다. 상여도 만들고 곳집도 새로 지었지요. 걸립해서 지었어요.

조: 지금도 상여가 나갑니까? 이 마을에서 언제까지 나갔나요?

최: 아, 지금은 없어요. 우리가 여기 보지만은 한 오년 전까지 상여가 나간 집이 더러 있어요. 왜냐하면 나팔부는 그 양반이 고사를 잘 드려서 아주 대우를 잘 받아서 영등지역에서는 일등이에요. 나팔 잘 불지요, 고사 잘 지내지요. 속초부듯가에 가면 살풀이라고 있어요. 가정에 살풀이라는 거는 원래가 열 두 살풀인데 그걸 싹 풀어줘요. 그리구 인제 그것도 돈 나오는 것이 있어요. 고걸 봐서 힘을 많이 주지요. 물에 빠져 죽었다하면 배타는 살풀이, 산에 가서 하는 살풀이 다 틀려요.

조: 그러면 농악대에서 상무동 하셨지요?

최: 아니래요, 상무동 하신 분은 죽었지요. 나보다 나이 더 먹었으니까 내가 두 번째 섰지요. 고기에 돌아가신 분은 윤기준 씨예요.

조: 그러면 몇 세에 무동을 하셨나요?

최: 열 일곱 살부터 했어요. 무동만 했어요. 탄 거는 안했어요. 하다가 결혼하고 먹고 살다가 공사일 다니고, 명절 때 대부분 일월달과 이월달에 하거든요. 그때는 공사판도 없으니까 그래서 한 사십 살까지 했어요. 그전에 다친 것이 있어서 춤을 못 춰요.

조: 무동춤의 특징은 무엇이 있습니까?

최: 내가 볼썽에는 무동춤이라는 거는 손바닥을 이렇게 하구 이렇게 하구 하는데, 이렇게 손바닥을 벌릴 때는 상대방의 행복을 찾구, 그 답에 이렇게 하는 거는 여기 들어온 행복을 여러 사람과 같이 누리자, 이렇게 안을 때는 여럿이 행복을 같이하자는 그런 뜻이라고 하더라구요. 그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그렇게만 알았지요. 그래서 손을 뻗쳐 가지구 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요. 발은 앞으로 요렇게 요렇게 잘랑잘랑하지요.

조: 뛰어 가면서도 하잖아요?

최: 그게 덕거리춤이라고 있어요. 덕거리는 번개질하고 옆에 나팔 불고 하면 무동들은 안에 들어가서 춤을 추고 벽구잡이들도 안에서 하고 그럴 때는 덕거리춤 막춤을 추지요. 관람객들을 웃기기도 하구.

조: 덕거리춤이라고 했나요?

최: 그런 거는 막거리춤이지요. 막거리춤, 덕거리춤이라고도 하지요. 이렇게 무동들이 추지요.

조: 무동들이 소매자락 가지고 이렇게 흔들면서 추던데요?

최: 옷끄네기가 요렇게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첫 번에는 가위로 요렇게 요렇게 흔들고 찰랑찰랑하지요. 손은 인제 그다음부터 ‘깡깡깡 자작 깡’하면 이렇게 하지요. 예쁘게 행복이 오라는 거지요. 막춤을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지요.

조: 농악대 무동이 끝에 따라오잖아요. 팔무동이지요?

최: 무동이 여덟이란 말이에요. 벽구잡이는 안에서 돌리고 나팔하고

북은 옆에서 하고, 북 장구를 때리면 우리가 그 안에서 놀지.

조: 농악놀이하던 때 옛날에 하신 어른들은 누구누구였나요?

최: 제일 우두머리 오야지가 이설기, 두 번째가 최경수 이 양반들은 한꺼번에 같이 했 거요. 거기 제일 주모자가 최경수지. 고사고 뒤편고 돈벌이는 그 양반이 다 벌은 거나 한가지지. 그 다음에는 북치고 장구 이런 거 만드는 데는 이(김)세열, 그 양반이 벽구잡이 거든, 벽구잡이 오야지, 병거지 돌리는 거. 고담에 저 아래 대영이 아버지라고, 그 양반 이름도 까져먹었네. 거기에 제일 어린 것이 벽구잡이 양춘석이. 벽구가 팔벽구니까 제일 귀여움 받았어요. 병거지도 잘 돌리고, 저 거진 가서 제일 대우 잘 받았지. 거진 어판장 부듯가 살풀이할 때 어판장 지을 때 대우 잘 받았어요. 거기서 봉포 다니며 일주일씩 있었어요. 배타는 사람들 집은 거진 다 갔어요. 배타는 사람들이 “우리집으로 가자”고 끌고 이렇게 선착순으로 부락책임자가 따라 다녀요.

조: 무동하시다가 벽구하셨나요?

최: 그렇지요. 귀염 받았지요. 대부분 팔무동 팔벽구 그래요. 여기는 장구잡이가 셋, 북이 둘이고, 그 담에 날라리, 팽과리가 서이고, 징이 하나, 벽구가 팔 명, 무동 팔 명 그렇지요. 그담에 앞에 주선자가 두 명, 안내자가 두 명이 질라잡이, 화뎡이가 한 명, 기수는 따로 있지요. 그 사람은 깃발만 들고 다녀요. 그 사람이 제일 힘들어요. 바람불면 깃발 들고 다니면 애먹어요.

조: 서낭대도 있지요?

최: 서낭대는 왕대로 만들어요. 깃발 들고, 한 사람은 서낭대 들어요. 그러니 두 사람이 들지요.



조: 한 사람이 든 것은 ‘농자천하지대본’이라고 쓴 것을 들지요?

최: 서낭대는 대나무에 깃발을 달지요. 삼베를 한 발 정도로 해서 거기에 달지요. 그전에 그랬어요. 지금은 모르지만, 왕대에 이파리 댓개 달린 거에 삼베를 걸고, 한지도 달아요. 주렁주렁 달지요.

조: 그러면 그 당시에 무동하신 분들 성함을 기억하세요?

최: 그때 윤기준, 나 그담에 장기순, 이름을 다 까져먹었네. 다 죽었어요. 여자들이 또 있다구. 무동은 대부분 여자들이 했어요. 옛날에는 남자가 했는데 남자도 팔 명, 여자도 팔 명 되었어요. 우리가 할 적에는 여자들이 했어요. 강릉갈 적에 여자들이 했어요.

조: 강릉갈 때가 언제였나요? 단오제 때 가셨나요? 아니면?

최: 오래 되었지요. 연도수가 오래되었어요. 강릉 저 주문진 사임당 거기 갔다오고. 팔일오 경축할 때 양양이고 거기에 갔고. 그전에는 속초에 팔일오 해방경축으로 여기서 시합을 하면 강릉에서 오고 고성에서 오고 양양에서 오는데 일구 거기서 했는데 농악시합을 했어요. 거기서 도리원이 최고 일등을 했어요. 팔일오 해방 때, 해방 기념으로 인공 때부터 했어요. 축구경기, 운동회예요. 거기에서 농악경연을 했어요. 그전에 일구시장이거든. 독립병원 있던 자리 그 앞에 바닷가에. 영랑동이 거기가 중심이에요. 고 밑에 시장이거든. 바닷가 거기, 부둣가 거기에서 했어요. 팔일오 해방을 경축하는 뜻에서 농악도 하고, 씨름도 하고, 축구도 하고, 운동회를 했어요.

조: 거기서 농악대회를 했다는 말이지요? 어디서 왔나요?

최: 강릉도 오구, 북평도 오구, 양양도 오구, 주문진에서 오구.

조: 누가 심사를 했나요?

최: 그전에 여기가 면사무소잖아. 면사무소에서 나와서 심사를 했지.

조: 그러면 상장도 받으셨겠네요?

최: 그럼, 그게 불타가지고 다 없어졌지요. 일등을 했어요. 상타가지고  
그날 밤새 놀았어요.

조: 그때 사진이 없으세요?

최: 불이 나고 그래서 다 없어졌어요.

조: 고사하시는 분이 없으신가요?

김: 지금은 없어요. 옛날 양반들이 하는 거를 들었지요. 그전에 그러  
드라구. 저 신기네 아버지가 고사드릴 때 “울긋불긋 대추차지다.  
도리깨작지로 넘겨다 쳐라” 그러더라구. “찰벼는 웃벼는 내 벼는  
아랫논이고, 아들을 낳으면 효자고 딸을 낳으면 용마고, 소를 낳  
으면은 우억부리요, 딸을 낳으면 열녀로다” 그랬어요. 그 양반에  
옛날에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 IV. 민속놀이이야기 마당

속초의 민속예술은 오랜 역사성과 문화적 독창성을 지니고 전승된 것이 많다. 민속놀이로 전승된 것 가운데 강원민속예술축제에 참가한 종목들은 다음과 같다.

- \*고풀이(1회, 1983년),
- \*만천동나룻배싸움(2회, 1984년),
- \*속초산대소리(3회, 1985년, 종합우수상 수상),
- \*속초뱃소리(4회, 1986년),
- \*속초든대질놀이(5회, 1987년),
- \*속초끝후릿소리(6회, 1988년),
- \*속초배다리수살굿(7회, 1989년),
- \*속초 밧독재 용왕수살굿(8회, 1990년),
- \*외옹치 군웅장군굿놀이(9회, 1991년),
- \*물치용왕굿용떡놀이(10회, 1992년),
- \*설악산신맛이놀이굿(11회, 1993년),
- \*신흥사범패(12회, 1994년),
- \*배다리수살굿(13회, 1995년),
- \*만천동나룻배싸움놀이(14회, 1996년),
- \*속초시 대포동뱃소리(15회, 1997년),
- \*속초도리원농악(16회, 1998년),
- \*든대질놀이(17회 1999년),
- \*물치 용왕굿용떡놀이(18회, 2000년),
- \*도리원농악(19회, 2001년),
- \*도문메나리농요(20회, 2003년, 종합최우수상 수상),
- \*속초도리원농악(21회, 2004년),
- \*속초도리원농악(22회, 2007년),
- \*속초도리원농악(23회, 2008년),
- \*속초북청사자놀음(24회, 2011년),

- \*속초북청사자놀이(25회, 2013년),
- \*속초북청사자놀이(26회, 2015년),
- \*속초사자놀이(26회, 2015년),
- \*속초도리원농악(27회, 2017년),
- \*속초도리원농악(28회, 2019년)



### 1. 논미호 불꽃놀이

청초호의 옛 이름이 ‘논미호’라 하였는데, 논미란 논산리(論山里)를 뜻한다. 논미호는 우리말로 ‘논미개’라고도 하며, 논산리의 앞 호수를 칭하는데, 조선시대 삼연 김창흡 선생이 지었다고 전하는 소야팔경 가운데 논산에 뜨는 아침 해, 논산의 아침 연기라는 뜻으로 ‘논산조양(論山朝陽)’ ‘논산조연’(論山朝煙)이 들어 있다.

옛 문헌에는 쌍성호(雙成湖)라 하였고, 이중환의 《택리지》에는 관동팔경 가운데 하나로 넣을 정도로 아름다운 석호(瀉湖)이다. 《증보문헌비고》에 의하면 둘리가 20리이며 수군만호영을 두고 병선을 정박했다고 한 것으로 보아 해양기지의 구실도 하였다. 맑고 푸른 물이 거울같이 깨끗하게 고여 있는 이 호수는 옛날부터 아름다움을 자랑하여

그 이름이 널리 알려졌다.

속초주민들은 겨울철에 청초호의 얼음이 언 것을 보고 새해의 풍흉을 점치기도 했는데 이것을 ‘용경(龍耕)’ 즉 이것을 ‘용갈이’라고도 부른다. 풍흉을 점치는 방법은 용이 남쪽을 향해서 갈아놓았으면 풍년, 북으로 향해서 엇갈이로 갈아놓았으면 흉년이 드는데, 남북으로 나누어 길흉과 풍년을 점친다는 것이다. 이러한 예로 조선조 홍석모의 《동국세시기》(1849년)에도 11월 초의 홍주 합덕지의 용경 풍속을 기록했다.

오래전부터 청초호수에서 아름다운 불꽃놀이가 행해졌다. 불꽃놀이는 한자로 ‘낙화유(落火遊)’라 하며, 청초호에서는 조선 숙종 때부터 행해졌다고 한다. 이 고을로 오는 수령을 맞이하여 환영석을 만들기 위해 주민들이 경축행사로 논피호에 꽃배를 띄우고, 호상에서 관기들이 풍악을 울리며 삼일동안 밤을 새우며 축하연을 베풀었다고 한다.

이러한 축하연회가 계속될 때 밤에는 널빤지에 숯불을 피워 호수 위에 띄우게 되므로 온통 호상이 불바다를 만들어 한층 더 흥을 돋우게 되었다. 이것을 구경하러 온 주민들도 호숫가 언덕에 모여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놀이와 잔치를 펼치고 즐기는 것이 논피호에서 이루어진 불꽃놀이였다.

불꽃놀이를 할 때에는 주민들이 호수 주위에 초롱불을 밝히고 함께 즐거워하고 뚝에서 주연을 베풀어서 놀았다고 한다. 이러한 축하연은 선정을 바라는 주민들의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으로 새로 부임한 지방관에서 민관일치의 우의를 보여준 것이며, 아름다운 청초호 물에 비친 불꽃놀이를 더하여, 화려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잘 보여준 것이다. 이 놀이가 중단된 것은 조선조 말엽 최종락 군수의 도입시 환영연 때 불꽃놀이 중에 배가 뒤집히는 바람에 폐지되었다고 전한다. 이 놀이가 다시 재현된 것은 1985년 제20회 설악문화제 민속경연 때 속초시 중앙동 주민들이 속초 고유의 민속놀이로 선보였다.

## 2. 외옹치 고틀이

속초는 동명항과 대포항 그리고 바다와 연결되어 있는 천혜의 청초호가 있어서 예부터 바다와 연관된 민속신앙이 전승되어 오고 있다. 속초시 대포동 외옹치(外瓮峙) 일명 밧독재 마을의 고틀이 민속은 1983년 6월 20일 원주에서 개최된 제1회 강원도 민속예술경연대회에 출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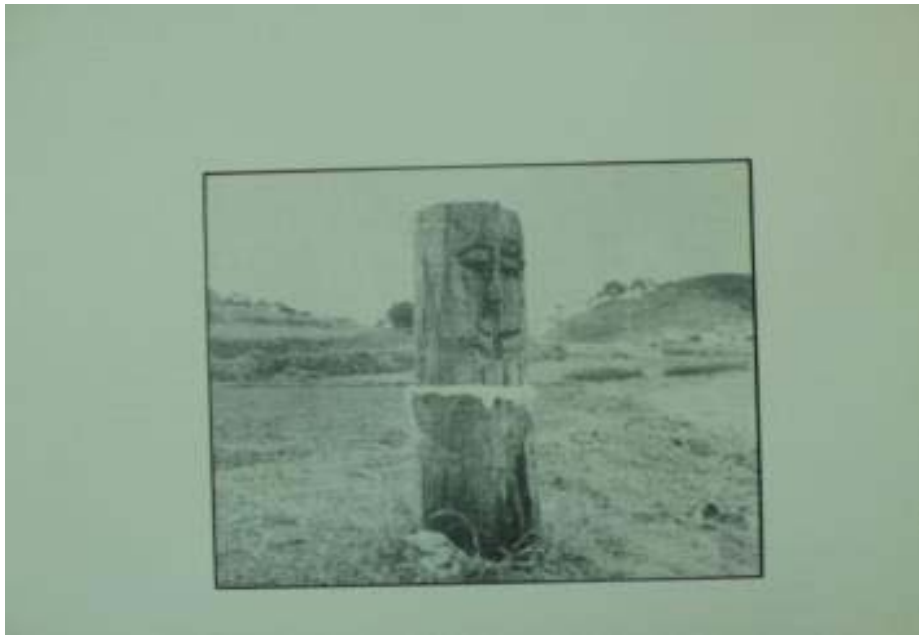
이 마을은 조선왕조 초기부터 마을 성황제가 거행되어 왔다고 하는데 대포동 외옹치는 옹치(瓮峙) 또는 옹진(瓮津)이라 하는데 외옹치는 밧독재, 독재는 독바우고개라 부르기도 한다.

마을의 성황제는 마을입구에 장승을 세우고 성황당에서 굿을 하며 바닷가에서 용왕에게 굿을 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오랫동안 대포동에 살고 있는 전영문, 서원순 씨 등의 고증으로 외옹치 고틀이가 재현되었는데 대포동 외옹치 마을은 역사적으로 해상을 지키던 수군본영이 있었기 때문에 마을이 번창했다. 풍어를 기원하고 해난 사고를 당한 어민의 영혼을 위로해온 성황굿은 마을이 번창하면서부터 열렸다.

외옹치 고틀이는 대개 길일을 택하여 연중 풍어를 기원한 풍어제와 더불어 예전부터 대포동을 중심으로 바다에서 사고를 당하여 죽은 혼을 건져 하늘로 올리는 위령제(慰靈祭)라 할 수 있는데 매년 음력 2월 달에 올려지곤 하였다. 무당들은 쾌자와 도포를 입고, 모자를 쓰고 머리에 흰색 꽃띠를 복색을 갖추어 입고, 손에 바라를 들고 굿을 하는데, 악사들은 갓을 쓰고 쾌자를 입었다.

이들은 성황당에서 굿을 하고, 성황당에 모셔진 위패를 모시고 바다로 내려간다. 바닷가에 와서는 다시 제단을 마련하고, 고기잡이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한 고틀들의 이름을 적은 지방(紙榜)을 써서 바닷가에 세워놓고 제사를 기내고 굿을 하여 고틀을 풀어주는데 외로운 고틀들의 영혼을 달래기 위한 굿을 하고, 극락의 길로 인도하는 이러한 민속신앙을 토대로 고틀이와 천도의식을 보여준 것이다.

외옹치 성황제는 매년 음력 3월과 9월에 시제를 올리며 풍어제는 3년마다 한 번씩 가을에 올린다. 지난해의 제주가 택일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제사일을 정하면, 그해의 제주가 부정을 타지 않은 사람을 제물을 장만하는 도가로 정한다. 이 도가에서 제사 집행자와 마을의 어른들이 모여 제사 비용을 결정한다. 도가에서는 목욕재계하고 쌀 3되로 신주를 담가 성황당 가까이에 묻고 금줄을 쳐서 외부부정을 막고 청결하게 준비한다. 사방 네 곳과 도가 앞에 열십(十)자형으로 황토를 뿌린다. 이때부터 제관, 제관, 도가에서는 외출을 삼가며, 잡인의 출입을 막고 근신한다.



한편 마을 어귀에 장승을 세우기 위해 마을의 장정들을 뽑아 산으로 보내서 알맞은 나무를 베어 도가까지 옮겨온다. 도가까지 나무를 메고 올 때는 신을 모시는 노래인 신가(神歌)를 부르고 잡귀를 쫓는다. 도가에서는 숫장승과 암장승을 정성들여 조각한다. 마을 풍어제가 베풀어지기 전날, 마을 북쪽 어귀에 장승을 세운다. 아침에 대장잡이를 선두로 제주와 제관이 앞장서고 무당이 뒤따라 숫장승으로 지신(地神)을 밟으며 가서 제사를 올리고 굿을 한다. 신대에 골매기성황님을 외치면 신내림을 받게 되고, 다시 암장승으로 몰려가서 숫장승 앞과 같이 똑

같은 제사를 하고 굿을 올린다. 암장승의 신내림을 받게 되면 장승제는 모두 끝이 난다. 앞수 두 장승을 모시고 산 위에는 성황당으로 올라가는데, 외용치의 성황당은 숫성황이기 때문에 암장승 신만을 안치한다. 이때 지신밟기로 흥을 돋운다.

성황당에서는 굿판이 벌어진다. 마을의 안녕과 질병의 예방, 주민들의 풍어와 부귀영화를 기원한다. 성황제는 사흘 밤낮으로 행해지며 제물은 황소 한 마리를 잡아서 통째로 바친다. 암소와 검은 소, 그리고 돼지는 제물로 쓰지 않는다. 시루떡 한 말, 삼색실과, 기타 제물을 차리며 쌀 한 말 중에서 3되를 신주를 담그고, 6되를 시루떡을 하고, 한 되로 메를 짓는다.

굿의 절차는 부정굿, 천왕굿(성황굿), 조상굿, 칠성산신굿, 세존굿, 장군군웅굿, 성주굿, 손님굿, 제면굿, 꽃굿, 등놀이굿, 뱃놀이굿 등의 12거리의 굿으로 성황제를 마친다. 외용치 고풀이에서는 천왕굿만 진행한다.

나흘째 되는 날 오시(午時)부터 용왕제가 펼쳐진다. 이때 제물은 새로 마련한 것을 차린다. 무당이 마을을 돌아다니며 집집이 소지를 올리고 복을 빌어준다. 동네의 대동소지를 올리는 것이 끝나면 바닷가로 나가서 죽은 어부의 혼을 위로하는 굿을 한다. 위령굿을 할 때는 무당이 바닷가로 나와 큰 원을 그리며 죽은 자의 영혼을 부르면서 춤을 춘다. 흰 천으로 죽은 자의 혼길을 내고, 이때 무당이 손에 연꽃을 들고 흰 천을 가르면서 죽은 어부의 혼을 위로하는 굿을 한다. 초혼굿과 춤이 절정을 이루면서 망자의 혼을 극락세계로 인도한다. 용왕굿, 거리굿, 오구굿 등으로 이어지는 용왕제는 이때 마을사람들의 맺힌 액을 풀어준다는 뜻으로 망자의 원한을 풀어주게 된다. 고풀이 과정은 장승세우기, 성황제, 용왕제로 구성되어 마을의 고유한 신앙제의가 마무리된다.



### 3. 만천동 나룻배싸움놀이

만천동은 속초 교동 서쪽 천주교회 부근을 일컫는 지명으로 만천호가 있다고 해서 ‘만천동(萬千洞)’이라 불렀다. 이곳에서는 매년 나룻배싸움놀이가 전승되어, 1984년 6월 18일 강릉에서 개최된 제2회 강원도 민속예술경연대회에 처음 출연하였다. 이후 1996년 제14회 강원도 민속예술경연대회에도 출연한 바 있다.

강원 영북지역에 속한 속초에는 관동팔경 가운데에도 들어가며 신라 화랑과도 연관된 청초호와 영랑호를 비롯한 많은 호수가 있어 호수위에서 행해지던 호상(湖上)민속들이 전한다.

한겨울에 되면 거울처럼 맑은 청초호가 얼게 되는데 그 얼음이 마치 갈아놓은 논두렁처럼 굴곡을 이룬다. 얼음 밑에 용이 기어가는 형상을 보이는데, 이 얼음의 굴곡을 ‘용갈이’ 한자로 ‘용경(龍耕)’이라 한다. 이 얼음의 모양을 보아서 다음해 농사가 잘되고 못되는가를 점치기도 하였다.

옛 구비전설에 의하면 청초호에는 숫룡이 살고 있었고, 영랑호에는 암룡이 살아서 서로 땅속으로 통한 물길을 따라 오가며 지냈다고 한다. 어느 날 한 어부의 실수로 큰불이 발생하여 청초호 주변의 솔밭을 태우게 되었다고 한다. 그 연기와 불길로 인하여 숫룡이 타죽고 말았다고 한다. 그때 영랑호에 살던 암룡이 크게 노하여 이 지역에 가뭄과 흉어로 별을 내렸다고 하며 만천동과 청대리 사이를 오가던 나룻배도 자주 사고가 났다고 한다.

이후에 어민들은 정월대보름날을 기하여 무당을 청하고 정성껏 기우제와 용신제를 지내 암룡을 달래고 숫룡의 죽음을 위로했다고 한다. 또한 이때에 만천동과 청대리를 오가던 나룻배의 무사고를 기원하는 뜻에서 한 쌍의 나룻배로 힘을 겨루는 놀이를 했다고 한다. 만천동 나룻배싸움의 민속은 이처럼 극적인 요소를 지녔다. 이 나룻배싸움놀이에서 진 마을 쪽은 술과 음식을 대접하고, 이긴 쪽 마을은 그해 풍어

와 대풍년을 거둔다고 믿었다. 경기 이후에는 나룻배를 타고 하루종일 노래와 춤을 추며 놀았다고 한다.

예전의 만천동 나루는 북으로 영랑호, 남으로 청대로 싸릿재를 이어 도문동으로 연결되었고 동쪽으로 대포동과 접했다. 나룻배싸움놀이의 과정과 진행절차를 보면 먼저 음력 정월대보름이 되면 마을사람들이 모여 용신제를 지낼 길일을 택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제주(祭主)와 제관은 목욕재계를 하고 부정을 금하는데, 동네 청년들을 중심으로 용신제를 올린다. 풍년과 풍어, 마을안녕을 기원하는 제를 올린 다음 나룻배를 타고 상대편 마을로 찾아가 동네 어른을 찾아서 인사를 한 다음 함께 음복을 한다. 서로 간의 인사가 끝나면 나룻배를 타고 각자 마을로 돌아와 나룻배에 신주(神酒)와 각종 제물을 차려 호수로 나간다. 호수에서는 음식을 멀리 뿌리며 고축을 하고 나룻배의 무사고를 기원한다. 이러한 의식이 끝나면 음식을 나누어 먹고 흥을 돋운 다음에 서로 힘겨루기를 한다. 양편의 나룻배를 타고 호수 한 가운데로 나가 배끼리 부딪쳐 상대편 마을로 밀고 나가면 이기게 된다. 상대의 힘에 밀려 나룻배가 되돌아오면 지게 되므로 힘껏 줄을 당기고 노를 젓거나 막대로 서로 밀게 된다.

이처럼 힘을 겨루어서 이기면 풍어를 약속받는다고 믿는다. 나룻배싸움놀이가 승패를 정하게 되면 승자와 패자를 구분하지 않고 두 마을의 청년들이 어울려 한마당 놀이판을 펼친다. 나룻배싸움에서 승리한 마을에서는 청년들의 임금을 올려주거나 도선료를 받지 않고 푸짐하게 대우를 해주었다고 한다.

만천동 나룻배싸움은 용신제와 나룻제로 나누어서 진행되는데, 용제는 두 마을에서 뽑은 제관과 제주들이 제상을 나룻배에 싣고 호수 가운데로 나오면서 시작된다. 나룻배싸움은 마을에서 결혼을 하여 가마를 타고 오다가 나룻배를 만나게 되어도 이와 같이 하는데 ‘혼레나룻배싸움’에서 이기면 신부가 첫아들을 낳는다고 하여 ‘가마싸움놀이’와 비슷한 형태로 진행된다.

만천동은 동군, 청대리는 서군으로 나누어 편을 갈라 경쟁하는 편전

(便戰) 형식으로 행해지는데 이러한 민속놀이는 줄다리기와 같이 풍요제의적 성격을 갖는다. 또한 나룻배 싸움을 할 경우에도 아들을 많이 낳아 기른 장정들을 뽑아 태우는 것도 이러한 상징성을 내포한다. 암수룡으로 상징되는 나룻배싸움은 결국 하나로 화합하기 위한 양파(兩派) 경쟁적 형식의 민속놀이로 서로의 갈등을 극복하고 화합하고 풍요를 기원하는 행사로 진행되었다.

만천동 나룻배싸움놀이는 전체 5마당으로 구성되었다.

첫째마당은 용제로서 두 마을의 제관과 마을 청년들이 숫룡과 암룡을 위무하는 용제를 지낸다.

둘째마당은 음복으로 상대마을을 찾아가 음복을 권하고 인사를 나눈다. 이후 각기 자기 마을로 돌아온다.

셋째마당은 뱃놀이이다. 장정을 뽑아 배에 태우고 이들이 나루터를 왕래하며 노래와 춤을 추면서 배의 무사고를 비는 의식을 행한다. 나루터 행사가 끝나면 마을로 돌아와 힘겨루기 준비를 한다.



넷째마당은 본격적인 뱃싸움이다. 징이 울리면 마을사람들의 환성이 울린다. 장정들은 서로 밀어 붙이며 일진일퇴를 거듭한다.

마지막 다섯째마당은 놀이마당으로 승패가 결정되면 이긴 쪽은 환호하고 패한 쪽은 한숨을 짓는다. 이어서 서로 화합하는 한마당 놀이가 마지막을 장식한다. 이것은 용선희(龍船戲)와 유사한 형태로 속초지역에서 행해진 민속놀이로 특징을 지닌다.

#### 4. 산대소리와 뱃소리

속초산대소리는 어로방식에서 부르는 ‘고기푸는소리’로서 1985년 6월 14일 속초에서 개최된 제3회 강원도 민속예술경연대회에 참가하였다. 동해안에 자리잡은 속초 앞바다는 좋은 어장이 형성되어 옛날부터 동명, 대포, 외옹치를 비롯하여 크고 작은 어촌이 자리잡고 있다. 이들 어촌에는 바다와 어업에 대한 많은 민속이 전하고 있는데, 특이한 민속들이 전승되고 있다.

또한 지리적으로 함경도 연안과 인접하여 여러 가지 어업과 어로에 대한 기술이 교차되어 또 다른 풍속을 남기고 있으며 그중 어부들의 힘든 조업을 극복하기 위해 부르는 뱃소리는 특이하다고 하겠다.

‘허리도리’(선소리꾼)을 중심으로 많은 어부들이 호흡을 맞추며 부른 뱃소리 가운데 가래소리와 산대소리는 가장 노동력의 일치와 소리의 예술성이 강조된 것으로 뱃소리의 극치를 이룬다. 바다에서 어로 및 조업풍습이 인력을 위주로 하다가 이제는 기계화가 됨에 따라 어로요도 점점 자취를 감추고 있다. 조상들의 공동작업을 통한 의지와 슬기를 보여주는 가래소리와 산대소리를 연출하였다.



속초뱃소리는 1986년 6월 14일 삼척에서 개최된 제4회 강원도 민속 예술경연대회에 참가하였다. 속초시는 지형상 강원도 영동 북부에 위치하고 있어 예로부터 함경도를 잇는 중요한 항포구가 발달하였다. 또한 근해어업이 주종을 이루어 선박의 소형화와 단조로운 어업에서 생긴 어업요를 가지고 있으나 함경도는 원해어업이 주종으로 자연 장기출어를 하게 되어 선박과 어구가 대형화되고 길고 구성진 어업요를 갖는 등 두 지방은 서로 다른 성격과 문화를 갖고 있으며, 이 두 문화를 수용하고 조화를 이룬 곳이 속초시이다. 속초시 뱃소리는 함경도 지방에서 이주한 어부와 이 지역에서 정착한 외옹치, 동산항, 주문진 등 어부들이 함께 어우러져 영동지방과 관북지방의 어부들이 부른 뱃소리를 연출하였다.



속초의 뱃소리는 지어소리, 다리어소리, 산대소리(가래소리), 베끼소리 등이 있는데 강원도식과 함경도식이 서로 습합되어 있다. 강원도식 뱃소리는 짜임새가 단순하면서도 소박한 것이 특징이고, 함경도식은 사설이 풍부하고 강하게 부른다.

속초뱃소리는 대포동과 청호동에 전승되는 소리로 구성된다. 뱃소리의 구성은 몇 소절을 제외하고 전형적인 것은 없고, 시대에 따라 변화되고 시조나 고사, 판소리, 패설 등을 사설로 삽입된 것이 나타난다. 미리 정해놓은 사설이 없는 정형성은 없고 평소 부르던 생활상의 이야기를 담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즉흥적으로 사설을 붙여서 부르는 것이 여타 농요와 다른 점이며, 대부분은 어부들의 희노애락을 담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지어소리 2/2박자의 경쾌하면서도 애조를 띤 가락이며, 다리어소리는 4/4박자의 전형적인 뱃소리로 매우 빠른 가락이다. 또 산대소리는 4/4박자의 정중하고 느린 가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베끼소리는 경쾌하고 사설이 풍부한 것이 특징이다.

첫째마당은 지어소리로서 배가 바다로 나가 항해할 때 노를 저으면서 부르는 소리다. ‘허리도리’라는 선창자가 먼저 노래하면 나머지 어부들이 후렴을 부른다.

“헝-헤 지어라 보구지 지어라 내자(후렴)/세월아 네월아 가지를 마라,

지어라 보구지 지어라 내자(후렴이하 생략)/알뜰한 청춘이 다 늙어간  
다, 지어라 내지/이팔청춘 그림도다/저달 보고 울지를 마라/간다더니  
왜 왔던가/기암기산에 왔던 걸음이/밝힌 잠이나 자구 가거라/자꾸 가구  
나 지어라 내지/가지만사를 생각하면/이 가슴에 불이 붙는다/오동추야  
달 밝은데/님의 생각이 절루만 난다/지어라 내자 지어라 내자/요차보자  
지어라내자/가자가자 빨리가자/이수건너 백로가자/백로함께 어서가자/  
조그마한 자라등에/크다하는 저달을 신고/우리고향 언젠가나/명사십리  
해당화야/꽃이진다 설위마라/명년춘삼월 호시절에/잎이피고 꽃이핀다/  
지어라보구지 지어라내자/님아님아 정든님아/요내가슴을 만져보아라/청  
청하늘에 별두나 많다/지어라보구 지어라내자”



둘째마당은 다리어소리이다. 이것은 그물을 당길 때 부르는 소리로서 역시 선후창으로 진행된다. 후렴은 ‘다리어’이다.

“구구청병 일인호야, 다리어(후렴, 이하생략)/부산이 등실 높이뻗다  
(후렴)/양국에 잣은안개/월봉으로 돌아든다/오월이라 단오날/양류속에  
그네매고/그네하는 요처녀야/한번굴러 앞줄높아/두번굴러 뒷줄높아/삼  
사번 굴러내니/녹수청산 자진토다/말없는 청산이요/태가없는 유수로다/  
값없는 청풍이요/임자없는 이몸이라/일락서산 해는지고/월출동산 달이



뻗네/간단간다 나는간다/임을두고 나는가네/내가가면 아주가나/아주간  
 다고 잇을소냐/가실적에 오다하더니/가고나니 그만이구나/우리부모 날  
 양할제/젓은자리 마른자리/이리저리 가려눕혀/이런고생 시킬려고/세살  
 적에 중이나졌으면/이런고상 없을텐데/금강산이 좋을시고/동해끼고 솟  
 은산이/일만이천 봉우리틀/구름같이 몰렸으니/천하명산 그어디냐/장안  
 사를 구경하고/만경대를 올라가니/마의태자 어디갔나/보고보고 암만봐  
 도/보배인들 배이어라”

대포항의 그물당기는 소리는 최종민 교수에 의해 수집되었는데, 정치  
 망 그물 당길 때 멀리서부터 차츰차츰 그물을 돌우고 죄여 가면 그물  
 속에 들어와 있던 고기들이 떠오르게 되는데 이것을 배에 산대로 퍼  
 담아가지고 온다. 이것을 ‘그물돌우기’라고도 한다. 대포항 그물돌우기  
 소리는 일본말로 되어 있다. “에이야라 마이다/에이야라 마이다/술근술  
 근 돌려보자/에이야라 마이다” 그물 당길 때 빠른 소리는 “에이야라 세  
 이/에이야라 세이”라고 하며 그물 조르기는 “소나에/소나에”라고 한다.

첫째 그물돌우기는 앞소리 다음에 뒷소리가 나오고

둘째 빠른 그물당기는 소리는 뒷소리가 채 끝나기전에 앞소리가 나오  
 면

세 번째 그물조르기는 세가지 악보로 ‘소나에’가 반복되면서 합창을 한  
 다.



이들 소리는 음계구성이 계명으로 읽으면 미·라·시·도·레·미이다. 이중 ‘시’는 ‘도’와 ‘라’사이에 끼어서 경과음으로만 사용되기 때문에 주요음으로 볼 수 없고 주요음은 미·라·도·레의 네음이고 이중에서 ‘라’는 시작음 종지음으로 가장 우세하다. 가사는 일본어로 되어 있어서 일제 강점기부터 전승된 것을 알 수 있다.<sup>221)</sup>

셋째마당은 산대소리이다. 산대는 고기를 퍼서 담은 어구인데, 고기를 담으면서 부른다. 장중하고 느린 선후창으로 진행된다. 채래식 어업에서는 가래소리, 태질소리라고 한다. 가사는 다음과 같다.

“에라소 가래소, 에라-소 가래로다(후렴이하 생략)/퍼실어보자/천안삼거리 능수버들/지뭇에젓어 축늘어졌다/이번 산대는 선주님 산대요/다음 산대는 망주님 산대요/다음 산대는 사공님 산대요/아가동자야 술부어라/매일장천 먹고나놀자/아니먹고 아니쓰면/왕장군이 고잘래야/춘추시절은 적막인데/개자추는 냇을 잃었다/산천초목은 젊어가는데/인간청춘 늙어간다/산도설고 물도 설은데/무엇하러 여기에 왔더냐/어떤 사람은 팔자가 좋아/고대광실 높은집에/살림큰애기 안고노는데/우리팔자는 기박

221) 장정룡, 《속초의 향토민속》 속초문화원, 1992, 91쪽

하여/이런 고상을 하는구나/푸른푸른 봄배추는/찬이슬 오기만 기다리고  
/옥에갠힌 춘향이는/이도령 오기만 기다린다/입자리 좋다/왕구성 풍세/  
셋별 늦요강이/사람간장 다죽인다/산수갑산 딱따구리는/참나무 구멍을  
뚫는데/우리저 멧텅구리는/뚫린 지구명도 못뚫는다/세상만사는 무과주  
요/술이나 먹고 놀아보자”

대포동 산대소리는 고기를 퍼올리면서 처음에는 “어이 어이”하면서 서  
로 숨소리를 맞추가지고 “야이 에에”로 들어간다. 노래는 제창으로 주  
요구성음은 ‘라·솔·미·도’이고 ‘레’는 ‘미’에서 ‘도’로 가는 도중의 경과음  
으로 쓰고 있는데 ‘시’는 장식음이다. 리듬은 규칙적인 4박자이다. “아  
이 에에 아이에이 야어꼬라-도꼬리/아이꼬라 도꼬/야어꼬라사 이다 도  
꼬라/아어꼬라 도꼬/야어꼬라 사이다 도꼬라/아이꼬라 도꼬”라며 일본  
어로 부른다.

넷째마당은 베끼소리이다. 그물에 걸린 고기를 벗겨낼 때 부른 소리  
다. 뒷소리가 끝나기전에 앞소리가 들어가는 형식으로 교창한다. 교창  
형식은 뒷소리가 끝나기 전에 앞소리가 들어가는 형식이다. 가사는 다  
음과 같다.

“해는지고 저문날에/베끼어라 보자(후렴, 이하생략)/고삐없는 소를농  
고/그소 찾기 망정이다/원수로다 원수로다/악마금전이 원수로다/손흔드  
는데는 밤에가구/동리술집은 낮에가구/얻어먹다 빌어먹다/집이란걸 지  
어노니/아들나면 효자나고/딸을 나면 열녀나고/소가나면 특소나고/닭이  
나면 봉황나고/개가나면 삼살개고/말이나면 용마로다/자지향이 황금출  
이요/개문향이 만복래라/동지선달 긴긴밤에/닭개는 잠자는데/우리팔자  
무슨팔자/이런 고생을 하느냐/이놈을 쥐면 저놈이 나오고/저놈을 쥐면  
이놈이 나온다/이럴 적에 기운을 내고/이럴적에 용기를 써라/원산내기  
찬바람은/취한 술이 절로 깬다/설악산내기 찬바람은/손발시려서 못살겠  
네/어이끼구 내자/어이가구 보자꾸나/이놈을 쥐면 저놈이 나오고/저놈  
을 쥐면 이놈이 나온다/첫날밤에 새식시벳기듯/이러저리 베껴보자/명주  
바지 작살이 걸리듯/대추나무 연줄걸리듯/이리저리 걸렸구나/그물터는  
동무들아/어서빨리 끝내놓고/동리술집에 화담하세”

## 5. 사진리 든대질놀이

든대질놀이는 사진리(장사동) 날바리땅에서 행한 어촌민속으로 1987년 6월 27일 홍천에서 개최된 제5회 강원도 민속예술경연대회에 출연하였다. 든대질놀이는 전용암, 박인성, 김형준, 김동성 씨 등 사진리 주민들의 고증으로 연출되었다. 동해안은 해안선이 완만하므로 몇 개의 항구가 있는 ‘개안’과 항구가 없는 ‘날바리땅’을 주축으로 어로작업을 한다. 속초에서 남쪽으로 양양 오산, 수산, 인구와 북쪽으로 고성군 봉포, 공현진, 문암, 가진 등에서는 날바리땅으로 이루어진 어촌이다.

속초에서는 유일하게 사진리가 대표적인 날바리땅으로 든대질로 배를 진수하고 끌어올린다. 날바리땅에서는 폭풍이 친다든지 해일이 일어나면 초를 다투어 배를 끌어올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거친 파도에 휩쓸려 파손되기 때문에 빠른 동작으로 든대질을 해야 한다. 그러나 평상시에는 여유있게 ‘허리도리’라는 선소리꾼의 유창하고 구성진 소리에 맞추어 흥겹게 뒷소리를 하면서 ‘든대’라는 막대를 가지고 든대질을 한다.

든대질소리는 속초의 뱃소리인 ‘지어소리’ ‘다리어소리’ ‘베끼소리’ ‘산대소리(가래소리)’와 같이 몇 소절을 제외하고는 정형적 내용은 없고, 상황에 따라 가변적 사설들이 삽입된다. 배를 처음 만들어 물에 띄우는 진수(進水) 때에 사람들은 “배 내린다”고 하고 무사고를 비는 기원제를 올린다. 기원제는 배에 술가지를 끝에 꽂은 대나무에 오색 만선기를 달고 뱃머리 즉 이물에 제물을 차린다. 제물은 술, 과일, 포, 돼지머리나 소머리를 장만하여 진설하고 제사를 지낸다.

첫 출어를 하게 되면 선주가 풍어와 무사고를 비는 고사를 하는데, 동해안에서는 첫 출어를 ‘설망’이라 부른다. 설망하는 날은 택일을 하여 좋은 날을 고르는데 고사를 지낸 후 배성주신을 모실 돈은 선주한테 받는다. ‘배성주’는 배를 지켜주는 신령으로 집안의 성주신과 같다. 배성주신의 표상은 한지를 한쪽 변이 약 10cm 되도록 모나게 여러 겹으로 접어서 왕돈 한 푼과 청홍실을 그 속에 넣어서 어부들이 잡자는 ‘방장’이나 ‘큰대명’ 즉 고기를 잡은 것을 담아두는 가장 큰 곳에 모신다. 배성주를 모실 때는 제물은 어물을 쓰기도 하고 육류를 쓰는데 함

께 놓지는 않는다고 한다.

선주가 제사를 진행하며 도사공인 선장은 제관이 된다. 성주기를 쫓고 드리는 고사가 끝나면 모든 선원은 도사공의 선소리에 맞추어 든대질을 하여 배가 물에 닿으면 선원이 노를 저어 떠나고 ‘따리(키)’를 잡은 도사공이 방향을 잡는다.

노를 저어 항포구를 떠나 바람을 만나면 돛을 올려 노젓기를 중단하고 짚단에 불을 붙여 뱃전을 들고 뒷고물을 휘두른 뒤 바다에 던져버린다. 이것은 ‘액막이’하는 것으로 벽사(辟邪)의 뜻이 있으며 삼재(三災:수재, 화재, 풍재)를 예방하기 위함이라 한다. 이렇게 한 후 목적지에 도착하면 본격적인 어로작업에 들어가게 된다.

이처럼 속초에서는 배를 바다로 옮기는 재래식 이동방식으로 든대질을 하는데, 든대는 참나무나 소나무로 만들어 배를 들어 올릴 수 있는 지렛대와 같은 긴 막대기를 말한다. ‘든대’는 ‘드는 대’라는 뜻으로 볼 수 있고, ‘질’은 행위를 뜻하는 ‘짓’과 같다고 하겠다. 든대를 받쳐주는 받침대를 ‘게’라 하는데 ‘고인다’는 뜻이다.

속초든대질놀이의 구성은 성주기(만선기)달기, 고사, 액막이, 비나리 등 넷으로 나뉜다. 먼저 성주기는 마을사람들이 만들어주거나 직접 만드는데 깃대에는 생소나무 가지를 묶으며 짚으로 만든 삼재막이를 달고 배성주를 모신다. 고사는 선주가 제관이 되며 도사공과 선소리꾼인 허리도리도 같이 고사를 올린다. 이유는 배가 오래가고 무사고를 비는 뜻이다. 제물은 술, 초, 향, 시루떡, 포 등을 간단히 차린다. 다음으로 액막이는 짚으로 만든 포막대에 불을 붙여 배의 이물과 고물로 다니며 소금을 뿌리고 고축하는 것이다. 불은 나쁜 것을 씻는 발양력을 지닌 것으로 주술적 행위를 하는 것이다. 비나리는 고사가 끝남 함께 무녀가 소복을 입고 징을 치며 기도를 드린다. 이때에 무녀들은 쾌자를 입지 않는다. 비나리의 일부를 적으면 다음과 같다.

“우리동무 열한명, 상고로 위엄하여, 조수타고 경세경년에, 포남서남 다니더니, 오늘날 속초시, 각성밭이 어부들이, 소원성취 비나이다. 동해신 아명이며, 남해신 축융이며, 서해신 거승이며, 북해신 웅강이며, 강한지종과 일체동감 하옵신후, 비렴으로 바람주고, 해약으로 인도하여, 백천금 되로내게, 소망이뤄주옵소서”라고 한다.



든대질은 기원과 액막이가 끝나면 허리도리가 선원, 괴꾼, 든대꾼이 합쳐서 매기는 선소리와 받는소리인 뒷소리를 하며 배를 내린다.

“자-자-자-자, 이럴적에 기운을 내고, 이럴적에 용기를 써라, 자지 향이 황금출이요, 개문향이 만복래라, 우리배를 내리다보니, 모진강풍이 불어온다, 이리저리 하다보니, 이내손발이 다얼었구나, 사공님은 배를내려, 정라진앞바다에 당도되니, 여보 사공님 가까운 곳으로, 어서 빨리 들어갑시다, 그것이 좋은 말이다, 정라진 들어가니, 막걸리장사가 지나치며, 나를 보고 손을 치네, 손을 치는데는 밤에 나가구, 동네술집은 낮에 나가자, 자-자- 이왕지사 왔던 걸음에, 죽서루나 구경가자, 삼척하면 죽서루요, 삼척바다를 떠나보니, 강릉앞바다가 나서는구나, 강릉하면 경포대요, 강릉 앞바다를 떠나가보니, 양양 앞바다가 나서는구나, 양양하면 낙산사요, 양양바다를 떠나가보니, 간성 앞바다가 나서

는구나, 간성하면 청간정이요, 청간정을 지내고 보니, 장전 앞바다가  
 나서는구나, 장전 바다에 들어가보니, 금강산 구경이나 가보세, 금강산  
 이 좋을시고, 동해끼고 솟은 산이, 일만이천 봉우리를, 구름같이 몰렸  
 으니, 천하명산 그 아니냐, 장안사를 구경하고, 만경대를 올라가니, 마  
 의태자 어디갔나, 장전 바다를 떠나보니, 원산바다가 나서는구나, 원산  
 앞바다에 들어가서, 이리저리 땡기다보니, 명사십리 나서는구나, 명사  
 십리 해당화야, 꽃이 진다고 설워마라, 명년 춘삼월 호시절에, 잎이 피  
 고 꽃이 핀다, 보고보고 암만봐도 보배이들 배이어라, 자-자-자-자  
 -”

설망은 처음 배가 물에 들어가면 성주기를 바닷물에 세 번 적신 후에  
 배에 달고 노를 저어 나가며, 돛을 올려 바다를 한바퀴 돈다. 마을사람  
 들과 어부들은 선주가 장만한 음식을 먹고 풍어와 무사고를 빈다. 마  
 지막으로 농악대가 나와서 배 걸립시에 무녀와 함께 풍악을 울리며 만  
 선과 무사조업을 빈다. 농촌 농악대와 달리 농기를 쓰지 않으며 도가  
 에서 악기를 보관하고 배 걸립할 때에만 사용한다.



## 6. 밧독재 용왕수살굿, 군웅장군굿놀이

속초는 난류와 한류가 교차되는 만큼 특이한 해양민속이 발달되었다. 어업에서는 한난류의 어업방식 및 풍습과 민간신앙은 복합적으로 얽혀지고 융화되어 속초지역의 특이한 어촌민속을 만들었다. 어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이 많으므로 조업도중 해난사고가 많아 태평안일을 기원하고 또한 영혼을 비는 곳을 수살굿이라 한다.

속초지역에서 전승되는 굿은 청호동 용왕위령굿, 외옹치 고폘이굿, 배다리(사진리) 수살굿, 외옹치 군웅장군굿놀이, 물치 용왕굿용떡놀이 등이 전한다.

‘배다리(용왕)수살굿’은 1989년 9월 9일 동해에서 개최된 제7회 강원민속경연대회에 출연하였다. 이후 1995년 제13회 강원도민속경연대회에도 같은 내용으로 출연하였다. 앞서 1990년 제8회에는 ‘밧독재용왕수살굿’으로 출연하였고, 1991년 제9회 강원민속경연대회에는 ‘외옹치 군웅장군굿놀이’로 출연하여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밧독재 용왕수살굿은 1983년 제1회 강원민속경연대회에 외옹치 ‘고포이’라는 내용으로 출연한 것이 시작이다. 그러므로 ‘배다리(사진리)용왕수살굿’이나 ‘밧독재(외옹치)용왕수살굿’은 수살굿의 전승지역인 사진리와 외옹치의 내용을 보여준 것이다.

밧독재 외옹치용왕수살굿은 바다에 나가서 영혼을 끌어올리는 마당과 육지에서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마당 등 2마당으로 구성하기도 하고, 배다리는 장승제, 성황제, 용신제의 세 마당으로 구성된다.

밧독재수살굿의 절차를 보면 무녀 2명, 화랭이(무격 악사) 2명, 사공 1명이 상주를 배에 태우고 바다로 나가 육지와 어느 정도 떨어지면 가지고 간 산닭의 다리에 끈을 묶어 바다에 던진다. 그때 밥그릇에 밥을 담아 끈으로 묶어 같이 던진 다음 화랭이가 혼을 끌어올리는 대나무 ‘인혼대’에 죽은 사람의 마른 속옷과 한지를 달아매고 빙글빙글 돌리면서 “금일 영가 아무개, 금일영가 아무개, 금일영가 아무개”라고 망자를 세 번 부른다. 이러면 배에 있는 상주는 “예”라고 대답을 한다. 화랭이



는 “젖은 옷은 벗어놓고 마른 옷으로 갈아입고 육지 환생하옵소서”라고 말한다. 이 과정은 상례의 초혼(招魂)과정을 무속적으로 치루는 내용이다.

인혼대를 몇 차례 더 휘두른 다음 그것을 내려놓고 바다에 던진 닭과 밥그릇을 끌어올린다. 끌어 올린 닭이 죽지 않았을 때는 혼백을 끌어 올리지 못했다고 생각을 한다. 화랭이는 끈을 당기면서 혼신전 염불인 ‘대다라니경’을 외운다. “심오장년 대다라니, 나무야 다라야바로기세 세 바라야 모지사바야”라고 하면서 바다에서 건져낸 혼백을 담은 돛자리와 위패를 굿당으로 모신다. 죽은 닭은 곧 망자(亡者)의 육신을 상징하며 여기에 혼백이 실렸다고 보는 것이다. 물에 빠져 죽은 망자의 혼백이 미망인(未亡人)에게 덮여서 소나무 신목을 잡고 강신이 되면 굿당에서 혼신을 건져 싸서 가져온 돛자리를 보고 쓰러지면 무녀가 미망인을 돛자리로 덮어준다. 그리고 무녀는 복숭아 나뭇가지를 가지고 돛자리를 때리면서 “온다~ 귀신아, 물에 수살귀신들 일척, 월척, 감척, 수구사자 귀신들 한 많고 원 많은 귀신들아, 잡귀잡신...”이라며 수살잡귀를 쫓는다. 전래에 의하면 동쪽으로 뺀 복숭아가지는 잡귀를 쫓으며 미친병을 쫓는데 효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를 이용한 것이다.

복숭아 나뭇가지로 때려 수살귀를 쫓으면 미망인은 평소처럼 정신이 바로 돌아오면서 아픈 몸이 깨끗해진다고 한다. 미망인은 비록 남편의 영혼이 안쓰럽지만 억울하게 죽어서 산 사람에게 해를 끼치게 되므로 일단 몸에 붙은 수살고혼을 씻어내고 이를 잘 천도하게 된다. 제정신으로 돌아온 미망인이 기쁜 마음으로 혼백을 길가름 해주는데 길가름은 혼백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곳이다.

상주와 친척들이 상복을 입고 광목천 옆에 길게 서면 무녀는 돛자리와 혼백상자를 가슴에 안고 춤을 추면서 몸으로 긴 광목천을 자르며 무가를 부른다. 무녀가 천을 잘라 길가름을 하면서 혼백집을 이끌고 나갈 때 상주들은 천 위에 노갓돈이라며 돈을 놓고 절을 하며 혼백이 잘 천도되기를 빈다. 천이 완전히 갈라 두 갈래가 되면 천을 양쪽에서 갈라쥐고, 머리 위까지 올리며 극락춤을 춘다. 극락춤은 상여소리를 하는데, 출상(出喪)하는 모습을 연상하게 된다. 무녀의 선소리에 맞추어 주민들이 상여꾼이 되어 뒷소리를 한다. 무녀와 함께 극락에 도달한

혼백을 위해 빠른 장단으로 극락춤을 함께 추고 나면 제사밥을 나누고 태평안일을 기원한다.

이 극락춤은 상주뿐만 아니라 평소 망자와 친했던 주민들이 한데 어울려 수살고혼이 된 망자의 혼백을 건져 올려서 좋은 곳으로 천도하는 의식이다. 무녀의 인도로 극락왕생을 한 망자의 고힌은 다시 미망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와 같은 의식은 빈번한 해난사고로 심적충격을 받은 미망인들을 위로하고 억울한 망자의 영혼은 좋은 곳으로 보낸다는 생각으로 행한다. 수살굿은 바다 속의 영혼을 끌어올리고 혼백을 위로하고 마침내 영혼을 극락에 오르는 장면을 보여준다. 속초지역의 특성으로 볼 때 이와 같은 오구굿 계통의 위령굿은 지역성을 반영한 무속의례임을 알 수 있다.

빛독재 군웅장군 굿놀이는 외옹치 마을에서는 마을제를 3년마다 한번씩 가을에 지낸다. 도가에서는 천하대장군과 지하여장군을 조각하고 부락제 하루 전에 북쪽마을 입구 어귀에 장승을 세운다. 마을제 아침부터 무녀들은 제주와 제관들을 앞세우고 장승 앞에서 제를 지내며 지신밟기를 하여 산 위에 위치한 성황당으로 올라가 장승신을 안치하고,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굿을 한다.



## 7. 설악 산신맞이놀이굿, 물치용왕굿 용떡놀이

설악산신 맞이놀이굿은 1993년 제11회 강원도민속경연대회에 출연하였고, 물치용왕굿 용떡놀이는 2000년 제18회 강원도민속경연대회에 출연하였다. 산신과 용왕신 굿놀이 제의를 주제로 하였다.

설악산신 맞이놀이굿은 설악산에 대한 제례행사가 신라 때부터 실시되었다. 고려 초에 작성한 김부식의 《삼국사기》 잡지 제1조 제사조에 의하면 신라시대에는 명산대천에다 정기적인 제사를 지냈는데, 그 규모에 따라 소사, 중사, 대사로 나뉘었다. 그 가운데 설악산은 소사(小祀)를 치른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설악은 신라 때 제사를 지냈다는 기록이 있으며, 이칭으로 설산(雪山), 설봉산(雪峰山), 설화산(雪華山) 등으로 불렀는데 그 어원은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한가위 때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하여, 이듬해 여름이 되어야 녹는 까닭으로 이렇게 이름 지었다는 것이다.<sup>222)</sup>

둘째는 암석의 색깔이 눈같이 하얗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는 것이고<sup>223)</sup>

셋째는 신성한 산이라는 뜻의 ‘솔피’에서 유래하였다는 것이다.<sup>224)</sup>

조선 중기 이만부(李萬敷:1664~1732)의 《지행록(地行錄)》에 의하면 첫째와 둘째 유래를 동시에 언급하고 있는데 “설악산은 산이 매우 높아 음력 8월(중추)이면 눈이 내리기 시작하며, 이듬해 음력 5월(여름)에 가서야 눈이 녹기 때문에 설악이라 이른다. 또 그 바위 봉우리의 돌 빛이 희고 깨끗하기 때문에도 또한 설악이라 부른다”고 하였다.<sup>225)</sup> 따라서 설악 명칭의 유래는 백설과 관련된 것, 암석과 관련된

222) 《新增東國輿地勝覽》 권44, 양양산천조 “부의 서북쪽 50리에 있는 진산으로 매우 높고 가파르다. 중추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하여 이듬해 여름이 되어야 녹는 까닭에 이렇게 이름지었다.”(在府西北五十里 鎮山極高峻 仲秋始雪至夏而消故名)

223) 金錦園, 《湖東西洛記》 “설악산을 찾으니 돌들은 불쭉불쭉 솟아 하늘에 닿았고, 산봉우리들 우뚝 벌려 있는데 돌들은 희기가 눈 같아 설악이라 이름했다.”(訪雪岳山 石勢連天 峯巒聳列 石白如雪 故名雪岳也) 김금원은 원주 태생으로 자세한 이력은 알 수 없으나 14세 때인 1830년 봄 3월에 남장을 하고 처음 금강산을 여행하였다. 규당학사 김덕희의 소실이 되었으며 서울 용산에 있는 삼호정에서 박죽서, 김운초, 김경춘 등과 시문을 주고 받았다. 1850년에 유명한 여류기행문인 《호동서략기》를 썼다.(필자 주)

224) 李殷相, 《雪岳行脚》《鷺山文選》永昌書館, 1958, 165쪽 “이 설악의 ‘설’이란 것은 결국 신성을 의미하는 ‘솔’의 음역인 것임만은 介疑할 것 없는 일이라 봅니다”

것, 신앙과 관련된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즉 외면적 양태와 정신적 세계관을 포함한 명칭으로 한반도에서는 유일하게 눈 설(雪)자를 사용한 ‘설악’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이 설악 산신맞이 놀이굿은 산신제를 지낸 후 산신을 마을로 모시고 와서 성황신과 용왕신을 동참시키는 과정에서 산신의 참여를 이끌기 위해 “문을 연다”는 의미로 펼치는 개문굿이다. 이 굿에 참가한 무녀들이 칼을 들고 일제히 신명나는 춤을 추면서 설악산신을 맞이한다.



물치용왕굿 용떡놀이는 대포동에서 전승된 굿놀이로서 대포에는 남녀 두 개의 성황당이 있는데, 이곳에서 해마다 성황제를 지내 마을의 안녕과 풍어를 기원하였다. 남녀 성황신에게 굿풀이를 한다음에 항구 인근의 공터에서 다시 용왕굿을 한다. 각 선주의 집에서 차려온 제상마당 용떡과 오방기가 놓인다. 이것을 펼쳐놓고 무녀들이 풍어굿하는 내용이다.

속초지역 어촌에서는 3년 또는 5년마다 용왕굿을 지내는데, 매년 연례적으로 제사를 지내는 마을제와 달리 별신제로서 풍어굿으로 행한다. 대포동 물치용왕굿은 3년마다 어촌계와 어민들이 중심이 되어 하

225) 김윤우, <설악산의 산수와 명승고적> 《山書》제15집, 한국산서회, 2004, 20쪽

는데 음력 9월 9일 제사가 끝난 당일 오후부터 시작한다. 예전에는 사흘 밤낮으로 굿을 할 정도로 큰 행사였다고 하는데, 용왕굿은 부정굿, 성황굿 등 12석(거리)을 한다. 마지막은 뱃놀이굿을 하는데, 이 굿이 끝나면 축항에 나가 물굿(용왕굿)을 지낸다. 이때 선주들도 각자 작은 음식상을 차려서 바닷가에 놓고 풍어와 안전을 기원하는 치성을 드리고, 어민들은 용왕신에게 바친 용떡을 머리에 이고 만선의 희망을 갖는다. 물치 용왕굿 용떡놀이의 구성은 제례, 용왕굿, 액막이, 용떡놀이, 오방기놀이, 뒷풀이 등 여섯마당으로 이루어진다.

첫째마당의 제례는 제관과 선주들이 각자 준비한 제사상에 주과포와 용떡, 향초를 간단하게 자려놓고 풍어와 안녕을 비는 치성을 드린다.

둘째마당은 용왕굿으로 동해안 별신굿 가운데 하나로 진행되는데 무녀들과 주민 모두 굿판에 참가하여 용왕굿 사설을 노래하면 춤을 춘다.

셋째마당은 액막이로서 액을 막는 의식이다. 무녀들이 각성받이 소원 풀이를 하고, 마을의 안녕과 무사조업을 기원하며 마을전체의 대동소지를 울리며 안녕을 빈다.

넷째마당은 용떡놀이로서 용왕신에게 바친 용떡 시루를 무녀가 머리에 이고 무녀와 주민들이 함께 춤을 춘다. 선주들에게는 머리에 한지를 접어서 만선기를 쫓는다. 신에 바친 음식은 주민들이 함께 음복을 한다.

다섯째마당은 오방기놀이로서 만선을 기원하는 오방기를 중심으로 깃발을 들고 현란한 기놀이춤을 춘다.

마지막 여섯째마당은 성황신과 용왕신에게 고축하며 주민 모두가 풍어와 안녕을 기원하는 무속 가락에 맞추어 한바탕 흥겨운 뒷풀이를 한다.

## 8. 짱치기 놀이

속초에서는 7~80여 년 전만 해도 짱치기가 성행하였다. 농한기에 나무하러 다니던 청년들이 나무를 해서 지고 돌아오던 중에 논밭이나 묵은 밭, 잔디밭, 들판에서도 하고 겨울에는 얼음판 위에서도 편을 갈라 놀았다. 짱치기는 ‘짱방울’이라 하여 주먹만하게 소나무 옹이로 공을 만들고, 끝이 꼬부라진 나무로 1m 정도되는 긴 ‘짱채’를 만들어서 상대방 문에 넣는다. 짱채가 없으면 지게 작대기를 이용하는데, 이 경기에서 진 편이 이긴 편이 나무를 대신 해주는 것을 걸고 매일 아침 짱치기를 했다. 그런데 8.15해방 후로는 놀이가 사라지고 지금은 그곳을 옛날 짱터라는 명칭만 남았다.

과거 중앙동의 짱치기나 대포, 밧독재의 패짱이 유명했다고 전하는데 중앙동 짱치기가 행해진 것은 1920년대 무렵이며 일제 강점기이후 금지되었다고 한다.

유명한 짱치기 터는 중앙동 공설운동장 들어가는 입구에서 우렁골로 들어가는 곳까지로 지금은 미시령으로 통하는 교차로이다. 그 당시의 지형은 양쪽에 낮은 산이 있고, 가운데가 우묵하게 골이 져 있었기 때문에 짱이 옆으로 도망가지 않아 안성맞춤의 장소였다고 한다.

짱치기터 서쪽 끝에는 약 5백 년쯤 되는 돌배나무 한 그루가 있었는데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그 나무를 성황목으로 섬겨왔으나 6.25사변 때 총상을 입고 고사했다고 한다. 그 나무를 성황목으로 섬겨오던 주민들에 의하면 수복 후에 명신국민학교가 설립되면서 그 나무를 베어 책걸상 재목으로 썼다고 한다. 당시 짱치기 서쪽 문이 있던 아래쪽으로 지금의 속초시 공설운동장이 들어섰다.

짱치기 골대는 한 평 크기로 세워놓았으며 놀이의 특별한 규정은 없고, 다만 짱치기에 능한 장정이 심판을 맡는다. 양쪽에 10명 정도씩 동·서군으로 편을 가른 다음 짱터 한가운데 짱을 박아놓은 다음 “짱반아라”하면서 시작된다. 경기의 제한은 짱을 상대방의 지게로 만든 골대에 넣는 숫자를 미리 정하여 먼저 득점을 하면 이긴다.

이 경기의 유래는 옛날 머슴들이 산에 가서 나무를 한 다음, 그 나무로 내기를 하면서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이긴 편이 진 편의 나뭇짐을 받기도 하고, 아침에 하는 경우에는 그날 나무 한 짐씩 해주는 것으로 내기를 했다고 한다. 속초지방의 짱치기는 매우 성행했던 것으로 전하는데, 나무로 만든 짱이 눈에 맞아 실명할 정도로 흥미로웠다고 한다.

## 9. 도문 봇물싸움놀이

속초시 도문동의 보(洑)는 도문동과 양양군 강현면 경계에 흐르는 쌍천변에 위치한 사람 인(人)자 모양의 보로서 조선조 중엽부터 근 삼백년간 매년 5월과 6월에 한해(旱害)로 가뭄이 심하면 이 마을과 강현면 사람들이 나와서 서로 물을 논에 대기 위해서 봇물싸움을 펼쳤다.

이 봇물싸움에는 백여 명 이상이 동원되어 영동에서는 가장 큰 규모였다고 전한다. 이때에 돌싸움 석전을 쌍방 간에 하기도 했으며, 밧줄로 보를 파는 주민들을 밀어내는 양 마을 간의 패싸움이 있기도 하였다.

‘보(洑, 深)’라고 하는 것은 날이 가뭄 때 물을 가두어 쓰기 위해 강 중간에 막아놓은 인공물을 말한다. ‘봇물터지다’는 말이 관용어처럼 널리 쓰이는데 이것은 실제로 보에 담아놓은 물이 터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현상이 크게 나타나는 것을 의미할 때 사용된다.

‘봇물’은 보에 권 물이나 거기서 흘러내리는 물로서 논농사에 필요한 물을 관리하는 공동체 조직의 명칭으로도 사용된다. ‘봇물’을 확보하는 것이 벼농사를 잘하는 수도재배(水稻栽培)의 관건이기도 했기에 아전인수(我田引水)라는 말처럼 자기 논에 물을 끌어대기 위한 ‘봇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기도 하였다. 또한 보를 관리하는 보주(洑主)가 등장하고, 마을에서는 보계(洑契)를 조직하여 운영하기도 하였으며 보주들이 보를 만드는데 자선하여 공헌한 인물을 위해 영세불망비를 세우기도 하였다.

실제로 보의 작업과정을 보면, ‘봇물’을 가둔 곳에는 몇 개의 물구멍을 뚫고 그곳에는 ‘못중’이라 하여 나무기둥을 막는다. 보의 물이 논으로 나가려면 ‘못중’을 뽑아야 이 구멍을 통해 ‘봇물’이 ‘물고’를 통해 빠져 나가게 된다. 따라서 ‘봇물’ ‘못중’ ‘물고’는 하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각각의 기능과 역할이 다르다. 우리는 물이 터져 나가는 것을 ‘물고(꼬)를 튼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막아놓은 보의 물을 터서 고랑으로 잘 흐르게 하듯이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한다는 뜻이다.

‘물고’는 농사지를 때 논에 물을 대기 위해서 고랑을 낸다는 말이고, 멀리 있는 저수지에서 논으로 물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



러나 눈에 물이 너무 많아서 물을 좀 빼야 할 때 ‘물고를 튼다’고 쓰인다. 이처럼 ‘붓물’이나 ‘물고’는 모두 농경문화의 물과 관련된 어휘임을 알 수 있다.

농가에서는 농번기가 다가오면 농부들이 물고를 거두기 시작한다. 이 작업을 보역사(洑役事)라고 하는데 ‘보역새’라고도 부른다. 이것은 농사를 짓기 위한 수로(水路)를 다듬는 일이라 곡우(穀雨)가 지나면 눈 녹은 물이 소실되지 않도록 화창한 날을 정하여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수로를 보수하는데 봄을 맞아서 마을사람들이 처음 모이는 연중행사로서 농경 시작인 곡우절과 연관이 있다.<sup>226)</sup>

조선시대 이후 진행된 도문붓물싸움에는 지휘자로 이교대(李敎大) 씨가 있었으며, 천하장사로 힘이 섰던 정덕오(鄭德五)씨도 참가하여 도왔다고 한다. 쌍방 간에 싸움이 커지자 일제강점기에는 대포주재소에서 나와서 양 대표 간에 합의를 이끌어 강현면 지구는 55만 평으로 3/5, 도문지구는 44만 평으로 2/5로 나누어 물을 대서 가뭄에 대비했다고 한다.

가뭄이 심하면 남녀노소 모두 나서서 파래(통파래, 함지파래)를 푸고 붓물을 조금이라도 더 끌어대려고 야단이었다. 이러는 가운데 서로 자기 눈에 한 바가지 물이라도 더 대려고 밤샘하며 지켜야 하고 남의 물고에서 물을 훔치기도 하였는데 이런 와중에서 말다툼이 시작되고 욕설과 손찌검이 오가다 싸움이 벌어지고 점차 확대되어 두레 간의 패싸움으로 발전, 심하면 살상까지도 불러일으키는 일도 있었으나 보싸움으로 인한 살상은 법으로도 크게 다루지 않는 풍습이 있었다. 하지만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언제 다투었냐는 식으로 쌍방이 모두 물러나와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며, 풍년을 기약하는 한마당 놀이가 펼쳐지고 온 마을이 화합의 잔치를 펼쳤다.

226) 곡우는 24절기의 여섯 번째 드는 절기로서 음력 3월, 양력 4월 20일경이다. 곡우의 뜻은 봄비가 내려 백곡을 기름지게 한다는 뜻으로 이때 못자리를 마련하고 법씨를 담그는 등 본격적인 농사철이 시작된다.



오늘날에도 쌍천에 물이 말라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가물 때는 농경 용수 문제로 다툼이 심하였다. 1970년 이후 새마을사업으로 관개수로 원활해지고, 두 마을간에는 서로 화합하고 양보하면서 이 붓물싸움놀이를 선의의 경쟁으로 승화시켜 놀이화하였다. 이 붓물싸움놀이는 박용실 씨의 고증과 김양서, 이무전 씨에 의해 재현되었다.

## 10. 영랑동 지정다지기

지금부터 수십 년 전에 속초리 1구 마을은 조선시대 말기부터 농악을 치면서 지정다지기를 했던 민속이 전한다. 이 마을은 아름다운 설악산의 정기와 천혜의 항구, 그리고 영랑호수에 인접한 전형적인 농촌마을로서 많은 주민들이 집을 지을 때 이와 같이 집터를 다지는 지정다지기를 하였다.

이 지역은 지질여건이 견고하지 못한 관계로 집터를 굳게 하기 위해서 지정다지기를 하였다. 지정다지기는 주로 낮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저녁부터 자정까지 횃불을 켜두고 집터를 다지기 시작한다.

집사가 “오늘 저녁에는 영랑동 장응석 씨 집을 짓기 위해 마을 이웃 모두 모여 지정다지기를 하겠다”고 고하면서 각종 제물을 차려놓고 축문을 외고 절을 한다. 이것은 토지신에게 고하는 제사라고 한다.

제사가 끝나면 집사와 집주인이 음복을 하고 집주인이 지정다지러 온 주민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술을 대접한다. 술을 마시고 나서 지정다지는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 서서 집사의 매기는 소리에 맞추어 집터를 다진다.

속초지정다지기소리는 다음과 같다.

“가을철이 얼른되니, 어이차(후렴)/저농부 거동보소/낮자루 꿈무니차고/  
검정소 앞세우고/이러툽처 썩나가니/나갈 적엔 빈말이요/돌아올 적엔  
찬말이라/말마같은 상노눔은/질방을 걸어 저들이고/비오리같은 종년들  
은/따발이 받쳐여들이고/앞마당 노적이요/바깥마당 노적이라/노적가리  
좋은시고”

이와 같이 노래를 부르며 지정을 다진다. 집사가 쉬었다가 할 것을 지시하면 마을사람들은 “어이차 어이차 어이차” 매기는 선소리에 맞추어 후렴을 합창한다. 모두 지정석을 동시에 높이 쳐들어 신호를 하고 휴식에 들어간다. 이때 술과 안주를 대접하는데, 농악대가 나와서 흥겹게 논다. 어느 정도 쉰 다음에는 다시 지정다지기를 하는데 날이 어두

위지면 여자와 아이들이 솜방망이에 불을 붙여 횃불을 들고 집터를 밝힌다.

지정다지기가 끝나면 집주인은 지정을 아주 잘 다져주어서 고맙다는 인사를 한다. 영랑동의 지정다지기는 동작의 통일성을 강조한 노동요가 불리면서 상호 간에 주민 서로 협동하는 정신이 반영된 민속노동유회라고 하겠다.

[참고문헌]

- 장정룡, 속초의 민속, 향토사료 2집, 속초문화원, 1987
- 장정룡, 속초시지 민속편, 속초시, 1991
- 장정룡, 속초의 향토민속, 속초문화원, 1992.8
- 장정룡, 속초시 어로민속지, 속초문화원, 1997.12
- 장정룡·김무림, 속초 청호동의 민속과 언어, 속초문화원, 1998.12
- 장정룡·양연석, 속초지역 구전설화집, 속초문화원, 1999.12
- 장정룡, 강원의 민요Ⅱ, 속초시 편, 강원도, 2002.12
- 장정룡·이한길, 속초의 민요, 속초문화원, 2003.10
- 장정룡, 강원도출신독립운동가 및 강원도거주실향민생애사조사연구, 강원발전연구원, 2005.10
- 장정룡, 산이 품은 사람 심메마니, 2006.7
- 장정룡, 속초시사 하권, 속초시사 편찬위원회, 2006.9
- 장정룡, 발해사자료 기초조사 학술연구, 속초시·속초시박물관, 2007.6
- 장정룡, 속초지역 실향민 구술조사, 속초시·속초시박물관, 2007.9
- 장정룡, 속초 도리원 농악, 속초문화원, 2008.3
- 장정룡 외, 강원지역 이북도민정착사, 속초시·속초시박물관, 2009.5
- 장정룡 외, 학정건축일기 번역 및 학술연구, 속초시·속초시립박물관, 2009.8
- 장정룡, 속초북청사자놀이 전승실태조사보고서, 속초문화원, 2010.12.29
- 장정룡 외, 학무정 시집번역 및 학술연구, 속초시·속초시박물관, 2011.2.
- 장정룡, 속초북청사자놀이 보존·전승체계연구, 속초시박물관, 2011.6.11
- 장정룡 외, 명산 설악산 기행문학과 민속문화, 속초시·속초시박물관, 2014.9.25.
- 장정룡, 강원의 마을민속(3-1 속초시), 강원도·국립민속박물관·강원도문화원연합회, 2015.2.28

장정룡, 명산설악 겨울빛으로 깨어나다 -문화콘텐츠로 돌아본 속초 설악산, 속초문화원, 2016.12.30.

### 〈논문〉

- 장정룡, 남북한문화 동질성 회복방안, 통일문제연구8, 강릉대통일문제연구소, 1991.12
- 장정룡, 속초의 어로민속, 속초문화 8호, 속초문화원, 1992.1
- 장정룡, 巫歌 바리데기, 강원민속학9, 강원도 민속학회, 1992.2
- 장정룡, 설악산 심메마니 연구, 강릉어문학7, 강릉대 국어국문학과, 1992.4
- 장정룡, 동해안 마을신앙과 설화, 인문학보15, 강릉대 인문과학연구소, 1993.6
- 장정룡, 설악문화제 발전계획, 속초시·설악문화제연구단, 1995.8
- 장정룡, 속초지역문화활성화, 속초연구 2호, 속초지역개발연구소, 1996.2
- 장정룡, 속초시의 민속문화, 束草市の 歷史와 文化遺蹟, 강릉대박물관, 1997.5
- 장정룡, 실향민의 생활과 문화, 분단강원의 이해, 한울아카데미, 1999.5
- 장정룡, 속초시 전통문화의 관광자원화 방안, 농촌생활연구, 농촌생활연구소, 2000.7
- 장정룡 외, 속초 영랑호 설화의 형상화 계획, 속초시, 2000.9
- 장정룡 외, 속초시의 축제, 강원민속학12, 강원도 민속학회, 2001.6
- 장정룡 외,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강원도, 2001.9
- 장정룡, 속초시 민요의 분포와 양상, 속초시 민속예술의 계승과 발전, 속초문화원, 2003.8.30
- 장정룡, 속초전통문화의 관광자원화 방향과 전략, 속초문화 제21호, 속초문화원, 2005.12.30
- 장정룡, 설악문화제의 민속학적 의미와 발전방향, 속초문화원, 2006.4.20

- 장정룡, 속초시 도문메나리농요의 전승과 기층, 속초시·속초문화원,  
2006.9.18
- 장정룡, 속초시 매곡오윤환 선생 풍속경관시 분석, 강원민속학 20,  
강원도민속학회, 2006.9.30
- 장정룡, 속초 실향민 민속놀이 콘텐츠개발, 속초시박물관, 2007.12.15
- 장정룡, 발해풍속과 설화고찰, 속초시·속초시박물관, 2007.12.21
- 장정룡, 북한지역 북청사자놀이, 속초문화 제23호, 속초문화원,  
2007.12.30
- 장정룡, 속초실향민 민속놀이의 콘텐츠, 속초문화 제23호, 속초문화원,  
2007.12.30
- 장정룡, 설악산 울산바위 전설고찰, 속초문화 제24호, 속초문화원,  
2008.12.30
- 장정룡, 발해사의 문화자원론적 활용방안, 발해역사관개관기념세미나,  
속초시, 2009.7.10
- 장정룡, 한국동해안 어촌해신제의 및 무인도서 신화연구,  
대만인류학회, 2009.10.24
- 장정룡, 속초도문메나리의 문화재적 가치와 의미, 강원민속학23,  
강원도민속학회, 2009.9.30
- 장정룡, 조선시대 설악산 기행문고찰, 속초문화 제25호, 속초문화원,  
2009.12.30
- 장정룡, 고유신앙, 강원도사3(고대) 강원도, 2010.6
- 장정룡, 속초실향민문화의 전승과 창조적 발전방안, 속초문화 제26호,  
속초문화원, 2010.12.31
- 장정룡, 속초영랑호 제영시의 서정성 고찰, 속초문화 제27호,  
속초문화원, 2011.12.31.
- 장정룡, 설초 이석범 선생의 애국 애향활동 고찰, 속초문화 28호,  
속초문화원, 2012.12.31
- 장정룡, 발해전설과 풍속연구, 국제아시아민속학 제4집,  
국제아시아민속학회, 2013.11.14.
- 장정룡, 설악산 영문기행일기와 설악동인계 고찰, 속초문화29호,  
속초문화원, 2013.12.31.

장정룡, 속초·고성지역아리랑의 전승과 특성, 강원민속학 29집,  
강원도민속학회, 2015.12.30.

장정룡, 강원 영북지역 어촌신앙의 전승실태, 강원도민일보, 속초시,  
2016.6.13.

장정룡, 속초사자놀음의 전승과 정착양상, 속초문화 제32호,  
속초문화원, 2016.12.31.

장정룡, 강원 동해안도서의 제의와 전설고찰, 강원문화연구37,  
강원대 강원문화연구소, 2018

장정룡, 속초사자놀이전승과 정착방안에 대한 논의, 속초문화원,  
2019.6.14



## [저자약력]

장정룡(張正龍)은 속초출신으로 현재 강릉원주대 교수(문학박사), 강원연구원 강원학연구센터장, 강원도 무형문화재위원장, 국제아시아민속학회 이사장, 속초시립박물관 운영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저서는 강원도 민속연구, 속초의 향토민속, 속초어로민속지, 속초청호동의 민속과 언어, 속초지역 구전설화집, 명산설악 겨울 빛으로 깨어나다 등 다수가 있다.



# 속초민속예술 이야기마당

---

**저 자** 장 정 룡  
**발행일** 2019년 12월  
**발행인** 김 계 남(속초문화원장)  
**편집인** 양 용 석(속초문화원 사무국장)  
**발행처** 속초문화원  
강원도 속초시 번영로 155  
전화 (033)632-1231 팩스 (033)632-1241  
**펴낸곳** 하늘공방  
**ISBN** 979-11-965930-5-6

<비매품>

---

이 자료집은 속초시 보조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자료집에 실린 글과 사진의 무단게재 및 재편집 출판, 상업적 활동을 금합니다



속초문화원

비매품/ 무료



9 791196 593056

03090

ISEN 979-11-965930-5-6